수호전

水滸傳 · 시내암 120회본(충의수호전)

제10권 (제109회 ~ 제120회)

시내암 (施耐庵, 약 1296–137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6-03

책 정보

원전

시내암 『수호전(水滸傳)』 120회본(충의수호전, 袁無涯 간행본 계열), 引首 +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水滸傳_(120回本)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3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宋江 → 송강, 林沖 → 임충)

- 별호는 본명으로 통일(及時雨 → 송강, 黑旋風 → 이규, 花和尚 → 노지심)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詞曰 → 시·사 형식 유지

>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100회 — 왕경이 강을 건너다 붙잡히고, 송강이 도적을 소탕하는 데 성공하다 6

제100회 — 연청이 추림에서 기러기를 쏘고, 송강이 동경성에서 포로를 바치다 29

제100회 — 장순이 밤에 금산사에서 매복하고, 송강이 지혜로 윤주성을 취하다 60

제100회 — 노준의가 병력을 나누어 선주도로 가고, 송공명이 비릉군에서 크게 싸우다 82

제100회 — 혼강룡 양산박에서 작게 의를 맺고, 송공명이 소주에서 크게 모이다 104

제100회 — 녕해군 송강이 효를 표하고, 용금문 장순이 신령의 곁으로 떠나다 126

제100회 — 장순이 혼령을 붙잡아 방천정을 부르고, 송강이 지혜로 영해군을 취하다 154

제100회 — 노준의가 병력을 나누어 흡주도로 가고, 송공명이 오룡령에서 대전하다 176

제100회 — 목주성에서 화살로 등원각을 쏘고, 오룡령에서 신령이 송공명을 돕다 197

제100회 — 노준의가 욱령관에서 대전하고, 송공명이 지혜로 청계동을 취하다 224

제100회 — 노지심이 절강에서 좌화하고, 송강이 금의환향하다 ... 255
제100회 — 송공명이 요아와에 신령스럽게 모이고, 휘종제가 꿈속에서 양산박을 유람하다 290

제100회 — 왕경이 강을 건너다 붙잡히고, 송강이 도적을 소탕하는 데 성공하다

王慶渡江被捉 宋江剿寇成功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날 송강이 막사로 올라가자 여러 장수가 곁에 모여 명령을 기다렸다. 포를 쏘고 북과 징을 울려 신호를 보낸 뒤 깃발을 올리니, 정지된 진영에서도 포성이 울려 퍼졌다. 각 진영의 초두목(哨頭目, 부대 지휘관)들이 차례로 막사 아래에 이르러 일제히 엎드려 엄숙히 대기하며 명령을 기다렸다. 신호수가 북을 치고 전령관이 명령을 전달하자, 초두목들은 차례로 머리를 조아린 뒤 양옆으로 물러나 섰다.

청색 깃발을 든 수기수(手旗)들이 순찰하며 명령을 전달할 때, 만약 함성이 고르지 않거나 대열이 흐트러진 자, 소란을 피워 명령을 어긴 자, 혹은 전장에서 겁을 먹고 물러나는 자가 있다면 모두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게 했다. 또한 기패관(旗牌官) 스무 명씩을 좌우로 배치하자, 송강이 선봉으로서 직접 이들에게 일렀다.

"너희는 진영 아래로 내려가 군사들을 독려하라. 만약 적을 만나고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거나, 겁을 먹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너희의 판단에 따라 잡아다 처벌해도 좋다."

기패관들이 명령을 받들어 각 진영으로 흩어지자, 징과 북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군사들은 각자 자기 대열로 돌아가 명령에 따라 움직일 준비를 했다. 송강이 수륙 양군의 장수들을 모두 배치하고 명령을 내리자, 신호수가 첫 번째 신호로 대열을 정비하게 했고, 두 번째 신호로 깃발을 뽑게 했으며, 세 번째 신호로 각 진영이 적을 향해 전진하게 했다. 이어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북을 치자 오방기(五方旗)가 펄럭이며 대포를 쏘아 올렸고, 신호수가 진영을 몰아붙이자 모든 부대가 진을 치고 출전하였으니, 바로 다음과 같았다.

천지를 뒤흔드는 북소리는 산악을 요동치게 하고,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깃발은 귀신조차 피하게 하네.

한편, 적군 왕경은 군사를 동원하여 적을 맞이하게 했다. 수군 장수 문인세숭 등은 이미 파견되었고, 가짜 병마도감(兵馬都監) 유이경을 정선봉으로, 동천의 가짜 병마도감 상관의를 부선봉으로 삼았다. 남풍의 가짜 통군(統軍) 이웅과 필선은 좌초(左哨)를 맡았고, 안덕의 가짜 통군 유원과 판충은 우초(右哨)를 맡았다. 가짜 통군 대장 단오가 합후(合後)의 우두머리이고, 가짜 어영사 구상은 부합후를 맡았으며, 가짜 추밀(樞密) 방한은 중군의 날개가 되었다. 왕경이 중군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수하에는 가짜 상서, 어영 금오위, 위가장군, 교위 등 수십 명의 관원과 각자의 부하 장수들이 포진해 있었다. 이조가 원수를 맡았다. 군마의 대열이 매우 정연했으며, 왕경이 직접 이를 감독했다. 말들

은 가죽 갑옷을 띠고 병사들은 철갑을 입었으며, 활과 노에는 시위가 걸려 있었다. 북소리가 세 번 울리자 모든 군사가 일제히 일어났다.

군사가 십 리도 못 가서 먼지가 일어날 무렵, 송군의 정찰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방울 소리가 울리며 서른 명 남짓한 기병 정찰대가 나타났는데, 모두 푸른색 관을 쓰고 녹색 전포를 입었으며, 말에는 붉은 술을 달고 양옆에 수십 개의 구리 방울을 매달았다. 뒤에는 꿩 깃털을 꽂았고, 은색 자루가 달린 긴 창과 가벼운 활, 짧은 화살을 갖추고 있었다. 선두에 선 장수는 황제의 칙명을 받아 옛 직위를 회복한 호기장군(虎騎將軍) 몰우전 장청이었다. 그는 금색을 입힌 푸른 관을 쓰고 수놓은 녹색 전포를 입었으며, 자색 벨트를 매고 부드러운 가죽신을 신은 채 은색 안장을 얹은 말을 타고 있었다. 그 왼쪽에는 칙봉된 정효의인(貞孝宜人) 경시족(瓊矢鏃) 경영이 있었다. 그녀는 자금색 구슬이 박힌 봉관을 쓰고 자색 비단 전포를 입었으며, 알록달록한 색의 벨트를 매고 붉은 비단에 봉황 무늬가 수놓아진 신을 신은 채 은빛 갈기를 가진 준마를 타고 있었다. 그 오른쪽 아래에서 깃발을 든 자는 칙봉된 의로운 종복(義僕)인 정배군(正排軍) 엽청(葉清)으로, 이조의 군대 앞 백여 보 거리까지 다가오더니 말을 돌려 물러났다.

전군 선봉인 유이경과 상관의가 말을 몰아 병사들을 이끌고 돌격했다. 장청은 말을 박차며 백리화창을 휘둘러 두 장수와 싸웠고, 경영 역시 말을 달려 방천화극을 휘두르며 전투를 도왔다. 네 장수가 십여 합을 겨루다 장청과 경영이 적장의 무기를 쳐내고 말을 돌려 물러났다. 유이경과 상관의가 병사들을 몰아 뒤쫓으며 좌우로 크게 외쳤다. "선

봉님, 저 둘을 쫓지 마십시오! 저들의 안장 속 주머니에는 돌멩이가 들어 있어, 사람을 때려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유이경과 상관의가 그 말을 듣고서야 겨우 말을 멈추었다. 그때 용문산 뒤편에서 북소리가 울리더니, 어느새 오백 명의 보병이 돌아 나왔다. 앞장선 네 명의 보병 장수는 바로 흑선풍 이규, 혼세마왕 범서, 팔비나찰 항충, 비천대성 이곤이었다. 그들 뒤로 오백 명의 보병이 산비탈 아래에 일렬로 늘어서서 양옆으로 방패를 세워 진을 쳤다. 유이경과 상관의가 병사들을 몰아 공격하려 하자, 이규와 범서가 보병을 이끌고 두 갈래로 나뉘어 거꾸로 든 방패를 휘두르며 산비탈을 돌아 달려 나갔다. 이때 왕경과 이조의 대군이 도착하여 일제히 공격해 들어왔다. 이규와 범서 일행은 산 위로 뛰어올라 고개를 넘고 숲을 지나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이조가 명령을 내려 군마를 이 넓은 평원에 진을 치게 했다.

그때 산 뒤에서 포성이 울리더니, 산 남쪽에서 군마 한 무리가 세 장수를 호위하며 쏟아져 나왔다. 가운데는 왜각호 왕영, 왼쪽은 소위지 손신, 오른쪽은 채원자 장청이었다. 이들은 마보군(馬步軍) 오천 명을 거느리고 달려들었다. 왕경이 막 장수를 보내 맞서려는데, 또다시 산 뒤에서 포성이 울리더니 산 북쪽에서 세 여장수를 호위하는 군마가 나타났다. 가운데는 일장청 호삼낭, 왼쪽은 모대충 고대소, 오른쪽은 모야차 손이낭이었다. 이들은 마보군 오천 명을 거느리고 달려와 적군의 우초인 유원과 판충의 부대를 만나 맞붙어 싸웠다. 왕영 일행은 적군의 좌초인 이웅과 필선의 부대를 만나 맞붙었다. 양측이 십여 합을 겨루는 사이, 남쪽의 왕영, 손신, 장청은 말을 돌려 동쪽으로 달아났고, 북쪽

의 호삼낭, 고대소, 손이낭 역시 말을 돌려 군사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달아났다.

왕경이 이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송강의 수하들은 죄다 저런 겁쟁이들뿐이구나. 어찌하여 내 장수들이 번번이 패하는 것이냐?" 그러고는 대군을 몰아 추격하게 했다. 오륙 리를 가지 못해 갑자기 징 소리가 한 번 울리더니, 방금 도망쳤던 이규, 범서, 항충, 이곤 네 장수가 산 왼쪽 숲에서 나타났다. 여기에 화화상 노지심, 행자 무송, 몰면목 초정, 적발귀 유당까지 네 명의 장수와 오백 명의 보병이 방패와 단병을 들고 일제히 돌격해 왔다. 적군 부선봉 상관의가 급히 보병 이천 명을 내보내 맞서게 했다. 이규와 노지심이 적군과 몇 합을 겨루더니,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듯 방패를 거꾸로 들고 두 갈래로 갈라져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적군이 뒤쫓았으나 이규 일행은 워낙 빨라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져 사라졌다. 이를 본 이조가 급히 왕경에게 말했다. "대왕님, 추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적을 유인하는 계책입니다. 일단 진을 치고 적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조가 상장대(上將臺)에 올라 진을 채 마치기도 전이었다. 산비탈 뒤편에서 하늘을 뒤흔드는 포성이 울리더니, 산비탈 너머로 대규모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급히 달려와 중앙을 점령하고 진형을 갖추었다. 왕경이 좌우에 명하여 말들을 멈추게 하고 상장대에서 내려다보니, 정남쪽에서 몰려오는 한 무리의 군마는 온통 붉은 깃발에 붉은 갑옷, 붉은 전포, 붉은 술을 단 붉은 말뿐이었으며, 앞에는 금색 장식이 달린 붉은 인군기(引軍旗)가 휘날리고 있었다. 붉은 깃발이 나부끼는 곳에서 한 명의 대장이 솟아나오니 바로 벽력화 진명이었다. 그의

왼쪽에는 성수장군 단정규가, 오른쪽에는 신화장군 위정국이 있었는데, 세 장수 모두 무기를 손에 들고 붉은 말을 탄 채 진 앞에 섰다.

동쪽 벽에는 온통 푸른 깃발에 푸른 갑옷, 푸른 전포, 푸른 술을 단 푸른 말뿐인 한 무리의 군마가 있었고, 앞에는 금색 장식이 달린 푸른 인군기가 나부끼고 있었다. 깃발이 흔들리자 푸른 깃발 속에서 한 명의 대장이 솟아나오니 바로 대도 관승이었다. 그의 왼쪽에는 축군마 선찬이, 오른쪽에는 정목안 학사문이 있었으며, 세 장수 모두 무기를 들고 푸른 말을 탄 채 진 앞에 섰다.

서쪽 벽에는 온통 흰 깃발에 흰 갑옷, 흰 전포, 흰 술을 단 흰 말뿐인 군마가 있었고, 앞에는 금색 장식이 달린 흰 인군기가 나부끼고 있었다. 깃발이 흔들리자 흰 깃발 속에서 한 명의 대장이 솟아나오니 바로 표자두 임충이었다. 그의 왼쪽에는 진삼산 황신이, 오른쪽에는 병위치 손립이 있었으며, 세 장수 모두 무기를 들고 흰 말을 탄 채 진 앞에 섰다.

뒤편의 한 무리 군마는 온통 검은 깃발에 검은 갑옷, 검은 전포, 검은 술을 단 검은 말뿐이었고, 앞에는 금색 장식이 달린 검은 인군기가 나부끼고 있었다. 깃발이 흔들리자 검은 깃발 속에서 대장 쌍편 호연작이 나타났다. 그의 왼쪽에는 백승장 한도가, 오른쪽에는 천목장 팽기가 있었으며, 세 장수 모두 무기를 들고 검은 말을 탄 채 진 앞에 섰다.

동남쪽 문 깃발의 그림자 사이로 푸른 깃발에 붉은 갑옷을 입은 군마 한 무리가 나타났다. 앞의 수놓은 인군기가 나부끼자 대장 동평이

솟아나왔다. 그의 왼쪽에는 마운금치 구팽이, 오른쪽에는 화안산예 등비가 있었으며, 세 장수 모두 무기를 들고 전마를 탄 채 진 앞에 섰다.

서남쪽 문 깃발의 그림자 사이로 붉은 깃발에 흰 갑옷을 입은 군마 한 무리가 나타났다. 앞의 수놓은 인군기가 나부끼자 대장 속초가 솟아나왔다. 그의 왼쪽에는 금모호 연순이, 오른쪽에는 철적선 마린이 있었으며, 세 장수 모두 무기를 들고 전마를 탄 채 진 앞에 섰다.

동북쪽 문 깃발의 그림자 사이로 검은 깃발에 푸른 갑옷을 입은 군마 한 무리가 나타났다. 앞의 수놓은 인군기가 나부끼자 대장 구문룡 사진이 나타났다. 그의 왼쪽에는 조간호 진달이, 오른쪽에는 백화사 양춘이 있었으며, 세 장수 모두 무기를 들고 전마를 탄 채 진 앞에 섰다.

서북쪽 문 깃발의 그림자 사이로 검은 깃발에 검은 갑옷을 입은 군마 한 무리가 나타났다. 앞의 수놓은 인군기가 나부끼자 대장 청면수 양지가 나타났다. 그의 왼쪽에는 화표자 양림이, 오른쪽에는 소패왕 주통이 있었으며, 세 장수 모두 무기를 들고 전마를 탄 채 진 앞에 섰다.

팔방으로 배치된 모습이 마치 철통처럼 견고했다. 진문 안에서는 기병은 기병 대열을 따르고 보병은 보병 대열을 따라 각자 강도와 큰 도끼, 넓은 칼과 긴 창을 들었으며, 깃발과 번(幡)이 정연하여 대열이 위엄 있었다. 팔진의 중앙에는 황색 깃발이 꽂혀 있고, 그 사이로 예순네 개의 장각기(長脚旗)가 세워져 있었다. 그 위에는 금색으로 육십사괘가 새겨져 있었으며, 또한 네 개의 문으로 나뉘어 있었다. 남문은 모두

기병이 맡았다. 정남쪽 황색 깃발의 그림자 사이에서 두 명의 상장이 나타났는데, 앞쪽은 미염공 주동이었고 뒤쪽은 삽치호 뇌횡이었다. 인마는 온통 황색 깃발과 황색 전포, 구리 갑옷, 황색 술을 단 황색 말을 갖추고 있었다. 중앙 진의 동문에는,

금안표 시은이 동문에, 서문에는 백면낭 정천수가, 남문에는 운리금강 송만이, 북문에는 병대충 설영이 배치되었다. 황색 깃발 뒤편에는 대포 거치대들이 모여 있었는데, 포수 굉천뢰 릉진이 부관 스무여 명을 거느리고 포 거치대를 에워싸고 있었다. 거치대 뒤에는 적장을 낚아챌 갈고리와 밧줄들이 놓여 있었고, 갈고리 주변으로는 형형색색의 깃발들이 둘러쳐져 있었으며 사방에는 이십팔수 성신(星辰)의 깃발이 세워져 있었다. 금색 자수가 놓인 깃발 한가운데에는 진주를 둘러 장식하고 밑에는 금방울을 달았으며, 꼭대기에는 꿩 깃털을 꽂은 거위 노란색의 '수(帥)' 자 깃발이 솟아 있었다. 그 깃발을 지키는 장사는 물고기 꼬리 모양의 관을 쓰고 용 비늘 무늬 갑옷을 입었으며, 키가 한 장(丈)에 위풍당당하니 바로 험도신 욱보사였다. 깃발 양옆에는 호기(護旗)를 맡은 두 장수가 전마를 타고 똑같은 차림으로 강철 창을 든 채 서 있었는데, 한 명은 모두성 공명이고 다른 한 명은 독화성 공량이었다. 말의 앞뒤로는 낭아곤을 든 철갑 군사 스물네 명이 줄지어 있었다. 그 뒤로는 전투용 자수 깃발 두 개가 나부끼고, 양옆으로는 방천화극 스물네 자루가 늘어선 가운데 용맹한 장수 두 명이 나타났다. 왼쪽은 소온후 여방이고 오른쪽은 사이인귀 곽성이었다. 두 장수는 각각 화극을 들고 말 양옆에 섰다. 화극 사이에는 강철 창들이 모여 있었는데, 보병 장수 두 명이 똑같은 차림으로 서 있었으니, 한 명은 양두사 해진이고 다른 한 명은 쌍미갈 해보였다. 이들은 각각 세 갈래로 갈라진 연화차를 들고

중군을 호위했다. 그 뒤로 비단 안장을 얹은 말 두 마리가 따랐는데, 왼쪽은 성수서생 소양이고 오른쪽은 철면공목 배선이었다. 두 말 뒤로는 자색 옷을 입고 절(節)을 든 자들과 마찰도(麻扎刀, 큰 칼)를 든 군사들이 늘어섰다. 마찰도 부대 가운데에는 두 명의 처형 집행인이 서 있었는데, 위쪽은 철비박 채복이고 아래쪽은 일지화 채경이었다. 진의 양옆에는 금창과 은창을 든 병사들이 배치되었고, 양쪽에는 대장들이 부대를 이끌었다. 금창대에는 금창수 서녕이, 은창대에는 소이광 화영이 있었다. 그 뒤로는 비단 옷을 입은 무리가 짝을 지어 늘어섰는데, 화려한 모자와 붉은 전포, 비단 저고리가 무리 지어 장관을 이루었다. 양쪽 벽에는 푸른 휘장과 붉은 깃발, 황색 도끼와 흰 깃발, 푸른 번개 모양의 깃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양행의 도끼와 채찍이 교차하는 가운데, 금색 우산 세 개 아래로 비단 안장을 얹은 준마 세 마리가 있었고, 그 위에는 세 영웅이 앉아 있었다.

오른쪽은 별관을 쓰고 학창의를 입어 바람과 비를 부른다는 입운룡 공손승이었고, 왼쪽은 갓을 쓰고 부채를 들어 문무를 겸비했다는 지다성 오용이었으며, 정중앙에는 밤을 밝히는 옥사자(照夜玉獅子) 금안장 위에 앉아, 인의를 갖추고 적을 평정했다는 정서선봉 산동의 급시우이자 호보의인 송공명이 앉아 있었다. 그는 온갖 무장을 갖추고 보검을 찬 채 진중에서 전투를 감독하며 중군을 장악했다. 말 앞 왼쪽에는 신행태보 대종이 서서 군사 기밀을 전하고 병사를 움직였으며, 오른쪽에는 낭자燕青이 서서 중군을 호위하며 기밀한 일을 도맡았다. 말 뒤로는 큰 창과 긴 칼, 비단 안장을 얹은 준마들이 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서른다섯 명의 야장(牙將)들이 모두 전마를 타고 긴 창과 활을 갖춘 채 서 있었다. 그 뒤로는 나팔 소리와 함께 북과 징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의 뒤쪽에는 또 다른 두 부대의 유병(游兵, 예비군)을 두어 양옆에 매복시켜 중군의 날개가 되게 했다. 왼쪽은 석장군 석용과 구미구 도종왕이 마보병 삼천 명을 거느렸고, 오른쪽은 몰차란 목홍이 아우인 소차란 목춘과 함께 마보병 삼천 명을 거느리고 양옆에 매복했다. 이 진형은 매우 치밀하고 견고하였으니, 바로 이러하다.

군사는 지략이 많고 장수는 도량이 넓으니,
용을 탄 기세로 용맹한 군사들이 말 위로 몰려드네.
서쪽 땅의 평화로운 공적을 세우기 위해 지휘하고,
도적을 소탕하는 공을 세우려 크게 호통치네.

그 초두천자 왕경은 이조와 함께 상장대 위에서 송강의 군마를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았다. 송강의 군사들은 용맹하기 그지없고 장수들은 영웅적이었으며, 군용은 엄숙하고 병기들은 날카로워 그 기세가 대단했다. 이를 본 왕경은 혼비백산하여 간담이 서늘해졌고, 연신 이렇게 말했다.

"장수와 병사들이 번번이 패배한 이유가 바로 저 무리가 저토록 대단했기 때문이었구나!"

송군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왕경과 이조는 상장대에서 내려와 전마에 올라탔는데, 좌우로는 금오호가(金吾護駕, 황제의 호위병)를 비롯한 수행원들이 따랐고, 말 뒤로는 수많은 내시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왕경이 명령을 내려 전부 선봉을 출전시켜 충격하라고 일렀다. 이때 동서로 진을 치고 맞붙었으니, 그날의 일진은

목(木)의 날이었다. 송군 진영의 정서쪽 문에서 깃발이 열리자, 표자두 임충이 깃발 아래에서 말을 몰아 진을 나섰고, 양군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임충은 말을 멈춰 세우고 장팔사모를 가로로 뉘어 든 채 매서운 목소리로 외쳤다.

"무지한 반역자 놈들, 모반을 꾀하는 광도들아! 천병이 여기까지 당도했거늘 아직도 항복하지 않느냐! 너희의 뼈와 살이 진흙이 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적진의 이조는 본래 점술가 출신이라 상생상극의 이치를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급히 명령을 내려 우초(右哨, 오른쪽 초소)의 유원과 판충에게 홍기군을 이끌고 돌격하라고 일렀다. 유원과 판충은 명을 받들어 홍기군을 거느리고 말을 몰아 돌진해 왔다. 양 진영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고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임충은 유원과 맞붙어 싸웠는데, 네 팔은 종횡으로 휘둘러지고 여덟 발의 말굽이 어지럽게 움직였다. 두 장수는 자욱한 먼지와 살기 속에서 좌우로 회전하며 오십여 합을 싸웠으나 승패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유원은 적군 중에서도 용맹한 장수였기에, 판충은 유원이 승기를 잡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말을 몰아 칼을 들고 달려들어 전투를 도왔다. 임충은 두 장수를 상대하며 크게 한 번 호통을 치더니, 신위(神威)를 떨치며 창을 내질러 유원을 말 아래로 찔러 떨어뜨렸다. 그사이 임충의 부장인 황신과 손립이 말을 몰아 진을 뚫고 나왔다. 황신이 상문검(喪門劍)을 휘둘러 판충을 향해 내리치니, 판충의 이마가 살점과 함께 쩍 갈라지며 금모(金鍪, 황금 투구)가 말 옆으로 툭 떨어졌다.

판충이 말 아래로 떨어져 죽자, 수하 군졸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고 진영은 일찌감치 무너졌다. 적군 병사들이 급히 중군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왕경은 순식간에 장수 두 명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히 명령을 내려 군대를 퇴각시키려 했다. 이때 송군 진영에서 포성이 한 번 울려 퍼지더니, 병사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흰색은 검은색을 이끌고, 검은색은 푸른색을 이끌며, 푸른색은 붉은색을 이끄는 식으로 병사들이 마치 긴 뱀처럼 길게 늘어지거나, 키를 휘두르는 모양 혹은 바구니를 엮은 모양의 진을 짜며 적을 에워싸고 몰려왔다. 왕경과 이조는 장수들을 배치하고 병사들을 보내 각기 나누어 공격해 보았으나, 마치 구리 벽과 철벽을 마주한 듯 도무지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관군과 적군이 벌이는 이 치열한 싸움을 시로 읊자면 이러하다.

병장기가 부딪치고 병사들과 말이 종횡으로 누빈다.

창과 도(刀)가 맞붙을 때, 칼이 머리를 쪼갤 듯이 내리치면 창은 반드시 낚시질하듯 받아내야 한다. 칼이 아래로 쏟아지듯 내려치면 창은 반드시 땅을 훑으며 맞서야 하고, 칼이 뒤로 끌어당기며 돌아오면 창은 반드시 휘둘러 막아내며 지켜야 한다.

창과 도가 맞붙을 때, 창이 심장을 찌를 듯이 들어오면 칼은 오화(五花, 칼을 휘두르는 다섯 가지 방식)를 써서 막아야 하고, 창이 눈을 찌를 듯이 예리하게 들어오면 칼은 탐마(探馬, 칼끝을 찔러 넣는 법)를 써서 격퇴해야 한다.

선(筅, 긴 창이나 몽둥이)과 패(牌, 방패)가 맞붙을 때, 방패가 몸을 굴리며 전진해 오면 선은 바람을 일으키듯 쓸어버려 맞서야 한다. 방패가 옆에서 추격해 오면 선은 반드시 비스듬히 찔러 넣어 기다려야 하고, 방패가 밀어붙이며 들어오면 선은 반드시 뒤로 물러나며 찔러내야 한다.

선과 패가 맞붙을 때, 선이 가슴 높이로 오면 방패는 낮게 앉는 자세로 피해야 하고, 선이 떼로 몰려들면 방패는 자르고 끊어내는 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외칼을 찬 장수는 실타래를 꼬듯 휘두르며 지는 척 속임수를 쓰고, 철차를 든 장수는 위아래로 몰아치며 옆으로 움직여 공격과 회피를 반복한다. 말 위에서는 소매 속 화살로 적을 노리고, 수레 앞에서는 갈고리 모양의 무기로 말의 다리를 기다린다.

채찍, 철간(鐧), 골타, 철퇴, 검, 극, 모, 방패까지, 저쪽의 파훼법은 끝이 없고 이쪽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

순식간에 피는 강물처럼 흐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시체는 산처럼 쌓이도다.

치열한 전투가 한참 동안 이어지자, 적군은 대패하고 관군은 크게 승리했다. 왕경은 일단 남풍성 대궐 안으로 퇴각하여 다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후방에서 포성이 울리더니, 전령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대왕님, 뒤에서 또 송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세등등한 군대의 선봉에 선 영웅 대장은 바로 부선봉인 '옥기린' 노준의였다. 그는 점강창을 거침없이 휘두르며 앞장섰고, 그 왼쪽에는 묵직한 도(刀)를 쓰는 호걸 '병관삭' 양웅이 있었으며, 오른쪽에는 역시 도를 쓰는 장수 '병명삼랑' 석수가 있었다. 이들은 만 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기운을 북돋우며, 적의 정·부(正副) 후위 부대(합후군)를 들이쳐 흩어놓았다. 양웅은 단오를 베어 넘겼고, 석수는 구상을 찔러 죽이며 함께 적진을 향해 거침없이 돌격했다.

왕경이 한창 당황하고 있을 때, 또다시 포성이 울려 퍼졌다. 왼쪽에서는 노지심, 무송, 이규, 초정, 항충, 이곤, 번서, 유당 등 여덟 명의 용맹한 장수들이 천 명의 보병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들은 선장, 계도, 판부, 박도, 상문검, 비도, 표창, 단패를 휘두르며 이웅과 필선을 마치 채소를 써는 것처럼 거침없이 베어 넘기며 밀고 들어왔다. 오른쪽에서는 장청, 왕영, 손신, 장청, 경영, 호삼낭, 고대소, 손이낭 등 네 쌍의 영웅 부부가 천 명의 기병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들은 이화창, 편강창, 방천화극, 일월쌍도, 강창, 단도를 휘두르며 왼쪽 초소의 군사들을 흩어버리고, 마치 마른 나무를 꺾듯 거침없이 돌격해 들어왔다. 이들의 기세에 적군은 사방으로 찢기고 갈가리 흩어져, 마치 빗물에 흩어지는 가루처럼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져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노준의, 양웅, 석수가 중군을 향해 들이치다 방한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노준의가 창으로 방한을 단번에 찔러 죽이자 중군의 날개 역할을 하던 병사들이 흩어졌다. 이들은 곧장 왕경을 잡으러 달려갔으나, 그 길에 '금검선생' 이조와 마주쳤다. 이조는 검술이 뛰어난 자로, 그가 휘두르는 검은 마치 번갯불이 치듯 매서웠다. 노준의가 그 검술을 당해

내지 못하고 고전하던 그때, 마침 송강의 중군 병사들이 도착했다. 우군 장수인 '입운룡' 공손승이 입으로 주문을 외우며 크게 외쳤다. "가라!" 그러자 이조가 쥐고 있던 검이 손을 떠나 바닥으로 떨어졌다. 노준의는 즉시 말을 몰아 다가가 원숭이처럼 팔을 뻗고 늑대처럼 허리를 비틀며 이조를 낚아채더니, 그대로 말 옆에 끼고 달려와 군사들에게 결박하게 했다. 노준의는 다시 창을 다스리며 말을 몰아 왕경을 잡으러 거침없이 돌격했다. 그 기세가 마치 매가 제비 뒤를 쫓고 호랑이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듯했다. 적군들은 금붙이와 북을 내팽개치고, 창과 극을 버린 채 살기 위해 주인과 형제를 부르짖으며 도망치기 바빴다. 십여 만에 달하던 적군 중 태반이 죽임을 당했다. 시체는 들판에 가득했고 피는 강물처럼 흘렀다. 항복한 자는 삼만 명이었으나, 겨우 도망친 자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죽기 직전의 상태이거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땅바닥을 굴렀다. 말과 사람에게 짓밟혀 살점이 진흙처럼 으스러진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유이경과 상관의라는 두 용맹한 장수도 초정에게 말과 함께 베여 말에서 떨어졌고, 결국 그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 필선은 도망치려 애쓰던 중, 갑자기 나타난 '활섬파' 왕정륙에게 박도를 찔려 말에서 떨어졌고, 이어서 가슴에 박도를 맞고 목숨을 잃었다. 가짜 상서, 추밀, 전수, 금오, 장군 등 적진의 고관들은 모두 도망치지 못했다. 다만 우두머리인 왕경만 자취를 감추었을 뿐, 송군은 대승을 거두었다.

송강은 징을 울려 병마를 집결시킨 뒤 남풍성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장청과 경영에게 기병 오천을 주어 먼저 정찰하게 하고, '신행태보' 대종을 보내 손안이 남풍성을 공격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오라 명

했다. 대종은 명을 받들고 신행법을 펼쳐 장청과 경영보다 앞서 달려갔다. 잠시 후 돌아온 대종이 보고했다.

"손안이 선봉장의 명령을 받들어 서방 군사로 변장해 성을 기습하려 했으나, 적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적들은 성문 안쪽에 함정을 파 놓고 동문을 열어 군마를 유인했습니다. 손안의 부장인 매옥, 김정, 필첩, 판신, 양방, 풍승, 호매 일곱 명과 오백 명의 군사가 앞다투어 성안으로 뛰어들었으나, 사람과 말 모두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양쪽에서 복병들이 일제히 나타나 장창과 날카로운 극으로 매옥 일행 오백여 명을 모조리 찔러 죽였습니다. 다행히 손안이 뒤에서 기세를 몰아 용맹하게 성문으로 돌격하여 군사들이 함정을 메우게 했습니다. 손안이 앞장서서 병사들을 이끌고 성안으로 들이치자 적군들은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손안이 동문을 탈환했으나, 곧이어 적들이 사방에서 응응하며 나타나 손안의 병마를 동문에서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보고합니다. 오는 길에 장 장군과 장 부인(장청의 아내)을 만나 이 상황을 전했으니, 두 분도 급히 말을 몰아 달려가셨습니다."

송강은 보고를 듣자마자 대군을 재촉하여 남풍성을 포위했다. 당시 장청과 경영은 동문을 통해 들어갔으나, 손안이 동문을 지키고 있어 적군과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 틈을 타 송강과 장수들이 병마를 이끌고 동문으로 들이닥쳐 성을 탈환하고 적군을 흩어버리니, 성의 네 문에 송군의 깃발이 높이 휘날렸다. 성안에 있던 가짜 문무 관원 범전 등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가짜 비인 단삼낭은 군마가 성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본래 힘이 세고 말도 잘 탔기에, 옷매무새를 단단히 매고 힘 있는 내시 백여 명을 거느린 채 병기를 들고 왕궁을 떠나 후원으로 나갔다. 서문으로 탈출해 운안주 군대에게 가려 했으나, 마침 경영이 이끄는 병사들이 후원까지 들이닥쳤다. 단삼낭은 말을 몰아 보도를 휘두르며 죽기살기로 맞서 싸웠다. 그러나 경영이 던진 돌 하나가 단삼낭의 얼굴 정중앙에 명중했고, 그녀는 피를 쏟으며 말에서 떨어져 하늘을 향해 거꾸로 처박혔다. 군사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붙잡아 결박했다. 함께 있던 내시들은 모두 송군에게 죽임을 당했다.

경영이 병사를 이끌고 후원 내궁까지 들이치자, 궁녀와 빈녀들은 송군이 들어왔다는 소식에 스스로 목을 매거나 우물에 뛰어들고, 칼에 목이 베이거나 계단에서 몸을 던지는 등 태반이 자결했다. 나머지는 모두 경영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에게 붙잡혀 송강의 진영으로 끌려갔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단삼낭 일행을 가두어 두었다가, 나중에 왕경까지 잡게 되면 한꺼번에 경사로 압송하기로 했다. 이어 그는 장수들을 사방팔방으로 보내 왕경을 추격하게 했다.

한편, 왕경은 수백 명의 철기병을 이끌고 포위망을 뚫고 나왔으나, 남풍성 동쪽으로 도망치던 중 성안에서 병사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고는 혼비백산했다. 뒤이어 대군이 들이닥치자 그는 북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좌우를 둘러보니 겨우 백여 명의 기병뿐이었고, 평소 가장 신임하던 자들도 오늘 패가망신하게 되자 모두 도망쳐 버린 뒤였다. 왕경은 백여 명의 무리와 함께 운안주를 향해 달아나며 곁에 있는 측근에게 말했다.

"과인에게 아직 운안, 동천, 안덕 세 성이 남아 있으니, 강동이 비록 작다 하나 충분히 왕 노릇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아까 도망친 관리들이 평소에는 과인의 녹봉과 혜택을 누리더니, 막상 일이 터지니 모두 제 갈 길로 가버린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내가 다시 군사를 일으켜 송군을 물리치고 도망친 자들을 잡아들이면, 그놈들을 하나하나 아주 잘게 다져 죽여버리겠다."

왕경과 일행은 말의 걸음을 늦추지 않고 사람도 쉬지 않으며 달려가니 어느덧 날이 밝았다. 다행히 멀리 운안주의 성곽이 보였다. 왕경은 말 위에서 기뻐하며 말했다.

"성안의 장병들이 참으로 신중하구나. 저 깃발이 가지런하고 병기들도 빈틈없이 정돈된 것을 보아라!"

왕경이 말을 이으며 일행과 함께 성 가까이 달려가는데, 수행원 중 글을 아는 자가 외쳤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여 성 위에 온통 송군의 깃발뿐입니까?"

왕경이 그 말을 듣고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동문 성벽 위에 멀리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깃발에는 금색 글자로 '어서송선봉휘하수군정장혼강…'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 끝자락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세 글자가 더 있었다. 왕경은 이를 보고 온몸이 마비된 듯 멍해져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야말로 송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격이었다.

그때 왕경의 수하 중 지략이 있는 측근이 말했다.

"대왕님,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도포를 벗어 던지시고 급히 동천으로 가셔야 합니다. 성안에서 변고가 생길까 두렵사옵니다."

왕경이 대답했다.

"경의 말이 지극히 옳다."

왕경은 즉시 화려한 금색 관을 벗고, 해와 달과 구름이 수놓아진 비단 도포를 벗었으며, 금과 벽옥으로 장식된 허리띠와 화려한 신발까지 모두 벗어 던졌다. 그리고 평범한 두건과 간편한 옷, 부드러운 가죽신으로 갈아신었다. 나머지 수행원들도 모두 겉옷을 벗어 던졌다. 그들은 마치 집 잃은 개처럼, 혹은 그물에서 빠져나간 물고기처럼 허둥지둥 샛길을 통해 운안주 성을 돌아 동천으로 급히 도망쳤다. 사람도 지치고 말도 탈진한 상태였다. 백성들은 이미 도적 떼에게 시달려 황폐해진 데다 대군이 싸우는 소식까지 들으니, 큰길마다 인적 하나 없이 고요하여 닭이나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물 한 모금 구할 곳이 없으니 술이나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는가? 이때 왕경을 가까이서 모시던 측근들도 상황이 여의치 않자 하나둘씩 도망쳐 버려, 이미 예순에서 일흔 명 가까이 흩어진 상태였다.

왕경은 서른 명 남짓한 기병을 이끌고 해가 질 무렵에야 운안주 아래의 개주 땅에 이르렀는데, 커다란 강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강은 청강이라 불리는데, 그 근원이 달주 만경지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강물이 매우 맑아서 청강이라 이름 붙여졌다. 왕경이 말했다.

"어찌해야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겠느냐?"

뒤에 있던 측근이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대왕님, 저기 남쪽 언덕 갈대밭과 기러기가 내려앉은 곳에 어선 몇 척이 있습니다."

왕경이 확인하고 일행과 함께 강가로 갔다. 때는 초겨울이라 날씨는 맑고 화창했다. 수십 척의 어선이 보였는데, 어떤 이는 고기를 잡고 어떤 이는 그물을 말리고 있었다. 그중 몇 척의 배는 강 한가운데 떠서 술잔을 주고받으며 호쾌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왕경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 남녀들은 저리도 즐거운데, 나는 오늘 저들만도 못하구나! 저들은 모두 내 백성들인데, 과인이 이토록 곤궁한 줄은 꿈에도 모르겠구나."

측근이 큰 소리로 외쳤다.

"어이, 어부! 배를 몇 척 끌고 와서 우리를 건네주게나. 건너게 해주면 돈을 넉넉히 주겠네!"

그러자 어부 두 명이 술잔을 내려놓고 작은 어선을 저어 삐걱거리며 강가로 다가왔다. 배 앞머리에 선 어부가 장대로 강가를 밀며 배를 대더니, 눈을 부릅뜨고 왕경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말했다.

"허어, 신나게 술 마실 거리가 또 생겼구먼! 어서 타시오, 어서 타!"

측근이 왕경을 부축해 말에서 내리게 했다. 왕경이 보니 그 어부는 체구가 건장하고 눈썹이 짙으며 눈이 컸다. 얼굴은 붉고 수염은 철사처럼 빳빳했으며, 목소리는 마치 큰 종을 치는 듯 우렁찼다. 어부는 한 손에는 장대를 들고 한 손으로는 왕경을 부축해 배에 태우더니, 장대로 강가를 툭 치자 배는 순식간에 강가에서 한 길 넘게 멀어졌다.

강가에 남은 도적 떼 수행원들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어이! 어서 배를 끌고 오게! 우리도 강을 건너야 한단 말이다!"

그러자 어부가 눈을 부릅뜨며 호통을 쳤다.

"오고 있다! 어디서 소란이냐?"

어부는 장대를 내려놓더니, 왕경의 가슴을 덥석 움켜쥐고 두 손으로 짓눌러 배 뒷판에 쿵 하고 엎어뜨렸다. 왕경이 발버둥 치려 하자, 배에서 노를 젓던 어부가 노를 놓고 뛰어내려 함께 왕경을 붙잡았다. 이때 그물을 말리던 배에 있던 사람들도 왕경이 잡힌 것을 보고는 모두 강가로 뛰어 내려와, 서른 명 남짓한 수행원들을 하나하나 모조리 붙잡았다.

알고 보니 배를 젓던 이는 '혼강룡' 이준이었고, 노를 젓던 이는 '출동교' 동위였으니, 그 어부들은 대부분 수군들이었다. 이준은 송군 선봉장의 명을 받들어 수군 함대를 거느리고 적의 수군을 격파하러 나갔었다. 이준 일행은 구당협에서 적의 수군과 크게 싸워, 적의 주수(主帥)인 수군도독 문인세숭을 죽이고 부장 후준을 사로잡아 적군을 대파했다. 이준은 후준의 용모가 비범한 것을 보고 그를 의리로 풀어주었는

데, 이에 감격한 후준이 이준과 함께 운안주의 수문을 기습하여 성을 탈환하고 가짜 유수 시준 등을 죽였다.

'혼강룡' 이준은 적군과 대군이 싸우다 패하여 흩어지게 되면 반드시 자신들의 근거지로 도망칠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하여 장횡과 장순에게 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동위, 동맹과 함께 수군을 이끌고 어부로 변장하여 이곳에서 정찰을 하고 있었다. 또한 완씨 삼형제에게도 어부로 변장하게 하여 염예퇴, 민강, 어복포 각지로 나누어 매복하며 정찰하게 했다. 조금 전 이준은 왕경이 앞장서고 뒤에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고 적의 우두머리라 짐작했으나, 그가 바로 만악의 근원인 왕경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준이 측근들에게 심문하여 그가 왕경임을 알게 되자, 손뼉을 치며 크게 웃고는 그를 결박하여 운안주 성안으로 압송했다. 그러고는 사람을 보내 세 명의 완씨 형제와 두 명의 장씨 형제를 불러 성을 지키게 한 뒤, 이준은 항장 후준과 함께 왕경 일행을 끌고 송군 선봉장에게 압송하러 갔다.

가는 길에 송강이 이미 남풍성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이준 일행은 곧장 성안으로 들어가 왕경을 장군부로 압송했다. 송강은 장수들이 왕경을 잡지 못해 애를 태우던 차에 이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곧 이준이 부로 들어와 송 선봉장을 알현하자, 송강이 칭찬하며 말했다.

"현제, 이번 공이 적지 않구려."

이준은 항장 후준을 이끌고 송 선봉장에게 인사를 올렸다. 이준이 말했다.

"공은 모두 이 사람 덕분입니다."

송강은 후준의 성명을 묻고, 운안주를 기습하여 탈환한 경위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송강이 후준을 격려하고 위로한 뒤, 곧바로 여러 장수와 함께 동천과 안덕 두 성을 어떻게 공략할지 계책을 논의했다. 이때 새로 항복한 후준이 아뢰었다.

"선봉장님, 너무 애쓰실 것 없습니다. 저 후준에게 한 가지 방책이 있으니, 이대로만 하면 두 성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후준에게 정중히 읍하며 계책을 물었다. 후준은 몸을 굽히고 송강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넸다. 그 내용은 성에 화살 한 발 쏘지 않고도 성을 되찾을 수 있으며, 삼군이 동요하지 않으면 적들이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도대체 후준이 어떤 계책을 내놓았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0회 — 연청이 추림에서 기러기를 쏘고, 송강이 동경성에서 포로를 바치다

燕青秋林渡射雁 宋江東京城獻俘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이 항복한 장수인 호준에게 물었다. "동천과 안덕, 이 두 성을 취하려면 어떤 계책이 있겠소?"

호준이 대답했다. "동천성을 지키는 수장은 저의 형제인 호현입니다. 제가 이준 장군님께 죽음을 면한 은혜를 입었으니, 동천으로 가서 형제 호현을 설득해 항복시키겠습니다. 남은 안덕의 외로운 성 또한 싸우지 않고 스스로 항복할 것입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이준을 함께 보내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장졸들을 배치하여 아직 수복하지 못한 주와 현의 백성들을 달래고 다스리게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종을 보내 상소문을 들려 보내 조정의 결정을 기다렸다. 또한 진안무에게 보고할 문서와 태위에게 보낼 편지를 준비하게 했다.

송강은 장졸들을 시켜 왕경의 궁궐로 들어가 금과 보석, 진귀한 물건들을 모두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황제의 것이 아니어서 금지된 용루봉각과 같은 화려한 전각들, 보석으로 장식된 집들, 그리고 금지된 무기와 의복들을 모조리 불태워 없앴다. 또한 사람을 운안으로 보내 장횡 등에게 명령하여, 그곳에 있는 금지된 행궁의 기물과 장비들도 모두 불태우게 하였다.

한편, 대종이 먼저 형남으로 가서 진안무에게 보고할 문서를 전달했다. 진안무 역시 상소문을 작성하여 함께 조정으로 보냈다. 대종은 동경으로 가서 태위에게 서신과 예물을 전달했다. 태위가 상소문을 올리자 휘종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성지를 내렸다.

성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회서로 가서 반란군 수괴 왕경을 잡아 동경으로 압송하고, 황제의 명에 따라 처형하라. 그 외에 붙잡힌 가짜 비빈과 가짜 관리 등 나머지 무리들은 모두 회서의 시조(市曹, 저잣거리 형장)에서 참형에 처해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보여라. 왕경의 폭정에 시달린 회서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군량미 일부를 남겨두고, 호구에 따라 물자를 나누어 주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라. 전사하거나 공을 세운 항복 장수들에게는 모두 두터운 보상과 함께 후손에게 음덕을 내려라. 회서 각 주와 현에서 비어 있는 정관·좌관(正佐) 자리는 속히 추천하여 임명하라. 다만 각 주의 관리 중 적에게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가 나중에 바른길로 돌아온 자들은, 진관(陳瓘)이 사건의 경중을 가려 형편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라. 이번 정벌에서 공을 세운 정장과 편장들은 모두 경성으로 돌아오는 날 공로를 따져 승진과 포상을 내리겠다."

칙명이 내려지자 대종이 먼저 돌아와 이를 알렸다. 그사이 진안무 일행은 이미 남풍성에 도착해 있었다. 이때 호준은 이미 형제인 호현을 설득하여 항복시켰으며, 동천의 군사와 백성들, 그리고 토지와 호구, 곡식과 장부 등을 모두 바치며 죄를 물어달라고 청했다. 안덕주의 도적들도 소문을 듣고 모두 항복해 왔다. 운안, 동천, 안덕 세 곳의 농민들은 논밭을 떠나지 않았고 상인들도 가게를 비우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이준의 공이었다. 왕경이 점령했던 8군 86개 주와 현이 모두 수복되었다.

대종이 동경에서 남풍으로 돌아온 지 열흘 남짓 지나자, 천사가 성지를 받들어 말을 달려 도착했다. 진안무와 각 관원들은 성지를 받들어 하나하나 명에 따라 집행했다. 이튿날 아침, 천사는 경성으로 돌아갔다. 진관(陳瓘)은 감옥에서 단씨와 이조, 그리고 그 일행인 반역 무리들을 꺼내어 참형을 선고하게 한 뒤, 남풍의 시조로 끌고 나가 참형에 처하고 그 머리를 각 성문 앞에 매달아 본보기로 삼았다. 단삼낭은 어려서부터 여인의 도리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혼인을 결정하여 하늘을 어지럽히는 큰 죄를 저질렀으니, 이제 몸과 머리가 분리됨은 물론 여러 친척까지 연루되었다. 그녀의 아버지 단태공은 이미 방산채에서 먼저 죽었다.

이야기는 길게 끌 것 없이, 한편 진안무와 송선봉(송강)은 이준, 호준, 경영, 손안의 공로를 차례로 기록하고, 각지에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달랬다. 86개 주와 현의 백성들은 다시 햇빛 아래 평화로운 양민이 되었고, 나머지 도적 무리 중 사람을 해치지 않은 자들은 재산을 돌려받아 다시 고향의 주민으로 돌아갔다. 서경의 수장이던 조도

청과 마령의 자리에는 이미 새 관리가 부임하였고, 각 주와 현의 정관·부관(正佐貳官)들도 차례로 속속 남풍에 도착했다. 이준과 두 장씨(장횡·장순), 세 완씨 형제(완소이·완소오·완소칠), 두 동씨(동위·동맹)도 이미 주(州)의 사무를 모두 인계하고 남풍으로 모여들어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진안무와 여러 관원, 그리고 송강을 비롯한 108명의 두령과 하북에서 항복해 온 장수들은 모두 남풍에서 태평연을 열어 승전한 장수들과 관리들을 축하하고 삼군 장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송강은 공손승과 조도청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하여, 칠일 밤낮으로 재를 올리며 전사한 군사들과 회서에서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을 위로했다. 제사가 막 끝날 무렵, 갑자기 손안이 갑작스러운 병을 얻어 진영에서 급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송강은 슬픔을 금치 못하며 예우를 갖춰 장례를 치러준 뒤 그를 용문산 기슭에 묻어주었다.

조도청은 손안의 죽음에 매우 통곡하며 송강에게 말했다. "손안은 저와 고향이 같을 뿐만 아니라 저와도 매우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다 죄를 짓고 도적 무리에 빠졌으나, 선봉장님의 거두심을 받아 훗날의 좋은 결말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도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선봉장님의 거두심을 받게 된 것 또한 모두 그가 저의 미혹을 깨우쳐준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죽었으니 제 마음을 어찌 가눌 수 있겠습니까. 저 조도청은 두 분 선봉장님의 두터운 은혜를 뼈에 새겨 평생 잊지 못하겠으나, 끝내 보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 전야로 돌아가 남은 목숨을 이어가고자 하옵니다."

마령 또한 조도청이 떠나려 하는 것을 보고 송강에게 찾아와 작별을 고했다. "부디 선봉장님께서는 저도 조 법사와 함께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송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서글퍼하며 만류했으나, 두 사람의 뜻이 워낙 완강하여 붙잡을 길이 없었다. 결국 송강은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술을 차려 그들을 배웅했다. 곁에 있던 공손승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조도청과 마령은 송강과 공손승에게 절을 올린 뒤, 다시 진안무에게도 인사를 드리고는 홀연히 떠나갔다. 훗날 조도청과 마령은 모두 나진인(羅眞人)을 찾아가 스승으로 모시고 도를 닦으며 천수를 누렸다.

진안무가 회서 지역의 여러 군현에 있는 군사와 백성들을 달래고 구휼하는 일을 모두 마쳤다. 회서란 회하(淮瀆)의 서쪽 지역을 말하니, 송나라 사람들은 완주와 남풍 등의 지역을 회서라 불렀다. 진안무가 명령을 내려 선봉의 두목들에게 행장을 수습하여 경성으로 입조할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군령이 내려지자, 송강은 한편으로 중군 군마를 먼저 출발시켜 진안무와 후참모, 나무유를 호송하여 길을 떠나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군 두령들에게 명하여 배를 타고 수로를 통해 먼저 동경으로 돌아가 주둔하며 명령을 기다리게 했다.

송강은 소양에게 글을 쓰게 하고 금대견에게는 비석을 새기게 하여 이 일을 기록하게 했다. 이 비석을 남풍 성 동쪽 용문산 아래에 세웠는데, 지금까지도 그 유적이 남아 있다. 항복한 장수인 호준과 호현은 술을 차려 송강을 배웅했다. 훗날 송강이 조정에 들어가 호준과 호현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길로 돌아와 두 장수를 항복시킨 공을 천자에게

아뢰니, 천자가 특별히 호준과 호현을 동천 수군 단련(團練)의 직책에 임명하였다. 이는 뒷이야기이다.

그때 송강은 병마를 다섯 갈래로 나누어 출발시키기로 하고 정해진 날짜에 길을 떠났다. 군사들 중에는 각 주와 현에 남아 성을 지키기로 한 이들도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청하는 이들도 있었다. 현재 병마는 모두 십여 만 명에 달했는데, 남풍을 떠나 동경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군기가 엄정하여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의 재물에 손을 대는 일이 전혀 없으니, 백성들은 향과 꽃, 등불과 촛불을 준비하여 정성껏 배웅했다.

길을 떠난 지 며칠 지나 어느 곳에 이르니, 지명이 추림도였다. 추림도는 완주 소속 내향현의 추림산 남쪽에 있었다. 그 산은 샘물이 맑고 경치가 아름다웠다. 송강이 말 위에서 멀리 산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우러러보니, 공중에 변방 기러기 떼가 몇 줄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기러기들이 줄을 맞추지 않고 높낮이가 뒤섞여 어지럽게 날며 모두 놀란 듯 울어대고 있었다. 송강이 이를 보고 무언가 괴이한 징조가 아닌가 의심스러워할 때, 전군에서 함성이 들려왔다. 송강이 사람을 보내 이유를 물으니, 말을 타고 달려온 이가 보고하기를, 알고 보니 '낭자' 연청이 이제 막 활쏘기를 배우는 중이라 공중에 날아가는 기러기를 향해 쏘았는데 화살마다 명중했다고 했다. 순식간에 기러기 십여 마리가 떨어지자 여러 장수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송강이 연청을 불러오라고 했다. 연청은 활을 메고 화살을 꽂은 채 말을 타고 달려왔는데, 말 뒤에는 화살에 맞아 죽은 기러기 몇 마리가 매달려 있었다. 연청은 송강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안장 옆에 섰다.

송강이 물었다. "방금 네가 기러기를 쏜 것이냐?" 연청이 대답했다. "소제가 이제 막 활쏘기를 배우는 중인데, 마침 공중에 기러기 떼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우연히 쏘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화살마다 모두 맞았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군인이 활쏘기를 배우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정확히 맞히는 것은 네 능력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건대, 이 기러기들은 추위를 피해 천산을 떠나 갈대를 입에 물고 관문을 넘어, 강남의 따뜻한 땅에서 곡식을 찾아 먹으며 초봄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존재들이다. 이 빈홍(賓鴻)은 인의를 아는 새로서, 수십 마리 혹은 삼사십 마리에서 오십 마리씩 떼를 지어 서로 양보하며, 어른이 앞서고 아랫것이 뒤따르니 차례를 지켜 날며 무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저녁에 쉴 때도 교대로 밤을 지키며 알리는 도리까지 있다. 게다가 수컷이 그 짝을 잃거나 암컷이 그 짝을 잃으면 죽을 때까지 다시 짝을 짓지 않는다. 이 새는 인·의·예·지·신의 오상(五常)을 모두 갖추었다. 하늘 멀리서 죽은 기러기를 보면 모두 슬피 우는 듯하고 짝 잃은 외기러기를 결코 침범하지 않으니 이는 '인(仁)'이요, 한번 짝을 잃으면 죽을 때까지 다시 짝짓지 않으니 이는 '의(義)'이며, 차례를 지켜 날아 앞뒤를 벗어나지 않으니 이는 '예(禮)'이다. 매와 독수리를 미리 피하여 갈대를 물고 관문을 넘으니 이는 '지(智)'이며, 가을엔 남쪽으로 봄엔 북쪽으로 때를 어기지 않고 오가니 이는 '신(信)'이다. 이처럼 오상을 모두 갖춘 생물을 어찌 차마 해칠 수 있겠느냐. 하늘 위를 날아가는 기러기 떼가 서로를 부르며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우리 형제들과 같지 않으냐. 그런데 네가 저 기러기 몇 마리를 쏘아 죽였으니, 우리 형제 중 몇 명을 잃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모두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아우여, 앞으로는 예의를 아는 이 새를 해치지 말라."

연청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입을 다문 채 후회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송강은 마음속에 깊은 감회를 느껴 말 위에서 시 한 수를 읊었다.

험한 산등성이는 굽이치고 물줄기는 아득한데,
하늘 가로질러 기러기 떼 두세 줄로 날아가네.
문득 함께 날던 짝을 잃어버리니,
차가운 달빛 맑은 바람 속에 가슴이 미어지네.

송강이 시를 읊고 나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처량해지고 물건을 보며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 그날 밤 군사들은 추림도 나루터에 주둔했다. 송강은 막사 안에 앉아 연청이 기러기를 쏜 일을 다시 생각하며 마음속에 번민이 가시지 않자,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하여 사(詞) 한 수를 지었다.

초나라 하늘은 넓고 기러기 떼는 무리를 떠나니, 만 리 길을 아득히 황망하게 흩어지는구나. 스스로의 그림자를 돌아보니 차가운 못가로 내려앉으려 하네. 풀은 마르고 모래는 깨끗하며, 물은 평온하고 하늘은 멀리 뻗어 있는데, 글로 다 써 내려갈 길 없어 오직 그리운 마음 한 자락만 보낼 뿐이라. 저무는 해 아래 빈 해자에는 새벽 안개와 옛 참호만이 남아, 말로 다 못 할 슬픔과 원망을 호소하는구나. 갈꽃을 다 골라보아도 머물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옥관(玉關)을 다시 보게 될 날은 언제인가. 슬프게 울어대는 소리는 근심과 우수로 가득하여, 강가에

머물고 싶은 미련마저 붙잡기 어렵구나. 부디 봄날 낮에 돌아오는, 대들보에 둥지를 튼 쌍제비의 모습을 지켜보아라.

송강이 글을 다 쓰고 나서 오용과 공손승에게 건네어 보여주었다. 사(詞)에 담긴 뜻은 슬픔과 근심이 매우 깊었다. 송강은 마음이 답답하여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그날 밤 오용 등은 술과 안주를 차려놓고 한껏 취한 뒤에야 자리를 파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모두 말을 타고 남쪽을 향해 출발했다. 길을 가는 도중 마침 늦겨울이라 풍경이 처량했다. 송강은 길을 가면서도 마음속에 줄곧 감회가 북받쳐 올랐다. 그렇게 여러 날을 가서 마침내 경사(京師, 수도)로 돌아와 진교역에 군마를 주둔시키고 성지를 기다렸다.

한편, 진안무와 후참모가 중군의 인마를 거느리고 성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송강 일행이 세운 공로를 천자에게 아뢰며, 송강 선봉을 비롯한 여러 장수가 병마를 이끌고 회군하여 이미 관문 밖까지 도착했다고 보고했다. 진안무가 나아가 아뢰기를, "송강 등 여러 장수가 전쟁터에서 겪은 노고가 지극합니다"라고 하자, 천자는 그 보고를 듣고 크게 찬탄하였다. 진안무, 후몽, 나전은 각각 관직을 높여 봉하고 은자와 비단 등을 하사하였다. 이어 성지가 전해 내려오니, 황문시랑을 통해 송강 등이 직접 입궐하여 천자를 알현하도록 명하며, 모두 무장을 갖춘 채 성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떠날 때 서른여섯이었으나, 돌아오니 열여덟 쌍이 되었네.
천만 리 길을 종횡무진 누볐어도, 웃으며 이야기하며 다시 고향에 왔구나.

한편, 송강 등 백팔 명의 장수들은 성지를 받들어 몸에 무장을 갖추었다. 갑옷과 가죽 띠를 두르고 투구를 쓰고 갑주를 걸쳤으며, 비단 옷을 입고 금은으로 된 패를 허리에 찼다. 이들은 동화문을 통해 성안으로 들어와 모두 문덕전에 이르러 천자를 알현하였고, 절을 올리고 춤을 추며 문안을 올린 뒤 세 번 크게 만세를 외쳤다. 황제가 송강 등 여러 장수를 살펴보니 모두 비단 옷에 금띠를 두른 화려한 모습이었으나, 오직 오용, 공손승, 노지심, 무송만이 본래 입던 옷차림 그대로였다. 천자는 이 모습에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과인이 그대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한 것을 잘 알고 있노라. 도적을 토벌하는 데 온 마음을 다했으나,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자가 많으니 과인의 마음이 매우 슬프고 근심스럽구나.'

송강이 다시 절을 하며 아뢰었다. '성상의 끝없는 복덕 덕분에, 저희 장수들은 비록 몸에 상처를 입은 자들이 있으나 모두 무사합니다. 이제 원흉을 잡고 회서 지역을 평정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폐하의 위엄과 덕망 덕분이니, 저희가 어찌 노고를 논하겠습니까.' 이어 다시 절을 하며 감사를 표하고 아뢰었다. '저희는 성지를 받들어 왕경을 포로로 잡아 폐하 앞에 바쳤으니, 처분을 기다리겠나이다.'

천자가 성지를 내렸다. '법사(法司)로 하여금 관리들을 소집하게 하여, 왕경을 능지처참에 처하라.' 송강은 소가수(蕭嘉穗)가 기묘한 계책으로 성을 탈환하여 백성들의 목숨을 보전하였으되 공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초연히 떠나 버린 일을 아뢰었다. 천자가 칭찬하며 말했다. '이 모두가 그대들의 충성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덕분이로다!' 그러고는 성원(省院)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소가수를 찾아 경사로 불러 등용하게

하였다. 송강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그 성원의 관리들 가운데 누가 조정을 위해 진심으로 힘써 어진 인재를 찾아 나서려 하였겠는가. 이는 후일의 이야기다.

그날, 천자는 성원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작위와 봉록을 논의하게 하였다. 태사 채경과 추밀 동관이 상의하여 아뢰기를, "현재 천하가 아직 완전히 평온해지지 않았으니, 함부로 관직을 높여 승진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송강에게는 보의랑(保義郎)의 직을 더하고 어기계(御器械, 황제의 무기를 관리하는 직책)를 맡겨 황성사를 임명하며, 부선봉 노준의에게는 선무랑(宣武郎)의 직을 더하고 어기계를 맡겨 행영단련사(行營團練使)로 삼으소서. 오용을 비롯한 서른네 명은 정장군(正將軍)으로 봉하고, 주무를 비롯한 일흔두 명은 편장군(偏將軍)으로 봉하며, 금과 은을 지급하여 삼군 장병들에게도 상을 내리소서"라고 하였다.

천자가 이를 허락하여, 성원의 여러 관리에게 명해 작위와 봉록을 더하게 하고, 송강 일행에게 상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송강 등은 문덕전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에 감사하였다. 천자는 광록사(光祿寺)에 명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풀게 하고, 송강에게는 비단 옷 한 벌과 금갑옷 한 벌, 그리고 명마 한 필을 하사하였으며, 노준의 이하의 장수들에게도 차등을 두어 상을 내리게 하였다. 이 모든 비용은 내부(內府, 황실 재정 기관)에서 지불하였다. 송강과 여러 장수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모두 궁궐 밖으로 나와 서화문 밖까지 이르렀고, 말을 타고 진영으로 돌아갔다. 장수들은 성을 나와 행영에 이르러 안식하며 조정의 부름을 기다렸다.

그날 법사(法司)는 성지를 받들어 관리들을 소집하고 죄목을 적은 패를 만든 뒤, 죄수 수레를 열어 왕경을 끌어냈다. 그리고 '능지처참(剮)'이라 판결을 내린 뒤 그를 시조(市曹, 처형장)로 압송하였다. 구경꾼들은 어깨를 맞대고 빽빽하게 모여들었는데, 어떤 이는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었고 어떤 이는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왕경의 부친인 획과 전처의 장인 등 친척들은 왕경이 처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미 모두 체포되어 몰살당한 상태였다. 오늘 남은 이는 오직 왕경 하나뿐이었으니, 그는 칼과 창이 숲을 이룬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다. 북소리가 두 번 울리고 징소리가 한 번 울리자, 하얀 눈처럼 창날이 늘어서고 검은 깃발이 먹구름처럼 펼쳐졌다. 망나니들이 "악살두(惡殺都, 처형을 집행하는 관리)는 오라!" 하고 외치니, 마침 오시 삼각(午時三刻, 낮 12시 45분경)이 되었다. 그들은 왕경을 사거리 길목으로 끌고 가 죄목을 다 읽어준 뒤, 법대로 능지처참에 처했다. 구경하던 이들이 모두 말했다.

> 이것은 악인의 본보기이니, 결국 목이 잘려 몸을 잃는구나.
> 십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극형을 받겠는가?

그 자리에서 감참관(監斬官, 처형을 감독하는 관리)이 왕경의 처형을 집행하였고, 그의 머리를 베어 효수(梟首)하니 그 뒤의 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송강 일행은 은혜를 입고 군영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공손승이 행영의 중군 장막으로 찾아와 송강과 다른 이들에게 절을 올리며 송강에게 말했다.

'지난날 저의 스승이신 나진인(羅眞人)께서 소도에게 당부하시기를, 형님을 모시고 경성으로 돌아간 뒤에는 곧장 산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형님께서 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셨으니, 빈도는 이제 형님께 작별을 고하고 여러 형제님과도 헤어져 산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스승님을 모시고 도를 배우며,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하며 남은 생을 보내고자 합니다.'

송강은 공손승이 이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며 차마 약속을 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는 공손승에게 말했다.

'생각해 보니 예전에 형제들이 모였을 때는 꽃이 막 피어나는 듯하더니, 오늘 형제들이 헤어지는 것은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구려. 내가 비록 그대의 말을 저버릴 수는 없으나, 어찌 마음 편히 이별할 수 있겠소?'

공손승이 말했다.

'만약 소도가 가는 길 중간에 형님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정이 없고 의리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형님께서 공을 세워 명성을 얻으셨으니,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송강이 몇 번이고 붙잡았으나 끝내 만류하지 못하자, 결국 연회를 베풀어 형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했다. 연회석에서 잔을 들어 올리자 모두가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고, 각자 금과 비단으로 노자를 건넸다. 그러나 공손승은 사양하며 받지 않았고, 형제들은 그저 공손승의 보따리를 묶어주는 데만 전념했다.

다음 날, 모두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공손승은 삼베 신을 신고 보따리를 등에 멘 채, 절을 올리고 북쪽을 향해 길을 떠났다. 송강은 연일 그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비 오듯 흘렸고, 마음속에 울화가 가득하여 즐겁지 못했다.

때마침 정월 초하루 명절이 다가오자, 여러 관리가 조회를 준비하여 축하를 올리려 했다. 채태사(蔡太師)는 송강 일행이 모두 조회를 와서 축하를 올리면 천자께서 그들을 보고 반드시 중용하실까 두려워했다. 이에 즉시 천자에게 아뢰어 성지를 내리게 하고는 사람을 보내 그들을 막게 하니, 송강과 노준의 두 사람처럼 직책이 있는 자들만 반열을 따라 조하(朝賀)하게 하고, 나머지 출정 관원들은 모두 백신(白身, 관직이 없는 몸)이어서 천자를 놀라게 할까 염려된다 하여 모두 예를 면하게 하였다.

이날 정월 초하루, 백관이 조회를 올렸다. 송강과 노준의는 모두 공복(公服)을 갖춰 입고 대루원(待漏院)에서 조회를 기다리다가 반열을 따라 예를 올렸다. 이날 천자는 자신전(紫宸殿)에 좌정하여 조회를 받았는데, 송강과 노준의는 반열을 따라 절을 올린 뒤 전각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양반(兩班) 시종들 곁에 머물렀다. 전각 위를 올려다보니 옥비녀를 꽂고 구슬 신을 신은 이들이 자색 인끈과 금빛 인장을 갖추고, 술잔을 주고받으며 천자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었다. 새벽부터 정오가 다 되어서야 그들은 비로소 은혜에 감사하는 어주(御酒)를 조금 얻어 마실 수 있었다. 백관의 조회가 끝나고 천자가 자리를 뜨자, 송강과 노준의는 안에서 나와 공복과 복두(幞頭)를 벗고 말을 타고 군영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심과 부끄러운 기색이 가득했다.

오용 등이 그들을 맞이했다. 장수들은 송강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답답해 보이는 것을 보고 모두 다가와 명절 축하 인사를 건넸다. 백여 명이 절을 올리고 양옆에 섰으나, 송강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오용이 물었다.

'형님, 오늘 천자께 조회를 올리고 돌아오시면서 어찌 이리 근심에 잠겨 계십니까?'

송강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생각해 보니 내 타고난 팔자가 얕고 운명이 막혀 있구나. 요나라를 격파하고 도적을 평정하려 동서로 정벌하며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오늘 결국 여러 형제들을 공도 없이 고생만 시키게 되었으니 이 어찌 근심스럽지 않겠느냐.'

오용이 대답했다.

'형님, 이미 운명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아시는데 어찌 즐거워하지 않으십니까? 만사는 제각기 정해진 분수가 있는 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흑선풍 이규가 말했다.

'형님, 정말 생각이 모자라십니다! 예전 양산박에 있을 때는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았는데, 오늘도 초안(招安)을 받자 하고 내일도 초안을 받자 하더니, 초안을 받고 나니 도리어 번뇌만 생기지 않습니까! 형제

들이 다 여기 있으니 다시 양산박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송강이 크게 꾸짖었다.

'이 검은 짐승 같은 놈이 또 무례하게 구는구나! 이제는 국가의 신하가 되어 모두 조정의 어진 신하가 되었거늘, 네 이놈은 도리도 모르고 반역할 마음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느냐!'

이규가 다시 대꾸했다.

'형님께서 제 말을 듣지 않으시니, 내일이면 분명 분한 꼴을 당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웃으며 송강에게 술을 권하며 만수무강을 빌었다. 이날은 이경(二更)까지 술을 마시다 각자 흩어졌다.

다음 날, 송강은 십여 기의 말을 이끌고 성안으로 들어가 숙태위(宿太尉)와 조 추밀(趙樞密), 그리고 성원(省院) 각 관청의 관리들에게 명절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성안을 오가니 구경하는 이들이 매우 많았다. 그중 누군가가 이 일을 채경에게 알렸다. 다음 날, 천자에게 보고가 올라가자 천자는 성원(省院)에 명하여 방을 붙여 금지령을 내리게 하고 각 성문 위에 내걸게 하였다.

'무릇 모든 출정 관원과 장군, 두목들은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주둔하며 호출을 기다려야 한다. 상사의 명확한 공문에 따른 부름이 아니면

함부로 성안에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반드시 군령에 따라 죄를 물어 시행할 것이다.'

명을 받은 관리가 방문을 가지고 곧장 진교문 밖으로 가서 내걸었다. 이를 본 어떤 이가 곧 송강에게 달려가 알렸다. 송강의 근심은 더욱 깊어졌고, 이를 알게 된 장수들 또한 모두 초조해하며 다들 반역할 마음을 품었으나, 다만 송강 한 사람이 거리낌이 되었다.

한편 수군 두령들이 특별히 군사 오용을 찾아와 일을 상의했다. 오용이 배로 가보니 이준, 장횡, 장순, 그리고 완씨 삼형제가 모두 군사를 맞이하며 말했다.

'조정은 신의를 저버리고 간신들이 권세를 휘두르며 어진 이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께서는 요나라를 격파하고 전호를 소탕하셨으며, 이제 왕경까지 평정하셨는데도 고작 황성사(皇城使)라는 직책을 주셨을 뿐, 우리 모두를 승진시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까지 붙여 우리를 금지하며 성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니, 제 생각에는 저 간신들이 서서히 우리 형제들을 흩어놓고 각기 다른 곳으로 보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군사께서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만약 형님과 상의한다면 분명 허락지 않으실 테니, 차라리 여기서 당장 일어나 동경을 몽땅 약탈한 뒤에 다시 양산박으로 돌아갑시다. 차라리 도적이 되는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송강 형님께서 결코 허락지 않으실 것이오. 그대들이 애써 힘을 써봤자 화살촉은 나가지도 않는데 화살대만 억지로 부러뜨리는 격이오.

예로부터 머리 없는 뱀은 움직일 수 없는 법인데, 내가 어찌 감히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소? 이 일은 반드시 형님께서 허락하셔야 실행할 수 있는 것이오. 만약 형님께서 뜻을 굽히지 않으신다면, 그대들이 반역을 꾀한다 한들 결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오!'

여섯 명의 수군 두령은 오용이 감히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용이 중군 진영으로 돌아와 송강과 한담을 나누며 군사 정세를 논하다가 말했다.

'형님, 예전에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거리낌이 없어 수많은 형제 또한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초안을 받아 국가를 위해 힘쓰며 조정의 신하가 되었건만, 도리어 구속을 받아 마음껏 쓰이지 못하니 형제들 사이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물었다.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하더냐?'

오용이 대답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부귀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요, 빈천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모습과 안색을 살피면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군사, 만약 형제들에게 정말로 딴 마음이 있다면 나는 구천에서 죽을지언정 충심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오!'

다음 날 아침 일찍, 장수들을 모두 모아 군사 기밀을 상의하기 위해 크고 작은 인물들이 장막 앞에 모였다. 송강이 입을 열어 말했다.

'나는 운성(鄆城)의 하급 관리 출신이다. 또한 큰 죄를 지었으나 여러 형제들의 도움 덕분에 우두머리로 추대되어 오늘날 신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옛말에 「성공한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다. 비록 조정에서 방을 붙여 우리를 금지하나 이치로 보면 마땅히 그러할 만하다. 우리 중에는 산속에서 거칠게 살아온 무뢰한 군졸이 매우 많으니, 만약 이 일로 인해 소란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법에 따라 죄를 물을 터인데, 그렇게 되면 명성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를 성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너희 장수들은 만약 구속받는 것이 싫어 딴 마음을 품는다면, 먼저 내 머리를 베어라! 그러고 나서 너희 마음대로 행동하거라. 그렇지 않다면 나 또한 세상에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으니, 반드시 스스로 목을 찔러 죽어 너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

사람들은 송강의 말을 듣고 모두 눈물을 흘리며 맹세하고 흩어졌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누가 서주(西周)를 향해 좋은 소식을 품었던가,
송공명(宋公明, 송강)은 충의로워 그 마음 변치 않았네.
당시 진회(秦檜, 진장각)를 부끄러워 죽게 만들었으니,
몸은 남조(남송)에 있으면서 마음은 금나라에 두었던 자라네.

송강의 장수들은 그 후로 별다른 일이 없으면 성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 상원절(정월 대보름)이 다가오자, 동경에서는 해마다 하는 관례대로 등불을 크게 밝혀 정월 대보름을 축하했다. 여러 길에서도 모두 등불을 내걸었고, 각 관아에서도 등불을 밝혔다.

한편 송강의 진영에 있는 '낭자' 연청이 악화와 함께 의논했다. "이제 동경에서 화려한 등불과 연희를 열어 풍년을 축하하고 있소. 지금의 천자께서도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 둘이 옷을 갈아입고 몰래 성안에 들어가 구경만 하고 돌아옵시다."

그런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 "등불 구경을 한다면 나도 좀 데려가 주게!"

연청이 보니 바로 '흑선풍' 이규였다. 이규가 말했다. "나를 빼놓고 몰래 등불 구경을 가려 하다니, 내가 이미 다 듣고 있었다!"

연청이 말했다. "자네와 함께 가는 건 상관없지만, 자네 성미가 워낙 급해서 반드시 일을 일으킬까 걱정되네. 지금 조정의 성원(省院, 상서성·추밀원)에서 방을 붙여 우리를 단속하며 성안 출입을 막고 있지 않은가. 만약 자네와 함께 성안에 들어갔다가 소란이라도 일으키면, 바로 저 성원의 계략에 빠지는 꼴이 되네."

이규가 말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사고를 치지 않겠네. 자네 말대로 하겠네!"

연청이 말했다. "내일 옷을 갈아입고 손님처럼 차려입고 자네와 함께 성안에 들어가세." 이규가 크게 기뻐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모두 손님처럼 차려입고 연청을 수행하며 성안으로 들어갔다. 뜻밖에도 악화는 이규가 두려워 시천과 함께 먼저 성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연청은 이규를 떼어낼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그와 함께 등불을 보러 들어갔으나, 감히 진교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 봉구문을 통해 성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서로 팔짱을 끼고 상가와(桑家瓦, 유흥가) 쪽으로 향했다.

와자(瓦子, 유흥가) 앞에 이르니 공연장 안에서 징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규가 기어코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연청은 어쩔 수 없이 그와 함께 인파 속에 섞여 들어갔다. 공연장 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꾼의 말소리를 듣고 보니, 마침 삼국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관운장이 뼈를 깎아 독을 치료하는 장면이었다.

당시 관운장은 왼쪽 팔에 화살을 맞아 독이 뼈까지 침투한 상태였다. 의원 화타가 말하기를, "이 독을 없애려면 먼저 구리 기둥을 세우고 철 고리를 얹은 뒤, 팔을 그 사이로 통과시켜 밧줄로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그다음 살을 가르고 뼈를 3푼 정도 깎아내어 독을 제거한 뒤, 기름을 먹인 실로 꿰매고 겉에는 약을 바른 뒤 안에는 보양하는 약제를 쓰면, 보름 안에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병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관공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대장부가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늘, 하물며 팔 하나뿐이겠느냐? 구리 기둥이나 철 고리 따위는 필요 없다. 그냥 지금 바로 깎아내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고는 즉시 바둑판을 가져오게 하여 손님들과 바둑을 두면서, 왼쪽 팔을 들어

올려 화타에게 뼈를 깎아 독을 뽑게 했다. 그러면서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손님들과 태연하게 담소를 나누었다.

이야기가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 인파 속에 있던 이규가 크게 외쳤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대장부로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모두 이규를 쳐다보았다. 연청이 황급히 그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이 형님, 왜 이러십니까! 공연장에서 어찌 이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이규가 말했다. "이야기가 이쯤 되니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네!"

연청은 이규를 끌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두 사람이 상가와를 벗어나 골목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내가 벽돌과 기와를 던지며 한 집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집 사람이 말했다. "태평성대에 천하가 이 모양이라니! 두 차례나 끝낸 일을 두고 돈도 갚지 않으면서, 도리어 내 집을 부수려 들다니!"

'흑선풍' 이규는 이 말을 듣고 불의를 참지 못해 달려가 싸우려 했다. 연청이 죽어라 붙잡았으나, 이규는 눈을 부라리며 싸울 기세였다. 그러자 그 사내가 말했다. "나는 저 사람과 빚을 청산하러 온 것이지, 당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나는 곧 장 초토사(張招討)를 따라 강남으로 출정할 몸이니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거기 가봤자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싸우다 죽으면 차라리 좋은 관이라도 얻을 수 있겠소."

이규가 물었다. "강남으로 간다니, 무슨 소리요? 병사를 모으고 장수를 차출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소."

연청이 겨우 싸움을 말린 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골목을 빠져나와 작은 찻집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아 차를 마셨다.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노인이 차를 권하며 한담을 나누게 되었다.

연청이 물었다. "어르신, 방금 골목 입구에서 어떤 군인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 초토사를 따라 강남으로 출정하러 간다던데, 대체 어디로 출정하러 가는 것입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손님께서는 모르시는 모양이구려. 지금 강남에서 도적 방랍이 반란을 일으켜 8주 25현을 점령했소. 목주에서 시작해 윤주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나라를 세웠으니, 머지않아 양주를 공격해 올 것이오. 그래서 조정에서 이미 장 초토사(張招討)와 유 도독(劉都督)을 보내 토벌하게 했소이다."

연청과 이규는 그 말을 듣고 황급히 찻값을 치른 뒤, 골목을 빠져나와 곧장 성 밖으로 달려가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군사 오용을 찾아가 이 사실을 보고했다. 오용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송강 선봉에게 달려가 강남에서 방랍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조정에서 이미 장 소탕을 보내 군사를 이끌게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송강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우리 장수들과 군사들이 이곳에서 한가하게 머무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오. 사람을 보내 숙 태위에게 알리고, 천자 앞에서 우리도 기꺼이 군사를 일으켜 정벌에 나서고 싶다고

품의를 올리도록 합시다." 그 자리에서 장수들을 모아 상의하니 모두가 기뻐했다.

다음 날, 송강은 옷을 갈아입고 연청을 데리고 이 일을 알리기 위해 곧장 성안으로 들어갔다. 태위의 관저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리니, 마침 태위가 관저에 있었다. 태위가 사람을 시켜 소식을 전하자, 태위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명했다. 송강은 대청에 이르러 다시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다.

숙 태위가 물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평복 차림으로 오셨습니까?"

송강이 아뢰었다. "최근 조정에서 방을 붙여, 출정하는 관군은 부름을 받지 않고서는 함부로 성안에 들어올 수 없게 하였습니다. 오늘 소장이 사사로이 이곳까지 걸어온 것은 은상(恩相, 재상)께 고하기 위함입니다. 듣자하니 강남에서 방랍이 반란을 일으켜 주와 현을 점령하고, 멋대로 연호를 바꾸었으며, 윤주까지 침범하여 머지않아 강을 건너 양주를 공격할 것이라 합니다. 저희 송강의 군사들이 오랫동안 한가하게 이곳에 주둔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저희가 기꺼이 병마를 거느리고 나가 토벌하여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고자 하오니, 부디 은상께서 천자께 품의를 올려 주시옵소서!"

숙 태위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장군의 말씀이 바로 내 뜻과 같소! 내가 온 힘을 다해 품의를 올리겠소. 장군은 우선 돌아가 계시오. 내가 미리 준비하여 품의를 올리면 천자께서 반드시 중용하실 것이오."

송강은 태위에게 작별을 고하고 진영으로 돌아와 모든 형제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한편, 숙 태위는 다음 날 아침 조정에 들어갔다. 천자가 피향전에서 백관들과 함께 정사를 논하고 있었는데, 마침 강남의 방랍이 반란을 일으켜 8주 25현을 점령하고 연호까지 바꾸어 스스로 패권을 휘두르며, 조만간 양주를 공격해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천자가 말했다. "이미 장 초토사와 유 도독을 보내 정벌하게 하였으나, 아직 진척되는 소식이 없구나."

숙 태위가 줄을 비켜 나아가 품의했다. "저 도적놈들이 큰 화근이 되었으니, 폐하께서 이미 장 총병과 유 도독을 보내셨으나, 여기에 더하여 정서(征西)에서 승리를 거둔 송 선봉을 다시 파견하신다면, 그 두 군마가 선봉이 되어 도적을 소탕하고 반드시 큰 공을 세울 것이옵니다."

천자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급히 사신을 보내 성원(省院)의 관원을 불러 성지를 듣게 하라 명했다. 이때 장 초토사의 참모인 종(從)과 경(耿) 두 사람 역시 송강의 군사를 선봉으로 조정하여 토벌하게 해달라고 품의를 올렸다. 성원(省院)의 관원이 전각에 도착하여 성지를 받들고는, 즉시 송강 선봉과 노준의 선봉을 피향전 아래로 불러 천자를 알현하게 했다.

송강 일행이 절을 올리고 춤을 추며 예법을 마친 뒤, 천자가 칙령을 내려 송강을 평남도총관(平南都總管)에 봉하고 방랍 정벌의 정선봉(正先鋒)으로 삼았다. 또한 노준의를 병마부총관(兵馬副總管)에 봉하

고 평남부선봉(平南副先鋒)으로 삼았다. 각자에게는 금띠 하나, 비단 도포 한 벌, 금갑옷 한 벌, 명마 한 필과 채색 비단 스물다섯 필을 하사하였다. 그 외의 정·편장수들에게는 비단과 은을 하사하며, 추후 공을 세우는 차례에 따라 이름을 올려 관직을 높여줄 것이라 하였다. 삼군의 두목들에게도 은을 하사하니, 이 모든 물품은 내무부에서 지급하며 즉시 출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송강과 노준의는 성지를 받들고 천자께 작별을 고했다. 그러자 황제가 말했다. "경들의 무리 가운데 옥석에 글씨를 새기는 재주가 있는 금대견과 명마를 알아보는 재주가 있는 황보단이 있으니, 이 두 사람을 남겨두어 곁에서 부리도록 하라."

송강과 노준의는 명을 받들어 다시 절하며 은혜에 감사한 뒤, 전각을 나와 말에 올라 진영으로 돌아갔다.

송강과 노준의는 말 위에서 기쁨을 나누며 나란히 말을 달렸다. 성을 빠져나와 가는데, 저잣거리에 한 사내가 물건 하나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두 개의 정교한 막대기 사이에 작은 줄을 꿰어 놓고 손으로 잡아당기니, 물건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었다. 송강은 그것을 보고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군사에게 시켜 그 사내를 불러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게 했다. 사내가 대답했다. "이것은 호교(胡敲)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잡아당기면 저절로 소리가 납니다."

송강은 그 모습을 보고 시 한 수 지었다.

낮게 울리다 다시 높게 울리니, 맑고 드높은 소리 푸른 하늘을 뚫는다. 기세와 힘은 실로 대단하나, 이끌어 줄 사람 없으니 헛되이 애만 쓰는구나.

송강은 말 위에서 노준의에게 웃으며 말했다. "저 호교라는 물건이 꼭 나와 자네를 닮았구려. 하늘을 찌를 듯한 재주를 가졌어도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소리를 울릴 수 있겠소?"

노준의가 대답했다. "형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품은 학식과 지략은 예나 지금의 이름난 장수들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재주가 없다면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 준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아우, 자네가 틀렸네! 만약 숙 태위께서 힘을 다해 품의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천자의 중용을 받아 이 자리에 올랐겠는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되네!"

노준의는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닫고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진영으로 돌아와 막사에 올라 앉았다. 그때 여러 장수를 불러 모았는데, 여장수인 경영은 임신하여 병이 들었기에 동경에 남겨 두고 엽청 부부에게 곁에서 간호하며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했다. 그 외의 장수와 부하들은 모두 말과 안장, 갑옷을 챙겨 방랍을 토벌하러 떠날 채비를 마쳤다.

그 후 경영은 병이 나았고, 달이 차자 얼굴이 네모지고 귀가 커다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장절이라 지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적장 여

천윤(厲天閏)에게 독송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경영은 슬픔에 겨워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곧바로 엽청 부부와 함께 직접 독송관으로 가서 관을 메고 장청의 고향인 장덕부까지 가서 안장하였다. 이후 엽청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경영은 안씨 노파와 함께 홀로 남은 아이를 지키며 고생스럽게 키웠다.

장절이 자라나 오개를 따라 화상원에서 금올술을 크게 격파하였는데, 이때 올술은 급히 수염을 깎아 버리고 달아날 만큼 참패하였다. 이 공로로 장절은 관직을 받았고, 집으로 돌아와 양모를 모시다 천수를 누렸으며, 조정에 아뢰어 그 어머니의 정절을 표창받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경영 등이 보여준 정절과 효의 결과였다.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다시 송강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송강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방랍을 토벌하러 떠나기로 한 다음 날, 내부(內府, 황실 재무 기관)에서 하사한 비단과 은자를 받아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고 삼군의 두목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러고는 곧바로 금대견과 황보단을 어전으로 불러 명을 받들게 했다.

송강은 한편으로 전선을 배치하여 먼저 출발하게 하고, 수군 두령들에게는 노와 돛을 정비하여 큰 강을 바라보며 나아갈 채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마군 두령들에게도 활, 화살, 창, 칼, 옷과 갑옷을 정비하라 이르고, 수군과 기병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출정 준비를 마쳤다. 이때 채 태사가 부하 관원을 진영으로 보내 지살성 성수서생 소양을 찾아와 대필을 부탁하게 했다. 이튿날에는 왕 도위가 찾아와 송강에게 노래를 잘 부르는 철교자 악화를 자기 부처의 심부름꾼으로 보내달라고

청했다. 송강은 그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그 두 사람을 보내주었다.

송강은 이로써 다섯 명의 형제를 떠나보내게 되어 마음이 몹시 울적했다. 그는 노준의와 함께 대책을 논의한 뒤, 모든 군사를 소집하여 출정 준비를 마쳤다.

한편, 강남의 방랍은 반란을 일으킨 지 이미 오래되었고 세력을 점차 키워오더니, 뜻밖에도 이토록 거대한 사업을 일구어 놓았다. 본래 방랍은 흡주의 산골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이었는데, 시냇가에 가서 손을 씻으려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머리에 평천관을 쓰고 몸에는 곤룡포를 입은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이를 사람들에게 말하며 자신에게 천자의 복분이 있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마침 주면이 오중에서 화석강(꽃과 돌을 징수하는 부역)을 강요하자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고, 모두가 난을 일으키고 싶어 하던 차에 방랍이 기회를 틈타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청계현 내의 방원동(幫源洞)에 보전과 내원, 궁궐을 세웠고, 목주와 흡주에도 각각 행궁을 마련했다. 또한 문무관직을 설치하고 성원의 관료와 내상, 외장 등 온갖 대신들을 두었다. 목주는 지금의 건덕이며 송나라에서 엄주로 이름을 바꾸었고, 흡주는 지금의 무원이며 송나라에서 휘주로 이름을 바꾸었다. 방랍은 이곳에서부터 윤주, 즉 지금의 진강까지 세력을 뻗쳤으니, 모두 여덟 주와 스물다섯 현에 달했다. 여덟 주는 흡주, 목주, 항주, 소주, 상주, 호주, 선주, 윤주였고, 스물다섯 현은 모두 이 여덟 주에 속해 있었다. 당시 가흥, 송강, 숭덕, 해녕은 모두 현의 치소였다. 방랍은 스스로 국왕을 자처하며 한 지방을 독점하고 있으니,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본래 방랍의 운명은 천서(天書)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추배도(推背圖)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만(萬)에 한 점을 더하니, 겨울이 다해야 비로소 존귀해지리라. 절강의 물길을 종횡무진 누비며, 오흥 땅에서 그 흔적을 드러내리라."

여기서 '만(萬)에 한 점을 더한다'는 것은 '만(萬)' 자 위에 점 하나를 찍으면 '방(方)' 자가 된다는 뜻이다. '겨울이 다한다'는 것은 '납(臘, 겨울의 끝)'을 의미한다. '존귀해진다'는 것은 남쪽을 향해 앉아 임금이 된다는 뜻이니, 바로 방랍이라는 이름과 딱 맞아떨어졌다. 그는 강남의 여덟 군을 점령하고 양자강이라는 천혜의 요새를 가로막고 있으니, 회서 지역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로운 상황이었다.

다시 송강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송강이 장수들을 선발하여 출정할 때, 성원의 여러 관원을 작별하고 떠나는데, 숙 태위와 조 추밀이 친히 와서 배웅하며 삼군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수군 두령들은 이미 전선을 이끌고 사수를 지나 회하로 들어와 회안군의 둑을 바라보며 양주로 모여들어 정비했다. 송강과 노준의는 숙 태위와 조 추밀에게 작별 인사를 올린 뒤, 군마를 다섯 갈래로 나누어 육로를 통해 양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별다른 일 없이 전군이 먼저 회안현에 진을 쳤다. 이때 그 지역의 관원들이 연회를 베풀어 송강 선봉대를 맞이하며 성안으로 모셔 대접하더니, 이렇게 말하며 사정을 일러주었다.

"방랍의 도적 떼가 워낙 거대하니 결코 적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앞에 양자강이 있는데, 이곳은 강남에서 첫 번째로 험난한 요충지입니다. 강 건너편은 바로 윤주입니다. 지금은 방랍의 수하인 추밀 여

사양과 열두 명의 통제관이 강둑을 지키고 있습니다. 윤주를 근거지로 삼지 못한다면 적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송강은 이 말을 듣고 군사 오용에게 좋은 계책을 내놓으라고 청했다. 눈앞에 큰 강이 가로막고 있으니 반드시 수군의 배를 앞세워야 했다. 오용이 말했다.

"양자강 가운데 금산과 초산 두 산이 있어 윤주 성곽에 맞닿아 있습니다. 형제 몇 명을 보내 길을 정찰하게 하고, 강 건너편의 소식을 알아보게 한 뒤, 어떤 배를 써야 강을 건널 수 있을지 알아오도록 합시다."

송강이 명을 내려 수군 두령들을 불러 모으고 물었다.

"너희 형제들 중 누가 나와 함께 먼저 가서 길을 정찰하고, 강 건너편의 소식을 알아오겠느냐?"

그러자 막사 아래에서 네 명의 장수가 앞으로 나서며 모두 기꺼이 가겠다고 나섰다. 만약 이들이 정찰하러 가지 않는다면, 북고산처럼 시체가 높이 쌓이고 양자강이 붉은 피로 물들 것이었다. 대군이 오룡진을 펼치듯 거침없이 강을 건너고, 전함이 백안탄을 삼키듯 기세 좋게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송강의 군사가 어떻게 방랍을 토벌하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0회 — 장순이 밤에 금산사에서 매복하고, 송강이 지혜로 윤주성을 취하다

張順夜伏金山寺 宋江智取潤州城

이야기는 이러하다. 구천삼백 리에 달하는 양자강은 한양강, 순양강, 양자강이라는 세 강과 멀리 이어져 있다. 사천에서 시작하여 대해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얼마나 많은 곳을 지나가는지 모르니, 이를 일컬어 만리장강이라 한다. 땅은 오나라와 초나라로 나뉘어 있는데, 강 한가운데에는 두 개의 산이 솟아 있다. 하나는 금산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초산이라 부른다. 금산에는 산을 둘러싸듯 건물을 지어 올린 사찰이 있어 '사찰 속의 산'이라 하고, 초산에는 산골짜기 깊숙이 숨어 있어 그 형체가 잘 보이지 않는 사찰이 있으니 이를 '산 속의 사찰'이라 한다. 이 두 산은 강 한복판에 솟아 있어 초나라의 끝과 오나라의 시작을 딱 가로지르고 있는데, 한쪽은 회동의 양주요, 다른 한쪽은 절서의 윤주이니, 지금의 진강 지역이다.

한편 윤주의 성곽은 방랍의 수하인 동청추밀사 여사낭이 강안을 지키고 있었다. 이 사람은 본래 흡주의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방랍

에게 군량과 돈을 바친 공으로 동청추밀사라는 관직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병법과 전술을 익혔으며, 장팔사모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무예가 아주 출중했다. 그의 부하에는 열두 명의 통제관이 있었는데, 이들은 '강남십이신'이라는 별호로 불리며 여사낭과 함께 윤주의 강안을 수비했다. 그 열두 신은 다음과 같다.

"경천신" 복주 출신의 심강, "유혁신" 흡주 출신의 판문득

"둔갑신" 목주 출신의 응명, "육정신" 명주 출신의 서통

"벽력신" 월주 출신의 장근인, 항주 출신의 "거령신" 심택

"태백신" 호주 출신의 조의, "태세신" 선주 출신의 고가립

"조객신" 상주 출신의 범주, "황번신" 윤주 출신의 탁만리

"표미신" 강주 출신의 화동, "상문신" 소주 출신의 심림

이야기는 이러하다. 추밀사 여사낭은 5만 명의 남병을 거느리고 강안을 지켰다. 감로정 아래에는 3천여 척의 전선이 늘어서 있었는데, 강북 기슭의 과주 나루는 물결이 잔잔하여 딱히 막힐 만한 험난한 곳이 없었다.

이때 선봉사 송강의 군마와 전선은 수륙 양면으로 진격하여 이미 회안에 도착했으며, 양주에서 전열을 가다듬기로 했다. 그날 송강은 막사 안에서 군사 오용 등과 상의하며 말했다. "이제 대강(양쯔강)이 멀지 않았는데, 강남 기슭은 적병들이 지키고 있다. 누가 나를 대신해 먼저 가서 길을 정탐하고, 강 건너편의 소식을 알아내어 진군할 수 있을

지 살펴보고 오겠는가?" 그러자 장하의 네 장수가 모두 자원하겠다고 나섰다. 그 네 사람은 '소선풍' 시진, '랑리백조' 장순, '병명삼랑' 석수, 그리고 '활염라' 완소칠이었다. 송강이 말했다. "너희 네 사람은 두 조로 나누어라. 장순과 시진이 한 조가 되고, 완소칠과 석수가 한 조가 되어라. 금산과 초산 중 한 곳에 닿으면 하룻밤 묵으면서 윤주의 적진이 어떠한지 실태를 파악한 뒤, 양주로 돌아와 보고하라." 네 사람은 송강에게 인사를 올린 뒤, 각각 두 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손님으로 변장하여 양주로 향했다. 이때 양주의 백성들은 대군이 방랍을 토벌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가족을 이끌고 마을로 들어가 몸을 피한 상태였다. 네 사람은 양주 성안에서 흩어져 각자 약간의 건량을 준비했다. 그 중 석수는 완소칠과 함께 수행원 두 명을 데리고 초산으로 향했다.

한편, 시진과 장순도 수행원 두 명을 데리고 건량을 몸에 지닌 채, 날카로운 칼과 박도를 하나씩 들고 과주로 달려갔다. 이때는 마침 초봄이라 날씨가 따스하고 꽃향기가 그윽했다. 양쯔강가에 이르러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하얀 물결이 넘실거리고 안개가 파도처럼 굽이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강 경치였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만 리에 펼쳐진 물결과 만 리에 펼쳐진 하늘,
붉은 노을은 멀리 바다 동쪽 끝을 비추네.
고기 잡는 어부는 아무 걱정 없이,
푸른 도롱이 두른 채 취해 자유로이 잠드네.

시진과 장순 일행이 북고산 아래를 바라보니, 사방에 청색과 백색의 깃발이 나부끼고 강변에는 배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으나, 강북 기슭에는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다. 시진이 말했다. "과주 길에 비록 집들은 있으나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강 위에는 나룻배도 없으니, 어찌 강 건너 소식을 알아낼 수 있겠는가?" 장순이 말했다. "우선 집 한 채를 얻어 묵으면서, 이 동생이 물을 건너 강 건너 금산 기슭까지 가서 적의 허실을 알아보겠네." 시진이 말했다. "그 말이 옳네." 네 사람은 곧장 강변으로 달려가 초가집 몇 채를 발견했으나, 모두 문이 굳게 닫혀 있어 밀어도 열리지 않았다. 장순이 고개를 돌려 벽 한쪽을 밀어젖히고 안으로 기어 들어가니,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아궁이 옆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장순이 물었다. "할머니, 어찌하여 문을 열어두지 않으십니까?" 할머니가 대답했다. "손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요. 요사이 조정에서 대군을 일으켜 방랍과 싸운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곳은 바람과 물이 드나드는 길목이라, 몇몇 집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몸을 피하고, 노신만 남아서 집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장순이 물었다. "댁의 장정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할머니가 말했다. "마을로 식구들을 보러 갔습니다." 장순이 말했다. "우리 네 사람이 강을 건너가려 하는데, 배를 구할 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말했다. "배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요사이 여 추밀이 대군이 쳐들어와 싸운다는 말을 듣고, 배들을 모두 거두어 윤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장순이 말했다. "우리 네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니, 그저 댁에서 이틀만 묵어가려 합니다. 숙박비로 은자를 조금 드릴 테니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다. "묵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잠자리용 침상이나 돗자리가 없습니다." 장순이 말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

겠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다. "손님들, 아침저녁으로 대군이 들이닥칠까 걱정입니다!" 장순이 말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피하겠습니다."

이윽고 문을 열어 시진과 수행원들을 들여보내니, 그들은 모두 박도를 몸에 기대어 세워두고 짐을 내려놓은 뒤, 건량과 구운 떡을 꺼내 먹었다. 장순이 다시 강가로 나가 강 경치를 바라보니, 금산사가 강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강물은 거북 등껍질처럼 굽이치고, 산은 용의 비늘처럼 솟아 있네.
은빛 물결은 소라 모양으로 솟구치고, 푸른 비단 같은 물결은 멀리 펼쳐지네.
멀리 금빛 전각을 보니, 여덟 방향의 하늘 바람을 맞이하고;
멀리 종루를 바라보니, 천 층의 바위벽에 기대어 있구나.
높은 탑은 푸른 바다 위로 지는 해를 찌르고, 강의는 푸른 물결 위로 구름을 비추네.
끝없는 누각에서는 만 리 밖 돛배를 보고,
날아갈 듯한 정자에서는 온 세상의 맑은 기운을 품네.
곽박의 무덤에서는 용이 파도를 내뿜고, 금산사에서는 귀신이 등불을 옮기네.

장순이 강가에서 한참 동안 경치를 바라보더니 속으로 생각했다. '윤주의 여 추밀이 분명 수시로 이 산에 들를 것이다. 오늘 밤 내가 한번 다녀오면 반드시 소식을 알아낼 수 있으리라.' 그는 돌아와 시진과 상의하며 말했다. "지금 이곳에 도착해 보니 작은 배 한 척조차 없으니, 강 건너 상황을 어찌 알 수 있겠나. 오늘 밤 내가 옷가지들을 묶어 매달

고 큰 은덩이 두 개를 머리 위에 얹어 곧장 금산사로 가겠네. 거기서 스님들에게 뇌물을 좀 건네어 적의 실태를 알아낸 뒤, 선봉 형님께 보고하겠네. 자네는 그저 여기서 기다리게." 시진이 말했다. "일을 마치는 대로 곧장 돌아오게나."

그날 밤은 별과 달이 어우러져 빛나고 바람은 잔잔하며 물결도 고요하여, 하늘과 물이 한 빛깔이었다. 황혼 무렵, 장순은 웃통을 벗고 흰 비단으로 만든 물속용 잠방이를 허리에 단단히 동여맸다. 머리에 쓴 수건과 옷가지로 큰 은덩이 두 개를 싸서 머리 위에 얹어 묶은 뒤, 허리에는 날카로운 칼 한 자루를 차고 과주에서 물에 들어 곧장 금산이 있는 강 한가운데로 헤엄쳐 나아갔다. 물이 가슴팍까지밖에 오지 않아 물속을 걷는 것이 마치 마른 땅을 걷는 것과 같았다. 한참을 나아가 금산 발치에 이르니, 바위 봉우리 곁에 작은 배 한 척이 매여 있는 것이 보였다. 장순은 배가 있는 곳으로 기어 올라가 머리에 얹었던 보따리를 내려놓고 젖은 옷을 벗은 뒤 몸을 닦고 옷을 입고 배 안에 앉았다. 윤주의 경고(更鼓) 소리가 들려오니 마침 삼경이었다. 장순이 배 안에 엎드려 살피는데, 상류 쪽에서 작은 배 한 척이 노를 저으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장순이 보고 말했다. "저 배가 다가오는 모양새가 수상하니 분명 첩자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자기 배를 풀어 띄워 가려 했으나, 뜻밖에도 그가 탄 배는 굵은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는 데다 노와 삿대도 없었다. 장순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옷을 벗고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고 다시 강물로 뛰어들어 그 배 곁으로 곧장 헤엄쳐 갔다. 배 위의 두 사람은 노를 저으며 북쪽 기슭만 바라볼 뿐, 남쪽은 경계하지 않고 오로지 노 젓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장순이 물밑으로 잠영하여 배 옆으로 다가가 뱃전을 붙잡고 칼로 휙 베어내니, 노를 젓던 두 사람이 노를 놓치고

강물로 곤두박질쳤다. 장순이 재빨리 배 위로 뛰어올랐다. 그때 배 안에서 두 사람이 기어 나오자, 장순이 칼을 휘둘러 한 명을 베어 물에 빠뜨렸고, 남은 한 명은 겁에 질려 배 안으로 움츠러들었다. 장순이 호통을 쳤다. "네놈은 누구냐? 어디서 온 배냐? 사실대로 말하면 살려주마!" 그가 말했다. "호걸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인은 이곳 양주 성 밖 정포촌 진 장사(陳將士) 댁의 일꾼입니다. 윤주로 가서 여 추밀께 투항·문안드리고 식량을 바치는 일이 허락되자, 우후(虞候) 한 명을 소인과 함께 돌려보내 진상 예물로 바칠 백미 오만 석과 배 삼백 척을 받아오게 하셨습니다." 장순이 물었다. "그 우후라는 자는 성이 무엇이고 이름이 무엇이며 지금 어디 있느냐?" 일꾼이 대답했다. "우후의 성은 엽(葉)이고 이름은 귀(貴)인데, 방금 호걸님께서 베어 물에 빠뜨린 자가 바로 그놈입니다." 장순이 다시 물었다. "네놈의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이냐? 언제 건너갔으며 배에는 무엇이 실려 있느냐?" 일꾼이 말했다. "소인의 성은 오(吳)이고 이름은 성(成)입니다. 올해 정월 초이레에 강을 건넜습니다. 여 추밀께서 소인에게 곧장 소주로 가서 어제(御弟, 방랍의 아우) 삼대왕 방모(方貌)를 만나라 하셨고, 그곳에서 신호용 깃발 삼백 면과 주인 진 장사의 관직 임명장 — 양주부윤(揚州府尹)에 봉하고 중명대부(中明大夫)의 작위를 정식으로 내린다는 임명장 — 그리고 관복 천 벌과 여 추밀의 공문(劄) 한 통을 받아 왔습니다." 장순이 다시 물었다. "네 주인의 성명은 무엇이며 인마는 얼마나 되느냐?" 오성이 말했다. "사람은 수천 명이고 말은 백 마리 남짓입니다. 친자식으로 아주 대단한 녀석이 둘 있는데, 장남은 진익(陳益)이고 차남은 진태(陳泰)입니다. 주인 장사의 이름은 진관(陳觀)이라 합니다." 장순이 그 내력과 오가는 사정을 낱낱이 캐물은 뒤, 오성마저 칼

로 베어 물에 빠뜨렸다. 그리고 배 뒷부분에서 노를 저어 곧장 과주로 향했다.

시진이 노 젓는 소리를 듣고 급히 나와 보니 장순이 배를 저어 오고 있었다. 시진이 그 까닭을 묻자 장순이 방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말해주었다. 시진은 크게 기뻐하며 배 안으로 들어가 문서 꾸러미와 붉은 비단으로 만든 신호기 삼백 면, 그리고 여러 색깔의 관복 천 벌을 꺼내어 두 짐으로 나누어 차곡차곡 꾸렸다. 장순이 말했다. "내가 가서 옷가지를 가져오겠네." 그는 배를 다시 금산 발치로 저어 가 옷가지와 두건, 그리고 은덩이를 챙겨온 뒤 다시 과주 기슭으로 저어 왔다. 날이 막 밝아오는데 짙은 안개가 땅을 뒤덮고 있었다. 장순은 배에 구멍을 내어 강물 속으로 밀어 넣어 가라앉혔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은자 두세 냥을 노파에게 건네주고, 두 명의 일행과 함께 짐을 짊어진 채 곧장 양주로 돌아왔다. 이때 송강 선봉의 군마들은 모두 양주 성 밖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양주의 관리들이 송강 선봉을 맞이하여 성 안의 관역(官驛)에 머물게 하고 연일 잔치를 베풀며 군사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있었다.

한편, 시진과 장순은 잔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관역에서 송강을 만났다. 그들은 진관 부자가 방랍과 결탁하여 조만간 도적 떼를 유인해 강을 건너게 한 뒤 양주를 공격하려 한다는 사실을 상세히 보고했다. 다행히 강 한가운데서 이를 마주쳤으니, 이는 주군에게 큰 공을 세운 일이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군사 오용을 불러 좋은 계책이 있는지 상의했다. 오용이 말했다. "이미 이런 기회가 생겼으니, 윤주 성을 손에 넣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습니다! 먼저 진관을

잡으면 큰일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는 즉시 '낭자' 연청을 불러 엽 우후로 변장시키고, 해진과 해보에게는 남군(南軍)으로 변장하게 했다. 정포촌으로 가는 길을 물어본 뒤, 해진과 해보는 짐을 짊어지고 연청은 세세한 지시를 모두 전해 들은 채 세 사람이 양주 성을 나와 정포촌으로 향했다. 성에서 마흔 리 넘게 나아가니 일찌감치 진 장사의 장원에 도착했다. 문 앞에는 이삼십 명의 장원 식솔들이 모두 정돈된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대나무로 엮은 삿갓 위에는 검은 술이 달린 띠를 둘렀고, 가는 실로 꿰맨 덧옷 위에는 허리에 팔 척 길이의 붉은 비단띠를 맸다. 소 가죽으로 만든 신발은 산을 오를 때 화살처럼 날렵해 보였으며, 노루 가죽으로 만든 버선은 발을 솜처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다. 사람마다 저마다 기러기 깃털을 장식한 칼을 차고 있었고, 하나같이 까마귀 부리 모양의 송곳을 들고 있었다.

연청은 즉시 절강 지방 사람의 말투를 흉내 내며 장원 식솔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장사 어른의 댁이 여기 맞습니까? 계십니까?" 식솔이 물었다. "손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연청이 대답했다. "윤주에서 왔소. 강을 건너다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반나절을 헤매다 겨우 여기까지 물어왔소." 그 말을 들은 식솔은 연청을 객실로 안내하여 짐을 내려놓게 한 뒤, 후청으로 데려가 진 장사를 만나게 했다. 연청은 절을 올리며 말했다. "엽귀가 뵙습니다!" 절을 마친 진 장사가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연청은 절강 사투리를 섞어 쓰며 말했다. "한가한 자들을 물려 주셔야 상공께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진 장사가 말

했다. "이들은 모두 내 심복들이니 편히 말하게." 연청이 말했다. "소인은 성은 엽이요 이름은 귀라 하며, 여(呂) 추밀사 휘하의 우후입니다. 지난 정월 초이레에 오성의 밀서를 받으시고 추밀사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특별히 저 엽귀를 보내 오성을 소주로 데려가 어제(御弟)이신 삼대왕(三大王, 방랍의 아우)을 뵙고 상공의 뜻을 자세히 아뢰게 하셨습니다. 삼대왕께서 사람을 보내 위에 아뢰어 관고(官誥)를 내리셨으니, 상공을 양주부윤(揚州府尹)으로 봉하셨습니다. 두 직각사인(直閣舍人)께서는 여 추밀사를 뵙고 난 뒤에 관작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오성을 돌려보내려 했으나, 뜻밖에 오성이 풍한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추밀사께서는 큰일을 그르칠까 염려되어 특별히 저 엽귀를 보내 상공의 관고와 추밀사의 문서, 관방(關防), 패면(牌面), 그리고 호기(號旗) 삼백 면과 호의(號衣) 천 벌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날을 정하고 시각을 잡아, 상공께서 식량을 실은 배들을 이끌고 윤주 강가로 와서 인계받으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관고와 문서를 진 장사에게 건네주었다. 진 장사는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향안을 차리고 남쪽을 향해 사은(謝恩)의 예를 올린 뒤, 진익과 진태를 불러 만나게 했다. 연청은 해진과 해보에게 호의와 호기를 꺼내어 후청으로 가져가 전달하게 했다. 진 장사는 연청에게 앉으라고 청했다. 연청이 말했다. "소인은 그저 졸개일 뿐인데, 어찌 상공의 자리에 감히 앉겠습니까?" 진 장사가 말했다. "그대는 저 은상(恩相)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또 나에게 관고와 칙서까지 가져다주었는데 어찌 함부로 소홀히 대하겠는가? 잠시 앉아도 무방하네." 연청이 거듭 사양하다가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진 장사가 술을 가져오게 하여 잔을 들어 연청에게 권했으나, 연청은 "소인은 천계(天戒)가 있어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라며 사양했다. 진 장사가 술을 두세 순배 돌리자, 두 아들도 모두

나와 아버지를 축하하며 술을 권했다. 연청은 눈짓으로 해진과 해보에게 거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해보는 몸에서 군신(君臣)의 법도에 맞지 않는 독약을 꺼내어, 남들이 한눈파는 사이에 술병 속에 넣었다. 연청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엽귀가 비록 술을 가지고 강을 건너오지는 못했으나, 상공의 술과 과일을 빌려 잠시 축하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는 큰 잔에 술을 가득 따라 진 장사에게 올리며 이 잔을 다 비우시라 권했다. 이어 진익과 진태에게도 각각 한 잔씩 권했다. 곁에 있던 심복 식솔 몇 사람에게도 연청은 한 잔씩 권했다. 연청이 입을 삐죽 내밀어 신호하자 해진이 밖으로 나가 불씨를 찾아온 뒤, 몸에서 호기와 호포(號砲)를 꺼내 장원 앞에서 터뜨렸다. 좌우 양쪽에는 이미 두령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포 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와 호응했다. 연청은 대청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는 것을 보고, 품에서 단도를 꺼내 해보와 함께 일제히 손을 써서 이내 모두 그 머리를 베어버렸다. 장원 문밖에서는 열 명의 호걸이 요란하게 앞쪽에서 쳐들어왔다. 그 열 명의 장수는 화화상 노지심, 행자 무송, 구문룡 사진, 병관색 양웅, 흑선풍 이규, 팔비나타 항충, 비천대성 이곤, 상문신 포욱, 금표자 양림, 병대충 설영이었다. 문 앞의 식솔들이 어찌 이들을 막아낼 수 있었겠는가? 안에서는 연청, 해진, 해보가 이미 진 장사 부자의 머리를 들고 나왔다. 그때 장원 문밖으로 또 한 무리의 인마와 관군이 들이닥쳤는데, 그 선두에는 여섯 명의 장수가 있었다. 미염공 주동, 급선봉 색초, 몰우전 장청, 혼세마왕 번서, 타호장 이충, 소패왕 주통이었다. 이 여섯 장수는 천 명의 군마를 이끌고 장원을 포위한 채, 진 장사 일가의 노인과 아이들을…… 결국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모두 몰살했다. 장원 식솔들을 붙잡아 포구로 끌고 가 보니, 장원과 항구 근처에는 삼사백 척의 배가 정박해 있었는데 그 안에 식량과 쌀이 가득 실려 있었다. 장수들이 그 수를 확인한 뒤, 즉시 주장 송강에게 보고했다.

송강은 진 장사 일가가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오용과 함께 진격할 계책을 논의했다. 짐을 챙겨 총독 장 초토(張招討)에게 작별을 고한 뒤, 대부대를 이끌고 직접 진 장사의 장원으로 나아갔다. 송강은 앞장설 장수와 부하들을 나누어 배치하고 배에 올라 계책대로 움직이게 하는 한편, 사람을 보내 전투선들을 재촉해 건너가게 했다. 오용이 말했다. "빠른 배 삼백 척을 골라 배마다 방랍이 항복하며 내건 깃발을 꽂으시오. 군사 천 명에게는 군복(호의)을 입히고, 나머지 삼사천 명은 옷차림을 제각기 다르게 하시오." 삼백 척의 배 안에는 이만여 명의 군사가 매복했다. 또한 목홍에게는 진익으로 변장하게 하고, 이준에게는 진태로 변장하게 하여 각각 큰 배에 태웠으며, 나머지 배들에는 장수들을 나누어 배치했다.

첫 번째 배에는 목홍과 이준이 통솔을 맡았다. 목홍의 곁에는 열 명의 편장(偏將, 부장급 장수)이 호위하듯 둘러싸고 있었다. 그 열 명은 다음과 같았다.

항충, 이곤, 포욱, 설영, 양림이었다.

두천, 송만, 추연, 추윤, 석용이었다.

이준의 곁에는 열 명의 편장(偏將, 부장급 장수)이 호위하며 둘러싸고 있었다. 그 열 명은 다음과 같다.

동위, 동맹, 공명, 공량, 정천수였다.

이립, 이운, 시은, 백승, 도종왕이었다.

두 번째 배에는 장횡과 장순이 관령(군관)을 맡아 올라탔다. 장횡의 배에는 네 명의 편장이 호위하며 따르고 있었는데, 그 네 사람은 다음과 같았다.

조정, 두흥, 공왕, 정득손이었다.

장순의 배에는 네 명의 편장이 호위하며 따르고 있었는데, 그 네 사람은 다음과 같았다.

맹강, 후건, 탕륭, 초정이었다.

세 번째로 출발하는 배에는 열 명의 정장과 관령(군관 직책)을 보내 호위하게 하였고, 이들 또한 두 척의 배로 나누어 진격하게 했다. 그 열 명은 다음과 같았다.

사진, 뇌횡, 양웅, 유당, 채경이었다.

장청, 이규, 해진, 해보, 시진이었다.

이 300척의 배에는 대소 정편장과 장수들을 나누어 배치하여, 총 42명이 먼저 강을 건넜다. 그다음 송강 일행은 전선에 말들을 싣고, 유룡과 비형 등 1,000여 척의 배에 송나라 선봉사 송강의 깃발을 높이 세운 뒤, 대소 마보장(말을 타거나 걸어 다니는 장수)들을 일제히 배에 태워

강을 건너게 했다. 수군 두령인 완소이와 완소오가 뒤를 따르며 배들의 행렬을 독촉하고 관리했다.

송강의 중군이 강을 건너는 상황은 차치하고, 한편 윤주 북고산에서는 초소병이 맞은편 항구에서 전선 300여 척이 일제히 포구를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배들에는 군량을 호송하는 선봉 홍기 깃발이 꽂혀 있었고, 남군은 이 사실을 즉시 행성(行省)에 보고했다. 추밀사 여사낭은 12명의 통제관을 불러 모았다. 모두 갑옷을 완벽히 갖춰 입고 활과 화살에는 시위를 걸었으며, 칼과 창을 칼집에서 뽑아 든 정예병을 거느리고 강가로 나가 상황을 살폈다.

앞서온 100척의 배가 먼저 강가로 몰려왔는데, 배 위에서 보이는 두 명의 우두머리는 전후로 호위하는 무리들과 함께 금쇄자호의(금속 고리를 엮어 만든 갑옷)를 입고 있었으며, 하나같이 풍채가 당당한 거한들이었다. 여사낭은 말에서 내려 은교의에 앉았고, 12명의 통제관은 강가를 따라 두 줄로 늘어서서 지키고 섰다. 목홍과 이준은 여사낭이 강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예를 갖추었다. 좌우의 우후(虞候)가 배를 멈추라고 명령하자, 100척의 배가 일렬로 닻을 내렸다. 뒤따라 오던 나머지 200척의 배는 순풍을 타고 도착했는데, 좌우로 갈라져 100척은 왼쪽에, 100척은 오른쪽에 나란히 배치되어 세 줄로 균형 있게 닻을 내렸다.

객장사가 배에서 내려와 물었다. "배가 어디서 왔는가?" 목홍이 대답했다. "저희는 진관의 아들 진익과 형제 진태라 합니다. 아버님 진관께서 저희 형제를 특별히 보내어 백미 5만 석과 배 300척, 정예병 5천 명을 바치며, 추밀사 어른의 은혜로운 보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객장사가 물었다. "며칠 전 추밀사 어른께서 엽 우후를 보내셨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목홍이 말했다. "엽 우후와 오성은 각각 상한과 역병에 걸려 지금 장원에서 요양 중이라 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관방 문서(공문서)를 가져왔으니 여기 올립니다." 객장사는 문서를 받아 들고 강가로 올라가 여사낭에게 보고했다. "양주 정포촌의 진 부윤의 아들 진익과 진태가 군량과 병사를 바치러 왔으며, 가져온 관방 문서를 여기 올립니다." 여사낭이 살펴보니 과연 정식 공문이 맞았다. 그는 명령을 내려 두 사람을 상륙시키게 했다.

객장사가 진익과 진태를 불러 대면하게 했다. 목홍과 이준도 상륙하였고, 그 뒤를 이어 20명의 편장들이 따라붙었다. 군사들이 외쳤다. "경상(卿相)께서 여기 계시니, 잡다한 자들은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자 20명의 편장들이 모두 멈춰 섰다. 목홍과 이준은 몸을 굽히고 손을 맞잡은 채 멀찍이 서서 시중을 들었다. 객장사가 한참 후에야 한 사람을 안내하여 절을 올리게 하고 면전에 무릎을 꿇렸다.

여사낭이 물었다. "네 아버지 진관은 어찌하여 직접 오지 않았느냐?" 목홍이 아뢰었다. "아버님께서 양산박의 송강 일행이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혹여 도적들이 마을을 어지럽힐까 염려되어 집을 지키느라 감히 떠나지 못하셨습니다." 여사낭이 물었다. "너희 둘 중 누가 형이냐?" 목홍이 답했다. "진익이 형입니다." 여사낭이 다시 물었다. "너희 형제는 무예를 익혔느냐?" 목홍이 말했다. "어른의 은혜 덕분에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사낭이 물었다. "앞으로 올 군량은 어떻게 실을 것이냐?" 목홍이 답했다. "큰 배에는 300석, 작은 배에는 200석씩 싣겠습니다." 여사낭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다.

"너희 둘이 온 것이 혹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냐!" 목홍이 말했다. "저희 부자는 오직 효심뿐인데, 어찌 감히 다른 마음을 품겠습니까?" 여사낭이 말했다. "네 마음이 좋다 해도, 네 배에 탄 군사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구나. 너희 둘은 여기 머물러라. 내가 통제관 4명과 군사 100명을 내려보내 배를 수색하게 할 것이니, 만약 불필요한 물건이 나오면 결코 용서치 않겠다." 목홍이 말했다. "저희는 어른의 중용을 바라며 왔거늘, 어찌 의심하시나이까!"

여사낭이 막 통제관 4명을 내려보내 수색하려는데, 탐마(探馬, 정찰병)가 달려와 보고했다. "성지가 남문 밖에 도착했으니, 추밀사 어른께서는 즉시 말을 타고 나가 맞이하십시오." 여사낭은 급히 말을 타고 올라타며 명령했다. "강가를 잘 지키고 있어라! 이 진익과 진태는 나를 따라오게 하라!" 목홍은 이준과 눈빛을 주고받은 뒤, 여사낭이 먼저 떠나자 뒤따라갔다. 목홍과 이준은 20명의 편장을 데리고 성문으로 향했다. 성문을 지키던 장교가 외쳤다. "추밀사 어른께서 이 두 우두머리만 오라고 하셨다! 나머지는 따라오지 말고 거기서 대기하라!" 목홍과 이준은 통과했으나, 나머지 20명의 편장들은 성 밖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한편, 여사낭이 남문 밖으로 나가 천사(天使,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는 관리)를 접견하며 물었다. "어찌 이리 급히 오셨습니까?"

그 천사는 방랍 어전(御前)의 인진사(引進使, 사신을 인도·접견시키는 관직) 풍희였다. 그는 여사낭에게 은밀히 속삭였다. "최근 사천태감(司天太監, 천문 관측을 담당하는 태감) 포문영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밤에 천문을 관찰하니, 수많은 강성(罡星)이 오나라 땅의 분야로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절반은 빛이 없는 별들이 섞여 있어 그곳에 미칠 화가 작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천자께서 특별히 성지를 내려, 추밀사께서 강안을 엄중히 지키게 하셨습니다. 만약 북쪽에서 오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자세히 심문하여 실상을 캐물어야 하며, 형색이 기이한 자가 있으면 즉시 처단하고 결코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사낭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말했다. "방금 그 무리를 내가 몹시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이런 말을 듣게 되는군. 우선 성 안으로 들어가 성지를 읽어보자."

풍희와 여사낭이 함께 행성(行省)으로 가서 성지를 다 읽었을 때, 다시 전령이 말을 달려와 보고했다. "소주에서 또 사신이 왔는데, 어제(御弟, 황제의 아우)이신 삼대왕(三大王)의 영지(令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신이 전한 영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지난번 양주의 진 장사 일행이 투항했다는 일은 아직 믿을 수 없으니, 혹시 속임수일까 두렵다. 근래 성지를 받드니, 요즘 사천감(司天監)에서 강성이 오나라 땅의 분야로 들어오는 것을 관측하였다 하니, 강안을 굳게 지키도록 하라. 내가 조만간 직접 사람을 보내 감독하게 하겠다."

여사낭이 말했다. "대왕께서도 이 일을 염려하고 계시는군요. 소관 또한 이미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사낭은 즉시 사람들을 시켜 강면을 굳게 지키게 하고, 오는 배에서 내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상륙시키지 못하게 했다. 한편으로는 두 사신을 위해 연회를 베풀어 대접하였다.

한편, 300여 척의 배 위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갑자기 왼쪽의 배 100척에서 장횡과 장순이 8명의 편장을 거느리고 무기를 든 채 상륙했다. 오른쪽의 배 100척에서도 10명의 정장들이 창과 칼을 들고 들이닥쳤다. 강면을 지키던 남군들은 이들의 기습을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흑선풍 이규와 해진, 해보가 기세를 몰아 성 안으로 돌진했다. 성문을 지키던 관군들이 급히 나와 가로막았으나, 이규가 양손의 도끼를 휘두르며 찍고 베어 넘기니 성문을 지키던 관군 두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다. 성벽 근처에서 비명과 함성이 터져 나오자, 해진과 해보는 각각 강철 삼지창을 앞세워 성 안으로 난입하여 거침없이 몰아붙이니, 그 기세에 눌려 누가 어떻게 성문을 막아내겠는가. 이규는 성문 아래를 가로질러 서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베어 넘겼다. 먼저 성벽 근처에 있던 20명의 편장들도 무기를 빼앗기며 속수무책으로 죽어 나갔다. 여사낭이 급히 사람을 보내 강면을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미 적들이 성문을 뚫고 안으로 들이닥친 뒤였다.

12명의 통제관이 성벽 쪽에서 비명 소리를 듣고 각자 군마를 몰아 달려 나갔으나, 사진과 시진이 이미 300척의 배에 탄 군사들을 불러 모아 남군의 옷을 벗어 던지고 가장 먼저 상륙해 있었다. 배 안에는 미리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와 상륙을 도왔다. 성문을 지키려던 통제관 심강과 판문득이 두 갈래로 군마를 몰아 달려왔으나, 심강은 사진의 칼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고, 판문득은 장횡의 창에 찔려 쓰러졌다. 아비규환의 혼전이 벌어지자 10명의 통제관은 모두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성 안쪽으로 퇴각했다. 성 안에서 소식을 들은 목홍과 이

준은 주막에서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여사낭이 급히 말을 타고 달려 나왔을 때는 이미 세 명의 통제관이 달려와 구원을 시도하고 있었다. 성 안은 마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듯 화염에 휩싸였다.

과주에서 이 광경을 본 양산박 군대는 즉시 정예 기병을 보내 지원하러 나섰다. 성의 네 문에서 혼전이 한참 동안 이어지는 가운데, 성 위에는 어느덧 송강의 선봉 깃발이 높이 솟아올랐다. 사방팔방에서 인마가 뒤엉켜 싸우는 참혹한 광경은 이루 다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한편, 강북 기슭에는 이미 150여 척의 전선이 배를 대고 있었는데, 배마다 전마들을 일제히 끌어올리고 있었다. 선두에 선 10명의 장수들은 모두 갑옷과 무장을 완벽히 갖춘 상태로 상륙했다. 관승, 호연작, 화영, 진명, 학사문, 선찬, 단정규, 한도, 팽기, 위정국 등 10명의 대장과 정·편장 1,000명이 2,000여 명의 군마를 거느리고 성 안을 향해 거침없이 돌격했다. 이때 여사낭은 막 대패한 뒤라, 부상당한 인마를 이끌고 급히 단도현으로 달아난 뒤였다.

대군이 윤주를 점령한 뒤, 먼저 불길을 잡게 하고 네 성문을 나누어 지키게 한 다음 강가로 내려와 송강의 선봉대를 맞이했다. 강면에는 순풍을 타고 내려오는 배들이 마치 물 위를 나는 용과 고래처럼 가득했다. 크고 작은 장수들은 송강의 선봉대를 맞이하여 성 안으로 모셔 들였고, 미리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이어 본부의 장수들을 소집하여 중군으로 불러 모아 공을 치하하게 했다.

이때 장수들이 올린 전과가 대단했다. 사진은 심강의 머리를, 장횡은 판문득의 머리를, 유당은 심택의 머리를 바쳤다. 공명과 공량은 탁만리를 생포하였고, 항충과 이곤은 화동을 생포했으며, 학사문은 서통을 화살로 쏘아 죽였다. 윤주를 얻는 과정에서 통제관 4명을 죽이고 2명을 생포하였으며, 아장(牙將, 부장)과 병사들을 죽인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송강은 본부의 장수들을 소집하여 공을 치하하려 했으나, 난전 중에 편장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화살에 맞아 죽거나 말에 밟혀 죽은 이들은 바로 운리금강 송만, 몰면목 초정, 그리고 구미구 도종왕이었다. 송강은 아끼던 세 장수를 잃자 마음이 몹시 번뇌하여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오용이 곁에서 위로하며 말했다. "삶과 죽음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는 법입니다. 비록 형제 셋을 잃었으나, 강남의 첫 번째 요충지인 주군을 얻었으니 어찌 슬퍼하며 몸을 상하게 하십니까. 이제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워야 하니, 부디 마음을 다스리시고 대사를 논의하셔야 합니다."

송강이 탄식하며 말했다. "우리 108명은 천문에 기록된 대로 하늘의 별자리와 응하는 운명을 타고났소. 일찍이 양산박에서 뜻을 세우고 오대산에서 맹세하며 생사를 함께하기로 약속했거늘, 경성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공손승이 먼저 떠나고, 황제 곁에는 금대견과 황보단이 남았으며, 채 태사 밑에는 소량이, 왕 도위 밑에는 악화가 붙었소. 그런데 이제 막 강을 건너자마자 또 내 형제 셋을 잃었구려. 송만을 생각하니, 비록 큰 공을 세우지는 못했으나 일찍이 양산박을 세울 때 큰 힘이 되

어준 사람이었거늘, 오늘 이렇게 저승 길손이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깝소!"

송강은 즉시 명령을 내려 군사들에게 송만이 죽은 곳에 제단을 쌓게 하고, 은전과 제물을 준비하게 한 뒤 검은 돼지와 흰 양을 차례로 늘어놓게 했다. 송강은 직접 나서서 제사를 지내며 술을 올렸다. 또한 생포해 온 통제관 탁만리와 화동을 그 자리에서 참수하여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죽은 세 영웅의 넋을 기리는 제사에 바쳤다.

송강은 관아로 돌아와 장수들에게 공에 따른 상금을 내리고, 한편으로는 신장(申狀, 보고 문서)을 써서 장초토(張招討, 초토사)에게 알리고 청하는 사람을 보내었다. 거리에 널브러진 시체들은 모두 성 밖으로 치워 불태우게 했으며, 죽은 세 편장의 유해는 윤주 동문 밖으로 옮겨 정중히 장사 지냈다.

한편, 여사낭은 병력의 태반을 잃고 여섯 명의 통제관만을 거느린 채 단도현으로 퇴각하였으니, 감히 다시 진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에 급보 문서를 작성하여 소주로 보내, 삼대왕 방모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탐마가 달려와 보고하기를, 소주에서 형정원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하였다.

여사낭이 형정 원수를 접견하여 문안을 나누고 현청으로 돌아와, 진장사 일행이 거짓으로 항복하여 송강의 군대가 강을 건너도록 정보를 흘린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제 원수께서 이곳에 오셨으니, 함께 윤주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형정이 말했다. "삼대왕께서 강성(罡星)이 오나라 땅으로 들어온다는 징조를 아시고, 특별히 저를 보내 강면을 순찰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추밀사께서 패배하셨으니, 제가 대신 복수를 해드리고 전투를 도와 윤주를 탈환하겠습니다."

다음 날, 형정은 군사를 이끌고 윤주를 되찾기 위해 출정하였다.

한편, 송강은 윤주 관아에서 오용과 상의한 뒤, 동위와 동맹에게 백여 명의 군사를 주어 초산으로 가서 석수와 완소칠을 찾아오게 했다. 동시에 군사를 정비하여 성 밖으로 나가 단도현을 치기로 했다. 송강은 오천 명의 군마를 점검하고, 그 선봉으로 열 명의 정장(正將)을 보냈다. 그 열 명은 바로 관승, 임충, 진명, 호연작, 동평, 화영, 서녕, 주동, 색초, 양지였다. 열 명의 정장은 오천 명의 정예병을 거느리고 윤주를 떠나 단도현을 향해 나아갔다.

관승 일행이 길을 가던 중, 마침 형정의 군마와 마주쳤다. 양쪽 군대는 서로 대치하며 화살을 퍼부어 진영을 견제하고 진을 쳤다. 남군 진영에서는 형정이 창을 휘두르며 말을 몰고 나왔고, 여섯 명의 통제관은 양옆으로 나뉘어 배치되었다. 송군 진영에서 이를 본 관승이 말을 달려 청룡언월도를 휘두르며 형정에게 맞서 싸웠다. 두 장수가 열네다섯 합을 겨루던 중, 한 장수가 몸을 날리다 말에서 떨어졌다.

"항아리는 우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깨지기 마련이며, 장수는 반드시 전장에서 목숨을 잃는 법이라."

과연 두 장수가 치열하게 싸우니, 과연 누가 패하였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0회 — 노준의가 병력을 나누어 선주도로 가고, 송공명이 비릉군에서 크게 싸우다

盧俊義分兵宣州道 宋公明大戰毘陵郡

이야기는 이러하다. 원수 형정은 관승과 말을 달려 맞붙어 싸웠으나, 열네다섯 합을 채 넘기기도 전에 관승이 휘두른 칼날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져 전사했다. 이를 본 호연작은 군사를 크게 몰아 휘몰아 적을 쓸어버리니, 여섯 명의 통제관은 남쪽을 향해 도망쳤다. 여추밀은 자기 부대 군사들이 대패하는 것을 보고는 단도현을 버려둔 채, 부상당한 군마들을 이끌고 상주부로 도망쳤다. 한편, 송나라 군대의 대장 열 명이 단도현의 관아를 탈취한 뒤, 승전보를 송 선봉장에게 알리고 대부대를 이끌어 단도현으로 전진해 주둔했다. 이들은 삼군의 노고를 치하하는 상을 내리고, 장초토(張招討, 토벌 사령관)에게 급히 보고한 뒤 윤주(潤州)를 진수하기 위해 병력을 옮겼다. 다음 날, 중군의 종(從)·경(耿) 두 참모가 하사품을 가지고 단도현으로 왔다. 송강은 이를 받아 모든 장수에게 나누어 주었다.

송강은 노준의에게 병력을 나누어 진격할 방안을 의논하자고 청하며 말했다. "지금 선주와 호주 두 곳 역시 도적 방랍이 점거하고 있소. 내가 당신과 병력을 나누어 두 갈래로 토벌군을 보내려 하니, 두 장의 제비(鬮)를 써서 하늘에 대고 뽑도록 합시다. 제비에 적힌 지역이 나오면 그곳으로 군사를 이끌고 가는 것이오."

송강은 상주와 소주 지역을 뽑았고, 노준의는 선주와 호주 지역을 뽑았다. 송강은 곧바로 철면공목 배선을 불러 모든 장수를 공평하게 나누게 했다. 병이 들어 진격하지 못하고 단도현에 머물러야 하는 양지를 제외한 나머지 장교들은 모두 두 갈래 길로 나누어 배치했다. 송군 선봉장은 상주와 소주 두 곳을 공격하기 위해 장수와 부관들을 이끌고 나섰는데, 정장 13명과 편장 29명을 합쳐 총 42명의 장수가 편성되었다.

정장은 선봉장 '호보의' 송강, 군사는 '지다성' 오용이 맡았다.

정장은 '박천조' 이응, '대도' 관승이 맡았다.

정장은 '소이광' 화영, '벽력화' 진명이 맡았다.

정장은 '금창수' 서녕, '미염공' 주동이 맡았다.

'화화상' 노지심, '행자' 무송이 맡았다.

'구문룡' 사진, '흑선풍' 이규가 맡았다.

'신행태보' 대종과 편장 '진삼산' 황신이 맡았다.

'병울지' 손립이 맡았다.

'정목안' 학사문과 '추군마' 선찬이 맡았다.

'백승장' 한도와 '천목장' 팽기가 맡았다.

'혼세마왕' 번서와 '철적선' 마린이 맡았다.

'금모호' 연순과 '팔비나타' 항충이 맡았다.

'비천대성' 이곤과 '상문신' 포욱이 맡았다.

'왜각호' 왕영과 '일장청' 호삼낭이 맡았다.

'금표자' 양림과 '금안표' 시은이 맡았다.

'귀검아' 두흥과 '모두성' 공명이 맡았다.

'독화성' 공량과 '굉천뢰' 능진이 맡았다.

'철비박' 채복과 '일지화' 채경이 맡았다.

'금모견' 단경주와 '통비원' 후건이 맡았다.

'신산자' 장경과 '신의' 안도전이 맡았다.

'험도신' 욱보사와 '철선자' 송청이 맡았다.

'철면공목' 배선

크고 작은 정장과 편장 등 장수 마흔두 명과 수행 정예병 삼만 명의 인마가 따랐으며, 송 선봉(송강)이 이를 모두 통솔했다.

부선봉 노준의 역시 장수들을 나누어 선주와 호주 두 곳을 공격하게 했다. 정장과 편장 등 장수가 모두 마흔일곱 명으로, 그중 정장이 열네 명, 편장이 서른세 명이었으며, 주무가 편장의 우두머리로서 군사(軍師)의 직무를 맡았다.

부선봉 옥기린 노준의와 군사 신기 주무의 군대.

소선풍 시진과 표자두 임충

쌍창장 동평과 쌍편 호연작

급선봉 색초와 몰차란 목홍

병관삭 양웅과 삽치호 뇌횡

양두사 해진과 쌍미갈 해보

몰우전 장청과 적발귀 유당

「낭자」 연청

편장 성수장 단정규와 신화장 위정국

「소온후」 여방과 「새인귀」 곽성

「마운금시」 오붕과 「화안산예」 등비

「타호장」 이충과 「소패왕」 주통

「조간호」 진달과 「백화사」 양춘

「병대충」 설영과 「모착천」 두천

「소차란」 목춘과 「출림룡」 추연

「독각룡」 추윤과 「최명판관」 이립

「청안호」 이운과 「석장군」 석용

「한지홀률」 주귀와 「소면호」 주부

「소위지」 손신과 「모대충」 고대소

「채원자」 장청과 「모야차」 손이낭

「백면낭군」 정천수와 「금전표자」 탕륭

「조도귀」 조정과 「백일서」 백승

「화항호」 공왕과 「중전호」 정득손

「활섬파」 왕정륙과 「고상조」 시천

크고 작은 정장·편장 등 장수(將佐) 47명과 정예병 3만 명이 따라 출정하였으니, 노준의가 이를 거느렸다.

독자 여러분은 이 대목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노준의가 선주와 호주 두 곳을 공격하는 데 장수 47명이 투입되었고, 송강이 상주와 소주 두 곳을 공격하는 데에도 장수 47명이 투입되었다. 여기에 수군 우두머리들은 별도의 무리를 이루어 따랐다. 한편, 동위와 동맹이 초산

으로 사람을 보내 석수와 완소칠을 찾아내게 하니, 그들이 돌아와 보고했다. "석수와 완소칠이 강가에 이르러 한 집안의 노소들을 모두 죽이고 빠른 배 한 척을 탈취하여 초산사로 들어갔습니다. 절의 주인이 그들이 양산박의 호걸임을 알고 절에 머물며 먹고 자게 했습니다. 그러다 장순이 공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초산에서 배를 타고 모항으로 가서 강음과 태창, 그리고 해안가 주현들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 장계 문서를 올리고 수군 우두머리들과 전투 장비, 배들을 요청해 주십시오." 송강은 즉시 이준 등 여덟 명을 보내 수군 5천 명을 배정하고, 석수, 완소칠 등과 함께 수로를 통해 이동하게 했으며, 정·편장 10명을 추가로 붙여주었다. 그 10명은 정장 7명과 편장 3명이었다.

"변명삼랑" 석수

"혼강룡" 이준

"선화아" 장횡, "랑리백조" 장순

"입지태세" 완소이, "단명이랑" 완소오

"활염라" 완소칠, "출동교" 동위

"번강신" 동맹, "옥번간" 맹강

크고 작은 정장·편장 등 장수(將佐) 10명과 수군 정예병 5천 명, 전선 백 척이었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이 단도현에서 병력을 나누고 나니, 장수의 수가 모두 아흔아홉 명에 이르러 이제 백 명도 채 되지 않게 되었다. 커다란 전선은 모두 수군 두령들에게 맡겨 강음과 태창을 공격하게 했고, 작은 전선들은 전부 단도현 내 항구로 보내 군대를 따라 상주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여사낭은 여섯 명의 통제관을 이끌고 상주 비릉군으로 퇴각하여 몸을 피했다. 본래 상주에는 성을 지키는 통제관 전진붕이 있었는데, 그의 수하에는 두 명의 부장이 있었다. 한 명은 진릉현 상호 출신의 금절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전진붕의 심복인 허정이었다. 전진붕은 원래 청계현의 도두(포교 우두머리) 출신으로, 방랍을 도와 여러 성을 거듭 빼앗은 공으로 상주 제치사(制置使, 지방 군사 행정관)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여추밀이 전투에서 패해 윤주를 잃고 상주로 퇴각한다는 소식을 듣자, 전진붕은 즉시 금절과 허정을 데리고 나가 성문을 열어 그를 맞이했다. 그는 여추밀을 주치(州治, 관아)로 모셔 정성껏 대접하며 맞서 싸울 계책을 논의했다. 전진붕이 말했다. "추밀사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저 전진붕이 재주는 부족하나, 송강 그놈들을 크게 쳐부수어 강 건너편으로 패주시키고 윤주를 되찾는 데 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소망입니다!" 여추밀이 그를 달래며 말했다. "제치사가 이토록 마음을 써준다면 나라가 어지러울까 무엇이 걱정이겠소? 공을 세우면 내가 반드시 힘을 써서 그대를 높은 관직으로 올려주겠소." 그날 연회에서 벌어진 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송강의 선봉군은 상주와 소주 두 곳을 공격하기 위해 나누어진 병력을 이끌고 말을 달려 비릉군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다. 선봉장

은 정장 관승이었고, 그 아래로 열 명의 장수가 부하로 따랐다. 그 열 명은 진명, 서녕, 황신, 손립, 학사문, 선찬, 한도, 팽기, 마린, 연순이었다. 정장과 편장을 합쳐 총 열한 명의 장수가 기병 삼천 명을 이끌고 상주성 아래에 이르러, 깃발을 흔들고 북을 울리며 싸움을 걸었다. 여추밀이 이를 보고 말했다. "누가 가서 적군을 물리치겠느냐?" 전진붕이 전마를 준비하며 말했다. "저 전진붕이 앞장서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추밀은 즉시 여섯 명의 통제관을 그를 돕도록 보냈다. 그 여섯 명은 응명, 장근인, 조의, 심변, 고가립, 범주였다. 일곱 명의 장수가 오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성문을 열고 도교를 내렸다. 전진붕은 발풍도를 휘두르며 적토마를 타고 앞장서서 성 밖으로 나갔다.

관승이 이를 보고 군마를 잠시 한 걸음 물러나게 한 뒤, 전진붕이 진을 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었다. 여섯 명의 통제관은 좌우로 나뉘어 배치되었다. 관승은 진영 앞쪽에 말을 세우고 칼을 가로로 쥐더니, 엄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역적들아, 들어라! 너희는 일개 무리의 모반을 도와 백성의 생명을 해치니, 사람과 신이 함께 분노하고 있다! 오늘 하늘의 군대가 이곳에 임했음에도 아직 죽음을 모른 채 감히 우리를 막으려 하느냐! 너희 역도들을 모조리 베어 없애지 않고서는 결코 군대를 물리지 않겠다!"

전진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욕설을 퍼부었다. "양아치 같은 놈들, 너희는 양산박의 초적 놈들로서 천시를 알지도 못하면서, 왕업을 도모할 생각은 않고 도리어 무도한 혼군에게 항복하여 우리 대국과 맞서려 하는구나. 내가 오늘 너희를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몰살시켜 버리겠다!"

관승이 크게 노하여 청룡언월도를 휘두르며 곧장 돌격해 나갔고, 전진붕도 발풍도를 휘두르며 맞서 싸웠다. 두 장수가 서른 합 넘게 싸우는 동안 전진붕의 힘이 점점 빠지더니 도저히 버티지 못하게 되었다. 남군 진영 아래에 있던 두 통제관이 전진붕이 밀리는 것을 보고 창을 치켜든 채 함께 출마하여 협공을 가했다. 관승의 위쪽에는 조의가, 아래쪽에는 범주가 있었다.

송군 진영 아래에서는 편장 두 명이 화를 내며 달려 나왔다. 한 명은 상문검을 휘둘렀고, 한 명은 호안편을 사용했는데, 바로 진삼산 황신과 병위지 손립이었다. 여섯 장수가 세 쌍이 되어 진 앞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여추밀이 급히 허정과 금절에게 명하여 성 밖으로 나가 전투를 돕게 했다. 명령을 받은 두 장수는 병기를 들고 말을 달려 진영 앞까지 왔으나, 조의가 황신과 싸우고 범주가 손립과 싸우는 것을 보니 그들 또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싸움이 깊어지자 조의와 범주가 점차 불리해졌고, 이에 허정과 금절이 각자 대도를 휘두르며 진영으로 나섰다. 송군 진영에서는 한도와 팽기 두 장수가 동시에 나와 맞섰다. 금절은 한도를 붙들고, 허정은 팽기를 붙들며, 네 장수가 다시 맞붙어 다섯 무리가 진 앞에서 한바탕 혈투를 벌였다.

사실 금절은 평소 대송에 투항할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일부러 자기 부대의 진영을 어지럽히고는 몇 합 겨루는 척하다가 말을 돌려 본진을 향해 도망치는 시늉을 했다. 한도가 그 기세를 몰아 뒤쫓아갔다. 남군 진영에 있던 고가립이 금절이 한도에게 긴박하게 쫓기는 것을 보고는, 활을 들어 단단한 화살을 메운 뒤 활시위를 가득 당겼다. 휘익 하고

날아간 화살이 한도의 뺨에 명중했고, 한도는 말에서 떨어지며 부딪혔다.

이때 진명이 급히 말을 채찍질하며 낭아곤을 휘두르고 구하러 나섰으나, 이미 저쪽에서 장근인이 달려 나와 창으로 목을 찔러 그의 목숨을 끊어 놓았다. 팽기와 한도는 서로 돕고 의지하는 형제 사이였기에, 한도가 죽는 것을 보고는 복수하고자 허정을 내팽개치고 곧장 진영으로 달려가 고가립을 찾았다. 허정이 뒤쫓아왔으나 진명과 맞붙어 싸우게 되었다. 고가립은 팽기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창을 들어 맞서려 했다. 그러나 장근인이 옆구리 사이로 들이닥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고, 그 창에 팽기가 맞아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관승은 장수 두 명을 잃자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상주성으로 쳐 들어가 신위(神威)를 떨치며 전진붕을 단칼에 말 아래로 베어 넘기고 싶었다. 전진붕이 타고 있던 적토마를 빼앗으려던 찰나, 미처 방비하지 못한 관승의 말 역시 앞발을 헛디뎌 관승을 말 아래로 내동댕이쳤다. 남군 진영의 고가립과 장근인이 두 기의 말을 타고 관승을 덮치려 했으나, 서녕이 선찬과 학사문을 이끌고 함께 나서서 관승을 구출해 본진으로 돌아오게 했다. 여추밀은 군사를 크게 몰아 성 밖으로 휩쓸고 나오게 했고, 관승의 장수들은 패하여 북쪽으로 퇴각하였으며 남군은 이를 이십여 리나 추격했다.

이날 관승은 병력을 일부 잃은 채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 송강을 만나 한도와 팽기가 전사했음을 보고했다. 송강은 크게 통곡하며 말했다. "강을 건너온 뒤로 어찌하여 우리 형제 다섯을 잃어야 한단 말인

가. 혹시 하늘이 노하셔서, 내가 방랍을 토벌하는 것을 허락지 않아 병사들이 이토록 죽어 나가는 것인가?"

오용이 위로하며 말했다. "주사령관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승패란 병가에서 흔히 있는 일이니 이상하게 여길 것 없습니다. 그저 두 장수의 운명이 다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뿐입니다. 부디 선봉장께서는 근심을 거두시고 대사를 도모하십시오."

그때 장막 앞에서 이규가 나서서 외쳤다. "내 형제들을 죽인 놈들이 누구인지 알려만 주시오! 내가 직접 가서 그 역도 놈들을 죽이고 두 형님의 원수를 갚겠소!"

송강은 명령을 내려 다음 날 백기를 올리게 했다. "내가 직접 장수들을 이끌고 성 근처까지 가서 적과 맞붙어 승부를 내겠다."

다음 날, 송강은 대부대를 이끌고 수륙 양면에서 진격했다. 배와 기병이 서로 호응하며 진영을 모두 일으켜 나아갔다. 흑선풍 이규는 포욱, 항충, 이곤을 거느리고 오백 명의 용맹한 보병을 이끌고 먼저 초소를 세우며 상주성 아래까지 진격했다.

여추밀은 전진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근심하였다. 그는 즉시 세 통의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주의 삼대왕 방모가 있는 곳으로 보내 구원을 요청하는 한편, 조정에도 상황을 보고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려왔다. "성 아래에 오백 명의 보병이 성을 공격하고 있는데, 깃발을 보니 우두머리가 흑선풍 이규라고 합니다."

여추밀이 말했다. "저놈은 양산박에서 가장 흉악한 놈으로, 사람 죽이는 데 익숙한 호걸이다. 누가 감히 앞장서서 저놈을 잡겠느냐?"

그때 장막 앞으로 전투에서 승리하여 공을 세운 두 통제관 고가립과 장근인이 나아왔다. 여추밀이 말했다. "그대들 둘이 저 도적놈을 잡는다면, 내가 힘을 다해 조정에 보고하여 관직을 높여주고 큰 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그러자 장근인과 고가립 두 통제관은 각자 창을 쥐고 말에 올라타, 천 명의 마보병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했다. 흑선풍 이규는 이를 보고 오백 명의 보병을 일렬로 배치한 뒤, 양손에 판부(板斧, 넓적한 도끼)를 쥐고 진영 앞에 섰다. 상문신 포욱은 커다란 판도(板刀, 넓은 칼)를 치켜들고 그 옆을 지켰으며, 항충과 이곤은 각각 왼손에는 만패(蠻牌,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철표(鐵標, 쇠로 만든 무기)를 쥐었다. 네 사람은 앞뒤로 가슴을 가리는 철갑을 입고 진영 앞에 늘어섰다. 고가립과 장근인 두 통제관은 방금 승리를 거둔 덕분에 기세가 호랑이보다 사나웠고, 까치가 독수리를 업신여기듯 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성벽을 등진 채 진을 쳤다.

송군 측 첩자 몇 명이 고가립과 장근인 두 사람이 한도와 팽기를 죽인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이규에게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군사를 이끄는 두 놈이 바로 우리 한 장군님과 팽 장군님을 죽인 놈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규는 대꾸도 하지 않고 양손의 판부를 치켜든 채 곧장 적진을 향해 돌격했다. 포욱은 이규가 적진으로 달려드는 것을 보고

급히 항충과 이곤을 불러 만패를 휘두르며 엄호하라고 외쳤다. 네 사람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적진을 향해 굴러 들어갔다. 고가립과 장근인은 깜짝 놀라 미처 손쓸 틈도 없이 급히 말머리를 돌리려 했으나, 항충과 이곤의 만패가 이미 말다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고가립과 장근인이 말 위에서 창을 아래로 내찔렀으나 항충과 이곤이 방패로 막아냈다. 그 사이 이규가 도끼를 휘둘러 고가립의 말다리를 단숨에 베어버리니, 고가립이 말에서 떨어졌다. 항충이 "살려두어라!"라고 소리쳤으나, 사람 죽이는 데 거침없는 이규가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그는 곧바로 도끼를 내리쳐 고가립의 목을 베어버렸다. 포욱 역시 말 위에서 장근인을 잡아끌어 내려 한 칼에 목을 베었다.

네 사람은 적진 속에서 미친 듯이 살육을 시작했다. 흑선풍 이규는 고가립의 머리를 허리춤에 매달고는 양손의 판부를 휘두르며 앞뒤 가리지 않고 사방을 베어 넘겼다. 이 기세에 눌린 천 명의 마보병은 성 안으로 퇴각하며 삼사백 명이나 죽어나갔고, 싸움은 조교(弔橋) 근처까지 이어졌다. 이규와 포욱이 성안으로 쳐들어 가려 하자 항충과 이곤이 뒤를 받치며 돌아왔다. 그때 성 위에서 나무와 돌을 실은 투석기를 돌려 그들을 공격했다. 네 사람이 진영 앞으로 돌아오자, 오백 명의 보병은 원래의 일렬 대형을 유지한 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원래는 난전이 벌어질 참이었으나, 흑선풍 이규가 앞뒤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베어버릴까 두려워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것이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송군 선봉대가 도착했다. 이규와 포욱이 각각 고가립과 장근인의 머리를 바치니, 장수들이 그 머리가 고

가립과 장근인임을 확인하고는 모두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찌하여 원수의 머리를 얻었느냐?"

두 사람이 대답했다. "수많은 적군을 죽이며 본래는 살려서 잡아 오려 했습니다만, 순간 손이 근질거려 참지 못하고 그만 베어버렸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원수의 머리를 얻었으니, 백기(白旗, 흰 깃발)를 세워 허공에 한 장군님과 팽 장군님께 제사를 올리도록 하자."

송강은 다시 한바탕 통곡한 뒤 백기를 내리고, 이규와 포욱, 항충, 이곤 네 사람에게 상을 내렸다. 그러고는 군사를 몰아 상주성 아래로 진격하였다.

한편, 여추밀은 성 안에서 몹시 당황하여 금절, 허정, 그리고 네 명의 통제관을 불러 송강을 물리칠 계책을 논의했다. 장수들은 이규 일행이 저 앞의 진영을 초토화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 겁에 질려 감히 싸우러 나가지 못했다. 여추밀이 몇 번이고 소리쳐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마치 화살이 기러기 입을 꿰뚫고 낚싯바늘이 물고기 아가미에 걸린 듯 적막할 뿐, 아무도 선뜻 나서서 대답하지 않았다.

여추밀은 마음이 답답하여 사람을 시켜 성 위에서 상황을 살피게 했다. 그러자 송강의 군마가 상주성을 삼면에서 포위하고 있었으며, 성 아래에서는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며 기세 좋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었다. 여추밀은 장수들을 불러 각자 성 위로 올라가 수비하라고 명했다. 장수들이 물러가자 여추밀은 후당에 홀로 앉아 궁리해 보았으나 아무

리 생각해도 방도가 없었다. 결국 그는 측근과 심복들을 불러 모아 상의한 끝에, 아예 성을 버리고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다.

한편, 수비 장수 금절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아내 진옥란에게 말했다. "지금 송강의 선봉대가 성을 포위하고 삼면에서 공격해오고 있소. 성 안의 식량은 부족하여 오래 버티기 어렵고, 만약 성이 함락된다면 우리 모두 칼날 아래 죽은 귀신이 되고 말 것이오."

진옥란이 대답했다. "당신은 본래 충효의 마음을 지닌 분이고 항복할 마음도 있으신데, 게다가 예전 송나라의 관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정에서 당신에게 잘못한 것도 없으니, 차라리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십시오. 여사낭을 사로잡아 송강에게 바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출세할 수 있는 계책이 될 것입니다."

금절이 말했다. "그의 수하에는 현재 네 명의 통제관이 있고 저마다 군마를 거느리고 있소. 게다가 허정이라는 자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을 뿐더러 여사낭의 심복이기도 하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도리어 화를 입을까 두렵소."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그저 밤중에 몰래 서신 한 통을 써서 화살에 매단 뒤 성 밖으로 쏘아 보내십시오. 송강에게 이 사실을 알려 안팎으로 호응하여 성을 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음 날 전투에 나가 일부러 패배하는 척하며 적을 성 안으로 유인해 오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공이 될 것입니다."

금절이 말했다. "현명한 아내의 말이 참으로 옳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사관이 시로 이르되,

어둠을 버리고 밝은 곳에 의탁해 재앙을 면했으니,
비릉(毘陵) 땅에서 부기(負羈)의 어진 아내를 다시 보는구나.
여인조차도 오히려 충의를 지킬 줄 아는데,
어찌하여 사내 된 자가 식견이 그리 어두웠던가.

다음 날, 송강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공격하는 기세가 더욱 거세지자, 여추밀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자 금절이 대답했다. "상주성은 성벽이 높고 넓으니, 지키기만 해야지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장수들은 우선 성을 굳게 지키며 소주의 구원병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때 합류하여 출전해야 합니다." 여추밀이 말했다. "그 말이 참으로 옳소!"

여추밀은 장수들을 나누어 임명했다. 응명과 조의는 동문을 지키게 하고, 심볏과 범주는 이 문을 지키게 했으며, 금절은 서문을, 허정은 남문을 지키게 했다. 배치가 끝나자 장수들은 각자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굳게 지켰다.

그날 밤, 금절은 몰래 서신을 써서 화살에 매달았다. 그리고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성 위에서 서문 밖을 살피는 정찰병을 향해 화살을 쏘아 보냈다. 화살을 주운 군관은 황급히 진영 안으로 달려가 보고했다. 서쪽 진영의 정장인 노지심과 무송이 이를 보고는, 즉시 편장 두흥에게 알려 동북쪽 대진영으로 급히 보고하게 했다.

송강과 오용이 촛불을 밝히고 막사 안에서 일을 논의하고 있을 때, 두흥이 금절의 비밀 서신을 바쳤다. 송강은 서신을 읽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세 진영에 이 사실을 알려 협력하라고 명했다.

다음 날, 세 진영의 우두머리들이 삼면에서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여추밀이 전투용 망루 위에 서 있을 때, 마침 송강의 진영에서 굉천뢰 릉진이 포좌를 세우고 풍화포 한 발을 쏘아 올리는 것을 보았다. 포탄은 허공을 날아 적의 망루 모퉁이에 정통으로 맞았고, '우르르' 소리를 내며 망루 절반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여추밀은 급히 몸을 피하여 목숨을 건진 뒤 성 아래로 내려와, 네 문의 수비 장수들에게 성 밖으로 나가 싸울 것을 재촉했다. 북소리를 세 번 크게 울리고 성문을 활짝 열어 조교를 내리자, 북문을 지키던 심볏과 범주가 군사를 이끌고 출전했다.

송군 측에서는 대도 관승이 전진붕의 권모적토마(卷毛赤兔馬)를 타고 진영 앞으로 나서서 범주와 맞붙었다. 두 사람이 막 대치하려는데, 서문의 금절이 또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나와 싸움을 걸었다. 송강의 진영에서는 병위지(病尉遲) 손립이 말에 올라탔다. 두 편이 맞붙어 세 합도 채 되지 않아 금절이 일부러 패배하는 척하며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손립이 앞장서고 연순과 마린이 그 뒤를 따랐으며, 노지심, 무송, 공명, 공량, 시은, 두흥이 한꺼번에 병사를 몰아 진격했다. 금절은 곧장 성 안으로 퇴각했으나, 손립은 이미 성문 근처까지 쫓아가 서문을 점령했다. 성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송나라 군마가 이미 서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동안 백성들은 방랍의 무리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잔혹하게 핍박당해 원한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송군이 성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백성들은 모두 쏟아져 나와 싸움을 도왔다. 성 위에는 일찌감치 송 선봉의 깃발이 높이 걸렸다. 범주와 심볏은 성 안에서 변고가 일어난 것을 보고 가솔을 지키려 서둘러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 했으나, 왼쪽에서 왕왜호와 일장청이 돌연 튀어나와 범주를 사로잡았다. 오른쪽에서는 선찬과 학사문 두 사람이 함께 앞으로 달려들어 심볏을 창으로 찔러 말에서 떨어뜨리고, 군사들이 그를 생포했다.

송강과 오용은 군마를 크게 몰아 성 안으로 진입하여 사방에 흩어진 남군을 수색하고 모조리 처단했다. 여추밀은 허정을 데리고 스스로 남문으로 달아나 필사적으로 길을 뚫었는데, 송군이 끝내 따라잡지 못하자 송군은 상주로 돌아가 명령을 기다렸고, 그 공을 논하여 상을 내렸다. 조의는 백성의 집에 숨어 있다가 백성들에게 붙잡혀 끌려 나왔다. 응명은 난전 중에 죽임을 당했고, 송군이 그 수급을 얻었다. 송강이 주 관아에 도착하자 즉시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백성들은 노인과 아이를 부축하며 주 관아로 찾아와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송강이 백성들을 위무하여 다시 평범한 양민으로 살 수 있게 해주자, 장수들이 각자 찾아와 공을 아뢰었다.

금절이 주 관아로 가서 송강을 알현하자, 송강은 직접 계단 아래로 내려와 금절을 맞이하고 대청으로 모셔 앉혔다. 금절은 감격이 끝이 없었다. 그가 다시 송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된 것은 모두 아내가 권하여 이룬 공이니,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송강은 범주, 심볏, 조의 세 사람을 함거(陷車)에 싣게 하고, 신주(申狀, 보고 문서)를 써서 금절이 직접 윤주에 있는 장초토(張招討, 토벌군 사령관)의 중군 막사로 압송해 가게 했다. 금절은 공문을 받고 세 장수를 압송하여 윤주로 향했다. 금절이 길을 떠날 무렵, 송강은 이미 신행태보 대종을 불러 급보 문서를 들려 보내 금절을 중군에 천거해 둔 상태였다.

장초토는 송강이 금절의 충의를 이같이 알려 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이후 금절이 윤주에 도착하자, 장초토는 크게 기뻐하며 금절에게 금은과 비단, 안장과 말, 술과 예물을 상으로 내렸다. 부도독 유광세가 금절을 곁에 두고 행군도통으로 승진시켜 군 앞에 머물며 부리게 했다. 훗날 금절은 유광세를 따라 금(金)나라 올출(兀朮) 사태자(四太子, 넷째 태자)를 크게 격파하며 많은 공을 세웠고, 친군지휘사의 자리까지 올랐으나, 결국 중산(中山)에서 전사하였으니 이것이 금절의 최후였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사악(邪)을 좇았으니 조정에 서서 살아감이 부끄럽지만,
의리에 목숨 바쳐 전장에서 죽으니 뼈마저 향기롭구나.
훗날 중산(中山)에서 충의로운 귀신이 되니,
방랍의 진중에서 죽는 것과 어찌 견주랴.

그날 장초토(張招討)와 유도독은 금절에게 상을 내린 뒤, 세 명의 도적을 갈가리 찢어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 뭇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내걸

었다. 이어 사람을 상주로 보내 송 선봉의 군마를 위로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송강은 상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는 대종을 선주와 호주의 노선봉에게 보내 병력을 움직이라는 급보를 전하게 했다. 그러던 중 탐마가 달려와 보고하기를, 여추밀이 무석현으로 도망쳤으며, 그곳에서 소주의 구원병과 다시 합류하여 막 송군을 맞으러 오려 한다고 하였다. 송강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군과 보병, 그리고 정편장(正偏將)급 장수 열 명을 선발하여 군사 만 명과 함께 남쪽으로 적을 맞으러 보내기로 결정했다. 선발된 열 명의 장수는 관승, 진명, 주동, 이응, 노지심, 무송, 이규, 포욱, 항충, 이곤이었다. 즉시 관승 등이 전방 부대 병력을 이끌고 다른 장수들과 함께 송강에게 작별을 고한 뒤 성을 떠나 나아갔다.

한편, 대종이 선주와 호주 두 곳의 병력 움직임을 살피고 돌아와 시진과 함께 송강을 알현했다. 대종은 부선봉 노준의가 선주를 함락시켰으며, 특별히 시진 대관인을 보내 승전보를 전하게 했다고 보고했다. 송강은 매우 기뻐했다. 시진이 주 치소(州治, 주의 행정 중심지)에 도착해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리자, 송강은 환영의 술을 내린 뒤 함께 후당으로 들어가 앉아 노준의가 선주를 어떻게 함락시켰는지 그 자세한 경위를 물었다. 시진이 보고 문서를 꺼내 송강에게 보여주며 선주를 격파한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방랍의 부하로 선주를 지키던 경략사(經略使) 가여경의 수하에는 흡주(歙州)와 목주(睦州) 출신의 통제관 여섯 명이 있었다. 그들은 이소, 한명, 두경신, 노안, 판준, 정승조였다. 그날 가여경은 여섯 명의 통제

관을 나누어 세 갈래로 성 밖으로 출전시켜 맞서게 했고, 노준의 역시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적을 맞으러 나갔다.

중앙에서는 호연작이 이소와 싸웠고, 동평은 한명과 대치했다. 열 합쯤 싸웠을 때, 한명이 동평의 창 두 자루에 찔려 죽었다. 이소는 달아났고 중앙 부대는 대패했다. 왼쪽 군대에서는 임충이 두경신과 싸웠고, 소초는 노안과 맞섰다. 임충이 사모로 두경신을 찔러 죽였고, 소초는 도끼로 노안을 찍어 죽였다. 오른쪽 군대에서는 장청이 판준과 싸웠고, 목홍은 정승조와 대치했다. 장청이 돌을 던져 판준을 떨어뜨리자, 타호장 이충이 달려들어 그를 죽였다. 정승조는 말을 버리고 도망쳤다. 이날 송군은 연달아 네 명의 장수를 격파했고, 적병들은 성 안으로 퇴각했다.

노준의가 급히 장수들을 몰아 성을 탈환하려 문 앞까지 다다랐을 때, 뜻밖에도 성 위의 적병들이 맷돌짝 하나를 아래로 던지는 바람에 편장 한 명이 맞아 죽었다. 성 위에서는 화살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렸는데, 그 화살에는 독이 발려 있었다. 편장 두 명이 화살에 맞았는데, 겨우 영채에 이르러서는 모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노준의는 장수 세 명을 잃은 것을 보고 밤을 새워 성을 공격했다. 동문을 지키던 적장이 방심한 틈을 타 마침내 선주를 함락했다. 난전 중에 이소는 죽임을 당했고, 가여경은 패잔병을 이끌고 호주로 도망쳤다. 노지심은 전장에 갇혀 행방이 묘연해졌고, 맷돌에 맞아 죽은 이는 백면낭군 정천수였으며, 독화살에 맞은 두 명은 조도귀 조정과 활섬파 왕정륙이었다.

송강은 형제 세 명을 또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통곡하며 갑자기 땅에 쓰러졌다. 오장육부가 어찌 되었는지는 차치하고, 우선 사지에 힘이 빠져 움직이지 못했다.

바로 이러하다. 꽃은 피었다가 다시 바람에 떨어지고, 밝은 달은 어찌 구름과 안개에 가려짐을 견디랴.

결국 송강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니, 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0회 — 혼강룡 양산박에서 작게 의를 맺고, 송공명이 소주에서 크게 모이다

混江龍太湖小結義 宋公明蘇州大會垓

이야기는 이러하다. 장수들이 송강을 구해내어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송강이 오용 일행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필시 방랍을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오! 강을 건너온 뒤로 상황이 이토록 불리하니, 형제 여덟 명을 연이어 잃고 말았구려……"

그러자 오용이 위로하며 말했다.

"주수님, 군심을 해칠 수 있으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대료를 격파할 때 대소 군사들이 온전히 경성으로 돌아간 것도 다 하늘의 뜻이었으니, 이번에 형제들을 잃은 것 또한 각자의 수명 때문입니다. 돌이켜보십시오. 강을 건너온 뒤로 윤주, 상주, 선주까지 세 곳의 큰 고을을 연달아 함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는 모두 천자의 홍복이 하늘에 닿고 주장의 호랑이 같은 위엄이 드높은 덕분이지, 어찌 불리하

다 하겠습니까? 선봉장께서 어찌하여 스스로 기운을 꺾으려 하십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비록 하늘의 운수가 다해가는 듯하나, 나는 우리 백팔 형제들이 하늘의 별자리에 응하며 천문의 기록과도 부합한다고 믿고 있소. 형제들은 내 손발과 같이 친밀한 사이인데, 오늘 이토록 흉한 소식을 들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소."

오용이 다시 권했다.

"주장께서는 부디 근심을 거두시고 귀한 몸을 상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선은 병력을 조발하여 무석현을 공격할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송강이 말했다.

"시 대관인(시진)은 내 곁에 남아 함께 있게 하고, 따로 군첩을 써서 대원장(대종)을 시켜 내 대신 전달하게 하시오. 노준의에게는 진군하여 호주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전하여, 서둘러 항주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오용은 배선에게 군첩을 쓰게 하여 답신을 보낸 뒤, 대종을 선주로 보냈다.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된다.

한편, 여사낭은 허정을 데리고 무석현으로 도망쳐 돌아왔다. 마침 소주 삼대왕이 보낸 구원군이 도착하고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는 육군

지휘사 위충이었다. 위충은 십여 명의 아장(牙將, 부관)을 거느리고 일만 대군을 이끌고 상주를 구하러 온 것이었다. 이들은 군사를 합쳐 무석현을 지키기로 했다. 여사낭이 금절이 성을 바친 일을 고하자, 위충이 말했다.

"추밀님, 안심하십시오. 소장이 반드시 상주를 되찾겠습니다."

그때 탐마(探馬, 정찰병)가 달려와 보고했다.

"송나라 군사가 가까이 왔으니 서둘러 준비하십시오!"

위충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말을 타고 북문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했다. 그런데 송나라 군사의 기세가 워낙 대단했다. 우두머리는 '흑선풍' 이규였는데, 그는 보욱, 항충, 이곤을 앞세워 거침없이 몰아치며 달려왔다. 위충은 겁을 먹어 군마를 제대로 대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대패하여 달아났다. 급히 무석현으로 후퇴해 들어가자, 이규 등 네 사람이 그 말 뒤를 바짝 따라붙어 현성 안까지 쫓아 들어갔다. 여사낭은 곧 남문 쪽으로 달아났다.

그사이 관승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이미 무석현을 탈환했다. 위충과 허정 역시 남문을 향해 도망쳐 모두 소주로 퇴각했다. 관승 일행은 현성을 점령하자마자 사람을 보내 송강 선봉장에게 승전보를 전했다. 송강과 여러 두령이 무석현에 도착하자, 송강은 방을 붙여 이곳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다시 양민으로 삼게 하였다. 그러고는 대부대를 이끌고 무석현에 주둔하면서, 장·유 두 총병에게 청하여 상주를 지키도록 하였다.

한편, 여사낭은 위충, 허정과 함께 패잔병을 이끌고 소주성으로 달려가 삼대왕에게 구원을 요청하며 고했다. 송나라 군사의 기세가 워낙 강해 도저히 맞설 수 없었으며, 병마가 휘몰아치듯 몰려오는 바람에 성과 고을을 잃고 말았다고 말이다. 삼대왕은 크게 노하여 무사들에게 명령해 여사낭을 끌어내어 참수한 뒤 보고하라 하였다.

위충 등이 말했다.

"송강의 부하 장수들은 모두 싸움에 익숙한 군마이며, 용맹하고 뛰어난 호걸들이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보병들조차 모두 양산박의 졸개들인데, 다들 싸움에 단련된 자들이라 대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자 방모가 말했다.

"일단 네 목을 벨 칼은 잠시 거두어 두겠다. 너에게 오천 군마를 줄 터이니 먼저 정찰병으로 나서라. 내가 따로 대장들을 나누어 보내 곧 뒤따라 지원하겠다."

여사낭은 절하며 감사를 표한 뒤, 갑옷을 갖춰 입고 장팔사모를 손에 쥔 채 말을 타고 군사를 이끌고 가장 먼저 성 밖으로 나섰다.

한편, 삼대왕은 수하의 장수 여덟 명을 불러 모았는데, 이들을 '팔표기(八驃騎)'라 불렀다. 이들은 하나같이 키가 크고 힘이 장사였으며 무예 또한 매우 뛰어난 자들이었다. 그 여덟 명은 이러하다.

비룡대장군 유빈, 비호대장군 장위

비웅대장군 서방, 비표대장군 곽세광

비천대장군 오복, 비운대장군 구정

비산대장군 진성, 비수대장군 창성

그때 삼대왕 방모가 직접 갑옷을 챙겨 입고 방천화극을 손에 든 채 말에 올라 진을 쳤다. 그는 중군 인마를 감독하며 교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왔다. 그의 앞에는 여덟 명의 대장이 늘어서 있었고, 뒤로는 부장 스무서너 명이 정연하게 줄을 지어 오만 명의 남군 병력을 이끌고 창합문을 나와 송군을 맞아 싸웠다.

한편, 여사낭은 위충과 허정을 이끌고 이미 한산사를 지나 무석현을 향해 오고 있었다. 송강은 이미 사람을 보내 적의 동태를 살핀 뒤, 수많은 정장·편장을 거느리고 군마를 몰아 무석현 밖으로 나와 십 리 남짓 전진해 있었다. 양측 군대가 마주치자 깃발과 북소리가 서로 마주 보이며 각자 진형을 갖추었다.

여사낭은 울화가 치밀어 올라 타고 있던 말을 박차고 내달리더니, 손에 든 창을 가로로 쥐고 직접 진영 앞으로 나서며 송강과 맞서 싸우려 했다. 송강이 깃발 아래에서 그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누가 저 적을 잡겠느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금창수' 서녕이 손에 든 금창을 치켜들고 말을 몰아 진영 앞으로 달려 나가 여사낭과 맞붙었다. 두 장수가 격돌하자 좌우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스무 합 남짓 싸우던 중 여사낭이 빈틈을 보이자, 서녕이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러자 양측 군대가 일제히 함성을 내질렀다. '흑선풍' 이규가 쌍도끼를 휘두르고, '상문신' 포욱이 비도를 치켜들었으며, 항충과 이곤이

각각 창과 방패를 휘두르며 진영을 뚫고 돌격해 들어오니 남군이 크게 혼란에 빠졌다.

송강이 군사를 몰아 몰아붙이니 마침 방모의 대부대가 맞닥뜨렸다. 양측은 화살을 퍼부어 적의 진영을 흔들며 각자 진형을 갖추었다. 남군 진영에는 여덟 명의 장수가 일렬로 늘어섰다. 중군에 있던 방모는 여사낭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창을 가로로 쥐고 말에 올라 송강을 향해 크게 꾸짖었다. "네놈들은 그저 양산박에서 도둑질이나 일삼는 비루한 도적 떼일 뿐이다! 송나라가 망해가는 마당에 너희 같은 놈들을 선봉으로 삼아 우리 땅을 침범하게 하다니! 내가 오늘 네놈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야만 비로소 군사를 거두겠다!"

송강이 말 위에서 손가락질하며 대꾸했다. "이놈아, 너는 그저 목주 일대의 시골뜨기일 뿐인데, 무슨 복을 타고났다고 망령되게 왕업을 꿈꾸느냐? 차라리 일찍 항복하여 목숨이라도 보전하거라! 천군 만마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어찌 그리 입만 살아서 저항하느냐! 내가 네놈들을 다 죽이지 못한다면 결코 군을 돌리지 않겠다!"

방모가 호통을 쳤다. "입씨름은 관두자! 내 수하에 맹장 여덟 명이 있으니, 너도 감히 여덟 명을 내보내 맞서 싸우겠느냐?"

송강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쪽 장수 둘이 네놈 하나를 상대한다면 그것은 장부의 도리가 아니지. 네가 여덟 명을 내보내면 나도 정예 장수 여덟 명을 내보내 실력을 겨뤄보겠다. 승부가 나면 말에서 떨어진 자들은 각자 본진으로 메고 돌아가되, 암기나 화살로 몰래 해치거나 시

신을 약탈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만약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난전을 벌이지 말고 내일 다시 싸우기로 하자."

방모는 그 말을 듣고 여덟 장수를 불러 각자 병기를 들고 말로 달려 나가게 했다. 송강이 말했다. "장수들은 군마를 몰아 출전하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덟 장수가 일제히 나섰다. 그들은 바로 관승, 화영, 서녕, 진명, 주동, 황신, 손립, 학사문이었다. 송강의 진영에서도 깃발이 휘날리며 좌우 양편에서 여덟 명의 장수가 갈라져 나와 일제히 말을 몰아 적진으로 돌진했다. 양측 군대에서 화려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오색 깃발이 너울거렸다. 각 진영에서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양측의 함성과 함께 열여섯 명의 기마병이 일제히 튀어나와 서로 적수를 찾아 짝을 지어 격돌했다.

열여섯 장수가 적수를 찾아 맞붙어 싸우는 광경은 실로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장관이었다. 관승은 유빈과 싸우고, 진명은 장위와, 화영은 서방과, 서녕은 오복과 맞붙었다. 또한 주동은 구정과, 황신은 곽세광과, 손립은 진성과, 학사문은 창성과 격돌했다. 그 모습은 참으로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치열했으니, 시로 이르되 다음과 같다.

전쟁의 먼지 어지러이 일어나고, 살기가 가득하구나.
사람마다 나타가 되려 하고, 저마다 경덕이 되려 다투네.
서른두 개의 팔은 비단 짜는 북처럼 움직이고,
예순네 개의 말발굽은 몰아치는 우박처럼 달려드네.
깃발이 뒤섞여 붉고 흰색과 푸르고 노란색을 분간하기 어렵고,
무기가 맞부딪쳐 창과 칼, 검과 극을 구별할 수 없네.

자욱한 전쟁의 연기 속을 보아하니, 마치 정월 대보름의 등불놀이 같구나.

이 열여섯 명의 맹장들은 모두 영웅호걸들이라, 온 힘을 다해 맞붙어 서른 합 넘게 싸웠다. 그러던 중 한 장수가 몸을 날리며 말에서 떨어졌으니, 승리한 자는 누구인가? 바로 '미염공' 주동이 창으로 구정을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린 것이다. 양측 군대는 각자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게 하였고, 일곱 쌍의 장수들은 서로 갈라져 각자의 본진으로 돌아갔다.

삼대왕 방모는 장수 한 명을 잃자 형세가 불리함을 느끼고, 군사를 이끌고 소주성 안으로 퇴각했다. 송강은 그날 즉시 군마를 몰아 곧장 한산사 아래에 진을 쳤으며, 공을 세운 주동에게 포상을 내렸다. 배선이 군장(軍狀, 군사 보고서)을 작성하여 장 초토사(張招討)에게 올려 보고하였으니, 이 일은 여기서 더 말하지 않겠다.

한편, 삼대왕 방모는 군사를 거두어 성안으로 들어간 뒤, 굳게 지키며 결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여러 장수를 나누어 배치하여 각 성문을 지키게 하고, 사슴뿔 모양의 방어벽인 녹각을 깊이 박아 두었다. 성벽 위에는 발로 밟아 당기는 쇠뇌(답노)와 강궁을 늘어놓고, 굴려 떨어뜨릴 통나무(뇌목)와 투석용 돌(포석)을 쌓아 두었으며, 성가퀴 안의 초소(와포)에서는 쇳물(金汁)을 녹여 끓이고, 여장(女牆) 가에는 석회 가루를 담은 병(회병)을 쌓아 두는 등 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다음 날, 송강은 남군이 성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화영, 서녕, 황신, 손립과 함께 서른 명 남짓의 기마병을 이끌고 성 근처까지 살피러 나갔다. 소주성을 보니 성곽 주위가 온통 물길로 둘러싸여 있었고 성벽 또한 견고했다. 송강은 '급히 공격해서는 성을 함락시키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는 진영으로 돌아와 오용과 함께 성을 공격할 계책을 논의했다. 그때 누군가 달려와 보고했다. "수군 두령 정장 이준이 강음에서 주장님을 뵙기 위해 왔습니다." 송강이 그를 막사로 들여오게 했다. 이준을 보자마자 송강은 해안 지역의 소식을 물었다. 이준이 대답했다. "수군을 거느리고 석수 등과 함께 강음과 태창의 해안 지역까지 진격했습니다. 그곳을 지키던 수비장 엄용과 부장 이옥이 수군 함선을 이끌고 나와 맞서 싸웠으나, 엄용은 배 위에서 완소이의 창에 찔려 물에 빠졌고 이옥은 어지러운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덕분에 강음과 태창을 얻었습니다. 지금 석수, 장횡, 장순은 가정을 치러 갔고, 완씨 삼형제는 상숙을 치러 갔기에 제가 직접 승전보를 전하러 왔습니다." 송강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이준에게 포상을 내렸다. 그리고 이준에게 상주로 가서 장·유 두 초토사(張劉二招討)를 만나 신장(군사 보고서)을 제출하라고 명했다.

한편, 이준은 곧장 상주로 가서 장 초토사(張招討)와 유 도독을 만났다. 그는 강음과 태창의 해안 지역을 탈환하고 적장 엄용과 이옥을 죽였다는 소식을 상세히 보고했다. 장 초토사는 이준에게 포상을 내리고, 송강 선봉장 휘하로 돌아가 명령을 기다리라고 일렀다. 이준이 한산사 진영으로 돌아와 송강을 알현하자, 송강은 소주성 밖의 물길이 워낙 넓고 광활하여 반드시 수군 함선으로 싸워야 할 상황임을 직감하고 이준을 곁에 머물게 했다. 송강은 이준에게 배들을 정비하여 거사를 준

비하라고 명했다. 이준이 말했다. "제가 물길의 넓고 좁음을 직접 살펴보고 어떻게 병사를 운용할지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송강은 그 말이 옳다고 여겼다. 이준이 떠난 지 이틀 만에 돌아와 말했다. "이 성의 정남쪽은 태호와 아주 가깝습니다. 형님, 저희가 배 한 척을 준비하여 의흥의 작은 항구로 간 뒤, 몰래 태호로 들어가 오강을 거쳐 남쪽의 소식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군사를 일으켜 사방에서 협공함으로써 성을 함락할 수 있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아우의 말이 지극히 옳네. 다만 자네와 함께 갈 부하가 없는 것이 아쉽구나." 송강은 즉시 이대관인(이응)을 불러 공명, 공량, 시은, 두흥 네 사람과 함께 강음, 태창, 곤산, 상숙, 가정 등의 지역으로 보내 수군을 돕게 했다. 그곳의 해안 현들을 탈환하면 동위와 동맹을 불러와 이준의 거사를 돕게 할 작정이었다. 이응은 군첩(軍帖)을 받아 송강에게 작별을 고하고 네 명의 편장을 이끌고 강음으로 떠났다. 이틀 뒤, 동위와 동맹이 돌아와 송강을 알현했다. 송강은 그들을 위로한 뒤, 이준을 수행시켜 작은 배를 타고 남쪽의 소식을 살피러 가게 했다.

한편, 이준은 동위, 동맹을 데리고 작은 배 한 척을 띄웠다. 사공 두 명이 노를 저으니, 다섯 사람은 곧장 의흥의 작은 항구로 향하여 태호 안으로 휘돌아 들어갔다. 태호에 이르러 보니 과연 하늘과 물이 맞닿아 끝없이 넓고 푸른 빛이 만경창파로 펼쳐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다음과 같았다.

하늘은 먼 물과 맞닿아 있고, 물은 아득한 하늘에 이어져 있었다. 높고 낮은 물 그림자는 티 없이 맑고, 위아래로 비치는 하늘빛은 온통 한 빛깔이었다. 떼를 지어 날아오는 백로들은 푸른 유리 같은 물결을 점점

이 깨뜨리고, 쌍을 지어 날아오르는 갈매기들은 비취색 물결을 거세게 헤치며 나아갔다. 봄날의 햇살은 잔잔하게 일렁이며 물고기 비늘처럼 물결이 일렁이고, 여름날의 폭우는 쏟아져 내려 은빛 지붕처럼 파도가 요동쳤다. 가을밤의 달빛은 밝고 깨끗하여 물결 위로 금빛 뱀이 노니는 듯하고, 겨울날의 눈은 흩날려 온 세상에 옥나비가 가득한 듯했다. 혼돈의 기운이 뚫고 나온 근원의 굴이며, 물의 신 풍이가 홀로 차지한 수정궁과도 같았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하얗게 일렁이며 갈매기 날아다니고,
푸른 빛 짙은 깊은 봄은 옷을 물들이네.
남북으로 오가는 사이 사람은 어느덧 늙었는데,
지는 해는 늘 낚싯배를 저어 돌아오게 하네.

이때 이준은 동위, 동맹, 그리고 사공 두 명과 함께 작은 배 한 척을 타고 태호로 향했다. 배가 점점 오강 근처에 다다르자, 멀리 어선 마흔~쉰 척가량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이준이 말했다. "우리는 생선을 사러 가는 것이니, 저곳에 가서 한번 알아보자." 다섯 사람은 곧장 어선들 곁으로 노를 저어 갔다. 이준이 물었다. "어르신, 큰 잉어가 있습니까?" 어부가 대답했다. "큰 잉어를 찾으신다면 우리 집으로 가서 사가시오." 이준은 배를 저어 그 어선들을 따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장소에 도착했다. 보니 주위가 온통 허리 굽은 버드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울타리 안에는 스무 가구 남짓한 집들이 모여 있었다. 어부는 먼저 배를 밧줄로 매어 묶더니, 곧바로 이준과 동위, 동맹 세 사람을 육지로 안내하여 어느 장원에 이르렀다. 그들이 장원 문을 들어서자마자, 한 사람이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양옆에서 건장한 사내 일곱여덟

명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모두 갈고리를 들고 이준 일행 세 사람을 한꺼번에 붙잡아 장원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사정을 묻지도 않고 세 사람을 곧장 말뚝에 묶어버렸다. 이준이 눈을 들어 보니, 초가 마루에 네 명의 호걸이 앉아 있었다. 우두머리는 붉은 수염에 누런 머리카락을 가졌고 푸른 비단 누비 덧옷을 입고 있었으며, 두 번째 인물은 키가 크고 마른 데다 짧은 수염을 기르고 검은빛 도는 녹색의 깃 달린 무명옷을 입고 있었다. 세 번째는 얼굴이 검고 수염이 길었으며, 네 번째는 뼈가 드러난 얼굴에 넓은 턱, 부채꼴로 둥글게 퍼진 수염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푸른 누비 덧옷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에는 검은 펠트 삿갓을 썼고 곁에는 무기를 기대어 놓고 있었다. 우두머리가 이준에게 호통치며 물었다. "네놈들은 대체 어디 놈들이냐? 우리 호수에 무슨 일로 왔느냐?" 이준이 대답했다. "나는 양주 사람인데, 이곳에 손님으로 와서 생선을 좀 사려고 왔소." 그러자 네 번째 사내가 말했다. "형님, 저 놈에게 물어봐서 무엇합니까. 딱 보니 첩자구먼요. 그저 저놈의 간을 꺼내 술안주로나 씁시다." 이준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심양강(潯陽江)에서 여러 해 밀무역(사상)을 하고, 양산박에서도 몇 년간 호걸들과 지냈거늘, 뜻밖에도 오늘 여기서 목숨을 잃게 생겼구나! 에휴, 에휴, 에휴!' 그는 한숨을 내쉬며 동위와 동맹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내가 너희 형제들을 연루시켰으니,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함께 가야겠구나!" 동위와 동맹이 말했다. "형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죽어도 상관없지만, 여기서 죽어 형님의 큰 이름을 더럽힐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슴을 펴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그런데 네 명의 호걸은 세 사람을 가만히 살피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말했다. "저 우두머리는 분명 보통 인물이 아니로구나." 우두머리가 다시 물었다. "너희 세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

들이냐? 성명을 알려주어 우리도 알게 해다오." 이준이 다시 대답했다. "죽이려거든 죽여라. 우리 이름은 죽어도 말하지 않을 것이니, 괜히 호걸들의 웃음거리만 만들지 않겠다!" 이 말을 들은 우두머리는 벌떡 일어나 칼로 밧줄을 끊어 세 사람을 풀어주었다. 어부 네 명이 그들을 부축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권했다. 우두머리는 즉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우리가 평생 강호의 강도로 살아왔지만, 이토록 의기 있는 인물은 처음 봅니다! 호걸님, 세 분은 어디 분들이십니까? 성함을 듣고 싶습니다." 이준이 말했다. "당신들 네 형님이 분명 호걸임이 틀림없구려. 이름을 말할 테니, 그 후에 우리 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든 마음대로 하시오. 우리는 양산박 송공명의 휘하 부장들이오. 나는 '혼강룡' 이준이고, 이 두 형제는 각각 '출동교' 동위와 '번강신' 동맹이오. 우리는 조정의 초안(招安)을 받아 요나라를 막 깨뜨리고 도성으로 돌아오던 길에, 다시 칙명을 받들어 방랍을 토벌하러 왔소. 만약 당신들이 방랍의 수하들이라면, 우리 세 사람을 잡아다 공을 세우시오. 감히 저항할 생각은 없소!" 그 말을 들은 네 사람은 즉시 머리를 조아리며 일제히 무릎을 꿇고 말했다. "태산을 알아보지 못하고 방금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나무라지 마십시오! 저희 네 형제는 방랍의 수하가 아니라, 본래 녹림에서 떠돌며 먹고살던 이들입니다. 이제 이곳을 찾아 정착하게 되었는데, 지명은 유류장(榆柳莊)이라 하고 사방이 깊은 항구라 배가 아니면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이지요. 저희는 그저 어부를 눈과 귀로 삼아 태호에서 먹을거리를 구할 뿐입니다. 근래 한겨울을 나며 물길을 좀 익히게 되니 감히 침범하는 자가 없더군요. 저희도 양산박 송공명이 천하의 호걸들을 모은다는 말과 형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고, '낭리백조' 장순이라는 분의 이름도 들었는데, 뜻밖에 오늘 형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준이 말했다. "장순은 내 형제이자 함께 수군 두

령을 맡고 있는 자로, 지금은 강음 지역에서 도적을 잡고 있소. 다음에 그와 함께 와서 당신들과 만나게 하겠소. 부디 당신들 네 분의 이름을 알려주시오." 우두머리가 대답했다. "저희는 녹림에서 지내온 터라 다들 별호가 있는데, 형님께서 웃지 마십시오! 저는 '적수룡' 비보이고, 다른 이는 '권모호' 예운, 또 다른 이는 '태호교' 복청, 마지막은 '수검웅' 적성입니다." 이준은 네 사람의 이름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제 서로 의심할 것 없이 한 가족이 되었구려! 우리 송공명 형님은 지금 방랍을 치는 정선봉장으로서 곧 소주를 함락시키려 하는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특별히 우리 세 사람을 보내 길을 살피게 한 것이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호걸을 만났으니, 우리 선봉장님을 뵈러 같이 갑시다. 다들 관직에 오르도록 보장해 드릴 것이고, 방랍을 토벌한 뒤에는 조정에서 승진시켜 등용할 것이오." 비보가 말했다. "말씀드리자면, 만약 저희 네 사람이 관직을 원했더라면 방랍 수하에서 진작에 통제(統制) 자리라도 얻어 한참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직은 원하지 않고, 그저 즐겁게 사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만약 형님께서 저희 넷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물속이든 불속이든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나 관직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은 정말로 사양하겠습니다." 이준이 말했다. "기왕 그렇다면, 우리 바로 여기서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떻겠소?" 네 호걸이 매우 기뻐하며 돼지 한 마리와 양 한 마리를 잡아 술을 차려 잔치를 벌이고 이준을 형으로 모시며 의형제를 맺었다. 이준은 동위와 동맹도 함께 의형제를 맺게 하였다.

일곱 사람은 유류장에서 함께 상의하며 송강이 소주를 함락시키려 한다는 일을 논했다. 이준이 말했다. "방모가 출전하려 하지 않으니 큰 일이구려. 성 주위 사방이 온통 물이라 공격할 길이 없고, 배가 드나드

는 항구도 좁아 적을 마주하기가 어렵소. 이런 식으로는 어찌 성을 깨뜨릴 수 있겠소?" 비보가 말했다. "형님, 우선 이틀만 마음 편히 머무르십시오. 머지않아 항주에서 방랍 수하의 사람들이 소주로 업무를 보러 올 것이니, 그 기세를 몰아 지혜롭게 성을 취하면 됩니다. 제가 어부 몇 명을 시켜 정보를 수집하게 할 테니, 만약 사람이 오게 되면 그때 계책을 세웁시다." 이준이 말했다. "그 말 참으로 훌륭하오!" 비보는 곧 어부 몇 명을 불러 먼저 떠나보냈고, 자신은 이준과 함께 매일 장원에서 술을 마시며 지냈다.

그곳에서 이삼 일을 지내는데, 어부들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평망진에 운송용 배 십여 척이 있는데, 배 꼬리마다 황색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깃발에는 '왕부의 의갑을 제작함'이라고 적혀 있으니, 분명 항주에서 압송되어 오는 배들입니다. 배마다 사람은 대여섯 명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준이 말했다. "이런 기회가 왔으니, 형제들이 힘을 보태주길 간절히 바라오." 비보가 말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이준이 걱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만약 그 배에서 사람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 계획이 어긋나면 어찌하오?" 비보가 대답했다. "형님, 안심하십시오. 모든 것은 저희 형제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곧이어 예순-일흔 척의 작은 어선들이 모였다. 일곱 명의 호걸은 각자 배 한 척씩을 타고, 나머지는 모두 어부들이었으며 저마다 암기를 숨기고 있었다. 그들은 작은 항구를 통해 큰 강으로 스며들어 사방에서 적을 에워쌌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과 달이 가득했고, 열 척의 관선은 모두 강 동쪽의 용왕묘 앞에 정박해 있었다. 비보의 배가 먼저 도착하여 갑자기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예순-일흔 척의 어선이 일제히 몰

려와 각자 큰 배를 에워쌌다. 관선 안의 사람들이 급히 밖으로 튀어나왔으나, 이미 갈고리에 걸려 세 명, 다섯 명씩 줄줄이 엮여버렸다. 물속으로 뛰어든 자들도 모두 갈고리에 걸려 배 위로 끌어 올려졌다. 작은 배들로 관선을 붙잡아 태호 깊은 곳으로 옮겨 놓으니, 유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경(새벽 1시~3시 사이)이었다. 잡혀온 잡다한 사람들은 모두 줄줄이 묶은 뒤 큰 돌을 매달아 태호 깊은 곳에 던져 익사시켰다.

우두머리 격인 두 명을 잡아다 물으니, 알고 보니 항주를 지키는 방랍의 대태자 남안왕 방천정 휘하의 창고 관리들이었다. 그들은 새로 만든 철갑 삼천 벌을 소주의 삼대왕 방모에게 전달하라는 칙명을 받들어 압송하던 중이었다. 이준은 그들의 성명을 묻고 모든 관인과 문서를 챙긴 뒤, 두 관리도 죽여버렸다. 이준이 말했다. "내가 직접 가서 형님과 상의를 해야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겠소." 비보가 말했다. "사람을 시켜 배를 보내 형님을 모실 테니, 작은 항구를 통해 군영 근처로 편하게 오십시오." 그러고는 어부 두 명에게 빠른 배 한 척을 저어 가게 했다. 이준은 동위, 동맹과 비보 등에게 의갑을 실은 배들을 장원 뒤편 항구에 몰래 숨겨두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비보가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는 사람들과 함께 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준은 어부 두 명과 함께 빠른 배 한 척을 타고 작은 항구를 거쳐 군영 앞 한산사에 도착하여 육지에 올랐다. 진영에 들어온 이준은 송강을 만나 앞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오용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대로라면 소주는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주장님께 명을 내려, 이규, 보욱, 항충, 이곤에게 돌격용 방패를 든 병사 이백 명을 거느리게 하여 이준을 따라 태호 장원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비보 등 네 호걸과 함께 이 계책을 실행하되, 이틀 뒤에 출발하도록 합시다."

이준은 군령을 받들어 일행을 데리고 태호 근처로 갔다. 먼저 세 사람이 호수를 건너가 배를 몰아 이규 일행을 태우고 모두 유류장으로 향했다. 이준은 이규, 보욱, 항충, 이곤 네 사람을 데리고 비보 일행과 만나게 했다. 비보는 이규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다. 그는 이백여 명의 병사를 불러 장원에 술과 음식을 차려 대접했다.

셋째 날, 사람들은 계획을 세웠다. 비보는 의갑을 관리하는 창고 관리로 변장하고, 예운은 부사로 변장하여 모두 남군의 관복을 입고 각종 관인과 문서를 지녔다. 어부들은 모두 관선의 선원인 척 위장했으나, 배의 선실 안에는 '흑선풍' 이규를 비롯한 이백여 명의 장졸들이 숨어 있었다. 복청과 적성은 뒷배를 맡아 불을 지를 도구들을 챙겼다.

막 움직이려는데, 어부 하나가 다시 달려와 보고했다. "호수 위에 배 한 척이 나타나 흔들흔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준이 말했다. "또 무슨 일이 생겼구나!" 급히 가서 살펴보니, 배 머리에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바로 '신행태보' 대종과 '굉천뢰' 능진이었다. 이준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그 배는 마치 날아오는 듯 장원으로 달려와 육지에 상륙했다. 이준이 물었다. "두 분은 어찌 오셨으며, 무슨 소식입니까?"

대종이 말했다. "형님께서 급히 이규를 보내셨습니다. 큰일을 하나 깜빡하셨다며, 특별히 저와 능진에게 화포 백 문을 배에 실어 보내 형

님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호수 위를 헤매도 찾을 수가 없고, 감히 육지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어 이렇게 왔습니다. 형님께 내일 새벽 묘시(오전 5시~7시 사이)에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전해 주십시오. 안으로 들어가면 이 화포 백 문을 터뜨려 신호로 삼겠습니다." 이준이 말했다. "그게 좋겠소!" 그는 즉시 배에서 화포 상자와 거치대를 옮겨 의갑을 실은 배 안에 숨겨두었다. 비보 등은 대종이 온 것을 알고 다시 술을 차려 대접했다. 능진은 포수 열 명을 데려와 세 번째 배 안에 매복시켰다.

그날 밤 사경(새벽 1시~3시 사이), 장원에서 소주를 향해 출발하여 오경(새벽 3시~5시 사이)이 지나자 성 아래에 도착했다.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성 위에서 남군의 깃발을 보고는 황급히 문을 지키는 대장에게 보고했다. 그는 바로 '비표대장군' 곽세광이었다. 곽세광은 직접 성 위로 올라와 하급 장교에게 자세한 상황을 묻고 관인과 문서를 받아 성 위로 올라가 확인했다. 곽세광은 이를 삼대왕의 부(府)로 보내어 문서를 대조하게 한 뒤, 감시하는 사람을 보내 확인을 마친 뒤에야 비로소 성문을 열어주게 했다. 곽세광은 수문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사람을 시켜 배를 다시 살펴보게 했는데, 철갑과 관복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고는 한 척씩 차례로 성 안으로 들여보냈다.

열 척의 배를 통과시킨 뒤 수문을 닫았다. 삼대왕이 보낸 감시관은 오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강가에서 배를 바짝 뒤쫓았다. 이때 선실 안에서 이규, 보욱, 항충, 이곤이 튀어나왔다. 감시관이 이 네 사람의 험악한 몰골을 보고 누구냐고 다급히 묻는 순간, 항충과 이곤이 방패를 휘두르며 칼을 날려 감시관을 말 아래로 떨어뜨려 베어버렸다. 오백 명의 군사가 배 위로 올라오려 하자, 이규가 쌍도끼를 치켜들고 강가로

뛰어올라 단숨에 십여 명을 베어 넘기니, 오백 명의 군사가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배에 있던 호걸들과 이백여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상륙하여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능진은 강가에 포를 설치하고 거치대를 옮겨 화포를 잇달아 수십 발 터뜨렸다. 포성이 워낙 커서 성루가 흔들릴 정도였고, 사방에서 병사들이 몰려들었다.

삼대왕 방모는 부중에서 계책을 논의하던 중, 연달아 터지는 화포 소리에 혼비백산했다. 각 문의 수비 장수들은 성 안에서 끊이지 않는 포성을 듣고 병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달려왔다. 각 문에서 급히 보고가 올라오기를, 남군 병사들은 화살에 맞아 죽고 송군이 이미 성 위로 올라왔다는 것이었다. 소주성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얼마나 많은 송군이 성 안으로 들이닥쳤는지 알 수 없었다. '흑선풍' 이규와 보욱은 방패병 두 명을 거느리고 성 안을 휩쓸며 남군을 추격해 죽였다. 이준과 대종은 비보 등 네 사람을 데리고 능진을 호위하며 화포를 쏘는 데만 전념했다. 송강은 이미 세 갈래의 군대를 움직여 성을 점령하게 했다. 송군이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오자 남군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다.

한편, 삼대왕 방모는 급히 무장을 하고 말에 올라타 오칠백 명의 철갑군을 이끌고 남문을 통해 탈출하려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규 일행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말았다. 철갑군은 이규의 기세에 눌려 동서로 흩어져 도망쳤다. 그때 골목에서 노지심이 나타나 철선을 휘두르며 들이닥쳤다. 방모는 버티지 못하고 홀로 말을 달려 부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오작교 아래에서 나타난 무송이 달려들어 칼로 말의 다리를 끊어버렸다. 방모는 말에서 떨어졌고, 무송이 다시 칼을 휘둘러 그를

베어버렸다. 무송은 방모의 머리를 들고 곧장 중군으로 가서 선봉장 송강을 알현하며 공을 청했다.

이때 송강은 이미 성 안의 왕부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장수들에게 명하여 성 안의 남군을 샅샅이 수색해 모두 사로잡게 했다. 오직 유빈 한 사람만이 패잔병을 이끌고 수주로 도망쳤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천하의 권세란 본래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법인데 참칭하는 왕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무송이 말 위에서 방모를 베어 죽이니 흉악한 무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도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송강은 왕부에 들어가 자리를 잡은 뒤, 곧바로 명령을 내려 양민과 백성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사방에 번진 불을 끄게 하는 한편 안민문방(安民文榜, 백성을 안심시키기 위해 붙이는 방)을 내걸어 군사와 백성들에게 낱낱이 알리게 했다. 그 후 장수들을 불러 모아 부중으로 와서 공을 치하하게 하니, 무송이 방모를 죽였고, 주동은 서방을 생포했으며, 사진은 진성을 생포했다. 손립은 장위를 채찍질하여 죽였고, 이준은 창성을 창으로 찔러 죽였으며, 번서가 오복을 죽였다. 선찬과 곽세광은 격전을 벌이다 서로 상처를 입고 음마교 아래에서 모두 전사하였고, 그 외의 장수들은 모두 적의 아장(牙將)들을 사로잡아 와서 공을 청했다.

송강은 '추군마' 선찬을 잃은 것을 보고 슬픔을 금치 못하여, 사람을 보내 화려한 관과 곽을 준비하게 하여 그를 호구산 아래로 운구하여 장

사 지내게 했다. 방모의 머리와 함께 생포한 서방·진성은 상주에 있는 장초토(張招討, 장 초토사)의 군영으로 보내 처단하게 했다. 장초토는 서방과 진성을 시장터에서 능지처참하였고, 방모의 머리는 경사로 보내게 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상금을 가지고 소주로 돌아와 여러 장수에게 나누어 주었다. 장초토는 문서를 올려 유광세가 소주를 지키도록 청하면서, 송강 선봉장에게는 계속 병력을 진격시켜 도적 떼를 소탕하라고 명했다.

이때 탐마가 달려와 보고하기를, "유 도독과 경 참모가 소주를 지키러 옵니다."라고 하였다. 그날 장수들은 모두 송강을 따라 유광세 일행을 영접하여 성 안 왕부에 머물게 했다. 축하 인사가 끝나자 송강과 장수들은 주 치소(州治, 주의 행정 중심지)로 이동하여 정사를 논의하였고, 송강은 사람을 보내 해안가 수군 두령들의 소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게 했다. 곧 보고가 들어오기를, 해안가의 여러 현 치소에서 소주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적 떼가 각기 흩어져 달아났으며, 바닷가 인근의 현들은 모두 평온해졌다고 하였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중군에 승전보를 알리는 문서를 보냈다. 또한 장초토에게 요청하여 옛 관리들을 복직시키게 하고, 별도로 중군 통제를 파견하여 각처를 수비하고 백성을 안심시키게 했으며, 물러난 수군의 정·편장 및 좌장들을 소주로 불러들여 다시 임명하도록 했다.

며칠 사이 통제(統制, 군사 지휘관)를 비롯한 관리들은 각자 맡은 곳으로 흩어져 갔다. 수군 두령들도 모두 소주로 돌아왔는데, 완씨 삼형제가 상숙(常熟)을 공격하다가 시은을 잃었고, 이어 곤산을 공격하다가 공량을 잃었다고 보고했다. 석수와 이응 등도 모두 돌아왔으나, 시

은과 공량은 물에 익숙하지 않아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송강은 또다시 두 장수를 잃은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근심하며 탄식을 금치 못했다. 무송 또한 옛 의리를 생각하며 크게 한바탕 통곡하였다.

한편, 비보 등 네 사람이 송강 선봉장에게 작별을 고하고 돌아가려 하자, 송강은 완강히 만류하였으나 그들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결국 송강은 네 사람에게 두둑한 상을 내린 뒤, 이준에게 명하여 비보 일행을 유류장으로 배웅하게 했다. 이준은 즉시 동위, 동맹과 함께 비보 일행을 유류장까지 데려다주었는데, 비보 일행은 다시 술자리를 차려 정성껏 대접했다. 술자리 도중 비보가 일어나 이준에게 술잔을 올리며 몇 마디 말을 건넸다. 그리고 바로 이 말로 말미암아 이준은 훗날 중원 땅을 떠나 변방 밖에 따로 새로운 터전을 세우게 되니, 이른바 '몸을 깨치고 천명에 통달함은 두꺼비가 허물을 벗는 것과 같고, 업을 이루고 이름을 떨침은 물고기가 용으로 화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다.

결국 비보가 이준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0회 — 녕해군 송강이 효를 표하고, 용금문 장순이 신령의 곁으로 떠나다

寧海軍宋江弔孝 涌金門張順歸神

한편, 비보가 이준에게 말했다. "아우가 비록 어리석은 사내에 불과하나, 명철한 이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일에 성공이 있으면 반드시 실패가 있고, 사람에게 흥함이 있으면 반드시 쇠함이 있다'라고 말이지요. 형님께서 양산박에서 공을 세우신 지도 벌써 수십 년이 흘렀고, 백전백승을 거듭해 오셨습니다. 요나라를 정벌할 때도 형제 중 누구 하나 잃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이번에 방랍을 토벌하는 것을 보니 기세가 꺾이는 듯하니, 하늘의 운수가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제가 어찌하여 관직을 맡으려 하지 않느냐 하면, 세상 이치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평성대가 찾아오면, 도리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형님의 목숨을 노리려 들 것입니다. 예부터 '태평성대는 장군이 세우지만, 장군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은 허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참으로 절묘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 네 사람이 의형제를 맺었으니, 형

님 세 분께서는 기운이 다하기 전에 어찌하여 갈 곳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으십니까? 재물을 좀 모아 큰 배 한 척을 장만하고, 선원 몇 명을 모아 강과 바다 사이의 깨끗한 곳에 자리를 잡아 안빈낙도하며 천수를 누린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이준은 그 말을 듣고 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형님, 저 같은 미련한 자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귀한 말씀입니다. 다만 아직 방랍을 소탕하지 못했으니, 송강 형님의 은혜와 의리를 저버릴 수 없어 지금 당장 그 길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오늘 바로 형님을 따라간다면 평생 쌓아온 의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준을 잊지 않고 방랍을 복속시킨 뒤에 기다려 주신다면, 제가 두 형제를 데리고 반드시 찾아가겠으니 그때는 꼭 거두어 주십시오. 형님들께서는 부디 이 길을 먼저 준비해 두십시오. 만약 오늘 약속을 어긴다면 하늘이 노할 것이요, 그것은 사내자식도 아닐 것입니다!"

네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가 배를 준비해 놓고 형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릴 테니, 절대로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이준과 비보는 의형제를 맺고 술을 마시며,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겠노라 맹세했다.

다음 날, 이준은 비보 일행 네 사람과 작별하고 동위, 동맹과 함께 돌아와 송강을 알현했다. 이준은 비보 등 네 사람이 관직을 맡기보다는 그저 배를 타며 고기나 잡고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고 모두 아뢰었다. 송강은 다시 한번 탄식한 뒤, 수륙군 병사들을 정돈하여 출발하라는 명을 내렸다. 오강현에는 이미 도적이 없었기에, 군대는 곧장 평망진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며 수주를 향해 나아갔다.

수주의 수장 단개는 소주의 삼대왕 방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하면 잘 물러날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을 보내 대군이 성에서 멀지 않음을 알아냈는데, 멀리 수륙로를 바라보니 깃발이 하늘을 가리고 배와 말이 끝없이 이어져 있어 혼비백산할 지경이었다. 전대 대장관승과 진명이 이미 성하에 도착하여, 수군의 배들을 나누어 배치해 서문을 포위했다. 단개가 성 위에서 외쳤다. "공격할 필요 없다! 항복을 준비하라!" 그는 곧장 성문을 열고 꽃과 향, 등불과 촛불을 준비하고, 양을 끌고 술을 메어 송강을 성안으로 맞이하여 주치(州治, 주 관청이 있는 곳)에 닿을 때까지 정성껏 모셨다.

단개가 가장 먼저 송강을 알현하자, 송강은 단개를 위로하며 다시 어진 신하가 되라고 권하고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단개가 말했다. "저희는 본래 목주의 양민이었으나, 방랍의 무리에게 거듭 해를 입어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투항했습니다. 이제 하늘의 군대가 이곳에 이르렀으니, 어찌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송강이 자세히 물었다. "항주의 영해군 성곽은 어떤 사람이 지키고 있으며, 군사와 장수는 얼마나 되는가?" 단개가 보고했다.

"항주 성곽은 넓고 멀며 인가가 빽빽합니다. 동북쪽으로는 육로가 있고, 남쪽으로는 큰 강이 흐르며, 서쪽으로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방랍의 대태자인 남안왕 방천정이 지키고 있는데, 부하로 칠만여 명의 군사와 스물네 명의 장수, 그리고 네 명의 원수가 있어 모두 스물여덟 명에 달합니다. 그중 우두머리 두 명이 가장 대단합니다. 한 명은 흡주 출신의 승려로, 호는 '보광여래'라 하고 성은 등씨, 법명은 원각입니다. 그는 혼철로 만든 쉰 근이 넘는 무게의 선장을 휘두르는데, 사람들

은 그를 국사라 부릅니다. 또 한 명은 복주 사람으로, 성은 석씨 이름은 보입니다. 그는 유성추를 다루는 데 능해 백발백중이며, 또한 '벽풍도'라는 보도를 쓰는데, 구리나 철을 자르고 꺾을 만큼 위력이 대단하여 세 겹의 갑옷도 마치 바람을 가르듯 베어버립니다. 그 외에 스물여섯 명의 장수도 모두 엄선된 용맹한 자들이니, 주장(主帥)께서는 결코 적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송강은 이 말을 듣고 단개에게 상을 내린 뒤, 장초토(張招討, 초토사 장씨)의 군영으로 가서 이 세부 사항을 전하라고 일렀다. 이후 단개는 장초토를 따라 군사를 이끌고 소주(蘇州)를 지키게 되었고, 대신 부도독 유광세를 수주(秀州)로 보내 방어하게 했다. 송강은 군대를 옮겨 췌리정에 진을 쳤다. 그는 장수들과 연회를 베풀며 군사들을 격려하고, 항주를 공격할 책략을 논의했다.

이때 소선풍 시진이 일어나 말했다. "시진은 고당주에서 형님께 목숨을 구한 이후로 줄곧 형님의 보살핌을 받아온 덕분에 부귀영화를 누려왔으나, 아직 그 은혜를 갚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방랍의 적진 깊숙이 들어가 세작이 되고자 합니다. 만약 공을 세워 조정에 보답할 수 있다면 형님의 얼굴에도 빛이 날 것입니다. 형님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송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만약 그대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 내부의 형세를 파악하고 군사를 움직여 적의 수괴 방랍을 생포해 경사로 압송할 수 있다면, 비로소 작은 공을 세워 부귀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오. 다만 그대의 여정이 너무 고될까 걱정이구려."

시진이 말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겠습니다. 다만 연청이 동행해 준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 친구는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 밝고 눈치가 빠릅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대의 말은 모두 옳소. 연청은 지금 노 선봉의 부하로 있으니, 바로 문서를 보내 데려오겠소."

한창 의논하던 중, 사람들이 달려와 보고했다. "노 선봉께서 특별히 연청을 보내 승전보를 전해왔습니다!"

송강이 보고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아우가 이번에 큰 공을 세우겠구나! 마침 연청이 도착하니 참으로 길조로다." 시진 역시 기뻐했다.

연청이 진영으로 들어와 장막 위에서 송강에게 절을 올린 뒤, 술과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송강이 물었다. "아우는 수로로 왔는가, 육로로 왔는가?" 연청이 대답했다. "배를 타고 왔습니다." 송강이 다시 물었다. "대종이 돌아왔을 때, 이미 군사를 움직여 호주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던데 상황이 어떠한가?"

연청이 보고했다. "선주를 떠날 때 노 선봉께서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셨습니다. 선봉께서는 직접 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호주를 공격하여, 가짜 유수 궁온과 그 수하 부장 다섯 명을 사살하고 호주를 복속시켰습니다. 또한 적군을 흩어버리고 백성들을 안심시킨 뒤, 장초토(張招討)께 보고하는 문서를 올려 통제(統制, 군사 지휘관)를 보내 수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를 보내 승전보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장이 나누어 주신 나머지 절반의 인마는 임충이 이끌고 가서 독

송관을 점령한 뒤, 모두 항주에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듣기로는 독송관 가는 길에서 매일같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 아직 관문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봉께서는 이미 주무와 함께 떠나셨고, 호연작 장군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호주를 지키며 중군의 초토사가 통제를 조발해 보내와 경계를 지키고 백성을 안심시킬 때까지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후에야 군사를 움직여 덕청현을 공격하고 항주에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송강이 다시 물었다. "호주를 수비하고 덕청현을 취하는 일과, 독송관으로 보내 싸우게 한 일에 나누어 배치된 장수들의 이름과 인원수는 어떠한가? 몇 명이 가고, 몇 명이 호연작을 따라왔는가?" 연청이 말했다.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독송관으로 가서 관문을 빼앗기 위해 싸우러 간 이들은 정장과 편장 등 스물세 명입니다."

"선봉 노준의, 주무, 임충, 동평, 장청입니다."

"해진, 해보, 여방, 곽성, 구붕입니다."

"등비, 이충, 주통, 추연, 추윤입니다."

"손신, 고대수, 이립, 백승, 탕륭입니다."

"주귀, 주부, 시천입니다."

호주를 지키는 수어(守禦) 군대를 보니, 그날 즉시 덕청현으로 군사를 진격시켰다. 그곳에는 정장(正將)과 편장(偏將)을 포함한 장수 열아홉 명이 있었다.

호연작, 색초, 목홍, 뇌횡, 양웅이다.

유당, 단정규, 위정국, 진달, 양춘이다.

설영, 두천, 목춘, 이운, 석용이다.

공왕, 정득손, 장청, 손이낭이다.

"이 두 곳의 장수들을 합쳐 모두 마흔두 명입니다. 제가 올 때 그곳에서 이미 상의를 정했으니, 곧바로 진병하기로 했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렇다면 두 갈래로 나누어 진격해 공격하여 취하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 그런데 방금 시진 대관인이 그대와 함께 방랍의 적 소굴 안으로 들어가 세작 노릇을 하려 하는데, 그대는 감히 가겠는가?"

연청이 대답했다. "주수(主帥)께서 명하시는데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꺼이 시진 대관인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시진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흰 옷을 입은 선비로 변장할 테니, 너는 하인으로 꾸미거라. 한 사람은 주인, 한 사람은 하인으로 거문고와 칼, 책 상자를 짊어지고 길을 떠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곧장 바닷가로 가서 배를 구한 뒤 월주를 건너가고, 다시 샛길로 제기현까지 가자. 그곳에서 산길을 통과하면 목주도 멀지 않다."

의논을 정한 뒤 날을 택하여, 시진과 연청은 송 선봉에게 작별을 고하고 거문고와 칼, 책 상자를 챙겨 스스로 바닷가로 가서 배를 구해 건너갔으니, 이는 여기서 더 말하지 않는다.

한편, 군사 오용이 다시 송강에게 말했다. "항주의 남쪽 절반에는 전당강이 있어 바다와 통합니다. 만약 몇 명의 사람을 시켜 작은 배를 타고 바닷가로 가서 자산문으로 진입한 뒤, 남문 밖 강가에서 신호용 포를 쏘고 깃발을 세운다면 성 안은 분명히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수군 두령들 중에 누가 이 일을 맡아 다녀오겠습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횡과 완씨 삼형제가 말했다. "저희가 모두 가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항주의 서쪽 길 또한 호수와 맞닿아 있어 수군이 쓰일 곳이 많으니, 너희가 모두 가버리면 안 된다."

오용이 말했다. "장횡과 완소칠만 보내어, 후건과 단경주를 데리고 배를 몰게 합시다."

그리하여 즉시 네 사람을 선발하고 서른 명 남짓한 수수를 붙였다. 이들은 십여 개의 화포와 깃발을 챙겨 바닷가로 가서 배를 구한 뒤, 전당강을 향해 출발했다.

여러분은 이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치 모래알을 만지는 듯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사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한꺼번에 다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나갈 테니, 차근차근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이야기의 큰 줄기만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 속에 담긴 오묘한 속사정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편, 송강이 병력을 나누어 배치하는 일을 마치고 수주로 돌아와 항주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도성에서 사절이 황제의 술을 받들어 수주로 상을 내리러 내려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송강은 크고 작은 장수들을 거느리고 나가 사절을 성 안으로 맞이했다. 은혜에 감사 인사를 올린 뒤, 황제의 술로 잔치를 베풀어 사절을 대접했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사절이 다시 말을 꺼냈다. 태의원에서 아뢰어 윤허를 받기를, 상황(上皇)께서 갑자기 가벼운 병환이 생기셨으니 신의 안도전을 도성으로 불러들여 어가 앞에서 쓰도록 해야 한다 하여, 성지가 내려와 지금 바로 데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송강은 감히 막지 못했다.

다음 날, 사절을 대접하는 일이 끝나자 곧바로 안도전을 호송하여 도성으로 떠나보냈다. 송강 일행은 십 리 밖 장정(長亭)까지 나가 전별하며 배웅했고, 안도전은 사절과 함께 도성으로 돌아갔다.

시가 있어 이를 찬양하니 다음과 같다.

안자(安子)의 청낭술이 가장 정교하니, 산동 땅 떠돌며 그 명성 자자하네.
사람들은 창공(倉公)의 묘한 맥법을 얻었다 칭송하고, 스스로는 계자성(薊子成)처럼 단약을 잘 짓는다 자부하네.

뼈를 깎아 단번에 금 화살촉을 꺼내고, 살을 가르고도 칼자국 평평히 아물게 하네.
양산에서 맺은 의리는 돌처럼 단단하니, 이 이별에 형제 같은 정을 잊기 어렵네.

한편, 송강은 황제로부터 받은 하사품을 장수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 뒤, 길일을 택해 기를 올리고 군사를 일으켰다. 유 도독과 경 참모에게 작별을 고한 뒤 말에 올라 진군을 시작하니, 수군과 육군이 나란히 움직이며 배와 기병이 함께 출발하였다. 군사가 숭덕현에 이르자, 그곳을 지키던 수장들은 소식을 듣고는 황급히 항주로 도망쳐 버렸다.

한편, 방랍의 태자 방천정이 장수들을 불러 모아 행궁에서 회의를 열고 있었다. 지금의 용상궁 터가 바로 예전의 행궁이었다. 방천정의 수하에는 네 명의 대장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다.

보광여래 국사 등원각과 남리 대장군 원수 석보가 있었다.

진국대장군 여천윤과 호국대장군 사행방이 있었다.

이 네 사람은 모두 방랍이 내려준 원수 대장군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편장 스물네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스물네 명은 다음과 같다.

여천우, 오치, 조의, 황애, 조중이 있었다.

탕봉사, 왕적, 설두남, 냉공, 장검이 있었다.

원흥, 요의, 온극양, 모적, 왕인이 있었다.

최욱, 염명, 서백, 장도원, 봉의가 있었다.

장도, 소경, 미천, 패응규가 있었다.

이 스물네 명을 모두 장군으로 봉하니, 이로써 총 스물여덟 명의 장수가 모였다. 이들은 방천정의 행궁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방천정이 말했다.

"오늘 송강이 수륙 양면으로 진격하여 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오며, 우리의 큰 군(郡) 세 곳을 쳐부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항주뿐인데, 항주는 남쪽 나라를 지키는 방벽이다. 만약 이곳을 잃는다면 목주를 어찌 지킬 수 있겠느냐? 지난번에 사천태감(司天太監) 포문영이 '강성(罡星)이 오나라 땅으로 침범해 들어와 그 안에서 일으킬 화가 적지 않을 것'이라 아뢰었는데, 바로 저 무리를 두고 한 말이다. 이제 우리 경계를 침범해 왔으니, 중한 작위를 받은 너희 관리들은 반드시 충심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고 결코 태만히 하지 말라."

장수들이 방천정에게 아뢰었다.

"주상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정예 병사와 용맹한 장수들이 많이 남아 있으나, 아직 송강과 맞붙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비록 몇몇 주와 군이 함락되었으나, 이는 모두 적절한 인물을 얻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듣자하니 송강과 노준의가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항주를 치러 온다 하니, 전하와 국사께서는 영해군의 성곽을 굳게 지켜 만년의

기틀을 세우십시오. 저희 장수들은 각자 군사를 나누어 적을 맞이하겠습니다."

태자 방천정은 크게 기뻐하며 명령을 내렸다. 그도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지원하러 보내고, 국사 등원각만을 남겨 함께 성을 지키게 했다. 그렇다면 파견된 세 명의 원수는 누구인가? 바로 다음과 같다.

호국원수 사행방은 네 명의 수장급 장수를 이끌고 덕청을 구원하러 나섰다.

설두남, 황애, 서백, 미천.

진국원수 여천윤은 네 명의 수장급 장수를 이끌고 독송관을 구원하러 나섰다.

여천우, 장검, 장도, 요의.

남리원수 석보는 여덟 명의 수장급 장수를 거느리고 총군을 이끌어, 성 밖으로 나가 적의 대부대를 맞이하러 나갔다.

온극양, 조의, 냉공, 왕인.

장도원, 오치, 염명, 봉의.

세 명의 대장이 세 갈래 길로 나뉘어 각각 3만 명의 군사를 이끌었다. 인마를 나누어 배치하는 일이 정해지자, 각자 금과 비단을 하사하고 서둘러 출발하도록 재촉했다. 원수 사행방은 군마 한 부대를 이끌고 덕청주를 구원하기 위해 봉구진을 향해 진격했다.

한편, 두 갈래의 군마가 서로를 지원하러 떠난 사이의 일이다. 송강의 선봉 대부대가 줄지어 전진하여 임평산에 이르렀는데, 산꼭대기에서 붉은 깃발이 휘날리는 것이 보였다. 송강은 즉시 정장 두 명인 화영과 진명을 보내 먼저 초소를 살피게 하고, 곧이어 전함과 수레들을 재촉하여 장안파로 이동하게 했다. 화영과 진명은 천 명의 군마를 거느리고 산고개를 돌아 남군의 석보가 이끄는 군마를 마주했다. 남군의 두 장수가 앞장서 있다가 화영과 진명을 보고는 일제히 말을 달려 나왔다. 한 명은 왕인이고 다른 한 명은 봉의였는데, 각자 장창을 치켜들고 달려들었다. 송군 측의 화영과 진명도 군마를 펼쳐 들고 전투에 임했다. 진명은 낭아대곤을 휘두르며 봉의를 직접 겨냥했고, 화영은 창을 내질러 왕인과 맞섰다. 네 마리의 말이 뒤엉켜 열 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진명과 화영은 남군의 후방에서 지원군이 오는 것을 보고는 함께 외쳤다. "잠시 멈춰라!" 두 사람은 말을 돌려 진영으로 돌아갔다. 화영이 말했다. "계속 싸우지 말고, 어서 형님께 보고하여 의논하자." 곧이어 후군이 중군에 소식을 전했다. 송강은 주동, 서녕, 황신, 손립 네 장수를 거느리고 진영 앞으로 나아갔다. 남군의 왕인과 봉의가 다시 말을 달려 나와 맞서며 욕설을 퍼부었다. "패장 놈들이 감히 다시 나와 싸우려 드느냐!" 진명이 크게 노하여 낭아곤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나가 봉의와 다시 싸웠다. 그사이 왕인은 화영을 불러내려 했으나, 서녕이 말을 타고 창을 내지르며 달려 나갔다. 화영과 서녕은 한 짝(부장)과 정장으로 짝을 이루었으니, 서녕은 금창수요 화영은 은창수였다. 화영도 즉시 말을 달려 서녕의 뒤편으로 따라붙었다. 화영은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쥐고는, 서녕과 왕인이 채 맞붙기도 전에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기다렸다가 화살 한 대를 날려 왕인을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남군 장수들은 모두 안색이 변했다. 봉의는 왕인이 화살에 맞아 떨

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었는데, 진명이 내리친 곤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다. 남군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져 달아났다. 송군이 맹렬히 돌격하자 석보는 버티지 못하고 고정산으로 퇴각하여 동신교 아래에 진을 쳤다. 그날 밤은 전황이 불안정하여, 남군 병사들은 일단 성안으로 물러 들어갔다.

다음 날, 송강의 선봉 군마는 고정산을 지나 동신교 아래에 진을 쳤다. 송강은 본부의 군병을 나누어 세 갈래 길로 항주를 협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세 갈래 길을 이끌 장수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한 갈래는 보병 부대의 두령과 정·편장들을 나누어 배치하여, 탕진로를 거쳐 동문을 공격하게 하였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다.

주동, 시진, 노지심, 무송, 왕영, 호삼랑

또 한 갈래는 수군 부대의 두령과 정·편장들을 나누어 배치하여, 북신교를 거쳐 고당을 취하고, 서로(西路)를 차단한 뒤 호수에 면한 성문을 공격하게 하였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다.

이준, 장순, 완소이, 완소오, 맹강

중로의 마보수(馬步水) 삼군을 세 부대로 나누어 진격시켜 북관문과 간산문을 점령하게 하였는데, 그중 선두 부대의 정·편장은 다음과 같다.

관승, 화영, 진명, 서녕, 학사문, 능진

제2부대의 총병과 주장은 선봉장 송강과 군사 오용이 맡아 인마를 거느렸으며, 그중 정·편장은 다음과 같다.

대종, 이규, 석수, 황신, 손립, 번서

보욱, 항충, 이곤, 마린, 배선, 장경

연순, 송청, 채복, 채경, 욱보사

제3대는 수로와 육로로 나뉘어 전투를 돕고 응원한다. 정·편장은 다음과 같다.

이응, 공명, 두흥, 양림, 동위, 동맹

그날 송강은 대소 군사의 진군 계획을 모두 정한 뒤, 각 부대에 명령을 내려 출발시켰다.

이야기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한편, 중로 대부대의 전위 부대를 이끄는 관승이 정찰을 위해 동신교까지 갔으나 남군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관승은 의아하게 여겨 다리 밖으로 퇴각한 뒤, 사람을 보내 송강에게 보고하게 했다. 송강은 보고를 듣고 대종을 보내 명령을 전했다. 「섣불리 진격하지 마라. 매일 두 명의 두령이 교대로 정찰을 나가도록 하라.」 첫날은 화영과 진명이 나갔고, 둘째 날은 서녕과 학사문이 나갔다.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정찰을 나갔지만, 적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서녕과 학사문의 차례가 되어 두 사람이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북관문까지 정찰을 나갔다. 그런데 성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이 조교(弔橋) 근처까지 가서 살펴보는데, 갑자기 성 위에서 북소리가 울리더니 성 안에서 군마 한 무리가 들이닥쳤다. 서녕과 학사문이 급히 말머리를 돌리려 할 때, 성 서쪽의 샛길에서도 함성이 터져 나오며 백여 명의 기병이 앞장서서 달려들었다. 서녕은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며 적진을 뚫고 나왔으나, 돌아보니 학사문이 보이지 않았다. 다시 살펴보니 장수 몇 명이 학사문을 생포하여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다. 서녕이 급히 몸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목에 화살 한 대가 날아와 꽂혔다. 화살을 맞은 채 말을 타고 도망치는데, 뒤에서 장수 여섯 명이 쫓아왔고 마침 길에서 관승과 마주쳐 겨우 목숨을 건져 돌아왔으나,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말았다. 관승은 쫓아오던 남군 장수 여섯 명을 물리쳐 성으로 돌려보낸 뒤, 급히 송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송강이 급히 서녕을 살피러 가보니, 서녕은 일곱 구멍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송강은 눈물을 흘리며 군의관을 불러 화살을 뽑아내고 금창약(金槍藥)을 발라주게 했다. 송강은 서녕을 전함 안으로 부축해 들여 쉬게 한 뒤, 직접 가서 살폈다. 그날 밤 서녕은 서너 차례나 정신을 잃었는데, 그제야 독화살(藥箭)에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송강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신의(神醫)' 안도전은 이미 경사로 불려 돌아갔고, 이곳에는 이 상처를 고칠 좋은 의원도 없으니, 필시 나의 든든한 팔다리(股肱)를 잃게 되겠구나!」 그러고는 끝없이 슬퍼했다. 이때 오용이 찾아와 송강에게 진영으로 돌아가 군무(軍情)를 주관해 논의하자고 청하며, 형제에 대한 정 때문에 나라의 중대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강은 사람을 보내 서녕을 수주로 보내 요양하게 했으나, 화살에 묻은 독 때문에 치료해도 병이 낫지 않았다.

한편, 송강이 다시 사람을 보내 군중에 학사문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는데, 다음 날 한 졸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항주 북관문 성벽 위에 학사문의 머리를 대나무 장대에 꿰어 매달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제야 학사문이 방천정에게 갈가리 찢겨 죽는 능지처참(碎剮)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고를 받은 송강은 몹시 슬퍼했다. 보름쯤 지나 서녕마저 죽어, 그 사실을 알리는 공문(申文)이 올라왔다. 송강은 장수 두 명을 잃은 탓에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대로를 지키며 대기했다.

한편, 이준이 군사를 이끌고 북신교에 주둔하며 군대를 나누어 고당의 깊은 산속까지 길을 살피러 나갔다. 그때 전령이 달려와 보고했다. "학사문이 전사하고 서녕이 화살을 맞아 죽었습니다!"

이준이 장순과 상의하며 말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독송관과 호주, 덕청현의 요충지를 먼저 장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게다가 적병들이 모두 이 근처에서 출몰하고 있으니, 만약 우리가 그들의 목구멍 같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적에게 양면으로 협공이라도 당한다면, 우리 병력으로는 대적하기가 어렵다. 차라리 서산 깊숙한 곳으로 단숨에 치고 들어가 진을 치는 편이 낫겠다. 그러면 서호의 수면을 우리 전장으로 삼을 수 있고, 산 서쪽 뒤편은 서계와 통하니 퇴로를 확보하기에도 좋을 것이다."

이준은 즉시 하급 장교를 보내 선봉장에게 보고하고 군령을 청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 군사를 이끌고 도원령을 지나 서산 깊은 곳으로 진격하여 지금의 영은사에 주둔했다. 산 북쪽의 서계 입구에는 작은 진영

을 만들어 지금의 고당 깊은 곳에 자리 잡았으며, 전위 부대는 당가와로 가서 정찰을 나갔다.

그날 장순이 이준에게 말했다. "남군들은 모두 항주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진을 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으나, 적은 전투를 벌이지 않고 산속에만 숨어 있으니 언제쯤 공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우가 이번에 호수 밑으로 잠입하여 수문(水門)을 통해 몰래 성 안으로 들어가 불을 질러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형님께서는 즉시 수문을 공격하여 성을 점령하십시오. 이 사실을 주장인 선봉장에게 보고하여 세 갈래 길에서 동시에 성을 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준이 말했다. "그 계책이 좋아 보이나, 아우 혼자 힘으로는 이루기 어려울까 걱정되는구나."

장순이 대답했다. "제 목숨을 바쳐 선봉장 형님의 오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준이 다시 말했다. "아우여, 잠시 멈추게. 내가 먼저 형님께 보고하고 인마를 정비하여 지원군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네."

장순이 말했다. "저는 이 일을 바로 실행에 옮길 테니, 형님께서는 사람을 보내 보고만 해주십시오. 제가 성 안에 도착할 때쯤이면 선봉장 형님께서도 이미 소식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장순은 몸에 날카로운 칼 한 자루를 숨기고 술과 음식을 든든히 먹었다. 그리고 서호 언덕에 이르니, 삼면의 푸른 산과 맑고 푸른 호수가 펼쳐져 있었고, 멀리 성곽과 네 개의 성문이 호숫가를 따라 늘

어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네 개의 문은 전당문, 용금문, 청파문, 전호문이었다.

여러분은 듣고 있겠지만, 본래 이 항주는 송나라 이전에는 청하진이라 불렸다. 전왕(錢王)이 다스릴 때는 항주 영해군으로 바뀌었으며, 동쪽에는 채시문과 천교문, 남쪽에는 후조문과 가회문, 서쪽에는 전호문, 청파문, 용금문, 전당문, 북쪽에는 북관문과 간산문 등 열 개의 성문이 있었다. 고종이 남쪽으로 내려와 이곳에 도읍을 정한 뒤에는 '화화(花花)'라 불리는 임안부가 되었고, 성문 세 개가 더 추가되었다. 지금 방랍이 점령하고 있는 이곳은 여전히 전왕의 옛 도읍이다. 성의 둘레는 80리에 달하며, 비록 남송 시대만큼 부귀영화가 넘치지는 않으나, 예부터 강산이 수려하고 풍물 또한 화려하여 예로부터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온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강절 지역은 예부터 번성한 도읍이었고, 전당은 예부터 번화하기로 이름 높았다. 성 안의 풍광이 어떠한지는 차치하고, 서호의 경치만 말하자면 이러하다. 만 경의 푸른 물결은 맑고 투명하여 유리처럼 빛나고, 삼천 면의 푸른 빛은 울긋불긋하여 비취처럼 아름답다. 봄바람이 호수 위로 불어오면 화사한 복숭아꽃과 짙은 오얏꽃이 마치 그려 놓은 듯하고, 여름날 연못 속에는 푸른 연잎과 붉은 연꽃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가을 구름이 감도는 가운데 바라보는 남국의 어린 국화는 금빛을 쌓아놓은 듯하며, 겨울 눈이 흩날릴 때 보는 북쪽 고개의 매화는 옥을 깨뜨린 듯 눈부시다. 아홉 리에 걸친 소나무 숲에는 푸른 안개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여섯 개의 다리 아래 푸른 물결은 맑은 소리를 내며 흐

른다. 새벽 노을은 삼천축(三天竺)에 맞닿아 빛나고, 저녁 구름은 두 봉우리(二高峰)를 깊게 감싸 안는다. 바람은 원숭이가 우는 동굴 입구에서 일고, 비는 용정산 꼭대기에서 흩날린다. 삼현당 곁에는 거북 등처럼 생긴 기암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고, 사성관 앞에는 백 장 높이의 상서로운 구름이 휘감겨 돈다. 소공제(蘇公堤)에는 소동파(東坡)의 옛 자취가 있고, 고산로(孤山路)에는 화정 선생(和靖, 임포)의 옛 거처가 있다. 친구를 찾아 영은사로 가는 나그네도 있고, 꽃을 꽂은 채 정자사를 찾는 이도 있다. 평소 삼도(三島)가 멀리 있다고만 들었지, 어찌 호수 북쪽(湖北)의 풍경이 봉래산보다 뛰어날 줄 알았겠는가?

소동파 학사가 시로써 다음과 같이 찬양하였다.

맑은 날 호수의 물결은 반짝이며 아름답고,
안개 낀 산빛은 비 내리는 풍경 속에 기이하구나.
만약 서호를 서시(서시)에 비유한다면,
옅은 화장이나 짙은 화장이나 모두 어울리리라.

또한 유명한 옛 노래인 〈환계사〉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호수 위 붉은 다리엔 그림처럼 화려한 수레바퀴 소리 울려 퍼지고,
넘실거리는 봄물은 봄구름을 적시며 흐르네,
푸른 유리처럼 맑은 물결은 티 하나 없이 매끄러운데.
길목에 떠도는 아지랑이(游絲)는 취한 손님을 맞이하고,

꽃 속의 노란 새(꾀꼬리)는 길 가는 이를 부르네,
해가 저물어 돌아가려니 이 봄을 어찌 보낼까!

이 서호는 예전 송나라 시절부터 경치가 비할 데 없이 아름다웠으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장순이 서릉교에 이르러 한참 동안 경치를 감상했다. 마침 날이 따뜻한 봄날이라 서호의 물빛은 푸른빛을 띠며 길게 늘어져 있고, 사방의 산들은 푸른 빛깔을 겹겹이 뽐내고 있었다. 장순이 보고 말했다.

"나는 순양강 위에서 태어나 거센 바람과 큰 파도를 수없이 겪어왔지만, 이토록 맑고 좋은 호수는 본 적이 없구나. 여기서 죽는다 해도 즐거운 귀신이 되겠어!"

말을 마친 장순은 베적삼을 벗어 다리 아래에 내려놓았다. 머리에는 한가운데가 붉은 머리쓰개(髽兒)를 둘러 상투를 동이고, 아래에는 생견(生絹)으로 지은 물치마를 허리에 둘렀으며, 어깨를 드러내는 천(脫膊) 한 가닥을 묶고 날카로운 칼 한 자루를 찼다. 그는 맨발로 호수 속으로 뛰어들어 물밑으로 헤엄쳐 호수를 건너갔다.

이때는 이미 초경(初更, 밤 7시~9시 사이) 무렵이라 달빛이 희미하게 밝았다. 장순이 용금문 근처까지 헤엄쳐 가서 머리를 내밀고 물 위에서 상황을 살피니, 성 위에서 북을 치는 경점 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침 일경 사점(一更四點)이었다. 성 밖은 아주 고요하여 사람 그림자조차 없었으나, 성벽의 낮은 담장인 여장(女牆) 근처에는 대여섯 명의 사람이 서성거리며 살피고 있었다. 장순은 다시 물속으로 몸을 숨겼다.

한참을 더 기다리다 다시 머리를 내밀어 보니, 여장 근처에는 어느새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다.

장순이 물이 들어오는 수구(水口) 근처로 다가가 보니, 일대가 모두 철창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안쪽을 더듬어 보니 물을 막는 발이 쳐져 있었는데, 그 발에는 줄이 매달려 있고 줄에는 구리 방울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다. 장순이 보니 창살이 견고하여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한 손을 안으로 뻗어 물발을 잡아당겨 보았는데, 그 순간 줄에 달린 방울들이 울려 퍼졌고 성 위의 사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다.

장순은 물속으로 다시 깊이 잠겨 몸을 숨겼다. 성 위의 군사들이 내려와 물발을 살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자, 성 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방울 소리가 이상하구나. 혹시 커다란 물고기가 물결을 타고 내려오다 물발에 부딪힌 것이 아니겠느냐?"

군사들이 한참을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장순이 다시 귀를 기울이니 어느덧 삼경(三更, 밤 11시~새벽 1시 사이)이 되어 경점 소리가 몇 번 울렸다. 아마도 군사들은 모두 각자 잠이 들었을 것이다. 장순은 다시 성벽 가까이 헤엄쳐 갔으나, 물속으로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가 물 밖으로 기어 나와 살펴보니 성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성 위로 기어 올라가려다 문득 생각했다. '만약 성 위에 사람이 있으면 공연히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니, 우선 시험을 좀 해보자.'

그는 흙덩이를 집어 성 위로 던졌다. 잠들지 않은 군사가 깨어나 다시 수문 쪽을 내려다보았으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그 군사가 다시 성 위 적루(敵樓)로 올라가 호수 위를 살폈으나 배 한 척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서호의 배들은 이미 방천정(方天定)의 명령에 따라 모두 청파문 밖과 정자항(淨慈港) 안으로 들여보냈고, 다른 문으로는 배를 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상태였다.

사람들이 "무슨 괴이한 일이냐?"라고 말하며 "분명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그냥 잠이나 자자, 신경 쓰지 마라!"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잠을 자지 못하고 모두 여장 근처에 엎드려 살폈다. 장순은 다시 한 경(更)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성벽 쪽으로 다가가 소리를 들었으나, 성 위의 북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장순은 감히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돌과 흙을 성 위로 던져 보았으나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장순은 생각했다. '벌써 사경(四更, 새벽 3시~5시 사이)이니 곧 날이 밝을 텐데, 성에 올라가지 않으면 언제 올라간단 말인가?'

그가 성벽 중간쯤 기어 올라갔을 때, 갑자기 위에서 딱따기(梆子) 치는 소리가 한 번 나더니 군사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장순이 성벽 중간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려 물에 잠겨 빠져나가려는 순간, 성 위에서 노(弩, 석궁), 강궁, 대나무 화살, 그리고 조약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다. 가련한 영웅 장순은 결국 용금문 밖 연못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시로 이르되,

일찍이 들으니 싸움 잘하는 자는 전쟁터에서 죽고,
헤엄 잘 치는 자는 끝내 물속에서 목숨을 잃는다네.
물항아리는 우물가를 떠나지 못한 채 깨지는 법이니,
그대에게 권하노니 그저 영웅임을 뽐내지만은 말게나.

이야기는 양 갈래로 나뉘어, 한편으로는 송강의 상황을 전한다.

송강은 낮에 이미 이준의 급보를 받았는데, 장순이 물속으로 잠수해 성에 들어가 불을 질러 신호를 보내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송강은 곧이를 동문(東門)의 군사들에게 전달하게 했다. 그날 밤, 송강은 막사 안에서 오용과 함께 일을 논의하다가 새벽 사경 무렵이 되자 몹시 피곤함을 느꼈다. 그는 좌우의 시종들을 물러가게 한 뒤, 막사 안 안석(几)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였다.

그런데 갑자기 찬 바람이 한 줄기 몰아치더니, 송강이 일어나 보니 등불은 빛을 잃었고 한기가 몸을 파고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이 사람인 듯 사람 아니고 귀신인 듯 귀신 아닌 모습으로 차가운 기운 속에 서 있었다. 그를 살펴보니 온몸이 피로 얼룩져 있었는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우가 형님을 모신 지 여러 해가 되었고, 그 은혜가 지극히 깊사옵니다. 이제 이 몸을 바쳐 은혜에 보답하려 하나, 용금문 아래에서 창과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기에 특별히 형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나이다."

송강이 놀라 외쳤다. "이분은 장순 형제가 아니냐!"

고개를 돌려 이쪽을 보니, 피칠갑을 한 서너 명의 사람이 더 서 있었으나 형체가 흐릿하여 자세히 볼 수 없었다. 송강이 크게 통곡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이는 한바탕의 꿈이었다. 막사 밖에서 울음소리를 들은 좌우 시종들이 들어와 살피자, 송강이 말했다. "참으로 괴이하구나!"

그러고는 군사 오용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했다. 오용이 물었다. "형님, 방금 피곤하여 잠시 드신 것뿐인데, 무슨 이상한 꿈을 꾸셨습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방금 찬 기운이 몰아칠 때, 분명히 피투성이가 된 장순이 이곳에 서서 이렇게 말하더구나. '아우가 형님을 모신 지 여러 해가 되어 은혜가 지극하옵니다. 이제 죽음으로써 보답하려 하나, 용금문 아래에서 창과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기에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나이다'라고 말이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리니 이쪽에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서너 명 더 서 있는데, 형체가 분명치 않아 그저 울음이 터져 나왔다."

오용이 말했다. "아침에 이준이 보고하기를, 장순이 호수를 건너 성을 넘어 불을 질러 신호를 보내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님께서 그 일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계시기에 이런 악몽을 꾸신 것이 분명합니다."

송강이 말했다. "장순은 영특한 사람이니 필시 억울하게 죽었을 것이다."

오용이 이어 말했다. "서호에서 성벽까지는 분명 험하고 좁은 길이라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장순이 혼령이 되어 형님께 꿈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송강이 물었다. "그렇다면 아까 본 그 서너 명의 피 흘리는 사람들은 누구였단 말이냐?"

송강과 오용은 이야기를 나누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성 안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송강의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오후가 되자 이준이 사람을 보내 급히 보고했다. "장순이 용금문을 통해 성을 넘으려다 물속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지금 서호 성 위를 보니 대나무 장대로 머리를 꿰어 들어 올려 효시(號令)로 내걸어 두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송강은 다시 통곡하며 쓰러졌고, 오용을 비롯한 장수들도 모두 슬퍼했다. 장순은 워낙 인품이 좋아 형제들의 정이 깊었기 때문이다. 송강이 말했다. "부모님을 여의었을 때도 이토록 슬프지는 않았는데, 가슴을 찌르고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어찌할 수가 없구나!"

오용과 장수들이 위로했다. "형님, 나라의 대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형제에 대한 정 때문에 스스로를 상하게 하여 귀하신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나는 반드시 직접 호숫가에 가서 그를 조문해야겠다."

오용이 간언했다. "형님, 위험한 곳에 직접 가시면 안 됩니다. 적군이 알게 되면 반드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송강이 대답했다. "내게도 생각이 있다."

송강은 즉시 이규, 포욱, 항충, 이곤 네 사람을 점고하여 보병 오백 명을 이끌어 길을 살피게 했다. 이어 자신은 석수, 대종, 번예, 마린과 함께 군사 오백 명을 거느리고, 은밀히 서산(西山)의 작은 길을 통해 이준의 진영으로 향했다. 이준 일행은 그들을 맞이하여 영은사(靈隱寺) 방장(方丈)의 내실에 머물게 했다. 송강은 한바탕 더 통곡한 뒤, 사찰의 승려들에게 청하여 절에서 경을 읽으며 장순의 명복을 빌게 했다.

다음 날 저녁, 송강은 군사들을 시켜 호숫가에 '망제(亡弟) 정장(正將) 장순의 혼령'이라고 적힌 흰 깃발을 세워 물가에 꽂게 했다. 서릉교 위에는 수많은 제물을 차려놓고, 송강은 이규에게 이렇게 일렀다. "이렇게 이렇게 하거라."

이규는 북산 길목에 매복했고, 번예와 마린, 석수는 좌우에 매복했으며, 대종은 송강의 곁을 지켰다. 날이 저물어 일경(初更) 무렵이 가까워지자, 송강은 흰 도포를 입고 금 투구(金盔) 위에는 상복용 흰 비단을 한 겹 덮은 채, 대종과 대여섯 명의 승려를 거느리고 소행산(小行山)을 돌아 서릉교에 도착했다. 군교들은 이미 검은 돼지와 흰 양, 금은 제물을 차려놓았고, 등불을 휘황찬란하게 밝히고 향을 피워 두었다.

송강은 제단 중앙에서 증맹(證盟)하며 용금문 아래를 향해 통곡하며 제를 올렸다. 대종은 곁에 섰다. 먼저 승려들이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워 장순의 이름을 부르며 축원하니, 장순의 혼백이 내려와 신번(神幡, 신령한 깃발)에 깃들었다. 이어 대종이 제문을 낭독하자, 송강은 직접 술을 부어 제를 올리고 하늘을 우러러 동쪽을 바라보며 통곡했다.

한참 통곡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리 아래 양쪽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더니 남북의 두 산에서 일제히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 무리의 군마가 송강을 잡으러 달려들었다. 이는 오로지 하늘처럼 큰 은의(恩義) 때문에 천지를 뒤덮는 전쟁의 불길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결국 송강과 대종이 어떻게 적을 맞이하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0회 — 장순이 혼령을 붙잡아 방천정을 부르고, 송강이 지혜로 영해군을 취하다

張順魂捉方天定 宋江智取寧海軍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과 대종이 서릉교 위에서 장순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방천정이 이미 소식을 듣고 열 명의 장수를 내려보내 두 갈래로 나누어 송강을 잡으려 성 밖으로 출동시켰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남산의 다섯 장수는 오치, 조의, 조중, 원흥, 소경이었고, 북산로에서도 온극양, 최욱, 염명, 모적, 탕봉사 다섯 장수를 보냈다. 남북 두 길의 장수 열 명은 각각 삼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한밤중에 성문을 열어 양쪽에서 일제히 들이닥쳤다.

송강과 대종이 막 술을 올리고 종이돈을 태우고 있을 때, 다리 아래에서 함성이 크게 울려 퍼졌다. 왼쪽에는 번서와 마린이, 오른쪽에는 석수가 각각 오천 명씩 매복해 있다가, 앞길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일제히 불을 지르며 양 갈래로 나누어 남북산의 군마를 추격하며

공격했다. 남쪽 군사들은 미리 준비된 것을 보고 급히 왔던 길로 되돌아갔으나, 양쪽에서 송강의 군사들이 뒤쫓았다. 온극양과 네 명의 장수가 급히 강을 건너 돌아가려 할 때, 보숙탑 산 뒤편에서 나타난 원소이, 원소오, 맹강이 오천 군사를 이끌고 튀어나와 퇴로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이들은 모적을 생포하고 탕봉사를 창으로 찔러 죽였다. 남산의 오치 역시 네 명의 장수를 이끌고 쫓아오는 송군에 맞서 급히 후퇴하려 했으나, 정향교에서 이규, 포욱, 항충, 이곤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말았다. 이들은 오백 명의 보병을 이끌고 들이닥쳤다. 그 두 패수(牌手, 항충과 이곤)가 곧장 적의 품속으로 파고들어 만패(蠻牌, 방패)를 휘두르며 칼집에서 칼을 뽑아 원흥을 단번에 베어 넘겼고, 포욱은 칼로 소경을 베었으며, 이규는 도끼로 조의를 찍어 죽였다. 군사들 태반은 호수로 쫓겨 들어갔다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성안의 구원군이 뒤늦게 출동했을 때는 송강의 군사들이 이미 산속으로 들어가 영은사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공을 세운 자들에게 상을 내리고 있었다. 양쪽 길에서 탈취한 좋은 말도 오백여 필이나 되었다. 송강은 석수, 번서, 마린을 남겨두어 이준 등과 함께 서호 산채를 관리하며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게 하고, 자신은 대종, 이규 등만 데리고 고정산 산채로 돌아갔다. 오용 등이 중군 막사로 마중 나와 자리에 앉자, 송강이 군사에게 말했다.

"이번 작전으로 적장 네 명의 머리를 얻고 모적까지 생포했으니, 나중에 장 초토(張招討)의 군영으로 압송하여 참형에 처하게 합시다."

송강은 산채에 있으면서 유독 독송관과 덕청 두 곳의 소식만 알 길이 없었다. 이에 대종을 보내 급히 보고를 가져오게 했다. 대종이 떠난

지 며칠 만에 산채로 돌아와 부선봉을 알현하고는, 노준의 선봉이 이미 독송관을 통과했으니 머지않아 이곳에 도착할 것이라 보고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기쁨과 근심이 교차하여 병사들의 피해 상황을 물었다. 대종이 대답했다.

"그곳에서 벌어진 싸움의 상세한 내막은 제가 다 알고 있으며, 여기 공문도 있습니다. 선봉께서는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혹시 내 형제들이 또 다치기라도 한 것이냐? 나를 속이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라."

대종이 말했다. "노준의 선봉이 독송관을 취하러 갔을 때, 그 관문 양옆은 온통 험준한 산이었고 가운데로 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산 위에는 관청이 있고, 관 옆에는 높이가 수십 장에 달하는 커다란 나무가 있어 사방을 굽어볼 수 있었으나, 그 아래로는 온통 울창한 소나무 숲뿐이었습니다. 관 위에는 적장 세 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우두머리는 오승이라 불렸고 둘째는 장인, 셋째는 위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동안 계속 관 아래로 내려와 임충과 싸웠는데, 임충의 사모에 장인이 상처를 입자 오승은 감히 내려오지 못하고 관 위에서 지키기만 했습니다. 그 후 여천윤이 네 명의 장수, 즉 여대우, 장검, 장도, 요의를 이끌고 구원을 위해 왔습니다. 다음 날 적들이 관 아래로 내려와 싸울 때, 적군 중 여천우가 먼저 나서서 여방과 맞붙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륙십 합을 겨루다 여방의 창에 여천우가 찔려 죽자, 적병들은 다시 관 위로 올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관 아래에서 대기했으나, 노준의 선봉은 산세가 험준한 것을 보고 구붕, 등비, 이충, 주통 네 사람을 산 위로 보내 길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천윤이 형제의 원수를 갚으려고 적병을 이끌고 관 아래로 돌진해 내려올 줄은 미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단칼에 주통을 베어버렸습니다. 이충은 상처를 입고 겨우 퇴각했으나, 만약 구원병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세 장수를 구해 산채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쌍창장' 동평이 조급한 마음에 원수를 갚겠다며 말을 달려 관 아래에서 적장들을 향해 크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관 위에서 날아온 화포를 미처 방비하지 못하는 사이, 포탄의 바람이 동평의 왼팔을 상하게 했습니다. 동평은 산채로 돌아와 창을 쓸 수 없게 되자 팔에 부목을 대고 묶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려 하자 노준의 선봉이 그를 붙잡아 만류했습니다.

밤이 지나 팔이 어느 정도 나아지자, 동평은 노준의 선봉이 모르게 장청과 상의한 뒤 말도 타지 않고 먼저 관 위로 올라갔습니다. 관 위에서는 여천윤과 장도가 내려와 맞서 싸웠습니다. 동평은 여천윤을 잡으려고 땅을 딛고 창을 휘둘렀고, 여천윤 역시 장창을 들고 맞서며 열 합 정도를 겨루었습니다. 동평은 싸우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왼손으로 창을 쓸 수 없어 자꾸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여천윤이 관 아래로 몰아붙이자, 장청이 창을 들이밀며 여천윤을 찔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천윤이 재빨리 소나무 뒤로 몸을 피하는 바람에 장청의 창은 소나무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장청이 급히 창을 뽑으려 했으나 박힌 채 빠지지 않자, 그 틈을 타 여천윤이 창을 휘둘러 장청의 복부를

찔러 쓰러뜨렸습니다. 동평은 장청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급히 쌍창을 휘두르며 싸우려 했으나, 장도가 뒤에서 기습적으로 허리를 베어버리는 바람에 동평은 두 동강이 나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준의 선봉이 급히 구원하러 갔으나, 이미 병사들은 관 위로 올라간 뒤였고 아래에는 손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손신과 고대소 부부가 피난 가는 백성으로 변장하여 깊은 산속의 작은 길을 찾아냈고, 그 길로 이립, 탕륭, 시천, 백승 네 사람을 이끌고 관 위로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한밤중에 관 위로 몰래 잠입하여 불을 질렀습니다. 적장들은 관 위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송군의 군사가 이미 관을 통과한 것을 알아차려, 일제히 관문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노준의 선봉이 관 위로 올라가 병사들을 점검하니, 손신과 고대소는 원래 관을 지키던 오승을 생포했고, 이립과 탕륭은 장인을 생포했으며, 시천과 백승은 위형을 생포했습니다. 이 세 명의 적장은 모두 장 초토의 군영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평, 장청, 주통 세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여 관 위에 묻었습니다."

"노준의 선봉이 관문을 넘어 마흔다섯 리를 추격한 끝에 적군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여천윤과 맞붙어 서른 합 넘게 싸운 끝에 여천윤을 베어 죽였습니다. 적군은 장검, 장도, 요의 세 사람만이 남아 패잔병을 이끌고 간신히 저항하다가, 기회를 보아 퇴각하였습니다. 머지않아 아침저녁이면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주장(主帥)께서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기 공문을 보십시오."

송강은 공문을 읽고 마음이 더욱 답답해져 눈물이 샘물처럼 쏟아졌다.

오용이 말했다. "노준의 선봉이 승리했으니, 이제 군사와 장수들을 동원해 협공한다면 남쪽의 적군도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호주에서 싸우고 있는 호연작의 군마를 지원하러 가면 됩니다."

송강이 대답했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오!"

송강은 즉시 이규, 포욱, 항충, 이곤을 불러 삼천 명의 보병을 이끌고 산길을 통해 구원하러 가게 했다. '흑선풍' 이규는 군사를 이끌고 기뻐하며 길을 떠났다.

한편, 송강의 군마는 동문을 공격하고 있었다. 정장 주동 등에게 원래 배정된 오천 명의 마보군(말과 보병)이 탕진 마을 길을 따라 채시문 밖으로 달려가 동문을 공략했다. 당시 동쪽 길을 따라 강변에는 민가와 마을, 주막들이 즐비했는데, 그 모습이 성 안보다 더 번화하고 들판과 논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군사들이 성 근처에 이르러 군마를 정렬시키자, 노지심이 가장 먼저 출전했다. 그는 땅을 딛고 서서 철선장을 치켜든 채 성 아래로 달려가 크게 외쳤다. "이 미련한 놈들아, 당장 나와서 한판 붙자!"

성 위에서 도전해 오는 이가 스님인 것을 본 적들은 황급히 태자궁에 보고했다. 마침 보광국사 등원각이 스님이 싸움을 걸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자에게 아뢰었다. "양산박에 노지심이라는 스님이 있어 철선장을 잘 쓴다고 들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동문 성

벽 위로 가셔서, 이 미천한 승려가 저 스님과 몇 합이나 겨루는지 직접 지켜보시옵소서."

태자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방천정은 용맹한 장수 여덟 명을 거느리고 원수 석보와 함께 채시문 성벽 위로 올라가, 국사가 적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지켜보았다. 방천정과 석보가 적루(敵樓)에 자리를 잡고 앉자, 여덟 장수가 양옆을 호위하며 보광국사가 싸울 때 그 보광 화상이 과연 어떤 차림이었는지 지켜보았다. 보아하니 이러하였다.

불꽃처럼 붉은 직철(直裰) 한 벌 걸치고,
호랑이 힘줄로 꼰 둥근 띠를 둘러 매었네.
일곱 보석 꿰어 만든 염주 목에 걸고,
아홉 고리 달린 사슴 가죽 승혜를 신었네.
안에는 향선으로 금색 짐승을 수놓은 엄심(掩心)을 받쳐 입고,
두 손에는 번뜩이는 무쇠 선장을 쥐었네.

그때 성문이 열리고 조교(弔橋, 성문 앞에 설치한 다리)가 놓이자, 보광국사 등원각이 오백 명의 도수(刀手, 칼을 든 보병)를 이끌고 쏜살같이 달려 나왔다. 노지심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남쪽 군사 중에도 저런 대머리 놈이 있었구나. 이 몸이 저놈에게 내 선장 맛을 보여주마!"

노지심은 말도 채 끝내기 전에 선장을 휘두르며 달려 나갔다. 보광국사 역시 선장을 휘두르며 맞서 싸우러 나왔다. 두 사람이 동시에 선장을 내뻗어 서로 맞부딪치니,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노지심은 분노에 휩싸여 청정함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고, 등원각은 성냄이 가득하니 자비로운 마음이 어디 있겠는가. 이 자는 어찌 불도를 존중한 적 있던가, 그저 달 없는 어두운 밤에 사람을 죽이고, 저 자는 경문을 읽을 줄 모르고 바람 센 날 불을 지르려 하는구나. 이 자는 영산회상에서 부처를 성가시게 하여 연화대에 앉는 것조차 게으르게 만들고, 저 자는 선법당 앞에서 게체(揭諦)를 다그쳐 금강저를 거두게 하는구나. 한 명은 평생 양무제의 참회문을 닦지 않았고, 한 명은 평생 조사의 선(禪)을 알지 못하도다.

노지심과 보광국사는 오십여 합을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적의 누각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방천정이 석보에게 말했다. "양산박에 '화화상' 노지심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정말 대단하구나! 명불허전이야! 저렇게 오래 싸우면서도 보광 화상에게 틈을 전혀 내주지 않으니 말이다." 석보가 대답했다. "저도 넋을 잃고 보고 있었습니다. 저런 맞수들은 생전 처음 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와 보고했다. "북관문 아래에 또 다른 군사가 성 밑에 도착했습니다!" 석보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달려 나갔다.

한편 성 아래 송군 진영에서는 '행자' 무송이 노지심과 보광국사의 싸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혹여 노지심이 실수를 할까 봐 마음이 초조해졌다. 무송은 곧바로 쌍계도를 휘두르며 진영 밖으로 뛰어나

가 보광국사를 향해 곧장 쇄도했다. 보광국사는 두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것을 보고는 선장을 끌어안은 채 성 안으로 도망치려 했다. 무송이 용맹하게 뒤를 쫓던 그때, 갑자기 성문 안에서 맹장 하나가 튀어나왔으니, 바로 방천정의 수하인 배응규였다. 배응규는 창을 꼬쳐 잡고 말을 달려 무송을 가로막으며 맞붙었다.

두 사람이 조교(弔橋) 위에서 맞닥뜨렸을 때, 무송이 몸을 날려 피하며 손에 든 계도를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배응규의 창대를 낚아채 힘껏 잡아당겼다. 그 바람에 배응규는 말과 함께 바닥으로 끌려 내려왔고, 무송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단칼에 배응규의 목을 베어버렸다. 노지심이 뒤이어 나타나 지원 사격을 했고, 방천정은 급히 조교를 거두어 올리라고 명령하며 군사들을 성 안으로 철수시켰다. 이때 주동 역시 군사를 이끌고 십 리 밖으로 물러나 진을 치게 한 뒤, 송군 선봉에게 승전보를 전하러 사람을 보냈다.

그날 송강이 군사를 이끌고 북관문에 이르러 전투를 벌이려 하자, 석보가 유성추를 챙겨 말을 타고 나왔다. 그는 손에 벽풍도를 가로로 쥐고 성문을 열어 적을 맞이했다. 송군 진영에서는 '대도' 관승이 출전하여 석보와 맞붙었다. 두 사람이 이십여 합을 싸우던 중, 석보가 갑자기 말을 돌려 달아나자 관승도 급히 말을 멈추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송강이 물었다. "어찌하여 쫓아가지 않는가?"

관승이 대답했다. "석보의 도법은 저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비록 말을 돌려 달아나긴 했으나, 분명 무슨 계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오용이 거들었다. "단개(段愷)가 말하기를, 저 자는 유성추를 쓰는 데 익숙하여 일부러 패하는 척 말을 돌린 뒤, 적을 방심하게 만들어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곤 한다 합니다."

송강이 말했다. "억지로 쫓아갔다가는 반드시 독수를 당할 것이다. 일단 군을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가자. 아울러 사람을 보내 무송에게 상을 내리도록 하라."

한편, 이규 등이 보병을 이끌고 노준의를 지원하러 산길로 들어서는데, 마침 패퇴하여 도망치던 장검 일행과 맞닥뜨렸다. 이들은 힘을 합쳐 적진으로 돌격했고, 난전 속에서 요의를 사살했다. 장검과 장도 두 사람은 다시 관문 쪽 길로 달아나다가 마침 노준의와 마주쳤다. 노준의가 한바탕 크게 몰아붙이자, 두 사람은 깊은 산속 오솔길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뒤에서 추격이 워낙 급박하게 몰아치자, 그들은 결국 말을 버려두고 산 아래로 필사적으로 뛰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대나무 숲 사이에서 두 사람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각각 강철 작살을 들고 있었는데, 장검과 장도가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작살에 찔려 넘어졌고 그대로 산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 알고 보니 장검과 장도를 덮친 이들은 해진과 해보였다. 노준의는 두 사람이 생포되어 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이규 일행과 합류했다. 이어 여러 장수와 함께 고정산 대채로 돌아가 송강 등을 알현했다. 그곳에서 동평, 장청, 주통이 전사한 일을 보고하자 모두가 슬픔에 잠겼다. 장수들은 일제히 송강에게 예를 갖춘 뒤, 군사를 하나로 모아 진을 쳤다.

다음 날, 송강은 장검을 소주에 있는 장 초토(張招討, 초토사)의 군영으로 압송하여 목을 베어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게 했다. 장도는 진영 앞에서 배를 갈라 심장을 꺼내게 한 뒤, 하늘을 향해 동평, 장청, 주통의 넋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주었다.

송강이 오용과 함께 계책을 논의하며 말했다. "노준의에게 명하여 본대 병력을 이끌고 덕청현 길목에 있는 호연작 일행을 지원하게 하시오. 그들이 이곳으로 합류하면 힘을 합쳐 성을 함락할 계획을 세웁시다."

노준의는 명을 받들자마자 본대 병마를 점검하여 길을 떠났고, 봉구진을 향해 진군했다. 삼군이 길을 가다 봉구에 이르니, 마침 사행방의 패잔병들이 도망쳐 돌아오던 중이었다. 노준의가 이들을 마주쳐 한바탕 크게 몰아붙이자, 사행방은 물에 빠져 죽고 나머지 병사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호연작은 노준의를 알현한 뒤 군사를 하나로 합쳐 고정산 총채로 돌아왔고, 송강 등을 알현하여 여러 장수와 함께 회의를 열었다.

송강이 보니 양쪽 군마가 모두 항주에 도착해 있었다. 선주, 호주, 독송관 등지는 모두 장 초토와 종참모(從參謀)가 스스로 통제(統制, 군사 지휘관)들을 조발하여 각 지역으로 보내 경계를 지키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으니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송강이 호연작의 부대를 살펴보니, 뇌횡과 공왕 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호연작이 그 사정을 보고했다. "뇌횡은 덕청현 남문 밖에서 사행방과 맞붙어 서른 합을 겨루었으나, 사행방의 칼에 맞아 말에서 떨어

졌습니다. 공왕은 황애와 싸우다 시냇물을 건너 쫓아갔는데, 사람과 말이 함께 시냇물에 빠져 남군들의 어지러운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미천은 소초의 도끼에 맞아 죽었습니다. 황애와 서백은 우리 장수들이 앞으로 나아가 이곳에 생포해 두었고, 사행방은 물속으로 쫓겨 들어가 익사했습니다. 설두남은 난전 중에 도망쳐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송강은 뇌횡과 공왕이라는 두 형제를 또 잃었다는 말에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장수들에게 말했다. "며칠 전 장순이 꿈에 나타났을 때, 오른쪽에는 옷깃이 피로 얼룩진 서너 사람이 서 있더니 내 눈앞에서 본 모습을 드러냈는데, 바로 동평, 장청, 주통, 뇌횡, 공왕 이 형제들의 넋이었다. 내가 만약 항주의 영해군을 얻게 되면, 반드시 승려들을 불러 큰 재를 올리고 선행을 베풀어 우리 형제들의 넋을 위로하고 천도하도록 하겠노라."

이어 황애와 서백을 장 초토의 군영으로 압송하여 목을 베게 하였다.

그날 송강은 소와 말을 잡아 잔치를 베풀어 모든 군사를 격려하였다. 이튿날, 오용과 함께 계책을 논의하여 정장과 편장들을 나누어 배치하고 항주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선봉 노준의가 정장과 편장 열두 명을 거느리고 후조문을 공격하였다.

임충, 호연작, 유당, 해진, 해보, 단정규가 나섰다.

위정국, 진달, 양춘, 두천, 이운, 석용이 나섰다.

화영을 비롯한 정장과 편장 14명이 간산문을 공격했다.

화영, 진명, 주무, 황신, 손립, 이충이 나섰다.

추연, 추윤, 이립, 백승, 탕륭, 목춘이 나섰다.

목홍을 비롯한 정편 장수 열한 명이 서산채로 가서 이준 일행을 도와 고호문을 공격했다.

이준, 완소이, 완소오, 맹강, 석수, 번서가 나섰다.

마린, 목홍, 양웅, 설영, 정득손이 나섰다.

손신을 비롯한 정장과 편장 여덟 명이 동문 진영으로 가서, 주동을 도와 채시문과 전교 등의 문을 공격했다.

주동, 시진, 노지심, 무송, 손신, 고대소.

동문 진영 내에서는 부장 여덟 명을 다시 불러 모아, 이응 등과 함께 각 진영의 정찰을 맡기고 각처에서 서로 호응하며 지원하도록 했다.

이응, 공명, 양림, 두흥, 동위, 동맹.

정선봉 송강은 정·편장 스물한 명을 거느리고 북관문의 대로(큰길)를 공격했다.

오용, 관승, 소초, 대종, 이규, 려방.

곽성, 구붕, 등비, 연순, 능진, 포욱.

항충, 이곤, 송청, 배선, 장경, 채복.

채경, 시천, 욱보사.

그때 송강은 장수들을 배치하여 사방의 성문을 맡게 했다.

송강과 장수들은 대군을 이끌고 북관문 성 아래로 진격하여 전투를 준비했다. 성 위에서는 징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성문이 활짝 열리고 조교(吊橋, 성문 앞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내려왔다. 그러자 석보가 가장 먼저 말을 타고 나와 맞서 싸웠다. 송군 진영에서는 '급선봉' 소초가 평소 성미가 급한 터라, 아무 말도 없이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쏜살같이 달려 나가 석보와 맞붙었다. 두 장수가 말 위에서 격렬하게 싸운 지 열 합도 되지 않아, 석보가 빈틈을 보여주는 척하며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소초가 뒤를 쫓자 관승이 급히 그만두라고 소리쳤으나, 소초는 오히려 석보의 공격을 받고 말에서 떨어졌다. 등비가 급히 구하러 나갔으나 석보의 말이 이미 도착해 있어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등비마저 석보의 칼에 맞아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이때 성안에서 보광국사가 용맹한 장수들을 거느리고 돌격해 나오니, 송군 병사들은 크게 패하여 북쪽을 향해 달아났다. 다행히 화영과 진명 등이 옆에서 들이닥쳐 남군을 물리친 덕분에 송강은 무사히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석보는 승리를 거두고 기뻐하며 성안으로 돌아갔다.

송강 일행은 고정산 산채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며 막사를 치고 앉았다. 송강은 소초와 등비 두 장수를 잃은 것이 못내 마음이 쓰여 근심에 잠겨 있었다. 그러자 오용이 간언했다. “성안에 저토록 용맹한 장수들

이 있으니, 지략으로 취해야지 정면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송강이 물었다. "이토록 병사와 장수를 잃어가며 싸우는데, 대체 어떤 계책을 써야 성을 얻을 수 있겠소?" 오용이 대답했다. "먼저 선봉들이 각 성문을 살피게 한 뒤, 다시 군사를 이끌고 북관문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성 안의 병마가 반드시 맞서러 나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패배하는 척하며 적군을 유인해 성 밖 멀리 끌어내야 합니다. 신호로 포를 쏘면 각 성문에서 일제히 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곳이라도 군마가 성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면 즉시 불을 질러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적군들은 서로를 돌볼 겨를도 없이 혼란에 빠질 것이니,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송강은 즉시 대종을 불러 명을 전달하게 했다. 다음 날, 관승이 적당한 군마를 이끌고 북관문 성 아래로 나가 전투를 준비했다. 성 위에서 북소리가 울리자 석보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관승과 맞붙었다. 그러나 열 합을 채 넘기지 못하고 관승이 급히 퇴각했다. 석보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려는 찰나, 릉진이 신호 포를 쏘아 올렸다. 포성이 울리자 각 성문에서도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편, 부선봉 노준의는 임충 등을 거느리고 병사를 몰아 후조문을 공격했다. 군마가 성 아래 도착하니 성문은 닫혀 있지 않았고 조교까지 내려와 있었다. 유당은 제일 먼저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말에 올라 칼을 휘두르며 성안으로 돌격해 들어갔다. 성 위에서 유당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을 본 병사들이 도끼로 밧줄을 끊어 차단판(閘板)을 떨어뜨렸다. 용맹했던 유당은 안타깝게도 말과 함께 성문 아래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본래 항주성은 전왕이 도읍으로 삼은 곳이라 성문이 세 겹으로 되어 있었다. 성 밖에는 첫 번째 차단판이 있고, 중간에는 두 짝의 철제 대문이 있으며, 그 안에는 또 한 겹의 창살문이 있었다. 유당이 성문 아래까지 돌격했을 때 이미 위에서 차단판이 내려오고 있었다.

게다가 양옆에는 매복해 있던 병사들까지 있었으니, 유당이 어찌 죽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임충과 호연작은 유당을 잃은 것을 보고는 군사를 이끌고 진영으로 돌아가 노준의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다. 다른 성문들도 좀처럼 뚫리지 않자 결국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을 보내 송강의 본진에 급히 소식을 전했다. 송강은 유당이 후조문 성문에 깔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말했다. "이 아우가 억울하게 죽었구나! 운성현에서 의형제를 맺은 뒤로 조개 천왕을 따라 양산박에 들어와 수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데, 단 한 순간도 즐거움이 없었으나 기세만큼은 꺾인 적이 없었다. 수백 번의 전투를 치르며 죽을 고비를 넘겨도 살아남았거늘, 누가 알았겠는가, 오늘 이토록 허망하게 죽을 줄을!" 군사 오용이 말했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계책이 제대로 맞지 않아 아우 한 명을 허망하게 보냈군요. 우선 각 성문의 군사들을 물러나게 하고, 다른 방도를 찾아야겠습니다."

송강은 마음이 타들어 가는 듯하여 복수를 하고 원한을 풀고 싶은 마음에 탄식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부하인 '흑선풍' 이규가 말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내일 저와 포욱, 항충, 이곤 네 사람이 어떻게든 저 석보 놈을 잡아 오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자는 대단한 영웅인데, 네가 어찌 그를 가까이할 수 있겠느냐?" 이규가 대답했다. "못 믿으시겠다면, 내일 그놈을 잡지 못하고는 형님을 뵙지도 않겠습니다." 송강이 당부했다. "그저 조심해서 살피고, 방심하지 말거라." 흑선풍 이규는 자기 막사로 돌아가 커다란 사발에 술을 따르고 큰 접시에 고기를 담아 포욱, 항충, 이곤을 불러 술을 마시며 말했다. "우리 네 사람은 늘 함께 싸워온 사이다. 오늘 선봉 형님 앞에서 큰소리를 쳤으니, 내일은 반드시 저 석보 놈을 잡겠다. 너희 둘도 정신 바짝 차려라."

포욱이 말했다. “형님께서 오늘도 기마병을 앞세우고 내일도 기마병을 앞세우려 하시니, 오늘 밤 우리끼리 약조합시다. 내일은 반드시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 석보 놈을 잡아야 하오. 우리 네 사람 모두 기개를 다툽시다!” 다음 날 아침, 이규 일행 네 사람은 술과 고기로 배불리 먹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무기를 챙겨 산채를 나섰다. 그들은 선봉 형님께 전투를 보여드리겠다고 청했다. 송강은 네 사람이 모두 반쯤 취한 것을 보고 말했다. “너희 네 형제는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규가 말했다. “형님, 저희를 얕보지 마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그저 너희가 한 말대로만 해다오!” 송강은 말을 타고 관승, 구팽, 여방, 곽성 네 명의 기마 장수를 거느리고 북관문 아래로 가서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며 전투를 청했다. 이규는 흥분하여 두 개의 도끼를 휘두르며 말 앞에 섰고, 포욱은 판도(板刀, 넓은 칼)를 치켜든 채 괴상한 눈을 부라리며 싸울 기세로 대기했다. 항충과 이곤은 각각 둥근 방패를 들고 스물네 자루의 비도를 꽂은 채 철창을 들고 양옆에 엎드렸다. 그때 성 위에서 징소리가 울리더니, 석보가 황색 말을 타고 벽풍도(劈風刀)를 든 채 두 명의 장수를 거느리고 적을 맞으러 성 밖으로 나왔다. 상수(上首)에는 오치, 하수(下首)에는 염명이 섰다. 세 장수가 성 밖으로 나오자마자, 천지가 두려울 것 없는 이규가 크게 한 번 포효하며 네 사람이 단숨에 석보의 말 머리 앞까지 달려들었다. 석보가 벽풍도를 휘둘러 맞서려 했으나 이규가 이미 코앞까지 들이닥쳐 있었다. 이규가 도끼로 말의 다리를 내리치자 석보는 말에서 뛰어내려 아군 진영 사이로 몸을 숨겼다. 그 틈을 타 포욱이 염명을 칼로 베어 말에서 떨어뜨렸다. 방패를 든 두 장수가 비도를 날리자, 공중에서 옥빛 물고기가 뛰노는 듯 은빛 칼날들이 어지럽게 교차했다. 송강이 군마를 몰아 성벽 근처까지 돌격했을 때, 성 위에서는 통나무와 돌포탄을 마구 쏟아부었다. 송강

은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급히 퇴각 명령을 내렸으나, 뜻밖에도 포욱이 성문 안으로 먼저 뛰어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송강은 그저 탄식할 뿐이었다. 석보는 성문 안쪽에 매복해 있다가 포욱이 달려드는 것을 보고는 옆에서 단칼에 베어 포욱을 두 동강 내버렸다. 항충과 이곤이 급히 이규를 보호하며 뒤로 물러났다. 송강의 군마가 본진으로 퇴각하자, 포욱마저 잃었다는 소식에 송강의 근심은 더욱 깊어졌다. 이규 또한 울며 산채로 돌아왔다. 오용이 말했다. "이 계책 또한 좋은 방책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적의 장수 한 명을 베기는 했으나, 이규의 부하를 잃고 말았군요."

모두가 번뇌에 잠겨 있을 때, 해진과 해보가 산채로 돌아와 보고를 올렸다. 송강이 자세한 내력을 묻자 해진이 아뢰었다.

"저와 해보가 남문 밖 이십여 리 지점인 범촌에 이르렀을 때, 강가에 수십 척의 배가 줄지어 정박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서 물어보니 부양현의 원 평사가 관리하는 양식 운반선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죽이려 하자, 그 사람이 울며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대송의 선량한 백성인데, 방랍의 무리에게 수시로 수탈을 당해왔습니다. 따르지 않는 자는 온 가족을 몰살당했지요. 이제 천병(天兵)이 오셔서 저들을 척결해 주기만을 바라며 태평성대를 꿈꾸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또 이런 변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라고 하더군요. 그 사정이 너무나 절박하여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방천정의 명을 받들어 각 현을 돌며 마을을 정비하고 백성의 곡식 오만 석을 거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노인인 제가 우두머리가 되어 오천 석을 먼저 거두어 바치러 오던 길인데, 지금 대군이

성을 포위하고 싸우고 있으니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게 되어 주장님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오용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다! 저 양식선들을 이용하면 반드시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즉시 선봉에게 명을 내려, 너희 형제가 앞장서고 포수 릉진과 두천, 이운, 석용, 추연, 추윤, 이립, 백승, 목춘, 탕륭을 데려가라. 또한 왕영, 호삼낭, 손신, 고대소, 장청, 손이낭까지 세 쌍의 부부도 뱃사공으로 위장시켜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뱃사공들 사이에 섞여서 성안으로 몰래 잠입한 뒤, 연주포를 쏘아 신호를 보내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즉시 군사를 움직여 지원하겠다."

해진과 해보는 원 평사를 육지로 불러내어 송강의 명령을 전했다. "그대들은 송나라의 선량한 백성이니, 이 계책을 따르도록 하시오. 일이 성사되면 반드시 큰 상을 내릴 것이오."

이때 원 평사가 따르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 없었으니, 이미 많은 장수와 부하들이 배에 올라 있었다. 그들은 배에 있던 뱃사공들을 모두 남겨 잡일을 시키게 하고, 뱃사공들의 옷을 벗겨 왕영, 손신, 장청에게 입혀 뱃사공으로 위장시켰다. 호삼낭, 고대소, 손이낭 세 여장수는 뱃사공 아낙으로 변장했고, 소교(小校, 하급 군관)들은 모두 노를 젓는 사공이 되었다. 장수들과 무기는 모두 선실 안에 깊숙이 숨겨둔 채, 배들을 일제히 강가에 대어 놓았다. 이때 각 성문의 초소에서 경계하던 송강의 군사들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원 평사가 육지로 올라가자 해진, 해보와 몇 명의 뱃사공이 그를 따라 성문 앞까지 가서 문을 두드

렸다. 성 위에서 이 사실을 안 병사들은 자세한 내력을 물어보고는 이를 태자궁에 보고했다. 방천정은 즉시 오치를 시켜 성문을 열게 한 뒤, 오치가 강가로 내려가 배들의 수를 점검하고는 다시 성안으로 돌아가 방천정에게 보고했다. 방천정은 장수 여섯 명을 내려보내 일만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동북쪽 모퉁이를 가로막게 한 뒤, 원 평사에게 곡식을 실어 성안으로 들여보내 납부하라고 명했다. 이때 장수들과 병사들은 모두 뱃사공과 사공들 사이에 섞여 곡식을 나르는 척하며 성안으로 들어갔고, 세 여장수 또한 자연스럽게 성안으로 들어갔다. 오천 석의 곡식은 순식간에 모두 옮겨졌다. 여섯 명의 장수들도 군사를 거느리고 성안으로 들어갔다. 송강의 병사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성곽을 다시 포위했는데, 성에서 이삼 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그날 밤 이경(二更, 밤 9시~11시 사이) 무렵, 릉진이 아홉 상자의 자모포(子母炮, 크고 작은 포탄을 함께 쏘는 포)를 가지고 오산정 꼭대기로 올라가 포를 쏘아 올렸다. 장수들은 저마다 횃불을 들고 곳곳에 불을 붙였다. 성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대체 얼마나 많은 송나라 군사가 성안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궁중에 있던 방천정은 이 소리를 듣고 크게 놀라 급히 갑옷을 챙겨 입고 말을 타고 나가려 했으나, 이미 각 성문의 병사들은 모두 목숨을 구하려 도망친 뒤였다. 송나라 병사들은 기세를 올리며 앞다투어 공을 세우고 성을 점령하려 들었다. 한편, 성 서쪽 산속에 있던 이준 일행도 명령을 받자마자 군사를 이끌고 정자항까지 쳐들어와 배들을 탈취했다. 그들은 호수를 가로질러 용금문(涌金門)으로 상륙했다. 장수들은 각지의 수문(水門)을 점령하기 위해 흩어졌고, 이운과 석수가 앞장서서 성벽에 올랐다. 밤새 성안에서는 혼전이 벌어졌고, 오직 남문만이 포위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어, 목숨을 구하려는 패잔병들이 모두 그 문을 통해 도망치고 있었다. 한편,

방천정은 말을 타고 나왔으나 사방에 장수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저 몇 명의 보병만이 그를 따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마치 상가집 개처럼, 혹은 그물에서 빠져나가는 물고기처럼 허둥지둥 남문을 통해 도망쳤다. 오운산 아래까지 도망쳤을 때, 강에서 한 사람이 솟아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입에 칼을 물고 발가벗은 채로 강기슭에 뛰어올랐다. 방천정은 그 기세가 흉흉한 것을 보고 말을 몰아 도망치려 했으나, 그 말이 이상하게도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말의 재갈을 붙잡고 있는 듯했다. 그 사내가 말 앞으로 달려들어 방천정을 말에서 끌어내리더니, 단칼에 그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러고는 방천정의 말을 타고, 한 손에는 머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든 채 항주 성안으로 달려왔다. 임충과 호연작이 군사를 거느리고 육화탑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 사내와 마주쳤다. 두 장수는 그가 '선화아' 장횡임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호연작이 외쳤다. "아우님, 어디서 오는 길인가?" 장횡은 대답도 하지 않고 말을 몰아 곧장 성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때 송강의 본대가 이미 성안으로 진입하여 방천정의 궁을 사령부로 삼고 장수들이 행궁을 지키고 있었다. 장횡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다. 장횡은 송강 앞에 이르자 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머리와 칼을 땅에 내려놓고 머리를 조아려 두 번 절하더니 통곡하기 시작했다. 송강이 당황하여 장횡을 붙잡으며 물었다. "아우님, 어디서 오는 길인가? 원소칠은 또 어디에 있느냐?" 장횡이 말했다. "저는 장횡이 아닙니다." 송강이 물었다. "장횡이 아니면 누구란 말이냐?" 장횡이 답했다. "소제는 장순입니다. 용금문 밖에서 창과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그 외로운 혼령이 물속을 떠나지 못하고 떠돌다 서호 진택(震澤)의 용군에게 감동을 받아 금화태보로 임명되어 수부 용궁의 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형님께서 성을 깨뜨리시기에, 제 혼이

방천정에게 들러붙어 한밤중에 그를 따라 성 밖으로 나갔다가, 큰 강에서 장횡 형님을 만나 그 몸을 빌려 강기슭으로 날 듯이 뛰어올라 오운산 기슭까지 쫓아와 이 도적놈을 죽이고 곧장 형님을 뵈러 달려온 것입니다." 말을 마친 장횡은 갑자기 땅에 쓰러졌다. 송강이 직접 그를 부축하자, 장횡이 눈을 뜨고 송강과 장수들을 바라보았다. 칼과 창이 숲을 이루고 병사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장횡이 말했다. "혹시 제가 황천에서 형님을 뵙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송강이 울며 말했다. "방금 아우 장순이 네 몸에 들러붙어 방천정이라는 도적을 죽인 것이다. 너는 죽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사람이니, 부디 정신을 차리거라." 장횡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아우는 이미 죽었군요!" 송강이 말했다. "장순이 서호 물밑으로 들어가 수문을 열고 성안으로 잠입해 불을 지르려 했으나, 뜻밖에 용금문 밖에서 성을 넘다가 들키는 바람에 창과 화살을 맞고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 장횡은 그 말을 듣고 "아우님!" 하고 크게 통곡하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사람들이 장횡을 살펴보니, 사지는 움직이지 않고 두 눈은 흐릿했으며, 칠백(七魄)은 유유히 떠돌고 삼혼(三魂)은 아득히 사라져 가고 있었다. 마치 오도장군(五道將軍)에게 가기도 전에 무상귀(無常鬼) 두 귀신에게 재촉당하는 듯하였다. 결국 장횡은 혼절하였으니, 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0회 — 노준의가 병력을 나누어 흡주도로 가고, 송공명이 오룡령에서 대전하다

盧俊義分兵歙州道 宋公明大戰烏龍嶺

이야기는 이러하다. 장횡은 형제인 장순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정신을 잃을 정도로 괴로워하다가 겨우 깨어났다. 송강이 말했다. "우선 막사로 데려가 몸을 추스르게 하고, 나중에 바다에서의 상황을 다시 묻도록 하라."

송강은 배선과 장경에게 명하여 여러 장수의 공로를 기록하게 했다. 진시에서 사시 무렵(辰巳時分)이 되자 모든 장수가 영채 앞에 모였다. 이준과 석수는 오치를 생포했고, 세 명의 여장수는 장도원을 생포했다. 임충은 사모로 냉공을 찔러 죽였으며, 해진과 해보는 최욱을 죽이고, 석보·등원각·왕적·조중·온극양 다섯 명만은 놓치고 말았다. 송강은 방을 붙여 백성을 안심시키고 삼군에 포상을 내린 뒤, 오치와 장도원을 장초토(張招討)의 진영으로 압송하여 참수해 본보기로 삼았다. 또한

식량을 바친 원평사(袁評事)를 부양현령(富陽縣令)으로 삼아 달라는 문서를 올려 천거하고, 장초토 처에서 이름을 적지 않은 빈 임명장(空頭官誥)을 받아 온 일 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장수들이 모두 성안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곁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완소칠이 강을 타고 육지로 올라와 성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송강이 막사로 불러 상황을 물으니 완소칠이 말했다.

"저와 장횡, 후건, 단경주가 수군들을 이끌고 해변에서 배를 찾아 해염 등지에 이르렀습니다. 곧장 전당강으로 들어가길 바랐으나, 뜻하지 않게 풍랑이 거세져 큰 바다로 밀려 나가고 말았습니다. 급히 돌아오려 했으나 바람에 배가 부서지는 바람에 모두 물에 빠졌습니다. 후건과 단경주는 수영을 못 해 바다에서 익사했고, 많은 수군들은 각자 살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저는 물에 뛰어들어 바다 어귀에 이르렀고, 자산문(赭山門)으로 들어갔다가 조수에 밀려 곧장 반번산(半墦山)까지 떠밀려 갔다가 다시 헤엄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장횡 형님이 오운산 강가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원래는 상륙하려던 참이었으나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성안에서 불길이 치솟고 연주포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분명 형님이 항주성에서 싸우고 계신 듯하여 강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장횡 형님이 무사히 육지에 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송강은 장횡의 소식을 완소칠에게 전해주었고, 완소칠은 자신의 두 형님과 만나 예전처럼 수군 두령으로서 배를 관리하게 했다. 송강은 명령을 내려 수군 두령들을 먼저 강으로 보내 강선을 정비하게 하고, 목주로 진격할 채비를 갖추게 했다.

송강은 장순이 그토록 신령스럽게 영험을 드러낸 것을 생각하여, 용금문 밖 서호 가에 사당을 세우고 '금화태보(金華太保)'라 이름 붙인 뒤 직접 가서 제사를 지내주었다. 훗날 방랍을 정벌하여 조정에 공을 세운 뒤 송강이 경성으로 돌아가 이 일을 아뢰자, 조정에서는 특별히 성지를 내려 그를 '금화장군(金華將軍)'으로 봉하고 항주에서 사당의 제사를 받게 하였다.

한편, 송강은 행궁 안에서 강을 건너온 이후 수많은 장수와 부하를 잃은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비통했다. 그는 정자사(淨慈寺)로 가서 7일 밤낮 동안 수륙도량을 열고, 곡식과 음식을 베풀어 물에 빠져 죽은 넋과 어두운 명부의 혼을 건져 올리고 전사한 장수들을 천도하며, 각자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주었다.

이러한 불사를 마친 뒤, 그는 방천정(方天定)의 궁중에 있던 모든 건축물을 죄다 허물어버리고, 그곳에 있던 금은보화와 비단 등의 물품을 여러 장수와 군교들에게 나누어 포상했다. 항주성 백성들은 모두 안정을 되찾았고,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졌다. 송강은 군사와 함께 멀리 내다보고 계책을 의논하며 병력을 움직여 목주를 수복할 준비를 했다.

이때가 이미 4월 말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보고가 올라왔다. "부도독 유광세와 동경(東京)에서 온 천사가 항주에 도착했습니다." 송강은 즉시 장수들을 거느리고 북관문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하여 성안으로 모셨다. 그리고 행궁에서 성지를 읽어 내렸다.

"…선봉사 송강 등이 방랍을 토벌하여 거듭 큰 공을 세웠으므로, 황제가 봉한 어주(御酒) 서른다섯 병과 비단옷 서른다섯 벌을 하사하여 정장(正將)들에게 상으로 내린다. 나머지 편장(偏將)들에게는 명단에 따라 비단을 지급하여 상을 내린다."

본래 조정에서는 공손승이 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사실만 알 뿐, 방랍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두령을 잃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송강은 하사받은 서른다섯 벌의 비단옷과 어주를 보고는 문득 슬픔이 밀려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천사가 까닭을 묻자, 송강은 장수들을 많이 잃은 사정을 천사에게 털어놓았다.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장수들을 많이 잃었는데 조정에서 어찌 알겠습니까? 소관이 경성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 일을 아뢰겠습니다."

그때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 연회를 베풀었는데, 유광세가 상석에 앉고 나머지 크고 작은 장수들이 차례대로 앉았다. 황제가 내린 술과 잔치에 모두가 은혜를 입었다. 죽은 정장과 편장들의 몫으로는 비단옷과 어주를 남겨 두어 상으로 삼았다. 다음 날에는 위패를 마련하여 허공을 향해 멀리 제사를 지냈다. 송강은 어주 한 병과 비단옷 한 벌을 가지고 장순의 사당으로 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지냈다. 비단옷은 사당의 진흙 신상에 입혀주었고, 나머지는 모두 허공을 향해 불살라 보냈다. 천사는 며칠 머물다 경성으로 돌아갔다.

어느덧 세월은 빠르게 흘러 수십 일이 지났다. 장초토(張招討)가 사람을 보내 문서를 가져오니, 선봉군에게 진군할 것을 재촉하는 내용이었다. 송강은 오용과 함께 노준의를 불러 상의했다.

"이번에 목주로 가면 강을 따라 적의 본거지까지 곧장 갈 수 있고, 흡주로 가면 욱령관의 좁은 샛길을 거쳐 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군사를 나누어 토벌하려 하는데, 아우님은 어느 쪽을 맡으시겠습니까?"

노준의가 말했다. "군사를 부리고 장수를 보내는 일은 형님의 엄한 명령을 따를 뿐인데, 어찌 제가 감히 고르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비록 그렇다 해도 하늘의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두 부대로 나누어 인원을 정한 뒤, 두 군데를 적은 제비를 만들어 향을 피워 기도를 올린 후 각자 하나씩 뽑았다. 송강은 목주행을 뽑았고, 노준의는 흡주행을 뽑았다.

송강이 말했다. "방랍의 소굴은 바로 청계현 방원동(幫源洞) 안에 있습니다. 아우님이 흡주를 점령하거든 군마를 주둔시킨 뒤, 문서를 올려 급히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날을 잡아 함께 청계의 적굴을 공격합시다."

노준의는 즉시 송강에게 장수와 군교들을 나누어 배치하는 일을 헤아려 정해 달라고 청했다.

선봉사 송강은 정장과 편장 등 서른여섯 명의 장수를 거느리고 목주와 오룡령을 공격해 나갔다.

군사 오용, 관승, 화영, 진명, 이응이 뒤를 따랐다.

대종, 주동, 이규, 노지심, 무송이 뒤를 따랐다.

해진, 해보, 여방, 곽성, 번서가 뒤를 따랐다.

마린, 연순, 송청, 항충, 이곤이 뒤를 따랐다.

왕영, 호삼낭, 능진, 두흥, 채복이 뒤를 따랐다.

채경, 배선, 장경, 욱보사가 뒤를 따랐다.

수군 두령과 정편장 일곱 명이 부하 선박들을 이끌고 군대를 따라 목주로 진격했다.

이준, 완소이, 완소오, 완소칠, 동맹이 뒤를 따랐다.

부선봉 노준의가 정편장좌 스물여덟 명을 거느리고 흡주와 욱령관을 수복했다.

군사 주무, 임충, 호연작, 시진, 양웅이 뒤를 따랐다.

석수, 단정규, 위정국, 손립, 황신이 뒤를 따랐다.

구붕, 두천, 진달, 양춘, 이충이 뒤를 따랐다.

설영, 추연, 이립, 이운, 추윤이 뒤를 따랐다.

탕륭, 석용, 시천, 정득손, 손신이 뒤를 따랐다.

고대수, 장청, 손이낭이 뒤를 따랐다.

그때 노준의의 부대는 정장과 편장, 장교 등 총 스물아홉 명의 장수를 비롯하여 삼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날을 택해 유

도독과 작별하고 송강과도 헤어진 뒤, 항주를 향해 산길로 병사를 이끌고 임안현을 지나 길을 떠났다.

한편, 송강 일행은 선박과 군마를 정돈하고 정장과 편장을 나누어 배치한 뒤, 길일을 골라 깃발 제사를 지내고 출정 준비를 마쳤다. 수군과 육군이 나란히 진격하며 배와 기병이 서로 호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때 항주 성 안에는 역병이 크게 돌아 장수 여섯 명이 이미 병으로 쓰러져 있었다. 바로 장횡, 목홍, 공명, 주귀, 양림, 백승이었다. 이들은 병이 완쾌되지 않아 진격할 수 없었기에, 목춘과 주부를 보내 병자들을 돌보게 했다. 이렇게 병자들을 포함해 총 여덟 명의 장수가 항주에 머물렀고, 나머지 장수 서른일곱 명은 모두 송강을 따라 목주를 치기 위해 강을 따라 부양현 방향으로 진군했다.

한편, 두 길의 군마가 길을 떠난 것은 차치하고, 채진과 연청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들은 수주(秀州)의 취리정(欈李亭)에서 송강과 작별한 뒤, 해염현 앞 해변에서 배를 얻어 타고 월주를 거쳐 제기현에 이르렀다. 이어 어포를 건너 목주 경계에 다다랐다.

관문을 지키던 장교들이 앞을 가로막자, 채진이 말했다. "나는 중원에서 온 선비로, 천문과 지리에 능하고 음양의 이치를 잘 알며, 육갑(六甲)의 풍운과 삼광(三光)의 기색을 분별할 줄 안다. 구류삼교(九流三教)에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 멀리 강남을 바라보니 천자의 기운이 있어 그리로 향해 왔노라. 그런데 어찌하여 어진 이의 길을 막아서는가?"

관문을 지키던 장교들이 채진의 말투가 범상치 않음을 보고 성명을 물었다. 채진이 대답했다. "내 성은 가(柯)요, 이름은 인(引)이라 하오. 주인과 종이 함께 나라에 투항하러 오는 것이니 다른 뜻은 없소."

수문장은 그의 말을 듣고 채진을 머물게 한 뒤, 즉시 사람을 목주로 보내 우승상 조사원, 참정 심수, 첨서(僉書) 환일, 원수 담고 네 사람에게 보고하게 했다. 곧이어 사람을 보내 채진을 목주로 맞아들여 대면하게 했다.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채진이 한 말은 그 네 사람을 크게 놀라게 했고, 채진의 풍채 또한 범상치 않았기에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우승상 조사원은 크게 기뻐하며 첨서 환일에게 명하여 채진을 청계의 대궐로 인도하게 했다.

본래 목주, 흡주, 방랍의 영토에는 행궁 대전이 있었는데, 그 안의 청계현 방원동(幫源洞)에는 오부육부 총제(五府六部總制)가 머물고 있었다. 채진과 연청은 환일을 따라 청계 제도로 들어가 먼저 좌승상 루민중을 알현했다. 채진이 거침없이 담론을 펼치자 루민중은 크게 기뻐하며 채진을 상부(相府)에 머물게 하고 대접했다. 또한 채진을 지켜보니 연청 역시 말씨가 예사롭지 않고 학식과 예법을 갖추고 있어, 루민중은 이미 마음속으로 여덟 할은 흡족해하고 있었다. 본래 루민중은 청계현의 훈장 출신이라 문장에는 능했으나 학문이 그리 높지는 않았는데, 채진의 말을 듣고는 크게 감탄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조회 때, 방랍은 왕자로서 전각에 올라 앉아 있었고, 안으로는 시어(侍御), 빈비(嬪妃), 채녀(彩女)들이 늘어서 있었으며, 밖으로는 구경(九卿)과 사상(四相), 문무백관, 전전무사, 금과장수(金瓜長隨)들이 호위하고 있었다. 이때 좌승상 루민중이 나서서 아뢰었

다. "중원은 공자(孔夫子)의 고향입니다. 지금 중원에서 온 어진 현사(賢士)가 있으니, 성은 가요 이름은 인이라 합니다. 문무를 겸비하고 지혜와 용맹이 충만하며, 천문과 지리에 밝아 육갑의 풍운과 천지의 기색을 꿰뚫고 있으며 삼교구류와 제자백가에 통달한 인물입니다. 천자의 기운을 보고 이곳으로 왔으니, 지금 성문 밖에서 주군을 뵙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랍이 말했다. "어진 현사가 왔다고 하니, 평복 차림 그대로 알현하게 하라."

문지기 사자가 채진을 전각 아래로 인도했다. 채진이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리고 세 번 만세를 외친 뒤, 휘장 앞으로 안내되었다. 방랍은 채진의 풍채가 범상치 않고 용의 자손 같은 기상이 서려 있음을 보고 먼저 기쁜 기색을 보였다. 방랍이 물었다. "현사가 천자의 기운을 보고 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서 보이는가?"

채진이 아뢰었다. "신 가인은 중원의 비천한 곳에 살며 부모를 여의고 홀로 학문에 정진하여 선현의 비결과 조사의 현문을 전수받았습니다. 근래 밤낮으로 천문을 살피니 제성(帝星)이 밝게 빛나며 동오(東吳) 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천 리 길의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운을 따라 왔나이다. 특별히 강남에 이르러 보니, 목주로부터 오색찬란한 천자의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천자의 성안을 뵙고 나니, 용봉의 자태와 하늘을 찌를 듯한 풍채가 바로 그 기운과 일치함을 알겠나이다. 신은 이토록 기쁘고 다행스러울 따름입니다!"

말을 마친 채진이 다시 절을 올리자, 방랍이 말했다. "과인이 비록 동남의 땅을 다스리고 있으나, 최근 송강 무리에게 성읍을 침탈당해 우리 땅 근처까지 밀려왔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채진이 답했다. "신이 듣기로 옛사람이 이르기를, '얻기도 쉽고 잃기도 쉬우며, 얻기도 어렵고 잃기도 어렵다' 하였습니다. 지금 폐하의 동남 경계는 기반을 닦은 이래 거침없이 진격하여 많은 주군을 얻으셨습니다. 비록 지금 송강에게 몇 곳을 빼앗겼으나, 머지않아 국운은 다시 폐하께 돌아갈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비단 강남뿐만 아니라, 훗날 중원의 사직 또한 폐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방랍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채진에게 비단 방석을 내려 앉게 하고 연회를 베풀어 대접하게 했으며, 중서시랑(中書侍郎)의 관직을 내렸다. 이때부터 채진은 매일 방랍을 가까이 모시며, 아첨하는 말로 그의 환심을 사서 일을 도모했다. 보름도 채 되지 않아 방랍과 내외 관료들 중 채진을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후 방랍은 채진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 공평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고 매우 아끼게 되었다. 이에 좌승상 루민중을 중매로 삼아 금지 공주를 채진에게 시집보내 부마로 삼고, 주작도위(主爵都尉)라는 관직을 내렸다. 연청은 이름을 운벽(雲璧)으로 고쳤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를 운봉위(雲奉尉)라 불렀다. 채진은 공주와 혼인한 뒤 궁궐을 출입하며 안팎의 사정을 훤히 알게 되었다. 방랍은 군사의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채진을 내궁으로 불러 의논했다.

채진은 자주 이렇게 말했다. "폐하의 기색은 참으로 좋으나, 다만 강성(罡星)이 충돌하고 있어 반년 동안은 불안할 것입니다. 송강의 수하 장수들이 하나둘 사라져 강성의 기운이 물러나고 나면, 폐하께서는 다시 기반을 일으켜 거침없이 진격하여 중원의 땅을 차지하실 것입니다."

방랍이 물었다. "과인의 수하에 용맹한 장수들이 많았으나 모두 송강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채진이 다시 아뢰었다. "신이 밤에 천상을 살피니, 폐하의 운수는 장수들이 수십 명이나 되나 이는 정통한 기운이 아니니 머지않아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십팔수(二十八宿)의 성상이 폐하를 도와 기반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강의 무리 중에서도 십여 명의 장수가 항복해 올 것인데, 이들 역시 운명에 정해진 별의 기운을 가진 자들이니 모두 폐하께서 영토를 넓히는 데 힘쓸 신하들이 될 것입니다!"

방랍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시로 이르되,

잠실(蠶室)에서 당시 태사를 벌하였거늘, 누군들 이릉의 투항을 죄라 하지 않았으랴? 귀한 총애를 받는 가(柯) 부마, 그 한 생각의 근원이 알고 보니 송강을 위함이었음을 누가 알았으랴.

채진이 부마가 된 이야기는 차치하고, 송강의 부대가 대군을 이끌고 항주를 떠나 부양현 방향으로 진격할 때의 이야기다. 보광국사 등원각과 원수 석보, 왕적, 조중, 온극양 다섯 장수가 패잔병을 이끌고 부양현의 관문을 지키며 목주에 구원 요청을 보냈다. 이에 우승상 조사원은

친군 지휘사 두 명에게 만 명의 군사를 맡겨 지원군으로 보내게 했다. 정지휘 백흠과 부지휘 경덕은 둘 다 만 명의 적도 당해낼 만한 용맹을 가진 자들로, 부양현에 도착하여 보광국사 일행과 합류한 뒤 산봉우리를 점거했다.

송강의 대부대가 칠리만에 이르렀을 때, 수군이 육군과 발을 맞춰 일제히 전진했다. 이를 본 석보가 말에 올라 유성추를 들고 벽풍도를 챙겨 부양현 산봉우리를 내려와 송강을 맞이하러 나갔다. 관승이 막 말을 달려 나가려는데, 여방이 외쳤다. "형님, 잠시 멈추십시오. 저 여방이 저놈과 몇 합을 겨루는지 보십시오!"

송강이 깃발 그림자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여방이 말에 올라 창을 들고 석보를 향해 돌진했다. 석보는 벽풍도를 휘두르며 맞섰다. 두 사람이 쉰 합을 싸우는 동안 여방의 힘이 부치기 시작하자, 이를 본 곽성이 창을 들고 말을 달려와 협공에 나섰다. 그러나 석보는 한 자루의 칼로 두 자루의 창을 막아내며 전혀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한창 싸움이 치열할 때, 남쪽에서 보광국사가 급히 징을 울리며 군사를 거두라고 명령했다. 알고 보니 큰 강물에 떠 있는 전선들이 순풍을 타고 모래톱으로 올라와 강가에 붙어 있었는데, 적에게 협공당할까 두려워 서둘러 군사를 물린 것이었다.

하지만 여방과 곽성은 적과 엉겨 붙어 싸우느라 도저히 물러날 줄 몰랐다. 석보가 서너 합을 더 싸우는 사이, 송나라 군사 진영에서 주동이 말에 올라 창을 들고 다시 협공에 가세했다. 석보는 세 장수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하고 무기를 버려둔 채 달아났다. 송강이 채찍 끝으로 가리키며 몰아붙이자, 군사들은 부양의 산령을 넘어 석보를 맹추격했

다. 석보의 군마는 길목에 진을 치고 버티지 못하고 결국 동려현 경계 안까지 밀려났다.

송강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격하여 백봉령 아래에 진을 쳤다. 그날 밤, 그는 해진, 해보, 연순, 왕왜호, 일장청을 동쪽 길로 보내고, 이규, 항충, 이곤, 번서, 마린을 서쪽 길로 보내 각각 천 명의 보병을 거느리고 동려현의 적진을 습격하게 했다. 또한 강에서는 이준, 완소이, 완소오, 완소칠, 동위, 동맹, 맹강 일곱 명이 수로를 통해 진격하도록 했다.

한편, 해진 일행이 군사를 이끌고 동려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삼경(새벽 1시~3시 사이)이었다. 보광국사가 석보와 군무를 의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포성 한 발이 크게 울려 퍼지자 모두가 급히 말에 올라탔다. 급히 살펴보니 세 방향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는데, 장수들은 석보를 따라 도망치기에 급급할 뿐 감히 적을 맞이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세 갈래의 군마가 거침없이 몰려와 살육을 벌였다. 온극양은 말을 늦게 타는 바람에 샛길로 달아나려다 왕왜호와 일장청을 만났다. 이 부부가 달려들어 온극양을 붙잡아 끌고 가 생포했다. 이규와 항충, 이곤, 번서, 마린은 현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며 기세를 떨쳤다.

송강이 보고를 받고 군사들을 재촉하여 진영을 걷고 동려현까지 진격했다. 왕왜호와 일장청이 온극양을 끌고 와 공을 세웠다고 보고하자, 송강은 온극양을 항주로 압송하여 장 초토사(張招討) 앞에서 참수하라고 명했다.

다음 날, 송강은 군사를 움직여 수륙 양면으로 진격하여 오룡령 아래에 이르렀다. 고개를 넘으면 바로 목주였다. 이때 보광국사가 여러 장수를 이끌고 고개로 올라가 관문을 지키며 군마를 배치해 두고 있었다. 오룡관은 마침 장강에 맞닿아 있는데, 산세가 험하고 물살이 급하여 위로는 관방을 세우고 아래로는 전함들을 배치해 둔 상태였다. 송강의 군마가 고개 아래에 도착하여 진영을 치고 울타리를 둘러 진을 쳤다. 보병 중에서는 이규, 항충, 이곤에게 오백 명의 보병을 맡겨 초소를 세우고 길을 살피게 했다. 그러나 오룡령 아래에 이르자 위에서 통나무와 포석이 쏟아져 내려와 도저히 전진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송강에게 보고했다.

송강은 다시 완소이, 맹강, 동맹, 동위 네 사람을 보내 먼저 전선 절반을 모래톱으로 몰아 올리게 했다. 이에 완소이가 부장 두 명을 거느리고 천 명의 수군을 이끌며, 백여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며 산가를 부르며 서서히 오룡령 근처로 다가갔다. 알고 보니 오룡령 아래의 저 산자락은 바로 방랍의 수채였다. 그 수채 안에도 오백 척의 전선이 진을 치고 있었으며, 배 위에는 오천 명의 수군이 머물고 있었다. 그들을 이끄는 네 명의 수군 총관은 '절강사룡(浙江四龍)'이라 불리는 이들이었다. 그 네 용은 이러하다.

"옥조룡" 수군 총관 성귀, "금린룡" 수군 부총관 적원

"충파룡" 좌부관 교정, "희주룡" 우부관 사복

이 네 명의 총관은 원래 전당강의 사공이었으나, 방랍에게 투항하여 3품의 직책을 받았다. 그날 완소이 일행은 배를 몰고 급류를 타고 내려

와 모래톱 쪽으로 노를 저어 갔다. 남군 수채에 있던 네 명의 총관은 이미 상황을 알아채고, 쉰 개의 화배(火排, 불을 붙여 띄우는 화공용 함선)를 준비해 두었다. 본래 이 화배라는 것은 커다란 소나무를 꿰어 만들고, 그 위에 짚단을 쌓아 올린 뒤 짚단 안에는 유황과 염초 등 불을 붙이는 물건을 몰래 숨겨둔 채 대나무 밧줄로 엮어 모래톱 끝에 배치해 놓은 것이었다.

완소이와 맹강, 동위, 동맹 네 사람은 앞만 보고 모래톱을 향해 노를 저어 갔다. 네 명의 수군 총관은 그 모습을 보고는 각자 붉은 깃발을 흔들며 빠른 배 네 척을 몰고 물길을 따라 내려왔다. 완소이가 이를 보고 사수들에게 화살을 쏘라고 명령하자, 빠른 배 네 척은 뒤로 물러났다. 완소이는 그 기세를 몰아 모래톱으로 달려가라고 외쳤고, 빠른 배 네 척은 해안가에 멈춰 섰다. 그러자 네 명의 총관은 배에서 뛰어 내려 육지로 달아났고, 수많은 사수도 함께 도망쳤다.

완소이는 모래톱 위 수채에 배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감히 올라가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오룡령 위에서 깃발이 휘날리더니 징과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화배들이 일제히 불붙어 순풍을 타고 모래톱을 향해 휩쓸려 내려왔고, 뒤따르던 커다란 배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긴 창과 갈고리를 내뻗은 채 화배를 따라 내려왔다. 동위와 동맹은 기세가 너무 거세 가까이 갈 수 없음을 보고, 배를 해안가에 대고 버린 채 산비탈을 타고 올라가 산길을 찾아 수채로 돌아가려 했다.

완소이와 맹강은 여전히 배 위에서 적을 맞이하고 있었다. 화배들이 불길을 내뿜으며 밀려왔다. 완소이가 급히 물로 뛰어내리려 할 때 뒤따라오던 배가 도착하며 갈고리로 배를 붙잡았다. 완소이는 적에게 붙잡

혀 치욕을 당할까 두려워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허리춤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베어 자결했다. 맹강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급히 물로 뛰어내리려 했으나, 화배에서 발사된 화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화포 한 발이 맹강의 투구를 정면으로 타격하니, 투구가 뚫리며 머리가 형체도 없이 으깨졌다.

그사이 네 명의 수군 총관은 불붙은 배를 타고 내려와 공격해 왔다. 이준과 완소오, 완소칠은 모두 뒤따라오던 배에 타고 있었다. 앞선 배가 패하는 것을 본 그들은 강가를 따라 적들이 몰려오자 급히 배를 돌려 물길을 따라 동려 쪽으로 도망치듯 내려갔다.

한편, 오룡령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보광국사(등원각)와 원수 석보는 수군 총관들이 승리한 것을 보고 그 기세를 몰아 군사를 이끌고 고개를 넘어 내려왔다. 그러나 물이 깊어 더는 쫓아갈 수 없었고, 길 또한 멀어 따라잡을 수도 없었다. 송나라 군대는 다시 동려로 물러나 주둔하였고, 남군 또한 군사를 거두어 오룡령 위로 올라갔다.

송강은 동려에 진영을 치고 주둔했으나, 완소이와 맹강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막사 안에서 번뇌에 휩싸였다.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니, 꿈속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밤잠을 설쳤다. 오용과 여러 장수가 곁에서 간곡히 위로하며 달랬으나 송강의 근심은 가시지 않았다.

그때 완소칠과 완소오가 상복을 입고 나와 송강에게 간언했다. "저희 형(완소이)이 오늘 나라의 큰일을 위하다가 목숨을 잃었으니, 이는 양산박에서 죽어 이름 없이 묻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입니다. 선봉장

께서는 부디 너무 심려치 마시고 나라의 대사를 살펴 주십시오. 저희 형제 두 사람이 직접 원수를 갚겠습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씩 안색을 되찾았다.

다음 날, 다시 군마를 정돈하고 진군하려 할 때 오용이 간언했다. "형님,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다시 계책을 구상해 보신 뒤에 고개를 넘어도 늦지 않습니다."

이때 해진과 해보가 나서서 말했다. "저희 형제는 본래 사냥꾼 출신이라 산을 타고 고개를 넘는 데는 도가 텄습니다. 저희 둘이 이곳 사냥꾼으로 변장하여 산 위로 올라간 뒤, 불을 한바탕 질러 적병들을 크게 놀라게 하면 분명 관문을 버리고 도망칠 것입니다."

오용이 말했다. "그 계책이 좋아 보입니다만, 산세가 워낙 험준하여 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혹여 발이라도 헛디디면 목숨을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해진과 해보가 다시 말했다. "저희 형제가 등주(登州)에서 탈옥하여 양산박에 들어온 뒤, 형님의 보살핌 덕분에 수년간 호걸로 지내며 나라의 녹까지 입고 비단 옷까지 입었습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진다 해도, 형님께 은혜를 갚는 데는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송강이 말했다. "아우들, 어찌 그리 흉한 말을 하는가. 그저 하루빨리 큰 공을 세워 도성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랄 뿐이니, 조정에서도 우리

를 홀대하지 않을 것이네. 그저 마음을 다해 국가를 위해 힘써 주게나."

해진과 해보는 곧장 채비를 갖추었다. 호랑이 가죽 옷을 껴입고 허리에는 날카로운 칼을 차고 강철 창을 들었다. 두 사람은 송강에게 작별을 고하고 샛길을 택해 오룡령을 향해 올라갔다.

이때는 겨우 일경(一更, 밤 11시~새벽 1시) 무렵이었다. 길을 가던 중 매복해 있던 적의 소규모 병사 두 명과 마주쳤으나, 두 사람이 그들을 처단하고 고개 아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경(二更, 새벽 1시~3시)이었다. 고개 위 진영에서 북과 징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오자, 두 사람은 감히 큰길로 가지 못하고 덩굴을 붙잡으며 한 걸음씩 고개를 기어올랐다.

그날 밤은 달빛이 무척 밝아 마치 대낮 같았다. 두 사람이 세 번의 휴식 중 두 번을 마쳤을 때쯤, 고개 위에서 등불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고개문 근처에 엎드려 귀를 기울여 보니 위에서는 이미 사경(四更, 새벽 3시~5시)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해진이 나지막이 동생에게 말했다. "밤이 짧아 곧 날이 밝겠구나. 어서 올라가자."

두 사람은 다시 덩굴을 붙잡고 기어올랐다. 그러다 암벽이 울퉁불퉁하고 낭떠러지가 험준한 곳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오로지 올라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했다. 그 바람에 등에 짊어진 강철 창이 팔에 묶인 채 끌려 내려오며 대나무 덩굴을 마구 긁어댔고, 그 소리가 산등성이에 울려 퍼져 적들에게 들리고 말았다.

해진이 산 골짜기 같은 곳을 기어 올라가고 있을 때, 위에서 "잡아라!" 하는 외침이 들리더니 갈고리가 해진의 머리채를 낚아챘다. 해진이 급히 허리춤의 칼을 뽑으려 했으나, 이미 몸이 허공에 매달려 발이 붕 뜬 상태였다. 당황한 해진이 급히 칼을 휘둘러 갈고리를 끊어냈으나, 그대로 허공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가련하게도 평생을 호걸로 살았던 해진은 이 백여 장 높이의 험한 암벽에서 떨어져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아래에는 뾰족한 돌과 바위가 가득해 온몸이 산산조각이 났다.

형이 떨어지는 것을 본 해보가 급히 고개를 내려 도망치려 했으나, 위에서 이미 커다란 돌덩이와 짧은 활, 화살들이 대나무 덩굴 사이로 쏟아져 내려왔다. 평생 사냥꾼으로 살아온 가련한 해보는 결국 오룡령 가의 대나무 숲에서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으니, 이로써 두 형제는 목숨을 잃었다.

날이 밝자, 고개 위에서 사람을 내려보내 해진과 해보의 시신을 고개 위에 그대로 내걸어 풍우에 썩게 만들었다. 정찰병이 이 상세한 사정을 듣고 송강에게 보고하니, 해진과 해보가 오룡령에서 전사했다는 것이었다. 송강은 해진과 해보마저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몇 번이나 울다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그는 곧 관승과 화영을 불러 병사를 점검하게 한 뒤, 오룡령 관문을 공격하여 네 형제의 원수를 갚으려 했다.

오용이 간언했다. “형님, 너무 성급히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미 죽은 자들은 모두 천명입니다. 관문을 취하려거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신묘한 계책을 써서 지략으로 관문을 함락시킨 뒤에야 병사를 움직이고 장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송강이 분노하며 말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우리 형제 수족 같은 이들 중 삼분의 일을 잃게 될 줄을! 저 도적놈들이 내 형제들의 시신을 고개 위에 내걸어 둔 꼴을 차마 볼 수 없다. 오늘 밤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시신을 찾아와 관에 넣어 묻어줄 것이다.”

오용이 다시 가로막았다. “적군이 시신을 내걸어 둔 데에는 분명 무슨 계략이 있을 것이니, 형님께서는 부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송강이 어찌 군사의 간언을 듣겠는가. 그는 즉시 정예병 삼천 명을 일으키고 관승, 화영, 여방, 곽성 네 장수를 거느린 채 밤을 도와 진격했다. 오룡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경 무렵이었다. 하급 군교가 달려와 보고했다. “앞에 두 사람이 내걸려 풍화되고 있는데, 필시 해진과 해보의 시신일 것입니다.”

송강이 말을 달려 직접 확인해 보니, 나무 두 그루에 대나무 장대로 두 시신이 매달려 있었다. 나무껍질을 한 꺼풀 벗겨낸 자리에는 두 줄의 큰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달빛이 어두워 무엇이라 적혔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송강이 화약과 불씨를 가져오게 하여 등불을 밝혀 비추어 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송강도 조만간 이곳에서 효수당해 내걸리리라.’

송강은 이를 보고 크게 분노하여 사람을 나무 위로 올려 시신을 거두어오게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방에서 횃불이 일제히 치솟고 북과 징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군마들이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했다. 게다가 고개 위에서는 이미 화살들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강의 배 안에 있

던 수군들도 너도나도 상륙해 공격해 왔다. 송강은 이 상황을 보고 비통한 비명을 지르며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급히 군사를 물리려는데, 석보가 앞장서서 퇴로를 가로막았고, 측면으로 방향을 돌리자마자 이번에는 등원각이 맹렬히 살수를 뻗치며 들이닥쳤다. 그 기세가 마치 마릉도(馬陵道)의 매복 같고, 그 형국이 흡사 장봉파(蔣鳳坡)의 전투와도 같았다.

결국 송강의 군마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0회 — 목주성에서 화살로 등원각을 쏘고, 오룡령에서 신령이 송공명을 돕다

睦州城箭射鄧元覺 烏龍嶺神助宋公明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은 해진과 해보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우룡령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만 석보의 계략에 빠지고 말았다. 사방에서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더니, 앞에는 석보의 군마가 가로막고 뒤에는 등원각이 퇴로를 차단했다. 석보가 엄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송강은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관승이 크게 분노하여 말을 몰고 도를 휘두르며 석보에게 달려들었다. 두 장수가 맞붙어 승부를 가리기도 전에 뒤쪽에서 다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돌아보니 수군 총관 네 명이 일제히 상륙하고 있었고, 왕직과 조중이 고개 위에서 들이닥치며 공격해 내려오고 있었다. 화영이 급히 나서서 후방 부대를 막아내며 왕직, 조중과 맞서 싸웠다. 수없이 합을 겨루던 중 화영이 잠시 물러나는 듯하더니, 기세를 몰아 달려드는

왕직과 조중을 향해 연달아 화살 두 발을 날렸다. 화살은 정확히 두 장수의 몸에 박혔고, 그들은 말에서 떨어졌다. 병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도망치기 바빴다. 네 명의 수군 총관 역시 왕직과 조중이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덕분에 화영이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때 옆쪽에서 또 다른 두 부대가 들이닥쳤다. 한 부대는 지휘 백흠이었고, 다른 한 부대는 지휘 경덕이었다. 이에 송강의 진영에서도 두 장수가 나섰다. 여방이 백흠을 맞이해 싸웠고, 곽성이 경덕과 대치했다. 사방에서 군사들이 흩어져 죽기 살기로 싸웠다. 송강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를 때, 남군 후방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이 들리더니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이규가 패수인 항충, 이곤과 함께 천 명의 보병을 이끌고 석보의 군마 뒤쪽에서 들이닥친 것이었다. 등원각이 군사를 몰아 대응하려 할 때, 뒤에서 노지심과 무송이 나타났다. 무송은 두 자루의 계도(戒刀)로 가로 베고 내리찍으며, 노지심은 무쇠 선장(禪杖)으로 후려치고 찔러대며, 두 사람이 천 명의 보병을 이끌고 곧장 적진으로 돌진했다. 뒤이어 진명, 이응, 주동, 연순, 마린, 번서, 일장청, 왕왜호가 각자 기병과 보병을 거느리고 몰려와 적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 넘겼다.

사방에서 몰려든 송강의 군사들이 석보의 군대와 등원각의 군마를 흩어놓은 덕분에, 송강 일행은 무사히 탈출하여 동려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석보 역시 군사를 거두어 고개 위로 물러갔다. 송강은 진영에서 장수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만약 형제들이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이 송강은 이미 해진, 해보와 함께 저승길 동무가 되었을 것이오."

오용이 말했다.

"형님께서 이번에 가시는 길이 제 생각에는 위험할 것 같아, 혹시라도 잘못될까 두려운 마음에 장수들을 보내 도우라 한 것입니다."

송강은 연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우룡령 위에서는 석보와 등원각 두 원수가 진영에 모여 의논하고 있었다.

"지금 송강의 군마가 동려현에 물러나 주둔하고 있는데, 만약 그들이 샛길로 몰래 넘어와 고개를 통과해 버린다면 목주가 눈앞에서 위태로워질 것이오. 차라리 국사께서 직접 청계의 대궐로 가서 천자를 뵙고, 군마를 더 보내 이 험한 고개를 지키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할 듯하오."

그러자 등원각이 말했다.

"원수님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소승이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등원각은 즉시 말을 타고 목주로 가서 우승상 조사원을 만났다. 그는 조사원에게 말했다.

"송강의 군세가 워낙 강성하여 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마가 휩쓸 듯 밀려오고 있으니 진정으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소승은 병력

을 더 보충하고 장수를 파견하여 관문을 지키게 해달라고 청하러 왔습니다."

조사원은 그 말을 듣고 등원각과 함께 말을 타고 목주를 떠났다. 두 사람은 청계현의 원동으로 가서 먼저 좌승상 누민중을 만나 군마를 더 보내달라고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조회에서 방랍이 대전에 올랐다. 좌우 승상과 등원각이 함께 나아가 절을 올리고 물러난 뒤, 등원각이 앞으로 나아가 만세를 외치며 아뢰었다.

"신 승려 원각은 성지를 받들어 태자와 함께 항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강의 군마가 워낙 용맹하여 그 기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원평사의 유혹에 빠져 성이 함락되었고, 태자께서는 무리하게 싸움을 탐하시다 성을 빠져나가 달아나시던 중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지금 저 원각과 원수 석보는 우룡령 관문에 물러나 지키고 있으며, 최근 송강의 장수 네 명을 베어 그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현재 송강은 동려현에 진을 치고 있으니, 머지않아 도적들이 샛길로 몰래 넘어와 관문을 통과할까 두렵습니다. 그리되면 이 고개를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디 폐하께서는 어서 훌륭한 장수를 뽑고 정예 군마를 더 보내 우룡령 관문을 함께 지키게 함으로써, 도적을 물리치고 성을 되찾을 도모하소서."

방랍이 말했다.

"각지의 군병은 이미 모두 동원되었다. 최근에는 흡주 욱령의 관문이 매우 긴박하여 수만 명의 군사를 그곳으로 나누어 보냈다. 오직 어

림군(황실 호위병)만이 남아 있는데, 과인은 대궐을 보호해야 하니 어찌 군사를 사방으로 흩어 보낼 수 있겠느냐?"

등원각이 다시 아뢰었다.

"폐하께서 구원병을 보내지 않으신다면 소승으로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송나라 군사가 고개를 넘어온다면 목주를 어찌 지키겠습니까?"

그러자 좌승상 누민중이 나아가 말했다.

"우룡령 관문 또한 매우 요긴한 곳입니다. 신이 알기로 어림군이 총 삼만 명 정도 되니, 그중 만 명을 나누어 국사와 함께 관문을 지키게 하소서. 왕의 성찰을 바랍니다."

하지만 방랍은 누민중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림군을 빼내어 우룡령을 구하러 가는 것을 끝내 거절했다.

그날 조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궁을 나섰다. 누 승상은 다른 관리들과 상의한 끝에, 조사원에게 목주에서 장수 한 명을 선발하고 군사 오천 명을 배정하여 국사와 함께 우룡령을 지키게 하라고 일렀다.

이에 등원각과 조사원은 목주로 돌아와 정예 군사 오천 명을 선발했다. 그리고 우두머리 장수로 하후성을 임명하여 우룡령 진영으로 돌아가 석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석보가 말했다.

"조정에서 어림군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이 관문을 굳건히 지키며 싸우러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이오. 네 명의 수군 총관에게 명하여 강가와 물가 접경을 철저히 지키게 하시오. 만약 배가 나타나면 가서 격퇴하되, 절대로 적진으로 직접 진격하지는 마시오."

한편, '보광국사' 등원각과 석보, 백흠, 경덕, 하후성 등 다섯 사람이 우룡령 관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한편 송강은 장수들을 잃은 채 동려현에 머물며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대기했다. 그렇게 스무 날 남짓 교전 한 번 없이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탐마가 달려와 보고했다.

"조정에서 동추밀을 보내 포상과 물자를 가져왔는데, 이미 항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어, 동추밀이 대장 왕품을 보내 포상을 나누어 주게 하고 욱령 관문의 노 선봉 부대로 보냈다고 합니다. 동추밀은 곧 직접 포상을 가지고 도착할 예정입니다."

송강은 보고를 듣자마자 오용 및 여러 장수와 함께 현청에서 이십 리 떨어진 곳까지 나가 그를 맞이했다. 그들은 현청에 도착하여 성지를 읽은 뒤, 포상을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송강 일행은 동추밀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린 뒤 곧바로 잔치를 베풀어 대접했다.

동추밀이 물었다.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장수들의 피해가 많다는 소식을 들었소."

송강이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예전에 조 추밀을 따라 북쪽의 요나라를 정벌할 때는 군사들이 전승을 거두어 장수 한 명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랍을 치라는 칙명을 받든 뒤로는, 아직 경사(수도)를 떠나기도 전에 먼저 공손승이 (스승에게로) 떠나갔고, 어가 앞에서 또 몇 사람이 (조정에) 남겨졌습니다. 강을 건너 진격한 뒤로는 한 곳에 이를 때마다 반드시 몇 명씩의 장수를 잃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여덟아홉 명의 장수가 항주에서 병으로 쓰러져 생사를 알 수 없는 처지입니다. 게다가 앞서 우룡령에서 두 차례 싸우며 또 몇 명의 장수를 잃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물살이 빨라 제대로 맞서 싸우기가 어렵고, 급하게 서둘러도 관문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한창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차에 다행히 은혜로운 추밀께서 이곳까지 와 주셨습니다."

동추밀이 말했다.

"지금 폐하께서는 선봉 부대가 큰 공을 세우는 것을 잘 알고 계시나, 장수들의 피해가 크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소관을 보내 대장 왕품과 조담을 데리고 지원하러 오게 하셨소. 이미 왕품을 보내 포상을 노 선봉에게 전달하고 휘하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소."

이어 동추밀은 조담을 불러 송강 일행과 만나게 했고, 모두 동려현에 머물기로 했다. 잔치와 대접이 모두 끝났다.

다음 날, 동추밀은 군마를 정돈하여 우룡령 관문을 공격하려 했다. 그러자 오용이 간언했다.

"은상,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연순과 마린을 보내 외진 샛길을 뒤지게 하여, 그 근처 마을 주민을 찾아 길을 물어야 합니다. 다른

샛길을 찾아 고개 너머로 넘어가 양쪽에서 협공한다면, 적들이 서로 도울 겨를도 없이 손쉽게 관문을 함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참으로 묘책이오!"

송강은 즉시 마린과 연순에게 명하여 수십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을로 가서 백성들에게 길을 묻게 했다. 하루가 지나 저녁 무렵, 그들은 한 노인을 데리고 송강을 찾아왔다. 송강이 물었다.

"이 노인은 누구시오?"

마린이 대답했다.

"이 노인은 이곳에 사는 토착 주민으로, 이 근처 산천의 길을 모두 꿰고 있습니다."

송강이 노인에게 말했다.

"어르신, 우룡령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큰 상을 내리겠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이 늙은이는 대대로 이곳에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방랍에게 잔인하게 해를 입어 도망갈 곳이 없었는데, 다행히 천병(天兵)께서 이곳에 오셨으니 만백성에게 복이 되어 다시 태평성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은 길 하나를 알려드리지요. 우룡령을 넘어가면 곧 동관에 닿는데,

거기서 목주까지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북문에 이르러 서문 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바로 우룡령입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은물을 꺼내 길을 안내한 노인에게 상을 내리고, 진영에 머물며 술과 밥을 대접하게 했다.

다음 날, 송강은 동추밀에게 동려현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정·편장 열두 명을 거느리고 샛길로 진격하기로 했다. 그 열두 명의 장수는 화영, 진명, 노지심, 무송, 대종, 이규, 번서, 왕왜호, 호삼낭, 항충, 이곤, 능진이었다. 그들은 길을 안내하는 노인을 따라 일만 명의 마보군(기병과 보병)을 거느리고 행군을 시작했다. 말에서는 방울을 떼어내고, 군사들은 입에 하무를 물어 소리를 죽인 채 은밀하고 빠르게 나아갔다.

소우령에 이르렀을 때, 이미 한 무리의 군사가 길을 막고 있었다. 송강은 즉시 이규, 항충, 이곤에게 명하여 돌격하게 했다. 길을 지키던 도적병 삼오백 명가량이 있었으나 모두 이규 일행에게 몰살당했다. 사경(새벽 무렵)이 되자 그들은 동관에 도착했다.

그곳을 지키던 장수 오응성은 송나라 군사가 이미 동관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부하가 이천 명뿐이라 대적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그 자리에서 모두 도망쳐 버렸다. 그는 곧장 목주로 달려가 조사원에게 보고했다.

"지금 송강의 군사가 샛길로 몰래 넘어와 우룡령 이쪽을 통과하여 이미 동관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조사원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급히 장수들을 모아 의논했다.

한편, 송강은 이미 포수 능진에게 명하여 연주포를 쏘게 했다. 우룡령 위 진영에 있던 석보 등은 그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급히 지휘관 백흠을 보내 정탐하게 하니, 산과 숲 곳곳에 송강의 깃발이 가득 메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급히 산 위 진영으로 퇴각하여 석보 등에게 보고했다.

석보가 말했다.

"조정에서 구원병을 보내주지 않으니, 우리는 그저 이 관문을 굳건히 지킬 뿐이지 구하러 나가지는 마시오."

그러자 등원각이 말했다.

"원수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지금 목주를 구하기 위해 군사를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 만약 대궐이 위태로워진다면 우리 또한 지킬 수 없습니다. 원수께서 가지 않으신다면 저라도 가서 목주를 구하겠습니다."

석보가 간곡히 말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등원각은 오천 명의 군사를 선발하고 석장을 든 채 하후성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갔다.

한편, 송강은 군사를 이끌고 동관에 도착했다. 그는 곧장 목주를 치지 않고 먼저 우룡령 관문을 함락시키려 했는데, 마침 등원각과 딱 마주치게 되었다. 군마가 점점 가까워지자 양측 군사가 서로 맞닥뜨렸고, 등원각이 앞장서서 말을 타고 나와 도전해 왔다.

이를 본 화영이 송강의 귓가에 대고 나직이 말했다.

"저 자는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송강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러고는 진명에게 이 일을 맡겼고, 두 장수는 서로 뜻을 알아차렸다.

먼저 진명이 말을 타고 나가 등원각과 싸웠다. 대여섯 합을 겨루던 중, 진명이 갑자기 말을 돌려 달아나자 군사들이 제각기 사방으로 흩어졌다. 등원각은 진명이 패한 것을 보고는 그를 버려둔 채 곧장 송강을 잡으러 달려들었다.

하지만 화영이 이미 송강을 호위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화영은 등원각이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그가 다가오는 순간 활시위를 가득 당겨 조준한 뒤 등원각의 얼굴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활은 만월처럼 팽팽하게 당겨졌고, 화살은 유성처럼 날아가 등원각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다. 등원각은 말에서 떨어졌고, 곧바로 몰려든 군사들에게 살해당했다.

그 기세를 몰아 군사들이 일제히 들이닥쳐 공격하자 남쪽 군대는 크게 패퇴했다. 하후성은 적의 기세를 당해내지 못하고 그대로 목주로 도망쳤다. 송나라 군사가 우룡령까지 단숨에 쳐들어갔으나, 산 위의 적이 굴림 통나무와 포석(돌)을 위에서 내리굴려 퍼붓는 바람에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송나라 군사는 군사를 돌려 먼저 목주를 공격하기로 했다.

한편, 조사원은 첫 번째 장수 하후성이 도망쳐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서 다음과 같은 보고를 들었다.

"송나라 군사가 이미 동관을 통과하여 등원각을 죽이고, 바로 오늘 목주를 공격하러 오고 있습니다!"

조사원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사람을 보내 하후성과 함께 청계의 대궐로 가게 하여, 누민중 승상에게 입궐하여 보고할 것을 청하게 했다.

"지금 송나라 군사가 샛길을 통해 동관까지 넘어와 목주를 공격하려 하니 매우 급박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왕께서 속히 군사를 보내 구원하셔야 합니다. 지체하다가는 반드시 성이 함락되고 말 것입니다."

방랍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즉시 전전태위(殿前太尉) 정표를 불러 일만 오천 명의 어림군(御林軍)을 주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주를 구하러 가게 했다. 정표가 아뢰기를,

"신이 성지를 받들겠나이다. 다만 천사(天師)께서 함께 가셔서 지원해 주신다면 송강의 군사를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랍이 이를 허락하자, 곧 영응천사 포도을을 불렀다. 이때 천사에게 조서를 내려 부르니, 포도을이 곧장 전각 아래에 이르러 임금을 뵈었다. 포도을이 나아와 절을 올리자 방랍이 명을 내렸다.

"지금 송강의 군마가 나날이 나의 영토를 침범하여 성과 병사들을 거듭 잃고 있소. 곧 송나라 군사가 목주에 들이닥칠 것이니, 천사께서 도법을 떨쳐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구하여 이 강산과 사직을 보전해 주시오."

포도을이 아뢰었다.

"주상께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비록 빈도가 재주는 부족하나, 가슴속에 품은 학식과 폐하의 큰 복에 힘입어 송강의 군마를 단숨에 쓸어버리겠습니다."

방랍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자리에 앉히고 연회를 베풀어 대접했다. 포도을은 연회를 마친 뒤 폐하께 작별을 고하고 조정에서 물러났다. 그러고는 곧 정표, 하후성과 함께 군사를 일으킬 방도를 의논했다.

본래 포도을은 금화산 출신으로 어릴 때 출가하여 좌도(左道)의 법술을 배웠다. 이후 방랍을 따라 반란을 꾀하였는데,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반드시 요술을 부려 사람을 해쳤다. 그에게는 '현원혼천검'이라 불리는 보검이 하나 있었는데, 백 보 밖의 사람도 날려서 맞출 수 있었다. 그는 이 검으로 방랍을 도와 불인한 일을 저질렀기에 영응천사라는 존칭을 받게 된 것이다.

정표는 본래 무주 난계현의 도두(都頭)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창과 곤봉을 다루는 데 능숙했다. 그러다 방랍을 만나 전수태위(殿帥太尉)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도법을 몹시 좋아하여 포도을을 스승으로 모시고 많은 법술을 배웠다. 그가 싸움터에 나타나면 반드시 구름 기운이 뒤따랐기에, 사람들은 그를 '정마군'이라 불렀다.

하후성 또한 무주 산골 출신으로 본래 사냥꾼이었으며, 강철 삼지창을 쓰는 데 익숙했다. 그는 예부터 조사원을 따라 목주를 관리해 왔다. 세 사람이 전수부에서 군사 일으킬 일을 의논하고 있을 때, 문관이 들어와 보고했다.

"사천태감(司天太監) 포문영이 뵙기를 청합니다."

천사가 그 이유를 묻자 포문영이 말했다.

"천사님과 태위, 장군 세 분께서 군사를 이끌고 송나라 군사와 싸우러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밤에 하늘의 형상을 살펴보니, 남쪽의 별들은 모두 빛을 잃었으나 송강 일행의 별들은 절반이나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사님의 이번 행차가 비록 좋으나 불리할까 두렵사옵니다. 차라리 주상께 고하여 항복하는 방책을 상의함으로써 나라의 재앙을 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포도을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현원혼천검을 뽑아 들더니, 포문영을 단칼에 두 동강 내 버렸다. 그러고는 급히 문서를 작성하여 방랍에게 보고를 마쳤으니, 그 뒤의 일은 말할 것도 없다.

사관이 시로 이르되,

왕성한 기운은 이미 동남쪽에서 사라져 가는데,
여전히 요사스러운 술수로 사람을 부리는구나.
문영은 이미 하늘의 참된 뜻을 알았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조정에서 목숨을 버리려 하는가?

곧바로 정표를 선봉으로 삼아 전방의 군마를 성 밖으로 몰아 전진하게 했다. 포도을은 중군(中軍)이 되고 하후성은 후방을 합류하여 따르니, 군마가 출정하여 목주를 구하러 나아갔다.

한편, 송강의 장수들이 목주를 공격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던 차에, 갑자기 탐마가 달려와 청계의 구원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

했다. 송강은 보고를 듣자마자 왕왜호와 일장청 두 사람을 보내 적을 맞이하게 했다. 두 사람은 삼천 명의 기마병을 거느리고 청계로 향하는 길목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마침 정표와 맞닥뜨렸고, 정표가 먼저 말을 몰아 나오자 곧바로 왕왜호와 싸움을 벌였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진형을 갖춘 뒤, 곧장 서로의 말과 무기를 맞대며 싸웠다.

여덟 아홉 합쯤 싸웠을 때, 정표가 입으로 주문을 외우더니 크게 외쳤다. "가라!" 그러자 그의 투구 꼭대기에서 검은 기운 한 줄기가 흘러나왔다. 그 검은 기운 속에서 금갑을 입은 천신 하나가 나타나더니, 손에 항마보저를 들고 허공에서 장수를 향해 내리찍으며 내려왔다. 이를 본 왕왜호는 깜짝 놀라 허둥대다 창술을 놓쳤고, 결국 정마군 정표의 창에 찔려 말에서 떨어졌다.

일장청은 제 남편이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급히 쌍도를 휘두르며 구하러 나섰으나, 정표가 다시 달려들어 그와 맞붙었다. 한 합 정도 싸우더니 정표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 했다. 일장청은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 급히 뒤를 쫓았다. 그러자 정마군 정표가 철창을 멈추고 손을 뻗어 품속 주머니에서 금을 입힌 구리 벽돌 하나를 꺼내더니, 몸을 돌려 일장청의 얼굴을 향해 그 벽돌을 내던졌다. 일장청은 그 일격에 맞아 말에서 떨어져 즉사하고 말았다. 용맹하게 싸우던 가인이 한순간 봄날의 꿈처럼 허무하게 가버린 것이 참으로 가련했다.

정마군은 군마를 돌려 송나라 군사를 몰아붙였고, 송나라 군사는 대패했다. 패잔병들이 송강에게 돌아와 보고하기를, 왕왜호와 일장청이 모두 정마군에게 찔리고 맞아 죽었으며, 데려온 군사들도 태반을 잃었다고 했다. 송강은 왕왜호와 일장청마저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

노하여, 즉시 군마를 점검하고 이규, 항충, 이곤을 데리고 오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적을 맞으러 나갔다.

가보니 정마군의 군마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송강은 가슴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직접 앞장서서 말을 몰고 나가며 정표를 향해 크게 호통쳤다. "역적 놈아, 네 어찌 감히 우리 장수 둘을 죽였느냐!"

정표가 창을 들고 맞서려 하자, 이를 본 이규가 크게 노하여 양손에 판부를 치켜들고 번개처럼 달려 나갔다. 항충과 이곤도 급히 만패(蠻牌, 방패의 일종)를 휘둘러 몸을 보호하며 세 사람이 단숨에 정표의 품 안으로 들이닥쳤다. 정마군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고, 세 사람은 그를 쫓아 남쪽 군사들의 진영 안으로 곧장 밀고 들어갔다. 송강은 이규를 잃을까 걱정되어 급히 오천 명의 군사를 불러 일제히 몰아치게 하니, 남쪽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송강이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려 할 때였다. 두 패수(牌手, 등패·방패를 든 병사 — 항충과 이곤)가 이규를 막아 데리고 돌아오는데, 사방에 검은 구름이 뒤덮이고 검은 기운이 하늘을 가득 메워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었으며 대낮임에도 밤처럼 캄캄했다. 송강의 군마는 앞길이 막혀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먹구름 사방에서 몰려오고, 검은 안개 하늘 가득 메웠네.
장대비 한 차례 쏟아지더니, 거친 천둥소리 몇 차례 울려 퍼지네.
산천이 진동하니 높고 낮은 곳이 모두 하늘 무너지는 듯하고,
시냇물은 미친 듯 날뛰니 좌우는 마치 땅 꺼지는 듯하네.
슬프게 들리는 귀신의 울음과 신령의 통곡 소리.

눈을 부릅뜨고 보아도 형체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온갖 나무 흔들리는 소리만 가득하네.

송강의 군사들은 정마군 정표가 부린 요술에 휘말려 천지가 캄캄해지자, 길을 잃고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어느 한 곳에 다다르니 사방이 온통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본부의 군사들은 스스로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했다. 송강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설마 내가 이곳에서 죽게 되는 것인가!"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부터 미패(未牌, 오후 1시~3시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검은 안개가 걷히고 희미하게 빛이 돌기 시작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온통 금갑을 입은 거한들이 떼를 지어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송강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땅에 주저앉으며 입으로 연신 중얼거렸다. "차라리 빨리 죽여 주시오!"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귓가에는 오직 거센 바람과 비 소리만 들려왔다. 수하의 장수와 병사들은 하나같이 땅에 엎드려 칼이 날아와 자신들을 베기를 기다리며 죽음을 맞이할 채비를 했다.

잠시 후, 바람과 비가 지나간 자리에서 송강은 칼이 날아오지 않는 것을 보았다. 대신 어떤 이가 다가와 송강을 부축하며 말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송강이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한 수재가 다가와 자신을 부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대체 어떻게 생겼기에 그러했는가? 그 차림새는 이러했다.

머리에는 검은 사모와 부드러운 각진 당건을 쓰고, 몸에는 흰 비단으로 된 둥근 깃의 시원한 여름 옷을 입었으며, 허리에는 검은 코뿔소

뿔로 만든 금박 띠를 둘러 매고 발에는 네 줄로 꿰맨 조아(早朝, 아침 조회 때 신는 신발)를 신고 있었다.

얼굴은 분을 바른 듯 희고 입술은 붉은 연지를 바른 듯 선명했으며, 당당한 칠 척의 체구에 자태는 삼십 대 초반의 늠름한 모습이었다.

만약 상계의 영관(靈官, 신령스러운 관리)이 아니라면, 분명 구천의 진사임이 틀림없을 법한 모습이었다.

송강은 그 모습에 깜짝 놀라 일어나 예를 갖추고, 그 수재에게 성함이 무엇인지 물었다. 수재가 대답했다. "소생은 성은 소(邵)요 이름은 준(俊)이라 하며, 이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의사(義士)께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방십삼(方十三, 곧 방랍)의 기수(氣數)가 다해 가니, 열흘 안에 반드시 깨뜨릴 수 있습니다. 소생이 그동안 의사를 위해 힘을 보탠 적이 많으니, 지금 비록 곤경에 처해 계시나 구원병이 이미 도착했음을 의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송강이 다시 물었다. "선생, 방십삼(방랍)을 언제쯤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소준이 손을 들어 송강을 밀치자, 송강은 문득 놀라 깨어났으니, 이는 한바탕 남가일몽(南柯一夢)이었다. 깨어나 보니 눈앞을 에워싸고 있던 거한들은 알고 보니 모두 소나무였다. 송강은 크게 소리쳐 장수와 병사들을 깨우고 길을 찾아 나가려 했다. 이때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흩어져 하늘은 맑고 공기는 깨끗해졌는데, 소나무 밖에서 함성이 일며 군사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송강이 군사를 거느리고 안에서 밖으로 돌파하며 싸워 나가는데, 멀리서 노지심과 무송이 줄곧 적을 베며 달려와 마침 정표와 맞붙어 싸우는 모습이 보였다. 포천사(包天師, 포도을)는 말 위에서, 무송이 두 자루의 계도(戒刀)를 휘두르며 걸어서 정표를 향해 곧장 돌진하는 것을 보고는, 칼집에서 현원혼천검(玄元混天劍)을 뽑아 허공으로 날려 보냈다. 검이 공중에서 날아 내려와 무송의 왼팔을 정통으로 내리쳤고, 무송은 피를 쏟으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때 노지심이 선장(禪杖)을 휘둘러 힘껏 내리치며 달려가 무송을 구해냈는데, 무송의 왼팔은 이미 거의 잘려 나갈 정도로 처참하게 베여 있었다. 그러면서 그(포도을)의 혼천검을 빼앗았다. 정신을 차린 무송은 왼팔이 끊어질 듯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계도로 그 팔을 마저 잘라 버렸다. 송강은 먼저 군관들에게 명하여 무송을 부축해 진영으로 돌려보내 쉬게 했다.

한편 노지심은 적의 후진으로 거침없이 쳐들어갔다가 하후성과 맞닥뜨렸다. 두 사람이 몇 합을 겨루다 하후성이 패하여 달아나자, 노지심은 선장을 휘두르며 곧장 쳐들어갔고 남군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후성이 산림 속으로 도망치자, 노지심은 그를 놓치지 않고 깊은 산속까지 쫓아 들어갔다.

한편, 정마군 그자가 다시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다. 송강의 진영 안에 있던 이규, 항충, 이곤 세 사람은 이를 보고 만패(蠻牌), 비도(飛刀), 표창, 판부(板斧)를 휘두르며 일제히 돌격해 들어갔다. 정마군은 그 공격을 당해내지 못하고 고개를 넘고 시내를 건너 달아났다. 세 사

람은 길을 몰랐지만 공을 세우려는 마음에 죽기 살기로 시내를 건너 정표를 바짝 뒤쫓았다.

그런데 시내 서쪽 기슭에서 남군 삼천 명이 갑자기 튀어나와 송군을 가로막았다. 급히 되돌아가려던 항충은 어느새 기슭의 두 장수에게 가로막히고 말았다. 항충이 이규와 이곤을 불렀으나, 그들은 이미 시내를 건너 정표를 쫓아간 뒤였다. 뜻밖에도 앞쪽의 시내가 또 깊어, 이곤이 먼저 한 번 넘어져 시내에 빠졌고 남군이 쏜 어지러운 화살 세례를 받아 죽고 말았다. 항충이 급히 기슭으로 기어 내려오려 했으나 이번에는 밧줄에 걸려 넘어졌고, 막 몸을 일으키려는데 군사들이 어지러이 달려들어 다져 고깃덩이로 만들어 버렸다. 가련하게도 이곤과 항충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영웅인들 어찌 그 힘을 쓸 수 있었겠는가. 오직 이규만이 홀로 깊은 산속으로 쫓겨 들어갔다.

시냇가의 적 군마가 뒤따라 습격해 왔는데, 채 반 리도 못 가서 등 뒤에서 함성이 크게 일었다. 바로 화영, 진명, 번서 세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구하러 온 것이었다. 그들은 남군을 흩어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이규를 구해 돌아왔다. 다만 노지심만은 보이지 않았다.

장수들이 모두 송강에게 나아와 보고하기를, 정마군을 쫓아 시내를 건너 싸우다가 항충과 이곤을 잃고 겨우 이규만을 구해 돌아왔다고 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통곡을 멈추지 못했다. 군사를 점검해 보니 그 병력의 삼분의 일가량을 잃었고, 또 노지심은 보이지 않았으며, 무송은 이미 왼팔을 잃은 상태였다.

송강이 한창 통곡하고 있을 때, 탐마(探馬, 정찰병)가 달려와 보고했다. "군사 오용과 관승, 이응, 주동, 연순, 마린이 일만 군사를 이끌고 수로를 통해 도착했습니다!"

송강은 오용 등을 맞이하며 상황을 물었다. 오용이 대답했다. "동추밀께서 수행해 온 군마와 대장 왕품, 조담, 그리고 도독(都督, 군 지휘관) 유광세의 군마도 이미 우룡령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다만 여방, 곽성, 배선, 장경, 채복, 채경, 두흥, 욱보사, 그리고 수군 두령인 이준, 완소오, 완소칠, 동위, 동맹 등 열세 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오용을 따라 이곳으로 와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송강이 슬프게 말했다. "장수들을 잃었고, 무송은 이미 폐인이 되었으며, 노지심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오용이 위로하며 말했다. "형님, 부디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방랍을 사로잡을 결정적인 때입니다. 오직 국가의 대사를 중히 여기셔야지, 몸을 상하게 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송강은 수많은 소나무를 가리키며 꿈속에서 겪은 일을 군사에게 들려주었다. 오용이 말했다. "이토록 영험한 꿈을 꾸셨다면, 분명 이 근처 사당에 영험한 신이 있어 형님을 보살피러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송강이 말했다. "군사의 말이 전적으로 옳소. 지금 바로 산속으로 들어가 찾아봅시다."

오용은 송강을 따라 산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채 반 리도 못 가서 소나무 숲 사이로 사당 하나가 나타났는데, 금색으로 쓴 현판에는 '우

룡신묘(烏龍神廟)'라고 적혀 있었다. 송강과 오용이 사당 안으로 들어가 대전을 살펴보니, 대전에 모셔진 용군의 성스러운 형상이 꿈속에서 보았던 모습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 깜짝 놀랐다.

송강은 다시 절하며 간절히 감사했다. "용군 신령께서 구원하고 보살펴 주신 은혜가 지극하나 아직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신령께서시여, 부디 힘을 보태 주소서. 만약 방랍을 평정한다면, 반드시 조정에 앙망하여 이 사당을 다시 세우고 성스러운 호칭을 더하도록 청하겠습니다."

송강과 오용이 절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다 돌비석을 보니, 그 신은 본래 당나라의 한 진사로 성은 소요, 이름은 준이라 하였다. 과거에 낙방한 뒤 강에 빠져 죽었는데, 천제께서 그의 충직함을 가엽게 여겨 용신으로 삼으셨다. 이곳 사람들이 바람을 빌면 바람이 불고 비를 빌면 비가 내리자, 이를 기려 사당을 세우고 사계절 내내 제사를 지내왔다니라.

송강은 이를 보고 즉시 검은 돼지와 흰 양을 가져오게 하여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마친 뒤 사당을 나와 주변을 다시 살펴보니, 소나무들이 마치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듯하니 가히 기이한 일이라 할 만했다. 지금까지 엄주 북문 밖에 우룡대왕묘가 있는데, 이름은 만송림(萬松林)이라 한다. 옛 자취가 여전히 남아 있으니,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충심 한 조각은 귀신도 알고 있으니,
남모르게 지켜온 믿음은 분명히 존재한다.

용왕의 참된 성씨를 알고 싶다면,
만송림 아래 남은 비석을 읽어보라.

한편, 송강은 용군(龍君)의 보살핌에 감사 인사를 올린 뒤 사당을 나와 말에 올랐다. 중군채로 돌아온 송강은 곧장 오용과 마주 앉아 목주를 공격할 계책을 논의했다. 밤이 깊어 한밤중에 이르자 송강은 정신이 흐릿해지고 몸이 나른해져 탁자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그때 누군가 달려와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요 수재가 찾아왔습니다!"

송강이 급히 일어나 장막 밖으로 나가 맞이하니, 소룡군이 송강에게 깊이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며 말했다. "어제 소생이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의사(義士)께서는 이미 포도을의 사악한 법술에 걸려 소나무들이 사람으로 변한 채 붙잡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방금 올린 제사의 정성이 지극하여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아울러 목주는 내일이면 함락될 것이며, 방십삼(方十三, 곧 방랍)을 열흘 안에 반드시 사로잡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송강이 막 그를 장막 안으로 모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으려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휘몰아치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또다시 꿈이었다.

송강은 급히 오용에게 꿈의 내용을 말하며 그 의미를 풀어 달라 했다. 오용이 대답했다. "용군께서 이토록 영험하게 나타나셨으니, 내일 바로 군사를 일으켜 목주를 공격하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군사의 말이 전적으로 옳소!"

날이 밝자 군령이 내려졌고, 대부대를 일으켜 목주를 치러 나섰다. 먼저 연순과 마린을 보내 우룡령의 큰길을 지키게 하고, 관승, 화영, 진명, 주동 네 명의 정장(正將)을 선봉으로 내세워 목주 북문을 공격하게 했다. 또한 능진에게 명하여 구상자모(九廂子母) 등 각종 화포를 성안으로 쏘아 넣게 했다. 그 화포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니 천지가 무너지고 산악이 흔들리는 듯한 굉음이 일었고, 성안의 군마는 혼비백산하여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다.

한편, 포천사(포도을)와 정마군의 후방 군대는 이미 노지심에게 흩어져 패하였고, 노지심은 하후성을 추격하다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때 남군은 이미 군마를 성안으로 물려 주둔시킨 상태였는데, 우승상 조사원, 참정 심수, 첨서 환일, 원수 담고, 수장 오응성 등과 함께 상의했다. "송나라 군사가 이미 도착했으니, 이를 어찌 막아낸단 말인가?"

조사원이 말했다. "예부터 적군이 성 아래 닥치고 장수가 해자 가에 이르렀을 때, 죽기로 싸우지 않고서 어찌 이를 풀겠습니까! 성이 깨지면 반드시 사로잡힐 터이니, 사태가 위급한 만큼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정마군은 담고, 오응성과 아장(牙將, 부장) 십수 명을 거느리고 정예병 일만 명을 이끌어 성문을 열고 송강의 군대와 맞섰다. 송강은 군마를 반 화살 거리쯤 뒤로 물려 적군이 성을 나와 진을 벌이게 했다. 포천사는 교의(交椅)를 가져다 성벽 위에 앉았고, 조 승상과 심 참정, 환 첨서는 모두 적루(敵樓)에 앉아 바라보았다. 정마군은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진 앞으로 나섰다.

송강의 진영에서 대도(大刀) 관승이 말을 달려 나와 칼을 휘두르며 정표와 싸웠다. 두 장수가 말을 맞대고 몇 합을 겨루었으나, 정표가 어찌 관승을 당해내겠는가. 그저 막고 가리며 좌우로 피하기 급급했다. 이때 성벽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포도을이 요술을 부려, 입으로 주문을 외우며 '질(疾)!' 하고 크게 외쳤다. 그 주문을 외우며 입김을 한 번 불자, 정마군의 머리 위에서 한 줄기 검은 기운이 솟아올랐고, 그 검은 기운 가운데서 금갑을 입은 신인(神人)이 나타나 손에 항마보저(降魔寶杵)를 들고 허공에서 내리쳤다. 남군 진영에서는 어둑어둑한 검은 구름이 휘몰아쳐 일었다.

송강은 이를 보고 혼세마왕 번서를 불러 보게 하고는 급히 법술을 부리도록 명하는 한편, 자신도 천서(天書)에 적힌 '바람을 일으켜 어둠을 깨뜨리는' 비밀 주문과 비결을 외웠다. 그러자 관승의 투구 위로 한 줄기 흰 구름이 피어오르고, 그 흰 구름 속에서도 한 신장(神將)이 나타났는데, 붉은 머리에 푸른 얼굴, 푸른 눈에 송곳니를 드러낸 모습으로 검은 용을 타고 손에 철퇴를 든 채 정마군의 머리 위에 있던 그 금갑 신인과 맞서 싸웠다.

아래에서는 양군이 함성을 지르고 두 장수가 수없이 교전했다. 위에서는 검은 용을 탄 천장(天將)이 금갑 신인을 물리쳤고, 아래에서는 관승이 단칼에 정마군을 말 아래로 베어 넘겼다. 포도을은 송군 진영에서 바람이 일고 천둥이 울리는 것을 보고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그 순간 능진이 쏜 굉천포(轟天砲)의 화탄(火彈子) 하나가 포천사를 정통으로 맞혀 머리와 몸뚱이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남군은 대패하였고, 송군은 그 기세를 몰아 목주로 쳐들어갔다. 주동은 원수 담고를 창으로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렸고, 이응은 비도를 날려 수장 오응성을 죽였다. 목주 성 아래에서는 화포가 포천사의 몸을 맞히는 것을 보고 남군이 모두 성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송강의 군마가 이미 성안으로 진입하자 장수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아가 우승상 조사원, 심 참정, 환 첨서를 생포하였고, 나머지 아장들은 이름도 묻지 않고 모두 송군에게 죽임을 당했다. 송강 일행은 성에 들어가 먼저 방랍의 행궁에 불을 지르고, 모든 금백(金帛)을 삼군의 장수들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었으며, 방문(榜文)을 내붙여 백성들을 안무(安撫)했다. 아직 군사 점검을 미처 마치지 못했을 때, 탐마가 나는 듯이 달려와 보고했다. "서문 우룡령 위에서 마린이 백흠의 표창 한 자루에 찔려 떨어졌고, 석보가 쫓아와 다시 한칼을 더해 마린을 두 토막으로 베어 버렸습니다. 연순이 이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 맞서 싸우려 하는데…."

"또한 석보 그놈이 휘두른 일류성퇴(一流星鎚, 별처럼 빠르게 날아오는 망치)에 맞아 죽었습니다! 석보가 승기를 잡고 그 기세를 몰아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송강은 연순과 마린을 또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끝도 없이 통곡했다. 송강은 급히 관승, 화영, 진명, 주동 네 명의 정장을 보내 석보와 백흠을 맞서게 하고 우룡령의 요충지를 탈환하게 했다. 만약 이 네 장수가 우룡령에서 적들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청계현의 도적떼를 소탕하고 방원동의 초두천자(草頭天子)를 생포하는 공을 세우지 못할 것이었다. 그리하여 송강 등이 청렴한 시대에 공을 떨쳐 그 이름을 천 년 동안 역사에 남기고 만고에 전하게 될 터였다.

결국 송강 일행은 어떻게 적을 맞이하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0회 — 노준의가 욱령관에서 대전하고, 송공명이 지혜로 청계동을 취하다

盧俊義大戰昱嶺關 宋公明智取清溪洞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관승을 비롯한 네 장수는 말을 달려 군사를 이끌고 우룡령 위로 들이닥쳐, 마침 석보의 군마와 맞닥뜨렸다. 관승이 말 위에서 크게 호통을 쳤다. “적장 놈아, 네가 어찌 감히 내 형제들을 죽이느냐!” 석보는 상대가 관승인 것을 보고는 싸울 마음이 사라져 고개 위로 물러나며, 백흠을 지휘하여 관승과 맞서 싸우게 했다. 두 말이 마주 달려와 무기를 휘두르며 열 합도 채 싸우기 전에, 우룡령 위에서 갑자기 징 소리가 울리며 군사를 물리는 신호가 터져 나왔다. 관승은 뒤쫓지 않았으나, 고개 위의 군사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알고 보니 석보는 고개 동쪽에서 싸우느라 정신이 팔려, 고개 서쪽에서 동추밀이 이끄는 군마가 이미 고개 위로 들이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방비하지 못한 것이었다.

송군의 대장 왕품은 남군의 지휘관 경덕과 맞붙어 싸웠다. 두 사람이 열 합 넘게 대결하던 중, 왕품이 경덕을 말 아래로 베어 넘겼다. 이

어 여방과 곽성이 고개를 탈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산 위로 달려 올라갔으나, 고개 언저리에 채 닿기도 전에 산 위에서 커다란 바위 하나가 날아와 곽성을 말과 함께 쳐서 고개 밑으로 떨어뜨려 죽였다. 고개 동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관승은 고개 위가 아수라장이 된 것을 보고, 서쪽에서 송군이 올라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급히 장수들을 불러 모아 일제히 공격을 명령했다. 양쪽에서 협공이 시작되자 고개 위는 아비규환의 혼전장이 되었다.

여방은 백흠과 마주쳐 격렬하게 싸웠다. 채 세 합도 되지 않아 백흠이 창을 찔러 넣었으나, 여방이 몸을 비켜 피하는 바람에 백흠의 창은 여방의 옆구리를 허무하게 찔러 지나갔다. 대신 여방의 극이 백흠의 공격에 튕겨 나가 옆으로 뉘어졌다. 두 장수는 말 위에서 서로의 무기를 제대로 휘두를 수 없게 되자, 손에 든 무기를 내던지고 말 위에서 서로를 붙잡고 엉겨 붙었다. 하필이면 그곳이 험준한 고갯길이라 말이 발을 제대로 디딜 수 없었는데, 두 사람이 워낙 맹렬하게 힘을 쓰다 보니 그만 말과 함께 고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결국 두 장수는 고개 아래에서 서로 엉킨 채 죽고 말았다.

이때 관승을 비롯한 장수들이 걸어서 고개 위로 들이닥쳤고, 고개 위는 온통 송군으로 가득 찼다. 석보는 양쪽에서 몰려오는 적군 때문에 퇴로가 완전히 끊긴 것을 보고, 붙잡혀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져 자신의 피풍도를 뽑아 목을 긋고 자결했다. 송강의 장수들이 우룡령의 요충지를 탈환하자, 관승은 급히 사람을 보내 송나라 선봉장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강물 위의 수채(水寨, 수군 진영)에 있던 네 명의 수군 총관은 우룡령을 잃고 목주가 모두 함락된 것을 보고는, 배를 버려둔 채 강을 건너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강 건너편의 백성들에게 붙잡혀 성귀와 사복이 생포되었고, 이들은 목주로 압송되어 송군에게 넘겨졌다. 적의 장수인 적원과 교정은 도망쳐 어디론가 사라졌다.

송군 대부대가 목주로 돌아오자, 송강은 이 소식을 듣고 성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동추밀과 유도독이 성안으로 들어와 진을 치고 막사를 설치했다. 송군은 방을 붙여 군사와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을 권유했는데, 투항해 오는 남군 장병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송강은 창고의 곡식을 모두 풀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백성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평범한 백성이 되었다.

송강은 수군 총관 성귀와 사복을 잡아 배를 갈라 심장을 꺼내 제물을 삼았다. 이는 우룡령에서 함께 죽은 형제 같은 장수들인 완소이, 맹강을 비롯해 우룡령에서 전사한 모든 장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죽은 이들의 혼령은 모두 이 제물을 받들어 편히 쉬게 되었다. 이어 이준 등 수군 장수들에게 많은 배를 거느리게 하여, 붙잡은 적의 우두머리와 적의 가짜 관리들을 장초토(張招討, 초토사 장 장군)의 진영으로 압송하게 했다.

송강은 여방과 곽성을 잃은 것을 보고 슬픔을 금치 못하여,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노준의의 선봉 부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함께 청계를 공략할 채비를 하였다.

한편, 송강이 목주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부선봉 노준의는 항주에서 군사를 나눈 뒤 삼만 명의 군마와 본부 소속 정·편 장수 스물여덟 명을 거느리고 산길을 따라 항주 방면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노준의의 군대는 전왕의 옛 도읍인 임안진을 지나 욱령관 근처에 다다랐다.

욱령관을 지키며 요충지를 사수하고 있는 이는 방랍의 수하 장수로, 별호가 '소양유기'인 방만춘이었다. 그는 남국 방랍의 군대에서 활쏘기에 가장 능한 첫 번째 고수였다. 그는 두 명의 부장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한 명은 뇌형이고 다른 한 명은 계직이었다. 이 두 부장은 각각 칠팔백 근의 힘을 낼 수 있는 강한 노(弩, 석궁)를 다루었으며, 가시 돋친 철퇴인 질려골타를 자유자재로 휘둘렀다. 그들의 수하에는 오천 명의 군마가 있었다. 세 사람은 욱령관을 지키며 송군 부선봉 노준의가 이끄는 군대가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적을 맞이할 무기를 갖추어 두고 적군이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노준의의 군마가 욱령관 근처에 다다랐을 때, 먼저 사진, 석수, 진달, 양춘, 이충, 설영 여섯 장교에게 삼천 명의 보병을 거느리고 초소를 경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진 등 여섯 장수는 모두 전마를 타고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보병이었다. 이들이 줄을 지어 관문 아래로 경계 임무를 수행하러 나아갔으나, 적의 군마는 단 한 마리도 마주치지 않았다. 사진은 말 위에서 의구심이 들어 장수들과 상의하려 했으나, 말을 채 다 돌리기도 전에 이미 관문 앞에 도착하고 말았다.

관문을 보니 화려하게 수놓인 백색 깃발이 세워져 있었고, 그 깃발 아래에는 '소양유기' 방만춘이 서 있었다. 방만춘은 사진 일행을 보고 크게 웃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 초적 놈들아, 너희는 그저 양산박에

나 처박혀 있지, 송나라의 초안 교지를 받들어 무엇 하느냐! 감히 어찌 우리 국토에 들어와 호걸 행세를 하려 드느냐! 너희도 이 몸, '소양유기'의 이름을 들어 보았느냐? 듣자하니 너희 무리에 '소이광' 화영이라는 자가 있다던데, 그놈을 불러내어 나와 활쏘기 내기를 해보자꾸나. 내 먼저 나의 신궁 같은 솜씨를 보여주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살 한 대가 휙 날아와 사진의 몸에 정통으로 박혔고, 사진은 말 아래로 떨어졌다. 나머지 다섯 장수가 급히 앞으로 달려 나가 사진을 구하려 했으나, 겨우 말을 타고 물러날 뿐이었다. 그때 관문 꼭대기에서 징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좌우 양옆의 소나무 숲에서 일제히 화살이 쏟아졌다. 다섯 장수는 사진을 돌볼 겨를도 없이 각자 살길을 찾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산 고개를 돌아서자마자 맞은편 양쪽 산비탈에서 한쪽은 뇌형이, 다른 한쪽은 계직이 나타났다. 그들이 쏘아대는 화살은 마치 빗줄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아무리 영웅이라 해도 이런 화살 세례를 피할 길은 없었다. 가련하게도 수호전의 장수 여섯 명은 한낱 꿈처럼 허무하게 쓰러지고 말았다. 사진과 석수 등 여섯 장수는 단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한 채, 관문 아래에 시체가 되어 쌓이고 말았다.

삼천 명의 보병 중 겨우 백여 명의 소수의 병사만이 간신히 도망쳐 돌아와 노준의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노준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정신을 잃은 듯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신기군사' 주무는 진달과 양춘을 위해 눈물을 흘려준 뒤, 간곡히 간언했다. “선봉님, 부디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슬픔에 빠져 계시다가는 큰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책을 세워 관문을 탈환하고 적장을 베어 이 원한을 갚아야 합니다."

노준의가 탄식하며 말했다. "송강 형님이 특별히 많은 장수와 병력을 나에게 나누어 주셨거늘, 이번 싸움에서 한 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먼저 여섯 장수를 잃었구나. 게다가 삼천 군사 중 겨우 백여 명만이 살아 돌아왔으니, 이 몰골로 어찌 섭주에 가서 얼굴을 들겠느냐?"

그러자 주무가 대답했다. "옛말에 이르기를, '천시(天時)는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원의 산동과 하북 출신이라 수전(水戰)에 익숙하지 못한 까닭에 지리(地利)의 이점을 잃었습니다. 반드시 이곳 향민을 포섭하여 길을 안내받아야만 이 일대의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준의가 말했다. "군사의 말이 지극히 옳소. 길을 탐색하러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겠소?"

주무가 말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고상조' 시천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담벼락을 타고 지붕을 넘나드는 데 능한 자이니, 산속에서 길을 찾아내는 데 제격일 것입니다."

노준의는 즉시 시천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 시천은 그 말을 받들어 마른 식량을 챙기고 허리에 도를 차고 진영을 떠났다.

한편, 시천은 깊은 산속을 바라보며 오로지 길을 찾는 데만 몰두했다. 반나절을 쉬지 않고 달렸더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갔고, 멀리서 등

불 하나가 밝게 빛나는 곳이 보였다. 시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등불이 밝은 걸 보니 분명 민가가 있을 것이다.”

시천은 어둠을 틈타 등불이 비치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가보니 작은 암자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은은한 등불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시천은 암자 앞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노승 한 명이 바닥에 앉아 경전을 암송하고 있었다. 시천이 노승의 방 문을 두드리자, 노승은 어린 수행자를 불러 문을 열게 했다. 안으로 들어간 시천은 노승에게 절을 올렸다.

그러자 노승이 말했다. “손님, 절을 올릴 것 없소. 만마천군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어찌 여기까지 발을 들였소?”

시천이 대답했다. “스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양산박 송강 대장의 휘하 편장인 시천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성지를 받들어 방랍을 토벌하러 왔는데, 밤중에 욱령관을 지키던 적장들에게 화살 세례를 받아 우리 장수 여섯 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관문을 넘을 방도가 없어, 길을 찾아 관문을 몰래 넘을 수 있는 작은 길을 알아보고자 저를 보낸 것입니다. 깊은 산속 황야를 헤매다 여기까지 왔으니, 부디 스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작은 길이라도 찾아내어 관문을 넘을 수 있다면 반드시 두둑이 사례하겠습니다.”

노승이 말했다. “이곳 백성들은 모두 방랍에게 해를 입어 그를 원망하지 않는 이가 없소. 나 또한 이곳 백성들이 베푸는 보시로 식량을 얻어 입에 풀칠하며 살아왔지. 하지만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망쳐 흩어졌으니, 나는 갈 곳이 없어 그저 이곳을 지키며 죽을 날만 기다리

고 있었소. 오늘 다행히 천병(天兵)이 이곳에 이르렀으니 만백성에게 복이로다. 장군께서 오셔서 저 도적놈들을 토벌하고 백성의 해를 없애 주신다면 참으로 좋겠소. 다만 나 같은 노승은 도적들이 눈치챌까 두려워 감히 입을 열지 못했을 뿐이오. 이제 천병이 보낸 우두머리께서 오셨으니 내 입을 열어도 괜찮겠구려. 사실 이곳에는 관문으로 통하는 길은 없소. 다만 서쪽 산등성이 쪽으로 가면 관문 위로 통하는 작은 길이 하나 있긴 하오만, 요 근래 적들이 길을 끊어놓았을까 봐 걱정이구려. 지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소."

시천이 물었다. "스님, 그 작은 길이 관문 위로 통한다면, 적의 진영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노승이 대답했다. "그 비밀스러운 길은 방만춘의 진영 뒤쪽까지 곧장 이어지는데, 거기서 고개를 내려가면 바로 관문을 넘는 길이 나오오. 다만 적들이 커다란 돌덩이로 길을 막아버렸을까 봐 그게 문제라오."

시천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길이 있다면 설령 길이 끊겨 있다 해도 저 나름의 방도가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럼 저는 돌아가서 주장님께 보고를 드린 뒤, 다시 와서 사례하겠습니다."

노승이 말했다. "장군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실 때는 이 늙은이가 참견했다고 말하지 마시오."

시천이 말했다. "저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니 스님께는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시천은 노승과 작별하고 곧장 진영으로 돌아가 노준의를 뵙고 이 사실을 보고했다. 노준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군사를 불러 관문을 탈환할 계책을 의논했다. 주무가 말했다. "만약 그런 길이 있다면 욱령관은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시천과 함께 갈 사람을 한 명 더 보내 이 큰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시천이 물었다. "군사님, 어떤 큰일을 하려는 것입니까?"

주무가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지르고 포를 쏘는 것이네. 자네들은 곁에 화포와 불칼, 부싯돌을 챙겨서 곧장 적 진영 뒤쪽으로 가서 신호탄과 불을 내뿜어야 하네. 그것이 바로 자네가 할 큰일이라네."

시천이 말했다. "그저 불을 지르고 포를 쏘는 일뿐이고 다른 일은 없다면, 굳이 다른 사람을 데려갈 필요 없이 저 혼자 가면 됩니다. 사람을 더 데려가 봤자 저처럼 담을 넘나드는 재주를 부릴 수도 없을 테니 오히려 때만 늦출 뿐입니다. 만약 제가 그곳에 가서 일을 치르는 동안, 이곳에서는 어떻게 관문 근처까지 가실 겁니까?"

주무가 말했다. "그것은 쉬운 일이라네. 적들의 매복은 그저 한 번 겪어보는 셈 치면 되지. 나는 이제 적들이 매복해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길을 가다 나무가 울창한 곳을 만나면 그냥 불을 질러 버릴 것이네. 그러면 적들이 매복해 있어도 숨을 곳이 없을 테니까."

시천이 말했다. "군사님의 식견이 참으로 명쾌하십니다!"

시천은 즉시 불칼과 부싯돌, 그리고 불을 붙일 화약통을 챙기고, 등에는 커다란 짐 꾸러미를 메어 화포를 짊어진 채 노준의에게 작별을 고하고 길을 떠났다. 노준의는 시천에게 은자 이십 냥과 쌀 한 섬을 내어 주며 노승에게 전달하라고 일렀고, 한 군교가 그것을 짊어지고 따라갔다.

그날 오후, 시천은 군교에게 쌀을 짊어지게 한 뒤 옛길을 따라 암자로 찾아갔다. 노승을 만난 시천이 말했다. “주장님과 선봉님의 뜻을 받들어 작은 정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은자와 쌀을 모두 노승에게 건넸다. 노승이 그것을 받자, 시천은 군교를 먼저 진영으로 돌려보낸 뒤 다시 노승에게 와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다. “부디 수행자를 보내 저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노승이 말했다. “장군께서는 잠시 기다리시오. 밤이 깊으면 가야 하오. 낮에 가면 관문 수비병들이 눈치챌까 두렵구려.”

노승은 저녁 식사를 준비해 시천을 기다리게 했다가, 밤이 되자 수행자를 시켜 장군을 그곳까지 안내하게 했다. 안내를 마친 수행자는 즉시 돌아가게 하여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어린 수행자가 시천을 데리고 암자를 나서서 깊은 산길을 찾아 나섰다. 숲을 헤치고 고개를 넘으며 덩굴을 헤쳐 나아가며 몇 리나 되는 산길과 야산을 지나자,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험준한 산등성이에 다다랐다. 그곳은 절벽이 깎아지른 듯 솟아 있었는데, 멀리 작은 길목 하나가 보였다. 산봉우리 위에는 커다란 돌들을 쌓아 올려 마치 성벽처럼 높게 길을 막아놓은 상태였다.

수행자가 말했다. “장군님, 관문이 저 멀리 보입니다. 돌벽이 있는 저 너머가 바로 그곳입니다. 저 절벽만 넘어가면 큰길이 나옵니다.”

시천이 말했다. “수행자야, 너는 이만 돌아가거라. 나는 길을 알겠으니 되었다.”

수행자가 돌아가자, 시천은 담을 타고 지붕을 넘나드는 자신의 재주를 발휘하여 손가락 하나 까닥하듯 가볍게 그 돌벽을 타고 넘어갔다. 동쪽을 바라보니 숲 사이로 하늘 절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것은 노준의와 주무 등이 진영을 일으켜 길을 따라 불을 지르며 진격하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먼저 삼오백 명의 군사를 보내 길 위의 시신들을 치우게 하고, 산을 타고 고개를 넘으며 불을 질러 길을 열었다. 이는 적의 매복군이 숨을 곳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욱령관의 '소양유기' 龐萬春(방만춘)은 송군이 숲에 불을 질러 길을 내며 진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다. “저것은 우리 매복군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진법이로구나. 우리는 그저 이 관문을 굳게 지키며 너희가 어떻게 넘어오나 지켜보겠다!”

한편, 송군 병사들이 점점 관문 아래로 다가오고 있었다. 뇌형과 계직도 이를 이끌고 관문 앞에 도착하여 수비에 나섰다.

한편, 시천은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관문으로 다가갔다. 그는 커다란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 잎이 무성한 곳에 몸을 숨긴 채 상황을 살폈다. 방만춘과 뇌형, 계직이 활과 노를 든 채 관문 앞에 엎드려 대기하고 있었다. 그때 송군 병사들이 불길을 치켜들고 몰려오는 것이 보였

다. 그 선두에는 임충과 호연작이 말을 타고 관문 아래 서서 크게 꾸짖고 있었다. "도적놈들아, 어찌 감히 천병(天兵)에 맞서 저항하느냐!"

방만춘 일행이 화살을 쏘아 대항하려 했으나, 시천이 이미 관문 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시천은 살금살금 나무에서 내려와 관문 뒤편으로 돌아갔다. 그곳에 땔나무 더미 두 개가 있는 것을 발견한 시천은 그 사이로 몸을 숨긴 채 불칼과 부싯돌을 꺼내 불을 일으켰다. 그는 화포를 땔나무 더미 위에 올려놓고, 먼저 유황과 염초를 가져가 저쪽 땔나무 더미에 불을 붙인 뒤 곧장 이쪽 더미에도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막 화포에 불을 붙여 불씨를 챙긴 뒤, 곧장 관문의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 불을 질렀다.

양쪽 땔나무 더미에서 동시에 불길이 치솟더니, 화포가 하늘을 뒤흔드는 듯한 굉음을 내뿜었다. 관문을 지키던 장수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고, 병사들은 적을 맞이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앞다투어 도망치기 바빴다. 방만춘과 두 부장이 급히 불을 끄기 위해 관문 뒤로 달려왔을 때, 시천은 지붕 위에서 다시 화포를 터뜨렸다. 화포의 진동에 관문의 지붕까지 흔들리자, 남군들은 칼과 창, 활은 물론이고 옷과 갑옷까지 내팽개친 채 관문 뒤편으로 정신없이 달아났다.

시천이 지붕 위에서 크게 외쳤다. "이미 일만 송군이 관문을 넘어섰다! 너희는 어서 투항하여 죽음을 면하라!"

방만춘은 그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못 차리고 발을 헛디디며 넘어지기 일쑤였다. 뇌형과 계직은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다. 이때 임충과 호연작이 앞장서서 산을 타고 올라가

관문 꼭대기에 먼저 도착했다. 장수들은 앞다투어 관문을 넘어 삼십여 리를 추격하며 남군을 몰아붙였다. 손립은 뇌형을 생포했고, 위정국은 계직을 사로잡았다. 방만춘만 간신히 도망쳤을 뿐, 부하 병사들은 태반이 사로잡혔다. 송군은 이미 관문을 장악하고 군사를 주둔시켰다.

노준의는 욱령관을 탈환한 뒤 시천에게 두둑한 상을 내렸다. 그리고 사로잡은 뇌형과 계직을 관문 위에서 배를 갈라 심장을 꺼내어, 전사한 사진, 석수 등 여섯 사람의 넋을 기리는 제물로 삼았다. 시신을 수습하여 관문에 묻어준 뒤, 나머지 시신들은 모두 불태워 없앴다.

다음 날, 노준의는 여러 장수와 함께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탔다. 한편으로는 장초토(張招討, 초토사 장 장군)에게 욱령관을 탈환했다는 전령을 보내 보고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를 이끌고 관문을 넘어 쉼 없이 추격하여 섭주 성곽 근처에 이르러 진을 쳤다.

본래 섭주를 지키는 이는 방랍의 숙부인 방후였다. 그는 방랍의 친숙부로, 두 명의 대장을 함께 두어 문직(文職, 무예가 아닌 행정직)을 맡기고 섭주를 수비하게 했다. 한 명은 상서 왕인이고, 다른 한 명은 시랑 고옥이었다. 이들은 십여 명의 장수와 이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섭주 성곽을 지키고 있었다.

본래 왕 상서는 이 지역 산골의 석공 출신으로, 강철 창을 다루는 데 능했으며 전마 한 필을 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전산비라 하였다. 그 군마는 산을 오르고 물을 건널 때 마치 평지를 달리는 듯했다. 고 시랑 또한 이 지역 토박이로 그 집안 대대로 편창(鞭鎗, 채찍 달린 창)을 잘

다루었다. 이 두 사람이 문장과 글에 밝았기에 방랍이 문직의 관직을 내려 병권을 다스리게 한 것이었다.

이때 '소양유기(小養由基)' 방만춘이 패하여 섭주로 도망쳐 돌아왔다. 그는 행궁에 이르러 방후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현지 주민들이 송군을 유인하여 길을 내주는 바람에, 송군이 샛길로 몰래 관문을 넘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들이 흩어져 적을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방후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방만춘을 꾸짖었다. "욱령관은 섭주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거늘, 이제 송군이 관문을 넘어섰으니 조만간 섭주까지 들이닥칠 터인데, 이를 어찌 적을 맞이하겠느냐!"

그러자 왕 상서가 간청했다. "주상께서는 노여움을 가라앉히소서. 예부터 '승패는 병가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 싸운 죄는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방 장군의 본래 죄를 잠시 면해주시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군령을 담은 문서를 내리십시오. 그리하여 그가 군사를 이끌고 먼저 출전하여 적을 맞이해 송군을 물리치게 하소서.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그때 두 가지 죄를 모두 물으시면 됩니다."

방후가 그 말에 동의하여 군사 오천 명을 배정해 주니, 방만춘은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한 뒤 승전보를 전하기로 하였다.

한편, 노준의는 욱령관을 넘어 군사를 재촉하여 섭주 성곽 아래까지 당도했다. 그날 바로 여러 장수와 함께 섭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성문이 열리자 방만춘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 맞서 싸웠다. 양측 군대가 각자 진형을 갖추자, 방만춘이 진영 앞으로 나와 싸울 기세를 보였다.

송군 진영에서 歐鵬(구팽)이 말을 타고 나갔다. 그는 철창을 휘두르며 방만춘과 격돌했다. 두 사람이 다섯 합을 채 넘기지 못하고 방만춘이 패하여 달아나자, 구팽은 큰 공을 세우고 싶어 말에 채찍질을 하며 쫓아갔다. 이때 방만춘이 몸을 비틀며 뒤로 화살을 쏘았다. 구팽은 무예가 뛰어난 자라 화살을 피할 재간이 있었다. 본래 구팽은 방만춘이 연달아 화살을 쏠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화살 한 발을 쏜 뒤에는 오로지 쫓아가는 데만 정신을 쏟았다. 활시위 울리는 소리가 나더니 방만춘이 두 번째 화살을 쏘아 보냈고, 구팽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성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왕 상서와 고 시랑은 구팽이 화살에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방만춘이 승리했음을 알았다. 그들은 즉시 성안의 군마를 이끌고 성 밖으로 달려 나가 추격했다. 송군은 대패하여 서른 리 밖까지 퇴각한 뒤에야 겨우 진을 치고 군사를 안돈시켰다.

병사들을 점검하던 중, 혼란스러운 와중에 채원자 장청마저 전사했다. 손이낭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들에게 시신을 찾아 불태워 달라고 명하며 통곡했다. 이 광경을 본 노준의는 마음속이 답답하고 의아하여, 이대로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무에게 다가가 상의했다. "오늘 진군하자마자 장수 두 명을 잃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주무가 말했다. "승패는 병가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적군이 우리가 퇴각하는 것을 보고 기세가 등등해졌으니, 분명 적들도 모의하여 오늘 밤 기세를 몰아 우리 진영을 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군마와 장수들을 나누어 사방에 매복시켜야 합니다. 중군에는 양 몇

마리를 묶어두어 미끼로 삼고, 이렇게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겁니다. 호연작에게는 왼편에 매복을 맡기고, 임충에게는 오른편에, 단정규와 위정국에게는 뒤편에 매복을 맡기십시오. 나머지 편장들도 사방의 작은 길목마다 매복하게 하십시오. 밤중에 적군이 들이닥치면 중군에서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낼 것이니, 그때 사방에서 각자 적을 잡아들이면 됩니다."

노준의는 즉시 명령을 내려 모든 장수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대비하도록 했다.

한편, 남국의 왕 상서와 고 시랑 두 사람은 제법 계책이 있는 자들이라 방만춘 등과 상의한 뒤, 황숙 방후에게 올라 보고했다. "오늘 송군이 패하여 서른 리 밖으로 물러나 진을 쳤으니, 진영은 허술하고 군마는 분명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진영을 습격한다면 반드시 대승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방후가 말했다. "그대들이 깊이 의논하여 실행할 수 있겠다면 그리하라."

고 시랑이 말했다. "제가 방 장군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습격할 터이니, 상서님과 전하께서는 성을 굳건히 지키소서."

그날 밤, 두 장수는 무장을 갖추고 말을 탄 채 군사를 이끌고 전진했다. 말의 방울을 떼어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군사들은 입에 막대기를 물고 급히 달려가 송군의 진영에 당도했다. 진영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고 남군들은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 처음에는 밤을 알리는 경점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더니, 이내 북소리가 어지럽게 울려 퍼졌다.

고 시랑이 말을 멈춰 세우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방만춘이 물었다. “상공, 어찌하여 진격하지 않으십니까?”

고 시랑이 대답했다. “진영의 경점 소리가 불분명한 것을 보니, 필시 무슨 계책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방만춘이 말했다. “상공께서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패배하여 겁에 질려 있으니 분명 피곤할 것입니다. 잠결에 경점을 치다 보니 소리가 불분명한 것이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상공께서는 어찌 의심만 하십니까? 그저 가서 쳐부수기만 하십시오!”

고 시랑이 말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군.”

그들은 즉시 군사를 재촉하여 진영을 습격하며 기세 좋게 들이닥쳤다. 두 장수가 진영 문을 통과해 중군에 이르렀으나, 장수나 병사 하나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버드나무에 양 몇 마리가 묶여 있었는데, 양의 발에 북채를 매달아 북을 치게 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경점 소리가 어지럽게 들렸던 것이다. 빈 진영을 습격했다는 것을 깨달은 두 장군은 마음속으로 당황하여 급히 “함정이다!”라고 외치며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때 중군에서 이미 불길이 치솟았고, 산등성이에서는 포성이 울리며 불길이 번졌다. 사방에서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떼로 일어나 일제히 공격해 왔다. 두 장수가 진영 문을 박차고 도망치는데, 마침 호연작과 마주쳤다. 호연작이 크게 호통쳤다. “적장들은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그러면 죽는 것은 면하게 해주겠다!”

고 시랑은 겁에 질려 오로지 도망칠 생각뿐이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결국 호연작에게 쫓겨 잡히고 말았는데, 호연작이 쌍편을 내리치자 머리뼈가 반쯤 으스러졌다. 방만춘은 필사적으로 포위를 뚫고 나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런데 도망가던 중, 길가에 매복해 있던 탕륭을 미처 경계하지 못하여, 탕륭이 구겸창으로 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사로잡혀 끌려오고 말았다.

다른 장수들도 산길에서 남군을 추격하며 몰아붙였고, 날이 밝자 모두 진영으로 모여들었다. 노준의는 이미 중군에 도착해 앉아 있다가 즉시 명령을 내려 부하 장수들을 점검하게 했다. 이때 정득손은 산길 풀숲에서 독사에게 발을 물렸는데, 독이 복부로 퍼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들은 방만춘의 배를 가르고 심장을 꺼내어, 전사한 구팽과 사진 등의 넋을 기리는 제물로 삼았다. 그리고 그 머리를 베어 장 초토(招討)의 군영으로 보냈다.

다음 날, 노준의는 여러 장수와 함께 다시 군사를 재촉하여 섭주 성곽 아래까지 당도했다. 성문을 보니 닫혀 있지 않았고, 성 위에는 깃발 하나 보이지 않았으며 성루 위에도 병사가 전혀 없었다. 단정규와 위정국은 큰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군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이닥쳤다. 뒤따라오던 중군의 노준의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두 장수가 성문 안으로 들어간 뒤라 그저 탄식할 뿐이었다.

알고 보니 왕 상서는 진영 습격에서 병력을 잃자, 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척하며 성문 안에 함정을 파 놓았던 것이다. 두 장수는 한낱 필부

의 용맹만 믿고 미처 경계하지 못한 채 앞장서 들어갔고, 결국 사람과 말 모두 함정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 함정 양옆에는 장창수와 궁수들이 매복해 있다가 일제히 달려들어 찔러 죽이니, 두 장수는 함정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가련하게도 성수와 신화의 기세를 떨치던 이들이 오늘날 어찌하여 땅속 구덩이에 묻히게 되었단 말인가!

노준의는 장수 두 명을 잃은 것에 분노하여 즉시 전방의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병사들은 각자 흙덩이를 날라 성 안으로 들여보내며 함정을 메우는 동시에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들은 남군의 병사와 말을 쓰러뜨려 모두 함정 속으로 메워버렸다. 이어 노준의가 직접 말을 타고 앞장서 성 안으로 돌진하니, 마침 숙부 방후와 마주쳤다. 두 사람이 무기를 맞대고 단 한 합을 겨루었으나, 노준의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담아 평생의 위력을 발휘하며 박도를 내리치니 방후가 말 아래로 처박히며 죽었다. 성 안의 남군 군마들은 성 서문으로 열려 나가 흩어지듯 도망쳤고, 송군의 여러 장수는 힘을 합쳐 앞을 가로막으며 남군을 소탕했다.

한편, 왕 상서는 싸우던 중 이운과 맞닥뜨려 길을 막고 격전을 벌였다. 왕 상서가 창을 내지르며 달려들자 이운은 보병으로서 맞서 싸웠다. 그러나 왕 상서가 창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붙이는 바람에 이운은 금세 말 아래로 짓밟혀 쓰러졌다. 이를 본 석용이 이운을 구하기 위해 급히 돌진했으나, 왕 상서의 창술이 귀신처럼 변화무쌍하니 석용이 어찌 막아낼 수 있겠는가? 왕 상서와 몇 합을 겨루던 중 기회를 잡은 그가 석용을 창으로 찔러 그 목숨을 끊어놓았다.

그때 성 안에서 손립, 황신, 추연, 추윤 네 장수가 달려 나와 왕 상서를 가로막고 싸우기 시작했다. 왕 인은 용맹을 떨치며 네 장수를 상대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웠다. 그런데 마침 임충까지 나타나 가세하니, 왕 인이 설령 삼두육비(세 개의 머리와 여섯 개의 팔)를 가진 신통한 능력을 가졌다 해도 다섯 장수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장수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왕 인을 난도질해 죽이니, 가련하게도 남국의 상서 장수가 뜻을 다 펼치기도 전에 오늘날 목숨을 잃고 말았다. 다섯 장수는 즉시 왕 인의 머리를 베어 말을 달려 노준의에게 바쳤다.

노준의는 이미 섭주 성 안의 행궁에서 휴식을 취하며 백성들을 달래고, 방을 붙여 민심을 안정시킨 뒤 군마를 성 안에 주둔시키고 있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승전보를 담은 서신을 보내 장 조타에게 알리고, 송군 선봉장에게도 서신을 보내 진격할 것을 통지했다.

한편, 송강과 장수들은 목주에 진을 치고 군사가 모두 모이기를 기다리며 적의 근거지를 함께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준의의 서신을 통해 섭주를 평정했으며, 군사들이 이미 성 안에 주둔하여 진격하여 적의 소굴을 함락시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동시에 사진, 석수, 진달, 양춘, 이충, 설영, 구팽, 장청, 정득손, 단정규, 위정국, 이운, 석용 등 열세 명의 장수와 수많은 장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장수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하며 애통해했다.

군사 오용이 위로하며 말했다. "삶과 죽음은 모두 하늘의 명에 달려 있는 법인데, 주장께서는 어찌하여 몸을 상해가며 자책하십니까? 부디 나라의 큰일을 먼저 돌보소서."

송강이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구나! 처음 석갈천문(石碣天文)에 기록된 인원이 백여덟 명이었는데, 어찌하여 여기까지 오니 하나둘씩 스러져 나의 형제들을 잃게 되는단 말인가."

오용이 송강을 달래어 슬픔을 가라앉힌 뒤, 노준의에게 답장을 보내 청계현을 공격할 날짜를 정하여 함께 진격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송강이 노준의에게 답장을 보내 진격할 날짜를 정하는 동안, 방랍은 청계 방원동의 궁궐에서 조회를 열고 문무백관과 함께 송강의 군사 작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이때 서주에서 패잔병들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섭주가 이미 함락되었으며 숙부와 상서, 시랑이 모두 전사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 송나라 군사가 두 갈래로 나뉘어 청계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했다. 방랍은 이 보고를 듣고 크게 놀라 즉시 대신들을 모아 상의했다.

방랍이 말했다. “경들은 저마다 관직을 받고 주와 군의 성들을 차지하며 부귀를 함께 누려왔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송강의 군마가 휩쓸고 들어와 성들이 모두 함락되고, 오직 이곳 청계의 궁궐만 남게 되었단 말인가! 이제 송군이 두 길로 몰려온다 하니, 어찌 적을 맞이해야 하겠는가?”

이때 좌승상 루민중이 나서서 아뢰었다. “지금 송군의 병력은 이미 신주 근처까지 다다랐으니, 내원과 궁궐 또한 지키기 어렵사옵니다. 다만 병력이 적고 장수가 부족하니, 폐하께서 친히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지 않으신다면 병사들이 온 마음을 다해 싸우려 하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방랍이 말했다. “경의 말이 지당하오!”

방랍은 즉시 성지를 내려 삼성육부와 어사대 관리, 추밀원과 도독부의 호위군, 그리고 두 영의 금오위와 용호위, 크고 작은 관료들에게 명하여, 모두 과인을 따라 친정(親征)에 나서 이 결전을 치르도록 했다.

루 승상이 다시 아뢰었다. “어떤 장수를 보내 전방의 선봉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방랍이 말했다. “전전금오상장군의 내외 군사들을 불러 모아, 황조카인 방결을 정선봉으로 삼고, 마보친군 도태위이자 표기상장군인 두미를 부선봉으로 삼으라. 또한 방원동 궁궐을 호위하는 어림군 만 삼천 명과 전투 장수 삼천여 명을 전방으로 전진시켜라.”

알고 보니 방결은 방랍의 친조카이자 섭주에서 전사한 방후의 장손이었다. 그는 송군 선봉장 노준의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원수를 갚고자 스스로 전방 선봉이 되겠다고 자원한 것이었다. 방결은 평소 무예를 익혀 방천화극을 다루는 데 능했으며, 만 명의 적도 당해내지 못할 용맹을 지니고 있었다.

두미는 본래 섭주 시내의 대장장이 출신으로 무기를 만드는 데 능했을 뿐만 아니라, 방랍의 심복으로서 여섯 개의 비도를 다루는 데 능했으나 보병으로서 싸우는 자였다. 방랍은 별도의 성지를 내려 어림호위 도교사 하종룡을 파견하고, 어림군 만 명을 붙여 병마를 총괄하게 하여 섭주의 노준의 군마를 막아내게 했다.

방랍이 병력을 나누어 두 곳에서 적을 맞이하도록 배치하는 동안, 송강의 대군도 출발했다. 수륙 양면으로 진격하는 송군은 목주를 떠나 청계현을 향해 나아갔다. 수군 두령 이준 등은 수군 선박들을 이끌고 여울을 따라 배를 저어 올라갔다.

한편, 오용과 송강은 말을 나란히 타고 가며 상의했다. "이번에 청계 방원동을 치러 가는 것은, 적의 우두머리 방랍이 눈치를 채고 도망칠까 봐 참으로 걱정됩니다. 깊은 산과 넓은 들판이라 그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방랍을 생포하여 경사(수도)로 압송해 천자를 직접 뵙게 하려면, 반드시 안팎에서 호응하여 본인을 확인한 뒤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방랍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그 행방을 알아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렇다면 속임수를 써서 항복하는 척하며 적의 계책을 역이용해야만 안팎으로 호응할 수 있을 것이오. 지난번에는 시진과 연청을 세작으로 보냈으나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니,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겠소? 반드시 항복하는 연기를 잘할 수 있는 자여야 하오."

오용이 말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수군 두령 이준 일행에게 배에 실린 식량을 가지고 항복하는 척하며 바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적이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랍 그자는 산골에 처박혀 사는 소인배라, 수많은 식량과 배를 보면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군사님의 식견이 참으로 높으십니다!"

송강은 즉시 대종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 수로를 통해 이준에게까지 이르도록 이와 같은 계책을 전하여 장수들이 실행하게 했다. 대종은 명령을 마치고 중군으로 돌아갔다.

이준은 곧바로 완소오와 완소칠에게 사공 역할을 맡기고, 동위와 동맹에게는 수행 수병 역할을 맡겼다. 이들은 예순 척의 식량 배를 몰고, 배마다 새로 갈아 끼운 식량 봉헌용 깃발을 꽂은 채 큰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 청계현 근처에 이르니, 물줄기 상류에서 이미 남국의 전선들이 나타나 맞이하며 적군이 일제히 화살을 퍼부었다.

이준이 배 위에서 외쳤다. “화살을 쏘지 마시오! 드릴 말씀이 있소. 우리는 모두 항복하러 온 사람들이오. 특별히 식량을 대국에 바쳐 군사들을 보조하려 하니, 부디 받아주시오!”

적선에 탄 우두머리들이 보니, 이준 등의 배에는 무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화살을 쏘지 않고 사람을 보내 자세한 사정을 물었다. 배 안의 식량을 확인한 그들은 즉시 루 승상에게 달려가 이준이 식량을 바치며 항복하러 왔다고 보고했다. 루민중은 보고를 듣고 항복하러 온 사람들을 육지로 불러들였다.

이준이 육지에 올라 루 승상을 보고 절을 올리자, 루민중이 물었다. “그대는 송강의 수하 중 누구이며,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가? 이번에 어찌하여 식량을 바치며 항복하러 왔는가?”

이준이 대답했다. “소인은 성은 이요 이름은 준이라 하며, 본래 심양강의 호걸이었사옵니다. 강주에서 형장을 습격하여 송강의 목숨을 구한 적도 있사옵니다. 그는 이제 조정의 초안을 받아 선봉장이 되더니,

저와 같은 옛 은혜를 잊고 번번이 저를 곤욕스럽게 하였사옵니다. 지금 송강은 비록 큰 나라의 주와 군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하의 형제들은 차례차례 죽어 없어지고 있사옵니다. 그는 여전히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지 못한 채, 저희 수군에게 억지로 앞장서라며 위협만 일삼고 있사옵니다. 이에 수치를 견디다 못하여, 송강의 식량 배를 몰래 가져와 대국에 바치며 항복하러 왔사옵니다."

이준의 말을 들은 루 승상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이준을 데리고 궁궐로 들어가 방랍을 알현하게 하여 식량을 바치며 항복한 일을 보고했다. 이준이 방랍을 보고 절을 올리며 앞서 말한 일을 아뢰자, 방랍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준, 완소오, 완소칠, 동위, 동맹에게 청계의 수채에 머물며 배를 지키게 하고, 과인이 송강의 군마를 물리치고 조정으로 돌아갈 때 별도로 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은 감사의 절을 올린 뒤, 안으로 들어가 식량을 육지로 옮겨 창고에 들여놓느라 여념이 없었다.

한편, 송강과 오용이 병력을 나누어 배치하기를, 관승, 화영, 진명, 주동 네 명의 정장을 전대로 삼아 청계현 경계로 직진하게 했다. 그러자 남국의 황조카 방결이 그들을 맞이하러 나왔다. 양측 군사들은 각자 진세를 갖추어 늘어섰다. 남군 진영에서는 방결이 창을 가로로 쥐고 말을 몰아 나왔고, 두미는 그 뒤를 걸어서 따랐다. 두미는 갑옷을 갖춰 입고 등에 다섯 자루의 비도를 숨겼으며, 손에는 칠성보검을 들고 뒤를 따르고 있었다.

두 장수가 진영 앞으로 나아가자, 송군 진영에서는 진명이 먼저 말을 타고 나서며 낭아대곤을 휘두르며 방결을 향해 돌진했다. 방결은 젊

은 혈기 덕분에 기세가 등등했으며, 방천화극을 능숙하게 다루어 진명과 서른 합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방결은 진명의 수단이 매우 고강함을 보고 자신도 평생 익힌 무예를 다 쏟아내며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한창 승부를 겨루고 있을 때, 진명 또한 실력을 발휘하며 방결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진명은 뒤에 있는 두미를 경계하지 못했다. 두미는 말 뒤에서 방결이 진명을 압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말 뒤에서 슬그머니 나타나 비도를 뽑아 진명의 얼굴을 향해 날려 보냈다. 진명이 급히 비도를 피하려던 찰나, 방결이 휘두른 방천화극에 정통으로 맞아 말에서 떨어지며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가련하도다, '벽력화'라 불리던 이가 천지를 뒤흔들 듯 기세를 떨치더니, 죽음은 이토록 소리 없이 찾아왔구나.

방결은 창으로 진명을 찔러 죽였으나, 감히 적진을 향해 추격하지는 못했다. 송군의 소장들이 급히 갈고리를 던져 진명의 시신을 끌어당겼다. 송군 장수들은 진명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안색이 변했다. 송강은 즉시 관을 준비하여 시신을 잘 모시도록 명하는 한편, 다시 군사들을 배치하여 전투에 나서게 했다.

한편, 승기를 잡은 방결은 기세가 등등하여 진영 앞에서 크게 외쳤다. "송나라 군사 중에 용맹한 자가 더 있다면 어서 나와서 나랑 한판 붙어보자!"

송강은 중군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급히 진영 앞으로 나갔다. 그러자 맞은편에서 싸우던 방결의 바로 뒤에 방랍의 어가가 나타나 군대 앞으로 다가와 진을 펴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금과(金瓜)가 빽빽이 깔리고, 철부(鐵斧)가 가지런히 늘어섰다. 방천화극은 줄을 지어 세워져 있고, 용과 봉황이 수놓아진 깃발들이 뒤를 따랐다. 깃대와 깃발들은 초록빛과 붉은빛이 뒤섞여 춤추듯 펄럭이고, 옥으로 장식한 등자와 조각된 안장에는 구슬들이 초록빛을 두른 채 무리 지어 빛났다. 비룡산(飛龍傘)은 푸른 구름과 자줏빛 안개처럼 흩날리고, 비호기(飛虎旗)는 상서로운 기운과 신비로운 안개처럼 펼쳐져 있었다. 왼쪽 시종으로는 문관들이 줄지어 서 있고, 오른쪽 시종으로는 무장들이 가득 늘어섰으니, 비록 천자의 자리를 망령되이 칭하고 있으나, 그 격식만큼은 가짜 재신(宰臣)들의 반열을 흉내 내고 있었다.

남국 군대의 진영을 보니, 아홉 번 굽이진 황금 비단 일산(黃羅傘) 아래로 옥으로 장식한 고삐를 쥔 채 말 위에 유유자적하게 앉아 있는 초두왕자(草頭王子) 방랍의 모습이 보였다. 그 차림새는 이러하였다.

머리에는 하늘을 찌를 듯 꺾인 금빛 관을 쓰고,
몸에는 해와 달, 구름과 아홉 마리 용이 수놓인 도포를 입었네.
허리에는 보석을 박아 넣은 영롱한 금 옥대를 띠고,
발에는 금실로 구름무늬를 새긴 화려한 신을 신었구나.

방랍은 은빛 갈기의 백마를 타고 진영 앞으로 나와 직접 전투를 감독했다. 송강이 말 위에 있는 것을 보자, 방랍은 방결을 내보내 송강을

사로잡으라 명했다. 이편의 송나라 장수들도 방랍을 잡기 위해 맞서 싸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방결이 막 출전하려는데, 갑자기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와 보고했다. "어림도교사 하종룡이 군마를 총독(지휘)하여 흡주를 구하러 가던 중, 송나라 노 선봉에게 산 채로 사로잡혀 진영 너머로 끌려갔습니다! 군마들은 모두 흩어졌고, 송나라 군사들이 이미 산 뒤편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방랍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급히 성지를 내려 군사를 거두고 대내(궁궐)를 지키라 명했다. 방결은 두미에게 진영을 지키게 한 뒤, 방랍의 어가를 먼저 보내고 자신과 두미는 뒤따라 물러났다.

방랍의 어가가 청계주 경계에 이르렀을 때, 성안에서는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과 불길이 치솟고 병사들이 뒤엉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이준, 완소오, 완소칠, 동위, 동맹이 청계성 안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이를 본 방랍은 어림군을 몰아 성안을 구하러 들어갔고, 성안에서는 혼전이 벌어졌다. 송강의 군사들은 남군이 퇴각하는 것을 보고 뒤쫓아 살육을 벌였다. 청계에 도착한 송강은 성안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이준 등이 일을 저지른 것을 알아차린 뒤, 급히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군마를 몰아 각지로 나누어 들어가게 했다. 이때 노 선봉의 군사들도 막 산을 넘어오고 있어 양쪽이 서로 호응하며 때마침 합류하게 되었다. 사방에서 송나라 군사가 청계 대내를 협공했다. 송강을 비롯한 여러 장수가 사방팔방에서 들이닥쳐 남군을 낱낱이 수색하며 몰아붙였고, 결국 청계성을 함락시켰다. 방랍은 방결이 이끄는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겨우 몸을 피해 방원동으로 도망쳤다.

송강의 대부대가 청계현으로 들어왔다. 장수들은 방랍의 궁궐로 쳐들어가 금지된 무기와 병기, 금은보화들을 거두고 창고를 샅샅이 뒤졌다. 이어 전각에 불을 질러 방랍의 안팎 궁전을 모두 태워버렸고, 창고의 돈과 식량도 모조리 털어갔다. 송강은 노준의의 군사와 합류하여 청계현 내에 진을 치고, 장수들을 불러 모아 공을 치하하며 상을 내렸다.

양쪽 장수들의 전사 상황을 점검해 보니, 키 큰 사내 욱보사와 여장수 손이낭은 모두 두미의 비도에 맞아 죽었고, 추연과 두천은 기병들 속에서 밟혀 죽었다. 이립, 탕륭, 채복은 모두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못하고 숨졌다. 완소오는 앞서 청계현에서 이미 루 승상에게 살해당했다. 장수들이 남국의 가짜 관리 92명을 사로잡아 공을 세웠기에 상을 내리는 일은 모두 끝났으나, 루 승상과 두미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 우선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킨 뒤, 생포한 가짜 관리들을 장 초토(張招討)의 군영 앞으로 압송하여 참수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였다.

나중에 백성들이 보고하기를, 루 승상은 완소오를 죽인 뒤 대군이 청계현을 함락시키는 것을 보고 소나무 숲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결했다고 했다. 두미 그놈은 자신이 기르던 기생 왕교교의 집에 숨어 있었으나, 마을 노인이 그를 고발하여 붙잡혔다. 송강은 노인에게 상을 내린 뒤, 먼저 루 승상의 머리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채경에게 명하여 두미의 배를 갈라 심장을 꺼내게 한 뒤, 그 피를 진명, 완소오, 욱보사, 손이낭을 비롯해 청계에서 전사한 장수들에게 제물로 바치게 했다. 송강은 직접 향을 피워 제사를 마쳤다. 다음 날, 그는 노준의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방원동 입구까지 곧장 진격하여 포위했다.

한편, 방랍은 방결이 호위하는 가운데 겨우 몸을 피해 방원동 입구의 대내(궁궐)에 도착했다. 그는 그곳에 군마를 주둔시키고 동굴 입구를 굳게 지키며 적을 맞으러 나가지 않았다. 송강과 노준의는 군마를 몰아 방원동을 겹겹이 에워쌌으나, 안으로 들어갈 방도가 없었다.

한편, 방원동에 있는 방랍은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초조했다. 양측 군대가 며칠째 대치하며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방랍이 근심에 잠겨 있을 때였다. 갑자기 전각 아래로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대신이 금계(金階, 금으로 만든 계단) 아래 엎드려 아뢰었다.

"왕이시여, 신이 비록 재주가 부족하나 주상의 성은이 넓으심을 입어 보답할 길이 없나이다. 다만 예부터 배운 병법과 평소 익힌 무공을 바탕으로, 육도(六韜)와 삼략(三略)의 이치를 듣고 칠종칠금(七縱七擒)의 수법을 익혔나이다. 바라건대 주상의 군마를 빌려주신다면, 송나라 군사를 물리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싶사옵니다. 주상의 성의는 어떠하신지요?"

방랍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칙령을 내려, 동굴 안의 부병과 군마를 모두 점검하게 한 뒤 이 장수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 송강과 맞서 싸우라 명했다.

승패가 어떠할지는 알 수 없으나, 먼저 그 위용이 남다를 것이다. 방랍의 나라에서 다시금 이런 인물이 나타나 군사를 이끈다면, 금계 아래에서는 머리가 굴러다니고 옥으로 만든 궁궐 문 앞에는 뜨거운 피가 뿜어져 나올 것이다. 그리하여 송강은 소굴을 깨끗이 소탕하고 방랍을 사로잡아 큰 공을 세우게 될 것이다.

결국 방랍의 나라에서 군사를 이끌고 나온 이는 과연 누구일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0회 — 노지심이 절강에서 좌화하고, 송강이 금의환향하다

魯智深浙江坐化 宋公明衣錦還鄉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방랍의 전각 앞에서 출전하여 군사를 이끌기를 청한 이는 바로 황실의 부마이자 도위인 가인이었다. 방랍은 이 상소를 보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다. 가인은 즉시 남군을 이끌기로 하고, 운벽봉위와 함께 갑옷을 갖춰 입고 말을 타고 출전 준비를 마쳤다. 방랍은 자신이 입던 금갑과 비단 도포를 가인에게 하사하고, 잘 길들여진 준마 한 필을 골라 그에게 주며 출전하라 일렀다. 가인은 황제의 조카인 방걸과 함께 동굴을 지키는 호어군 만 명을 이끌고, 앞장설 상장 스무여 명을 거느린 채 방원동 입구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한편, 송강의 군사들이 동굴 입구를 가로막고 서자, 장수들은 이미 각자 자리를 나누어 수비에 들어갔다. 송강은 진영 안에서 부하 형제들이 세 부대 중 두 부대나 손실을 입은 것을 보았으나, 방랍을 잡지도 못하고 남군마저 출전하지 않으니 미간을 찌푸리며 근심 어린 기색을 띠었다. 그때 앞장선 부대에서 "동굴 안에서 군마들이 나와 교전 중이

다!"라는 보고가 들려왔다. 송강과 노준의는 보고를 듣자마자 급히 장수들에게 말을 타라 명하고 군사를 이끌고 출전했다. 진을 펼쳐 보니, 남군 진영의 선두에는 가인 부마가 출전해 있었다.

송강의 군사들 중 누가 그가 시진임을 모르겠는가? 송강은 즉시 화영에게 출마하여 적을 맞이하라 명했다. 화영은 명령을 받자마자 창을 옆으로 뉘어 말을 타고 진영 앞으로 나아가 큰 소리로 꾸짖었다. "네 이놈, 정체가 무엇이냐! 감히 반역자를 도와 우리 대군에 맞서다니! 내가 너를 잡기만 하면 몸을 갈기갈기 찢어 뼈와 살을 진흙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순순히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가인 부마가 대답했다. "나는 산동의 가인이다. 내 이름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같은 양산박의 강도 떼 따위가 무엇이 대수라고! 내가 너희만도 못할 것 같으냐? 내 너희를 모조리 죽이고 성을 되찾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송강과 노준의는 말 위에서 그 말을 듣고, 시진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그의 속사정을 알아차렸다. 시진이 '시(柴)' 자를 '가(柯)' 자로 바꿨으니 '시'가 곧 '가'요, '진(進)' 자를 '인(引)' 자로 바꿨으니 '진'이 곧 '인'이었다. 오용이 말했다. "우선 화영이 적을 상대하는 것을 봅시다."

이에 화영이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가인과 맞붙었다. 두 말이 맞부딪치자 병기들이 부딪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 장수는 한데 뒤엉켜 격렬하게 싸웠다. 이때 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잠시 패하는 척하며 물러나십시오. 나중에 다시 논의합시다." 화영은 그 말을 듣고 세 합 정도 싸우더니, 말을 돌려 퇴각했다. 가인 부마가 호통을

쳤다. "패잔병 놈아, 쫓아가지 않겠다! 하지만 더 대단한 놈이 있다면 나와서 나와 맞붙어 보자!"

화영이 말을 몰아 진영으로 돌아와 송강과 노준의에게 전말을 보고했다. 오용이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관승을 보내 맞서 싸우게 하십시오." 관승이 청룡언월도를 휘두르며 말을 타고 출전하여 크게 외쳤다. "산동의 애송이 장수여, 감히 나와 맞서겠느냐?" 가인 부마는 창을 들고 즉시 맞서 나갔다. 두 사람이 맞붙었으나 누구 하나 겁내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두 장수가 다섯 합을 채 넘기지 못하자, 관승 역시 패하는 척하며 본진으로 물러났다. 가인 부마는 쫓아가지 않고 진 앞에서 크게 외쳤다. "송나라 군사 중에 감히 강한 장수가 나와 나와 대적할 자는 없느냐!"

송강이 다시 주동을 내보내 시진과 맞붙게 했다. 두 사람이 서로 죽일 듯이 싸우며 군사들의 눈을 속였다. 주동이 대여섯 합을 버티지 못하자 패하는 척하며 달아났다. 시진이 뒤쫓아와 허공에 창을 한 번 휘두르자, 주동은 말을 버려두고 본진으로 도망쳤고, 남군이 먼저 그 좋은 말을 차지했다. 가인 부마가 남군을 휘저으며 몰아치자, 송강은 급히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이끌고 십 리 밖으로 물러나 진을 치게 했다. 가인 부마가 군사를 이끌고 한참을 추격하다가, 결국 병사를 거두고 동굴 안으로 돌아갔다.

이미 누군가 먼저 달려가 방랍에게 보고하며 말했다. "가인 부마가 이토록 영웅적이라, 송나라 군사를 격퇴하고 장수 세 명을 연달아 물리쳤습니다. 송강 일행은 또 한 부대를 잃고 십 리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방랍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연회를 베풀게 했다. 그리고 부마가 갑옷을 벗고 무장을 해제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후궁으로 맞아들여 자리를 권했다. 방랍은 직접 금잔을 받들어 가인 부마에게 술을 권하며 말했다. "부마가 이토록 문무를 겸비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소! 과인은 그저 사위가 문재(文才)를 갖춘 선비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토록 영웅호걸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 주와 군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오. 부디 부마께서 기량을 마음껏 펼쳐 역적의 장수들을 베고 가업을 다시 일으켜, 과인과 함께 영원한 태평성대의 부귀를 누립시다."

가인이 아뢰었다. "주상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신하 된 도리로 마땅히 온 마음을 다해 보필하여 나라의 운명을 함께 일으키겠습니다. 내일은 부디 성상께서 산에 오르시어, 이 가인이 싸우는 모습을 보시고 송강 무리들을 단칼에 베어 넘기는 것을 지켜봐 주십시오."

방랍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그날 밤 연회가 깊어질 때까지 즐기다 각자 궁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방랍은 조회를 열고 동굴 안에서 소를 잡고 말을 도살하게 하여 삼군 장병들이 배불리 먹게 했다. 그러고는 각자 갑옷을 갖춰 입고 말을 타게 하여 방원동 입구로 나가 깃발을 흔들고 함성을 지르며 북을 울려 전투를 청하게 했다. 한편 방랍은 내시와 측근들을 거느리고 방원동 산 정상에 올라가 가인 부마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편, 송강은 당일 명령을 내려 장수들에게 분부했다. "오늘의 전투는 여느 때와 다르다.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너희 장수들은 각자 마음을 다해 역적의 수괴 방랍을 생포하되, 함부로 죽이지 마라! 군사들은 남군 진영에서 시진이 말을 돌려 이끄는 것을 보고, 즉시

동굴 안으로 쳐들어 가 힘을 합쳐 방랍을 뒤쫓아라. 결코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삼군의 장수들은 명령을 받자 주먹을 불끈 쥐고 칼과 창을 뽑아 들었다. 모두 동굴 안의 금은보화를 약탈하고 방랍을 생포하여 공을 세워 상을 받기를 갈망했다. 당시 송강의 장수들은 모두 동굴 앞으로 모여들어 군마를 배치하고 진형을 갖추었다. 남군 진영을 보니, 가인 부마가 문기(門旗) 아래 서서 막 출전하려 하고 있었다. 이때 황질(조카) 방걸이 말을 타고 창을 가로로 든 채 말했다. "도위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다리십시오. 저 방걸이 먼저 송나라 장수 하나를 베고 난 뒤에, 도위께서 출마하여 적과 맞서 싸우시면 됩니다."

송나라 군사들은 연청이 시진의 뒤를 따르는 것을 보고 장수들이 모두 기뻐하며 말했다. "오늘 반드시 계책이 성공하겠구나!" 각자 스스로 전투 준비를 마쳤다. 황질 방걸이 앞장서서 말을 달려 전투를 청하자, 송강의 진영에서 관승이 출마하여 청룡언월도를 휘두르며 방걸과 맞붙었다. 두 장수가 말을 맞대고 공방을 주고받으며 몇 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송강이 다시 화영을 내보내 방걸과 함께 싸우게 했다. 방걸은 두 장수가 협공해 오는 것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힘껏 맞서 싸웠다. 다시 몇 합을 더 싸웠으나 승부를 내기는 어렵고 그저 서로 막아내며 피하기에 급급했다. 송강의 진영에서 다시 이응을 불러내자, 주동이 말을 몰아 출전하여 힘을 합쳐 방걸을 추격했다. 방걸은 네 장수가 협공해 오는 것을 보고서야 겨우 말을 돌려 본진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때 가인 부마가 문기 아래에서 길을 막아선 뒤 손짓을 하자, 송나라 장수 관승, 화영, 주동, 이응 네 장수가 달려왔다. 가인 부마는 손에 든 철창을 치켜들고 방걸을 향해 돌진했다. 방걸은 형세가 좋지 않음을 깨닫고 급히 말에서 내려 도망치려 했으나,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시진의 창에 찔리고 말았다. 뒤따라오던 운봉위 연청이 칼을 휘둘러 방걸을 베어 넘겼다. 남군의 장수들은 깜짝 놀라 넋을 잃고 각자 살길을 찾아 도망쳤다. 가인 부마가 크게 외쳤다. "나는 가인이 아니다! 나는 송(宋) 선봉(송강) 휘하의 정장 '소선풍' 시진이다! 나를 수행하는 운봉위는 바로 '낭자' 연청이다! 이제 동굴 안팎의 사정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 만약 방랍을 생포하는 자가 있다면 높은 관직을 내리고 좋은 말을 골라 줄 것이다! 삼군 중 투항하는 자는 모두 칼날을 면하겠지만, 저항하는 자는 그 일가족을 모두 참수하겠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네 장수를 이끌고 대군을 몰아 동굴 안으로 쳐들어갔다.

방랍은 내시와 측근들을 거느리고 방원동 정상에서 방걸이 죽고 삼군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사태가 급박함을 직감한 방랍은 금으로 만든 의자를 걷어차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다. 송강은 대부대를 이끌고 다섯 갈래로 나누어 동굴 안으로 들이닥쳐 방랍을 잡으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방랍은 이미 달아난 뒤였고 시종들만 잡을 수 있었다. 연청은 동굴 안으로 뛰어 들어가 심복 몇 명을 데리고 창고로 가서 금과 진주 등 귀한 물건 두 짐을 약탈해 나온 뒤, 내궁과 금원(禁苑)에 불을 질렀다. 시진이 동궁으로 쳐들어갔을 때, 금지공주는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시진은 이를 보고 궁궐과 정원을 모두 태워버리고, 아래의 하인들을 풀어 각자 살길을 찾게 했다. 장수들은 모두 정궁으로 들어가 후궁과 궁녀, 친위병, 황실 친척들을 모두 죽이고 방랍의 내궁에 있던

금은보화를 약탈했다. 송강은 장수들을 크게 풀어 궁궐 안을 샅샅이 뒤지며 방랍을 찾게 했다.

한편, 완소칠은 내원 깊숙한 궁궐 안으로 쳐들어 가 상자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 안에는 방랍이 위조한 평천관, 곤룡포, 벽옥띠, 백옥 규, 무우리(무우신)가 들어 있었다. 완소칠이 보니 그 위에는 진주와 보석이 박혀 있고 용과 봉황의 비단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방랍이 입는 것이니, 내가 한번 입어본들 어떠하리.' 그는 곧 곤룡포를 입고 벽옥띠를 맸으며, 무우리를 신고 평천관까지 머리에 썼다. 그리고 백옥 규를 품속에 꽂은 채 채찍을 손에 쥐고 말을 타고 궁궐 앞으로 달려 나갔다. 삼군의 장수들은 그가 방랍인 줄로만 알고 일제히 소란을 피우며 몰려와 살펴보니, 뜻밖에도 완소칠이 아닌가 하여 모두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완소칠은 그저 장난을 칠 생각으로 말을 타고 이리저리 누비며 장수들이 약탈하는 모습을 구경했다.

한창 소란스러울 때, 마침 동 추밀(童樞密, 동관)이 데려온 대장 왕품과 조담이 전투를 돕기 위해 동굴로 들어왔다. 삼군이 떠들썩하게 방랍을 잡았다는 소리를 듣고는 공을 세우려고 곧장 달려온 것이었다. 그런데 왕품과 조담의 눈에 보인 것은 황제의 옷을 입고 평천관을 쓴 채 희롱하고 있는 완소칠이었다. 왕품과 조담이 꾸짖으며 말했다. "이놈아, 네가 감히 방랍이라도 된 양 그 꼴을 하고 있느냐!"

완소칠이 크게 노하여 왕품과 조담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 두 놈은 정말 가관이로구나! 우리 형님 송강이 아니었더라면, 너희 같은 나귀·말 대가리 놈들은 진작에 방랍에게 목이 달아났을 것이다! 오늘 우

리 장수 형제들이 공을 세웠는데, 사정은 하나도 모르면서 조정에서 보낸 대장이라 착각하고 도리어 우리를 괴롭히느냐!"

왕품과 조담은 크게 화가 나 완소칠과 맞붙으려 했다. 그때 완소칠이 소교(小校)의 창을 빼앗아 들고 달려들어 왕품을 찌르려 했다. 이를 본 호연작이 급히 말을 달려와 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미 군관이 송강에게 보고를 마친 뒤였다. 송강이 말을 달려 도착해 보니 완소칠이 황제의 옷을 입고 있었다. 송강과 오용은 급히 말에서 내리게 하고는 그가 입은 금지된 옷을 벗겨 한쪽으로 던져 버렸다. 송강이 곁에서 달래며 말렸다. 왕품과 조담 두 사람은 송강과 다른 장수들의 만류로 싸움은 멈추었으나, 마음속에는 깊이 원한을 품게 되었다.

그날 방원동 안은 베어 넘긴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고, 흘러넘친 피가 도랑을 이룰 정도였다. 송나라의 기록에 따르면, 방랍의 만병(蠻兵) 이만여 명의 머리가 베어졌다. 송강은 즉시 명령을 내려 사방에 불을 지르게 하여 궁전을 불태우도록 했다. 용루와 봉각, 내원과 깊은 궁궐, 그리고 구슬로 장식된 처마와 비취빛 집들이 모두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황옥(임금의 궁궐)과 붉은 누각이 구름에 반쯤 닿았는데,
백성의 기름과 피를 발라 지었어도 스스로 흡족해하는구나.
만약 하늘이 이런 사치를 용납했더라면,
걸왕의 경실(瓊室)과 진(秦)의 아방궁인들 어찌 불타지 않았으랴.

그때 송강과 여러 장수가 궁전이 불타는 것을 지켜본 뒤, 군대를 이끌고 동굴 입구에 진을 쳤다. 진영을 구축하고 나서 생포한 적의 숫자를 세어보니, 오직 괴수 방랍만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송강은 즉시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려 군사들이 산을 따라 샅샅이 수색하게 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방랍을 잡는 자는 조정에 보고하여 높은 관직을 내릴 것이며, 알고도 고발하는 자에게는 즉시 상을 내리겠다고 방을 붙였다.

한편, 방랍은 방원동 산꼭대기에서 길을 따라 도망치고 있었다. 그는 깊은 산과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고개를 넘고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러고는 입고 있던 황갈색 도포를 벗어 던지고, 금색 꽃무늬가 있는 복두(머리 장식)와 조정의 신발을 벗어 버린 채, 짚신을 신고 산을 기어 다니며 목숨을 구하려 달아났다. 밤새도록 다섯 개의 산봉우리를 넘어 어느 산골짜기 근처에 이르렀을 때, 산골짜기 안에 박힌 듯 자리 잡은 초가집 하나를 발견했다. 방랍은 배가 너무 고파서 막 초가집 안으로 들어가 밥을 좀 찾아 먹으려는데, 갑자기 소나무 뒤에서 덩치 큰 스님 하나가 나타나더니 선장(禪杖)으로 방랍을 때려 눕히고는 곧장 밧줄로 꽁꽁 묶어 버렸다.

그 스님은 다름 아닌 '화화상' 노지심이었다. 노지심은 방랍을 잡아 초가집으로 데려가 밥을 좀 먹고 막 산을 내려가려는데, 마침 산을 수색하던 군사들과 마주치게 되어 그대로 묶은 채 송강 선봉에게 데려갔다. 송강은 방랍을 잡은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스님, 어찌하여 이 괴수를 딱 맞춰 잡으셨습니까?"

노지심이 대답했다. "제가 오룡령 만송림에서 싸우다가 하후성을 쫓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싸움에 미친 적병들을 죽이며 어지러운 산 깊은 곳까지 곧장 쫓아 들어갔지요. 길을 잃고 헤매며 길을 따라가다 보니 넓은 들판이 있는 임랑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갑자기 노승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노승이 저를 이 초가집으로 안내하며 말하기를, '땔감과 쌀, 채소는 다 있으니 여기서 기다리시오. 다만 숲속 깊은 곳에서 덩치 큰 사내가 나타나면 즉시 붙잡으시오'라고 당부하더군요. 밤이 되어 산 앞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밤새 지켜보았으나, 이곳의 산길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마침 이 도적이 산을 넘어오는 것을 보았기에, 제 선장으로 때려눕혀 묶어버렸는데 뜻밖에도 방랍일 줄이야!"

송강이 다시 물었다. "그 노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지심이 말했다. "그 노승은 저를 초가집으로 안내해 먹을 것을 챙겨주더니,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 스님은 분명 성스러운 나한이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신통력을 발휘하여 스님께 큰 공을 세우게 하였으니, 경성으로 돌아가 조정에 보고하면 속세로 돌아와 관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성에서 자식들도 돌보고 처도 호강시키며, 조상의 이름을 빛내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노지심이 대답했다. "제 마음은 이미 재가 되어 사라졌으니, 관직 따위는 원치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깨끗이 씻을 곳을 찾아 몸을 의탁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송강이 다시 말했다. "스님께서 속세로 돌아오기 싫으시다면, 경성으로 가셔서 이름난 큰 절의 주지가 되십시오. 그러면 승려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종교의 위엄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부모님께도 보답이 될 것입니다."

노지심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외쳤다. "다 필요 없습니다! 많아 보아야 소용없습니다. 그저 온전한 시신 한 구를 얻는 것으로 족합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묵묵히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으나, 두 사람 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곧 부하 장수들을 점검하여 인원을 모두 채운 뒤, 방랍을 함거(陷車)에 실어 단단히 결박하게 했다. 그리고는 동경으로 압송해 천자를 알현하게 하고, 삼군을 재촉하여 장수들을 거느리고 방원동 청계현을 떠나 모두 목주로 돌아갔다.

한편, 장 초토(招討, 초토사)가 유 도독, 동 추밀, 종(從)·경(耿) 두 참모와 함께 목주에 모두 모여 군마를 정렬하고 진을 쳤다. 송강이 큰 공을 세워 방랍을 잡아 목주로 압송해 오자, 모든 관리들이 몰려와 축하했다. 송강과 여러 장수가 예를 갖추어 인사를 마치자, 장 초토가 말했다. "장군께서 변방에서 고생하시며 형제들을 많이 잃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을 모두 이루었으니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송강은 다시 절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처음 저희 일백여덟 명은 요나라를 격파하고 경성으로 돌아올 때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공손승이 가장 먼저 떠나고 경성에도 몇 명을 남겨두게 될 줄을 말입니다. 양주를 탈환하고 대강을 건너온 뒤로는

어찌하여 열에 일곱이나 잃게 되었단 말입니까! 오늘 송강이 비록 살아 있으나, 무슨 면목으로 산동의 고향 어르신들과 친척들을 다시 뵙겠습니까?"

장 초토가 말했다. "선봉께서는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예부터 이르기를 '부귀빈천은 전생에 정해진 것이요, 수명과 장단은 인생의 운명으로 정해진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는 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장수와 부하를 잃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공을 세워 이름을 떨쳤으니 조정에서도 반드시 알 것입니다. 관직과 작위를 내려 가문을 빛내고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오게 될 터인데, 이를 누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잡념은 거두시고 그저 회군을 준비하는 데만 전념하십시오."

송강은 총병 등 관리들에게 절하며 감사를 표한 뒤, 스스로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려 이끌었다. 장 초토는 군령을 내려, 생포한 적의 가짜 관리들은 방랍과 따로 나누어 동경으로 압송하게 하고, 나머지 부하들은 모두 목주 관아에서 처형하도록 했다.

방랍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직 수복하지 못한 구주(衢州)·무주(婺州) 등지의 도적과 부패한 관리들은 절반은 뿔뿔이 흩어졌고, 나머지 절반은 스스로 항복해 왔다. 장 초토는 이들의 항복을 모두 받아들여 다시 양민으로 삼아주었다. 또한 방을 붙여 각 지역을 달래며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그 외에 도적을 따랐으나 사람을 해치지 않은 자들도 스스로 항복하면 양민으로 인정해주고, 빼앗겼던 재산과 토지를 돌려주게 했다. 주와 현을 모두 수복한 뒤에는 각지에 수비 관군을 배치하여 경계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게 하니, 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장 초토와 관리들은 모두 목주에서 태평연을 베풀어 장수와 관리들의 공을 축하하고 삼군 장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선봉의 두목들에게 경성으로 갈 채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군령이 내려지자 모두가 각자 행장을 준비하여 차례로 길을 떠났다.

한편, 선봉 송강은 죽어간 여러 장수를 생각하며 서럽게 눈물을 흘렸다. 뜻밖에도 항주에서 병을 얻은 장횡, 목홍 등 여섯 명과, 이들을 돌보던 주부, 목춘까지 합하여 총 여덟 명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 역시 이후에 각각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 남은 이는 양림과 목춘뿐이었으며, 두 사람만이 군대를 따라 진격해 왔다. 송강은 장수들이 겪은 고초를 생각하며, 오늘날 얻은 평화를 기리기 위해 그들의 영혼을 천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목주의 도관(道觀) 중 깨끗한 곳을 찾아 깃발을 높이 세우고, 구천의 죄를 씻어주는 초도 의식을 거행하였다. 삼백예순 자리의 나천대초(羅天大醮, 도교의 큰 제사)를 베풀어, 먼저 죽은 이와 나중에 죽은 이들을 포함한 여러 정·편 장수들의 명복을 빌었다.

다음 날에는 소와 말을 잡아 제물을 정성껏 준비한 뒤, 군사 오용을 비롯한 여러 장수와 함께 오룡신묘로 가서 오룡대왕에게 제사를 올리며 용군(龍君)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했다. 진영으로 돌아온 송강은 전사한 부하 장수들 중 시신을 거둔 자들에게 모두 각자 안장하도록 명했다. 송강과 노준의는 군마와 장교 및 병사들을 정비하여 장 초토를 따라 항주로 돌아가 성지의 명을 기다린 뒤, 경성으로 귀환할 채비를 했다. 공을 세운 수많은 장수의 명단은 모두 장부에 기록하여 황제 앞에 올렸고, 먼저 표문을 작성하여 천자에게 보고했다. 삼군

이 모두 정비되자 차례로 길을 떠났다. 송강이 살펴보니, 부하 장수들 중 남은 이는 고작 서른여섯 명뿐이었다. 그 서른여섯 명은 다음과 같다.

"호보의" 송강, "옥기린" 노준의, "지다성" 오용 "대도" 관승, "표자두" 임충, "쌍편" 호연작 "소이광" 화영, "소선풍" 시진, "박천조" 이응 "미염공" 주동, "화화상" 노지심, "행자" 무송 "신행태보" 대종, "흑선풍" 이규, "병관삭" 양웅 "혼강룡" 이준, "활염라" 완소칠, "랑자" 연청 "신기군사" 주무, "진삼산" 황신, "병위치" 손립 "혼세마왕" 번서, "굉천뢰" 능진, "철면공목" 배선 "신산자" 장경, "귀검아" 두흥, "철선자" 송청 "독각룡" 추윤, "일지화" 채경, "금표자" 양림 "소차란" 목춘, "출동교" 동위, "번강신" 동맹 "고상조" 시천, "소위치" 손신, "모대충" 고대수

이때 송강은 여러 장수와 함께 군마를 이끌고 목주를 떠나 항주를 향해 출발했다. 마침 승전의 고동 소리는 천 개의 산을 울릴 듯 드높았고, 승리의 깃발은 십 리 밖까지 붉게 휘날렸다. 길을 가는 동안 별다른 일 없이 무사히 항주에 도착했다. 장 초대의 군마가 성 안에 머물고 있었기에, 선봉 송강은 우선 육화탑 근처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여러 장수는 모두 육화사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송강과 노준의는 아침저녁으로 성에 들어가 명을 받들었다.

한편, 노지심은 무송과 함께 절에서 말을 매어두고 명을 기다리며 쉬고 있었다. 성 밖으로 펼쳐진 강산이 수려하고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것을 보니 마음속에 기쁨이 일었다. 그날 밤은 달빛이 희고 바람이 맑아 물과 하늘이 한데 어우러져 푸르렀다. 두 사람이 승방에서 자다가

한밤중이 되었을 때, 갑자기 강 위에서 천둥 같은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노지심은 관서 출신 사내라 절강 지방의 조신(潮信, 밀물)을 잘 몰랐기에, 그저 전쟁 북소리가 울려 적들이 일어난 줄로만 알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선장(禪杖)을 움켜쥐고 크게 호통을 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놀란 스님들이 모두 달려와 물었다. "스님, 어찌 이러십니까? 어디로 뛰쳐나가시려는 겁니까?" 노지심이 말했다. "내가 전쟁 북소리를 들었으니, 나가서 한판 싸워야겠다!" 그러자 스님들이 모두 웃으며 말했다. "스님, 잘못 들으셨습니다! 북소리가 아니라 전당강의 조신(潮信) 소리입니다."

노지심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물었다. "스님, 어찌하여 그것을 조신 소리라고 부릅니까?" 절 안의 스님들이 창문을 열어젖히더니, 밀려오는 파도를 가리키며 노지심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 조수는 밤낮으로 두 번씩 찾아오며 때를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팔월 보름이니, 마침 삼경 자시(子時)에 조수가 들어올 때입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하여 '조신(潮信)'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노지심이 그것을 보고는 문득 마음속으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손뼉을 치며 웃으며 말했다. "나의 스승이신 지진 장로께서 내게 네 구절의 게송(偈言)을 남기며 이르시기를, '여름을 만나면 사로잡을 것이요(逢夏而擒)' 하셨는데, 내가 만송림에서 싸울 때 하후성을 산 채로 잡았으니 이 말이 맞았다. 또한 '섣달을 만나면 붙잡을 것이라(遇臘而執)' 하셨는데, 내가 방랍을 생포했으니 이 또한 맞았다. 오늘이야말로 '조수를 들으면 원만해지고, 신(信)을 보면 적멸에 든다(聽潮而圓, 見

信而寂)'는 말에 딱 들어맞는구나! 조신을 만났으니 이제 나도 원적(圓寂)할 때가 된 모양이다. 스님들, 내가 하나 묻겠소. '원적'이라 함은 무엇을 뜻하오?"

절 안의 스님들이 대답했다. "스님은 출가하신 몸이면서 어찌 불문에서 '원적'이란 곧 죽음을 뜻하는 줄 모르십니까?" 노지심이 웃으며 말했다. "죽는 것을 '원적'이라 부른다면, 나 또한 이제 반드시 원적해야겠구나. 번거롭겠지만 나를 위해 끓인 물 한 통을 가져다주시오. 몸을 씻어야겠소."

절 안의 스님들은 그저 그가 농담을 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의 성격이 워낙 불같음을 알기에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도인을 불러 물을 끓여 오게 하여 노지심을 씻게 했다. 노지심은 황제가 하사한 승복으로 갈아입더니 부하 군관에게 일렀다. "가서 송강 형님께 전하라. 나를 보러 오시라고!" 그러고는 다시 스님들에게 종이와 붓을 빌려 게송(頌) 한 편을 썼다. 이어 법당으로 가서 선의자(禪椅)를 하나 가져와 그 가운데 앉았다. 좋은 향 한 화로를 피우고 선상(禪床) 위에 그 종이를 놓은 뒤, 스스로 두 다리를 포개어 왼발을 오른발 위에 얹으니, 자연히 천성(天性)이 허공으로 올라 원적에 들었다.

송강이 소식을 듣고 급히 여러 두령을 이끌고 달려왔을 때, 노지심은 이미 선의자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게송으로 이르되,

평생 선한 업은 쌓지 않고 오로지 사람 죽이고 불지르는 일만 즐기더니, 문득 금줄을 끊어내고 옥사슬을 풀어헤치듯 번뇌의 사슬을 단번

에 끊어버렸구나. 어라! 전당강에 조수의 신용이 밀려오니 오늘에야 비로소 참된 나를 깨달았도다.

송강과 노준의가 게송을 읽고는 탄식을 금치 못했다. 수많은 두령도 모두 와서 노지심을 살피며 향을 피우고 예를 올렸다. 성 안의 장 초토사(招討, 군 지휘관)와 동 추밀(童樞密, 추밀원 관리) 등 여러 관리들도 와서 향을 사르고 절을 했다. 송강은 손수 금과 비단을 꺼내 여러 스님에게 나누어 주어 사흘 밤낮으로 공덕(功果)을 닦게 하고, 붉은 감실(龕子)을 맞추어 그 안에 노지심의 시신을 모셨다. 그러고는 곧장 경산(徑山)의 주지인 대혜 선사를 정중히 청해 와 노지심의 다비(下火)를 맡겼으며, 오산십찰의 여러 선사도 모두 모여 경을 읽었다. 감실을 받들어 모시고 나가 육화탑 뒤편에서 화장했다. 경산의 대혜 선사가 횃불을 손에 들고 곧장 감실 앞으로 다가와 노지심을 가리키며 몇 마디 법어를 남겼으니, 이르기를,

노지심, 노지심이여, 푸른 숲을 벗어나 몸을 일으켰구나. 두 눈은 불꽃처럼 번뜩이며 한 조각 마음마다 사람을 죽일 기세로 가득했네. 문득 밀려오는 조수를 따라 돌아가니 과연 그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도다. 허허! 그 기운이 허공에 하얀 옥가루처럼 흩날리니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구나.

대혜 선사가 불을 지펴 장례를 마치자, 여러 스님이 모여 경을 읽으며 참회하고 함을 태웠다. 이어 육화탑 뒤편에서 노지심의 유골을 수습하여 탑원 안에 안치했다. 노지심이 지니고 있던 여분의 옷가지와 바루, 그리고 조정에서 내린 금은보화와 여러 관리들이 보시한 물품들은

모두 육화사에 귀속시켜 사찰의 공용 자산으로 삼았다. 그가 쓰던 쇠로 만든 석장과 검은색 베로 만든 도포 또한 절에 남겨 공양물로 삼았다.

그때 송강이 무송을 살펴보니, 비록 죽지는 않았으나 이미 폐인이 되어 있었다. 무송이 송강에게 말했다.

"아우는 이제 몸이 불구가 되었으니, 도성에 올라가 뵙기를 원치 않습니다. 곁에 있는 금은보화와 하사품은 모두 이 육화사에 바쳐 사찰의 공용으로 쓰게 하시고, 저는 그저 한가로운 도인으로 지내고자 하니 참으로 좋겠습니다. 형님께서는 명부에 이름을 올리실 때, 아우가 도성에 간다는 말은 적지 말아 주십시오."

송강이 그 말을 듣고 대답했다.

"네 뜻대로 하거라!"

무송은 이때부터 육화사에서 출가하여 지냈으며, 이후 여든 살까지 장수하다 평온하게 생을 마감했다. 이것은 뒷이야기이다.

한편, 선봉인 송강은 매일 성안으로 들어가 명령을 기다리며, 장(張) 초토사(招討, 반란군 토벌을 맡은 고위 장수)의 중군 인마가 전진하기를 기다렸다. 이미 군사들은 성안에 들어와 주둔을 마친 상태였다. 보름쯤 지나자 조정에서 보낸 사자가 도착하여, 성지(聖旨)를 받들어 선봉 송강 일행에게 군대를 거두어 도성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내렸다. 장 초토사와 동 추밀, 도독 유광세, 종사관 경이(耿二) 참모, 대장 왕품과 조담의 중군 인마는 차례로 먼저 도성으로 돌아갔고, 송강 일행도 곧 군마를 챙겨 도성으로 향할 채비를 했다.

이제 막 길을 떠나려는데, 뜻밖에도 임충이 풍병에 걸려 몸이 마비되었고, 양웅은 등에 종기(등창)가 터져 죽었으며, 시천은 교장사(攪腸痧, 곽란)에 걸려 죽고 말았다. 송강은 이 소식들을 듣고 슬픔을 금치 못했다. 이때 단도현에서 또 문서가 올라왔는데, 양지가 이미 죽어 본현의 산원에 장사 지냈다는 내용이었다. 임충은 풍병으로 몸이 마비되어 좀처럼 낫지 않자 육화사에 머물며 무송의 간호를 받았으나,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한편, 송강이 여러 장수와 함께 항주를 떠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낭자' 연청이 홀로 찾아와 주인 노준의에게 권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인을 모셔오며 입은 은혜와 덕이 너무 커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이제 큰일을 모두 마쳤으니, 주인님과 함께 본래 받은 관고(官誥, 관직 임명장)를 반납하고, 남몰래 자취를 감추고 이름을 숨긴 채 한적한 곳을 찾아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주인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준의가 말했다.

"양산박이 송나라에 귀순한 이후로 우리 형제들은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쉼 없이 고생했고, 변방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형제들이 숱하게 쓰러졌다. 다행히 우리 두 사람만 목숨을 건졌으니, 이제 금의환향하여 아내에게 봉작을 내리고 자식에게 음덕을 입혀줄 계획을 세워야 하거늘, 너는 어찌하여 이토록 앞날이 없는 일을 생각하느냐?"

연청이 웃으며 대답했다.

"주인님, 틀리셨습니다! 제가 가는 길은 반드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나, 주인님께서 가시는 길은 결말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연청은 나아가고 물러남과 생사의 기틀을 아는 자라 할 만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땅을 넓히고 성을 함락한 뜻은 이미 이루었으니,
(벼슬을 사양하는) 말을 올리고 적송자(赤松子)를 따라 노닐고자 하네.
세상 사람들은 공명에 매달려 괴로워하며,
공명이 좋게 끝맺지 못할까만 두려워하네.

노준의가 말했다.

"연청아, 나는 한 점의 딴마음도 품은 적이 없는데, 조정이 어찌 나를 저버리겠느냐?"

연청이 말했다.

"주인님, 한신이 열 가지 큰 공을 세우고도 미앙궁에서 참수당한 일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팽월은 다져져 고기장이 되었고, 영포는 활시위로 목 졸리고 독주를 받았습니다. 주인님, 재앙이 닥치면 피하기 어려우니 부디 깊이 생각하십시오!"

노준의가 대답했다.

"내가 듣기로 한신은 삼제(三齊)를 거느리고 멋대로 왕이라 칭하여 진희가 반란을 일으키게 했고, 팽월은 목숨을 잃고 가문이 멸하였으니 (양왕으로서) 대량(大梁)에 있으면서 고조에게 입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포는 구강에서 임명을 받았으나 한나라 황제의 강산을 도모하려 했기에, 한 고제가 운몽에서 거짓으로 노닐며 여후를 시켜 그를 죽이게 했다지 않느냐. 나는 비록 그들처럼 높은 작위를 받지도 않았고,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다."

연청이 말했다.

"주인님께서 정녕 제 말을 듣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후회해도 이미 늦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원래 송강 선봉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는 의리가 깊은 사람이라 분명 저를 놓아주지 않을 테니, 우선 주인님께 먼저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노준의가 물었다.

"너는 나에게 작별을 고하고 어디로 가겠다는 말이냐?"

연청이 대답했다.

"그저 주인님 곁을 맴돌 뿐입니다."

노준의가 웃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그저 그런 것이로구나. 네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겠다!"

연청은 머리를 조아려 여덟 번 절을 올리고는, 그날 밤 금과 보석이 가득 담긴 짐을 챙겨 메고는 어디론가 홀연히 떠나버렸다. 다음 날 아침, 군사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와 송강 선봉에게 보고했다. 송강이 그 종이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아우 연청이 선봉 주장님 휘하에 백 번 절하며 간곡히 고하나이다.

"저를 거두어 주신 후로 베풀어 주신 두터운 은혜에 가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공을 세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였으나, 그 보답을 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스스로 돌아보니 운명은 기박하고 몸은 미천하여 국가의 중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느껴, 부디 산야로 물러나 한가로운 몸으로 지내고자 합니다. 본래 찾아뵙고 작별 인사를 올리려 하였으나, 주장님의 의리가 워낙 깊으시어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으실까 두려워 밤을 틈타 몰래 떠나갑니다. 이제 네 구절의 글을 남겨 작별을 고하오니, 부디 주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러기 떼 흩어져 날아가니 절로 놀랍기만 한데,
임명장(宮誥)을 반납함은 영화를 구함이 아니라네.
이 몸에는 이미 임금의 사면이 있으니,
세속의 풍진 훌훌 털고 홀가분히 이 삶을 보내리라.

송강은 연청이 남긴 글과 네 구절의 시를 읽고 마음이 답답하여 즐겁지 않았다. 그러고는 즉시 전사한 장수와 부장들의 관고(官誥, 임명

장)와 패면(牌面)을 모두 거두어 경사(京師, 수도)로 보내, 관청에 반납하였다.

송나라 군사들이 줄지어 전진하여 소주 성 밖에 이르렀을 때, '혼강룡' 이준이 마치 중풍에 걸린 것처럼 침상에 쓰러져 있다는 보고가 선봉장 송강에게 들어왔다. 송강이 보고를 받고 직접 의원을 데려와 치료하게 하니, 이준이 말했다.

"형님, 회군 일정에 차질이 생겨 조정의 문책을 받을까, 또한 장 초토사(張招討)께서 먼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을까 염려됩니다. 형님께서 이준을 가엾게 여기신다면, 동위와 동맹을 남겨 이 아우를 돌보게 해 주십시오. 병이 나으면 곧바로 뒤따라가 알현하겠습니다. 형님의 군마는 부디 먼저 경사로 향하십시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는 내키지 않았으나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저 군대를 이끌고 전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장 초토사가 공문을 보내 재촉해 오자, 송강은 결국 이준과 동위, 동맹 세 사람만 남겨둔 채 다른 장수들과 함께 말을 타고 경사로 떠났다.

한편, 이준 세 사람은 이전에 약속한 대로 비보를 찾아갔다. 일곱 명은 모두 유류장에서 만나 의논한 끝에, 집안의 가산을 모두 털어 배를 만들었다. 그들은 태창항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외국으로 떠나갔는데, 훗날 시암(暹羅)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동위와 비보 등도 그곳에서 외국 관직을 맡아 스스로 즐거움을 누리며 해안가에서 세력을 떨쳤으니, 이것이 이준의 뒷이야기이다. 시로 이르되,

사물의 기미를 미리 아는 군자의 일이여,
밝은 지혜는 뭇 범인의 무리를 뛰어넘네.
의리 가운데 의를 거듭 맺고,
몸 밖의 몸(부귀공명)마저 온전히 떨쳐버리네.
심수(潯水)에는 매어 둔 배 한 척 없고,
느릅나무 마을(유장) 버드나무는 다시 새로워지는데,
누가 알리오, 하늘과 바다가 이토록 넓은 가운데,
따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한편, 송강 일행이 군마를 이끌고 전진하는 동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자. 그들은 상주와 윤주에서 치렀던 전투 현장을 지나며 송강은 감회에 젖지 않는 법이 없었다. 군사들이 강을 건너고 보니 열 명 중 겨우 두세 명만이 살아남아 있었다. 양주를 지나 회안으로 나아가니, 이제 경사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송강이 명령을 내려 장수들에게 각자 알현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삼군(三軍)의 인마는 9월 20일 이후에야 동경에 도착했다. 장 초토사의 중군 인마는 먼저 성 안으로 들어갔고, 송강 일행의 군마는 성 밖 옛 진교역(陳橋驛)에 진을 치고 성지를 기다렸다.

이때 이전에 이준 등을 모시도록 남겨두었던 소교(小校, 하급 군관)들이 소주에서부터 달려와 보고했다. 이준이 사실은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저 조정에 올라가 관직을 맡고 싶지 않았을 뿐이며, 지금은 동위, 동맹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내용이었다. 송강은 다시금 탄식하며 배선에게 명하여, 현재 입조(入朝)하는 크고 작은 정장(正將)·편장(偏將)들의 명단을 작성하게 했다. 그 인원은 모두 스물일곱

명이었으며, 나랏일에 전사한 이들의 이름과 숫자도 모두 기록하여 은혜에 감사하는 표장(表章)을 쓰게 했다. 아울러 모든 장수에게는 복두(幞頭, 관모)와 공복(公服, 관복)을 갖추어 입고 천자를 알현할 준비를 하라고 명했다.

사흘 뒤, 상황(上皇)이 조회를 열고 근신들이 천자에게 아뢰니, 천자가 송강 일행을 불러 면전에서 알현하게 했다. 이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올 무렵, 송강과 노준의 등 스물일곱 명의 장수들은 성지를 받들어 서둘러 말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동경의 백성들이 이를 지켜보았는데,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알현이었다. 백성들은 송강 일행이 처음 초안(招安)을 받았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성지를 받들어 황제가 하사한 홍색과 녹색의 비단 옷을 입고 금은패를 가슴에 찬 채 성안으로 들어왔었다. 요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경사로 돌아왔을 때는 천자의 명에 따라 갑옷을 입고 무장한 채 입궐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태평성대를 이루어 돌아오는 길에는 천자가 특별히 문관의 차림을 명하여, 복두와 공복을 갖추고 성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동경 백성들은 돌아온 이들이 겨우 이들뿐인 것을 보고 모두 탄식하며 안타까워했다.

송강 일행 스물일곱 명은 정양문 아래에 이르러 일제히 말에서 내려 조정으로 들어갔다. 시어사가 그들을 단치(丹墀, 붉은 뜰)와 옥계(玉階) 아래로 안내했다. 송강과 노준의가 앞장서서 여덟 번 절하고 물러나 여덟 번 절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가 여덟 번 절하니,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여 총 스물네 번을 절한 뒤, 먼지를 일으키며 춤을 추듯 만세를 세 번 외쳤다. 군신 간의 예가 충분히 갖춰지자, 휘종 천자는 송강

일행이 겨우 이 정도 인원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애통해 했다.

상황이 그들을 모두 불러 전각 위로 오르게 하니, 송강과 노준의가 장수들을 이끌고 금계(金階)를 올라 주렴 아래에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상황이 장수들에게 몸을 일으키라 명하자, 좌우의 근신들이 서둘러 주렴을 걷어 올렸다. 천자가 말했다.

"경들의 노고를 내가 잘 알고 있소. 강남을 평정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경들의 형제들이 태반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 마음이 참으로 아프고 슬프구려."

송강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다시 절하며 아뢰었다.

"신은 재주가 없고 어리석어 간과 뇌를 땅에 쏟아붓는다 해도 국가의 큰 은혜에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신들이 의병 백여덟 명과 함께 오대(五臺)에 올라 서원했던 날을 생각하니, 오늘날 그중 여덟 할을 잃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원수를 삼가 기록하였으나 감히 함부로 갖추어 아뢰지 못하였으니, 부디 천자께서 너그러이 살피어 주시옵소서."

상황이 말했다.

"경들의 부하 중 나랏일에 전사한 자들은 내가 명하여 각자의 무덤에 작위를 더할 것이니, 그들의 공적이 헛되지 않게 하겠소."

송강은 다시 절을 올리고 표문 한 통을 올렸다. 표문은 이러했다.

평남도총관 정선봉사 신 송강 등은 삼가 표문을 올리나이다.

신 송강 등은 어리석고 재주가 없으며 식견이 좁고 속된 관리로서, 일찍이 끝없는 죄를 범하였으나 다행히 지극히 큰 은혜를 입었나이다. 하늘과 땅이 같이 높다 한들 어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으며,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진다 한들 어찌 보답이 충분하겠습니까! 신들은 온 힘을 다해 양산박을 떠나 사악한 무리를 제거하였고, 형제들은 한마음으로 오대산에 올라 서원을 하였나이다. 충성을 다하고 의리를 지켜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보살피고자 하였나이다. 유주성에서는 요나라 군대와 치열하게 싸웠고, 청계동에서는 방랍을 힘껏 생포하였나이다. 비록 미천한 공로일지라도 조정에 닿기를 바라오나, 안타깝게도 훌륭한 장수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나이다. 신 송강은 밤낮으로 근심하고 아침저녁으로 슬픔에 잠겨 있나이다. 부디 천자의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이미 죽은 자들은 모두 은택을 입게 하시고 살아 있는 자들은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 송강은 이제 전원으로 돌아가 농민이 되어 폐하의 어진 보살핌을 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신 송강 등은 떨리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나이다! 삼가 생존자와 전사자의 인원수를 기록하여 표문과 함께 올리나이다.

전사한 정·편 장수 쉰아홉 명:

전사한 정장 14명:

진명, 서녕, 동평, 장청, 유당
사진, 색초, 장순, 완소이, 완소오
뇌횡, 석수, 해진, 해보

전사한 편장 45명:

전사한 편장 45명: 송만, 초정, 도종왕, 한도, 팽기, 정천수, 조정, 왕정육, 선찬, 공량, 시은, 학사문, 등비, 주통, 공왕, 포욱, 단경주, 후건, 맹강, 왕영, 호삼낭, 항충, 이곤, 연순, 마린, 단정규, 위정국, 여방, 곽성, 구붕, 진달, 양춘, 욱보사, 이충, 설영, 이운, 석용, 두천, 정득손, 추연, 이립, 탕륭, 채복, 장청, 손이낭.

도중에 병으로 죽은 정·편 장수 열 명:

임충, 양지, 장횡, 목홍, 양웅.

공명, 주귀, 주부, 백승, 시천.

항주 육화사에서 좌화한 장수 한 명:

팔이 부러져 조정의 은사를 거절하고 육화사에서 출가한 장수 한 명:

예전에 동경에서 돌아가 계주에서 출가한 장수 한 명:

조정의 은사를 거절하고 길을 떠난 정·편장 네 명:

예전에 동경에 남아 있다가 의사들을 데리고 돌아온 이들과, 현재 동경에 있는 편장 다섯 명:

안도전, 황보단, 금대견, 소양, 악화

현재 조정에서 알현하고 있는 정·편장급 장수 스물일곱 명:

정장(正將) 열두 명:

송강, 노준의, 오용, 관승, 호연작, 화영, 시진, 이응, 주동, 대종, 이규, 완소칠

편장(偏將) 열다섯 명:

주무, 황신, 손립, 번서, 능진
배선, 장경, 두흥, 송청, 추윤
채경, 양림, 목춘, 손신, 고대수

선화 5년 9월 어느 날, 선봉사(先鋒使) 신 송강과 부선봉사(副先鋒使) 신 노준의 등이 삼가 상표를 올렸다.

상황(上皇)께서 상표를 살펴보시고는 탄식을 금치 못하며 말씀하셨다. "경들 백여덟 명은 하늘의 별자리에 응하여 모였거늘, 이제 살아남은 자는 겨우 스물일곱 명뿐이구나. 그중 네 명마저 물러갔으니, 참으로 열 명 중 여덟 명을 잃었도다!"

이어 성지를 내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들에게는 정장(正將)과 편장(偏將)의 직급에 따라 각각 명작을 수여하였다. 정장은 '충무랑'으로, 편장은 '의절랑'으로 봉하였다. 자손이 있으면 경사(京)로 불러들여 그 이름에 따라 관작을 세습하게 하고, 자손이 없으면 사당을 세워 그곳에서 제사를 받도록 명하였다.

또한 장순은 영험을 드러내어 공을 세웠으므로 '금화장군'으로 봉하였다. 승려 노지심은 도적을 사로잡은 공이 있고 큰 절에서 편안히 좌

화(입적)하였으므로 '의렬조기선사'로 추증하였다. 무송은 적과 싸운 공이 있으나 팔이 잘리는 부상을 입고 육화사에 출가해 있으므로 '청충조사'로 봉하고 돈 십만 관을 내려 천수를 누리게 하였다. 이미 세상을 떠난 두 여장군 중 호삼낭은 '화양군부인'으로, 손이낭은 '정덕군군'으로 각각 추증하였다.

현재 조정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선봉사를 따로 봉한 것 외에, 정장 열 명에게는 각각 '무절장군'의 직함을 주어 여러 주의 통제(統制)로 삼고, 편장 열다섯 명에게는 각각 '무혁랑'의 직함을 주어 여러 로(路)의 도통령(都統領)으로 삼아, 군사와 백성을 다스리되 중앙 관부인 성원(省院, 상서성·추밀원)의 조발과 지휘를 따르게 하였다. 여장군 한 명인 고대수는 '동원현군'으로 봉하였다.

선봉사 송강은 ‘무덕대부’를 더하고 초주 안무사(安撫使, 지방 군사·행정 책임자)와 겸 병마도총관을 제수받았다. 부선봉 노준의는 ‘무공대부’를 더하고 여주 안무사와 겸 병마부총관을 제수받았다. 군사 오용은 무승군 승선사(承宣使)를 제수받았다. 관승은 대명부 정병마총관을 제수받았다. 호연작은 어영병마지휘사를 제수받았다. 화영은 응천부 병마도통제를 제수받았다. 시진은 횡해군 창주도통제를 제수받았다. 이응은 중산부 운주도통제를 제수받았다. 주동은 보정부 도통제를 제수받았다. 대종은 연주부 도통제를 제수받았다. 이규는 진강 윤주도통제를 제수받았다. 완소칠은 개천군 도통제를 제수받았다.

상황(上皇)께서 칙명을 내려 정장과 편장들에게 각각 관직과 직책을 봉하였다. 장수들은 은혜에 감사하며 명을 받들었고, 상금과 하사품이 지급되었다. 편장 열다섯 명에게는 각각 금은 삼백 냥과 비단 다섯 표

리(表裏)씩을, 정장 열 명에게는 각각 금은 오백 냥과 비단 여덟 표리씩을 내렸다. 선봉사 송강과 노준의에게는 각각 금은 천 냥과 비단 열 표리, 그리고 어화포 한 벌과 명마 한 필을 내렸다.

송강 일행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다시 아뢰기를, "목주의 오룡대왕께서 두 번이나 영험을 드러내어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보살피며 군사들을 구원해 주신 덕분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상황께서 이를 윤허하시고 성칙으로 '충정영덕보우부혜용왕'이라는 봉호를 내리셨다. 또한 어필로 목주를 엄주로, 흡주를 휘주로 고치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 방랍이 반란을 일으켰던 곳이라 지명에 반역의 글자체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청계현은 순안현으로 고치고, 방원동은 깎아내어 산섬으로 만들었으며, 본주 관청의 창고에서 돈을 내어 오룡대왕묘를 세우도록 명하였다. 황제가 하사한 현판은 지금까지도 그 옛 자취가 남아 있다. 강남 지역은 방랍에게 짓밟혀 황폐해진 곳마다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3년 동안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그날 송강 일행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자, 천자께서 태평연을 베풀어 공신들을 축하하게 하였다. 문무백관과 구경사상(九卿四相,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 모두 어연에 참석하였다. 그날 축하 잔치가 끝나자 장수들이 다시 은혜에 감사 인사를 올렸다. 이때 송강이 다시 아뢰기를, "신들의 부하들은 양산박에서 초안을 받은 이래로 군졸이 절반 넘게 죽었습니다.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으니, 부디 폐하의 성은으로 너그럽게 살펴 구휼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였다.

천자께서 이를 윤허하시고 칙령을 내려 말씀하셨다. "……군역을 계속 맡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돈 백 관과 비단 열 필을 주어 용맹(龍猛)·호위(虎威) 두 영(營)에 거두어 조련하고, 매달 봉록과 식량을 지급하여 부양하라. …… 군역을 원치 않는 자에게는 돈 이백 관과 비단 열 필을 주어 각자 고향으로 돌려보내 백성으로서 부역을 받들게 하라. ……"

송강이 다시 아뢰기를, "신은 운성현에서 나고 자랐으나 죄를 지은 이래로 감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부디 성상께서 너그러운 은혜로 휴가를 내려주시어, 고향에 돌아가 조상의 묘를 돌보고 친족들을 살핀 뒤 다시 초주의 임지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히 멋대로 할 수 없사오니 성지를 내려주시기를 청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상황께서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시며, 고향에 돌아가는 비용으로 돈 십만 관을 다시 하사하였다. 송강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어가에 하직하여 조정을 나갔다.

다음 날은 중서성에서 태평연을 열어 장수들을 대접하였고, 셋째 날에는 추밀원에서 다시 태평을 경축하는 잔치를 열었다. 장초토사(張招討), 유도독(劉都督), 동추밀(童樞密), 종(從)·경(耿) 두 참모, 왕(王)·조(趙) 두 대장 등은 조정에서 각자 높은 작위로 승진하였으나, 이는 본 이야기의 범위 밖이다.

태을원에서 상소를 올려 성지를 청하니, 방랍을 동경의 시조(市曹)에서 능지처참하되 사흘 동안 살을 도려내어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보이게 하였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송강이 큰 상을 받고 승진하던 날,
방랍이 형벌을 받아 처형되던 날.
선과 악은 결국 모두 응보를 받으니,
다만 그 시기가 빠르냐 늦으냐의 차이일 뿐!

한편, 송강이 고향에 돌아가 친척들을 살필 수 있도록 성지를 청하자, 부하 장수들 중 군역을 계속 맡기를 원하는 자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려 용맹군과 호위군에 배치되었고, 마군수비(馬軍守備, 기병 지휘관)의 직책과 함께 상금이 지급되었다. 군역을 원치 않는 자들은 은자와 함께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백성으로서 부역을 받들게 하였다. 부하 편장들 또한 각각 은혜를 입어 관군이나 민간을 다스리는 직책을 맡거나, 경계를 수비하는 관직에 임명되어 교지를 받들고 각자의 임지로 떠나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보살피게 되었다.

송강은 인원 배치를 모두 마친 뒤, 장수들과 잠시 작별하였다. 그는 친동생 송청과 함께 수행 군사 백여 명을 거느리고, 짐과 옷가지, 그리고 하사받은 물품들을 짊어진 채 동경을 떠나 산동을 향해 출발했다. 송강과 송청은 비단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세로 경사를 뒤로 하고 고향을 향해 나아갔다. 가는 길에 별다른 일은 없었으나, 이윽고 산동 운성현 송가촌에 도착했다. 고향의 옛 친구들과 어르신, 친척들이 모두 나와 송강을 맞이하였고, 그는 장원으로 돌아왔다.

뜻밖에도 송 태공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고, 영구(靈柩)는 아직 남아 있었다. 송강과 송청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하며 애도하였다. 집안 식구들과 장원 식솔들도 모두 송강을 찾아와 절하며 뵈었다. 장원

의 토지와 재산, 가재도구 등은 송 태공께서 살아생전에 모두 정돈해 두신 덕분에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송강은 장원에서 정성껏 불사(佛事)를 베풀어 승려와 도사를 청해 공덕을 닦게 함으로써, 돌아가신 부모와 종친의 넋을 천도(薦度)하였다. 주와 현의 관리들도 끊임없이 찾아와 문안하였다. 마침내 날을 택해 송 태공의 영구를 직접 모시고 높은 언덕에 안장하였다. 그날 본주의 관리들과 이웃, 어르신들, 그리고 손님과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장례를 지켜본 일은 더 말하지 않는다.

송강은 평소 현녀낭낭(玄女娘娘)을 향한 염원을 아직 갚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돈 오만 관을 내어 장인들을 시켜 구천현녀낭낭의 사당을 다시 세웠다. 양옆의 행랑채와 산문(山門)까지 갖추고 신상(聖像)을 단장하였으며, 양 행랑의 채색까지 모두 완비하였다. 고향에서 어느덧 시간이 꽤 흘러 혹여 상황께서 꾸짖으실까 염려된 송강은, 날을 잡아 상복을 벗고 며칠간 도량(道場)을 열었다. 그 후 큰 모임을 열어 마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오랫동안 못다 한 정을 나누었다. 다음 날에는 친척들도 모두 잔치를 베풀어 축하한 일은 더 말하지 않는다. 송강은 장원의 살림을 둘째 동생 송청에게 넘겨주었다. 송청은 비록 관작을 받았으나 그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종친의 향화(香火)를 받들 뿐이었다. 또한 남은 돈과 비단은 백성들에게 널리 나누어 주었다.

송강은 고향에서 몇 달을 머물다가 옛 친구들과 어르신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 형제들을 만났다. 사람들 중에는 노소(老小) 가솔을 데리고 경도로 옮겨와 살려는 이도 있었고, 임지로 떠나는 이도 있었다. 또한 남편이나 형제가 나랏일을 하다가 전사한 이들에

게는 조정에서 이미 은혜로이 금백(金帛)을 내려 보내 고향으로 돌아가 그 집안을 후하게 구휼하도록 하였다. 송강이 동경에 도착하여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까지 모두 마무리되었다. 송강은 조정에 나아가 명을 기다리며 성원(省院)의 여러 관리에게 하직하고, 임지로 떠날 채비를 마쳤다.

그때 마침 '신행태보' 대종이 송강을 찾아와 한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바로 그 말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일이 정해지게 되었다. 곧, 송공명(宋公明)은 살아서는 운성현의 영웅이 되고, 죽어서는 요아와(蓼兒洼)의 토지신(土地神)이 되었던 것이다. 이야말로,

늠름한 맑은 바람 사당에 감돌고 당당한 유상(遺像)은 능연각(凌煙閣)에 남았네.

결국 대종이 송강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다음 회에서 풀어 이야기하겠다.

제100회 — 송공명이 요아와에 신령스럽게 모이고, 휘종제가 꿈속에서 양산박을 유람하다

宋公明神聚蓼兒洼 徽宗帝夢游梁山泊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이 금의환향하여 동경에 이르자, 여러 형제와 다시 만나 각자 짐을 꾸려 임지로 떠나게 하였다. 이때 '신행태보' 대종이 송강을 찾아와 두 사람이 앉아 한담을 나누었다. 대종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아우는 이미 성은을 입어 연주 도통제라는 직을 받았습니다. 이제 관고(官誥)를 반납하고 태안주 악묘로 가서 수행하며 남은 생을 보내고자 하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만행일 것입니다."

송강이 물었다. "현제는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는가?"

대종이 대답했다. "어젯밤 꿈에 최 부군이 저를 불러 데려가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현제는 살아생전 '신행태보'였으니, 훗날 반드시 악부(嶽府, 동악대제의 관부)의 영총(靈聰), 곧 신령이 될 것이네."

이후 작별한 대종은 관고를 반납하고 태안주 악묘로 가서 출가하였다. 그는 매일 정성을 다해 성제(東嶽聖帝, 동악대제)의 향화를 받들어 제사를 올리며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몇 달 뒤 어느 날 밤, 별 탈 없이 도반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한 뒤 크게 웃으며 세상을 떠났다. 훗날 악묘에서 여러 차례 신령스럽게 나타나자, 태안주 사람들과 묘축(廟祝)이 대종의 신상을 사당에 모셨는데, 그 신상의 속 골격은 바로 그의 진짜 몸(유해)이었다.

한편 완소칠도 관고를 받았으나 송강과 작별하고 개천군 도통제로 부임하였다. 하지만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대장 왕품과 조담이 방원동(幫源洞)에서 욕을 먹은 옛 원한을 품고, 동 추밀(童樞密, 동관) 앞에서 거듭 완소칠의 허물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완소칠이 일찍이 방랍의 자황포(붉은 황포)와 용의(龍衣), 옥띠를 걸친 일이 비록 한때의 장난이었으나 끝내 불순한 마음을 품은 것이며, 게다가 개천군은 땅이 외지고 사람도 거칠어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동관이 이 일을 채경에게 알리고, 채경이 다시 황제에게 아뢰어 성지를 받아내니, 그곳으로 공문을 보내 완소칠의 관고를 박탈하고 다시 평민으로 삼게 하였다. 완소칠은 이를 보고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져, 노모를 모시고 양산박 석갈촌으로 돌아갔다. 그는 그곳에서 예전처럼 고기를 잡으며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천수를 누리고 훗날 육십 세에 이르러 세상을 떠났다.

한편 '소선풍' 시진은 동경에 머물다 대종이 관고를 반납하고 은퇴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조정에서 완소칠의 관고를 박탈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완소칠이 방랍의 평천관을 쓰고 용의(龍衣)와 옥띠를 매어 그를 본받아 반란을 꾀하려 했다는 이유로 평민으로 강등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시진은 생각했다.

'나 또한 방랍의 부마 노릇을 한 적이 있으니, 만약 훗날 간신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천자 앞에서 나를 참소하고 책망한다면, 관고까지 박탈당해 큰 수치를 당하지 않겠는가? 차라리 스스로 형편을 살펴 수치를 면하는 것이 낫겠다.'

그는 몸에 풍병이 있어 수시로 발작이 일어나는 바람에 관직을 맡기 어렵다고 핑계를 대며, 관고를 반납하고 농부로 살기를 원한다고 청했다. 시진은 여러 관리와 작별한 뒤 다시 창주 횡해군으로 돌아가 평민으로서 자유롭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응은 중산부 도통제로 임명되어 부임한 지 반년 만에 시진이 관직을 내려놓고 은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응 역시 자신도 풍으로 몸이 마비되어 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여겨, 성원(省院)에 관고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고향 독룡강촌으로 돌아가 살았다. 그는 이후 두흥과 함께 부호가 되어 두 사람 모두 평온하게 생을 마감했다.

관승은 북경 대명부에서 병마를 총관하며 군심을 잘 얻어 모두가 그를 우러러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군마를 훈련시키고 돌아오다 크게 취해 발을 헛디뎌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병을 얻어 사망했다. 호연작은 어영지휘사를 맡아 매일 황제를 수행하며 군사를 정비했다. 훗날 대

군을 이끌고 나가 대금의 올출(兀朮) 4태자를 격파하고 회서까지 진격했으나, 그곳에서 전사했다. 오직 주동만이 보정부에서 군을 관리한 공을 인정받아, 훗날 유광세를 따라 대금을 격파하고 태평군 절도사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화영은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누이동생을 데리고 응천부로 부임하러 떠났다. 오용은 본래 혼자 지내던 터라 수행하는 시동(안동)만 데리고 무승군으로 부임하러 갔다. 이규 또한 혼자서 하인 둘을 데리고 윤주로 부임하러 갔다.

이야기는 어찌하여 이 세 사람의 부임 소식만 전하고, 다른 이들의 결말은 한꺼번에 말해버린 것일까? 그것은 이 일곱 명의 정장(正將)이 서로 다시 만나지 않기에 먼저 결말을 말한 것이다. 이제 뒤의 다섯 정장, 즉 송강, 노준의, 화영, 오용, 이규는 아직 서로 만날 일이 남아 있으니, 그 때문에 다 말하지 않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 보게 될 것이다.

한편 송강과 노준의는 동경에 머물며 여러 장수에게 상을 나누어 준 뒤, 각자 임지로 떠나게 하였다. 공무를 수행하다 전사한 이들에게는 가족들에게 은상금과 비단, 금은을 내려주고 각각 고향으로 돌려보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였다.

조정에 남아 있던 열다섯 명의 편장(偏將) 중, 송강의 아우 송청은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게 되었고, 두흥은 이미 이응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갔다. 황신은 여전히 청주에 재임하였고, 손립은 아우 손신과 고대수(顧大嫂), 그리고 아내와 식솔과 함께 예전처럼 등주에서 직무

를 수행하였다. 추윤은 관직을 사양하고 등운산으로 돌아갔으며, 채경(蔡慶)은 관승을 따라 북경으로 돌아가 평민이 되었다. 배선은 양림과 상의한 끝에 음마천으로 돌아가 관직을 내려놓고 은퇴하였다. 장경은 고향을 그리워하여 담주로 돌아가 평민으로 살기를 원했다. 주무는 본래 번서의 도법을 배우고자 했기에, 두 사람은 전진교의 도사가 되어 강호를 유람하다가 공손승을 찾아가 출가하여 생을 마감하였다. 목춘은 게양진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양민이 되었고, 포수로서 실력이 비범했던 능진은 여전히 화약국의 어영직을 맡게 되었다.

예전에 동경에 있던 다섯 명의 편장 중, 안도전은 흠명으로 동경으로 불려 돌아가 태의원에서 금자(金紫)를 받은 의관이 되었고, 황보단은 원래 어마감 대사직을 맡았으며, 김대견은 내부 어보감에서 관리로 일하게 되었다. 소양은 채 태사의 부중에서 문관(門館) 선생, 즉 가숙의 스승으로 일하게 되었고, 악화는 부마인 왕 도위의 부중에서 평생을 한가롭고 즐겁게 보내며 여생을 보냈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송강은 노준의와 헤어진 뒤 각자 임지로 떠났다. 노준의 역시 가족이 없었기에 수행하는 하인 몇 명만을 데리고 려주를 향해 떠났다. 송강은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며 조정을 물러나면서, 조정의 여러 관리와 작별한 뒤 몇 명의 가솔과 하인을 데리고 초주로 부임하러 갔다. 이로써 서로 헤어져 각자 흩어졌으니,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된다.

한편 송나라는 태종이 태조로부터 제위를 물려받을 때 맹세를 한 이래로, 조정이 간신들로 인해 어지러워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금까지 휘종 천자가 지극히 성스럽고 밝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뜻밖에 간신들이 득세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충직한 이들을 해치고 있으니 참으로

가련한 일이다. 이때 채경, 동관, 고구, 양전 네 명의 역신들이 천하를 어지럽히고 나라와 가정, 그리고 백성들을 망치고 있었다.

전수부 태위인 고구와 양전은 천자가 송강 같은 장수들에게 예우를 갖추고 두둑한 하사품을 내리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두 사람은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저 송강과 노준의는 본래 우리의 원수인데, 오늘 보니 도리어 공신이 되어 조정으로부터 저런 은혜를 입고 있지 않은가. 말 위에서는 군사를 다스리고 말 아래서는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으니, 우리 성원(省院)의 관리들이 어찌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옛말에 '원한을 작게 품으면 군자가 아니요, 독하지 않으면 대장부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자 양전이 말했다. "내게 계책이 하나 있으니, 먼저 노준의를 손봐놓으면 송강의 팔 하나를 자르는 격이 될 것이오. 저 자는 매우 용맹하니, 만약 송강을 먼저 건드리면 그가 알아채고 반드시 일을 크게 벌여 도리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오."

고구가 물었다. "그대의 묘책이 무엇인지 듣고 싶구려."

양전이 대답했다. "려주의 군사 몇 명을 내세워 성원(省院)에 노 안무(盧安撫)를 고발하게 하는 것이오. 군사를 모집하고 말을 사며, 풀을 모으고 식량을 비축하는 것이 반란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모함하는 것이지. 그러고 나서 그 고발장을 태사부로 올려 상주하되, 채 태사까지도 진상을 모르게 속이는 것이오. 태사가 천자께 아뢰어 성지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다린 뒤, 사람을 시켜 그를 동경으로 꾀어 오게 하는 것이오. 상황(上皇)께서 그에게 음식을 하사하실 때 그 속에 수은을 조금

넣으면, 그 사람의 허리와 신장이 망가져 쓸 수 없게 될 것이니, 큰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될 것이오. 그다음에는 천사를 보내 송강에게 하사할 술을 전하게 하되, 그 술에도 서서히 듣는 독약을 타 두면 보름도 안 되어 반드시 손쓸 수 없게 될 것이오."

고구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 계책 참으로 절묘하구려!"

이를 비웃는 시가 있어 이르되,

예부터 권세 있는 간신들이 선량한 이를 해치니,
충의를 세워 나라를 바로잡는 이를 용납지 않네.
하늘이 만약 밝게 살펴 보응하신다면,
아들은 광대가 되고 딸은 기생이 되리라.

두 역신이 계책을 정한 뒤, 심복을 시켜 려주의 토박이 두 명을 찾아내게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소장을 써 주며 다음과 같이 시켰다. "려주의 노 안무(盧安撫, 노준의)가 요사이 군사를 모집하고 말을 사며, 풀을 모으고 식량을 비축하는 것은 반란을 꾀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초주로 사람을 자주 보내 송강과 결탁하여 의로운 일을 꾀하고 있다."라고 말이다.

한편 추밀원은 동관이 맡고 있었는데, 그 역시 송강 등과 원수 사이였다. 그는 즉시 고소장을 받아 태사부에 곧장 보고했다. 채경은 상소를 보고받고는 관리를 불러 함께 의논했다. 이때 고구와 양전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고, 네 명의 간신은 이미 계책을 세운 뒤 원고들을 데리고 들어가 천자께 고했다.

황제가 말했다. "내 생각에 송강과 노준의는 사방의 도적들을 토벌하며 십만 대군을 거느렸음에도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제는 사악함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왔는데, 어찌 반역을 꾀하겠는가? 과인이 그들을 저버린 적이 없는데 어찌 감히 조정에 반역하겠는가? ……이 속에 속임수가 있는지, 사실인지 아직 살피지 못했으니 그대로 믿기는 어렵구나."

그러자 곁에 있던 고구와 양전이 아뢰었다. "폐하의 말씀이 옳사오나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운 법입니다. 아마도 노준의가 관직이 낮고 직위가 미천함을 싫어하여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다시 반역의 뜻을 품다가, 불행히도 남에게 들킨 모양입니다."

황제가 말했다. "과인이 직접 불러 물어보아 사실을 밝혀내도록 하라."

채경과 동관이 다시 아뢰었다. "노준의는 맹수와 같아서 그 마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를 놀라게 하면 반드시 도망쳐 버릴 것이니, 이는 매우 좋지 못하며 나중에 붙잡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를 동경으로 유인해 오십시오. 폐하께서 친히 음식과 술을 하사하시되, 성스러운 말씀으로 달래며 그 허실과 동정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별다른 기색이 없다면 굳이 문책할 필요도 없으니, 폐하께서 공신을 저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황제가 이를 허락하고 즉시 성지를 내려 사명을 려주로 보내, 노준의를 불러 조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부릴 일이 있다고 전하게 했다. 사

명이 명을 받들어 려주에 도착하자, 크고 작은 관리들이 성 밖으로 나와 영접하였고 주아(州衙, 관아)에 이르러 성지를 읽는 것이 끝났다.

이야기는 이쯤에서 줄이자. 노준의는 조정으로 돌아오라는 성지를 듣고 사명과 함께 려주를 떠나 역마를 타고 동경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별다른 일 없이 일찍 동경 황성사 앞에 도착하여 쉬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동화문 밖으로 나가 조참을 기다렸다. 이때 태사 채경, 추밀사 동관, 태위 고구와 양전이 노준의를 이끌고 편전으로 들어가 황제를 알현하게 했다. 배무(拜舞)의 예를 마치자 천자가 말했다. "과인이 그대를 한 번 보고 싶었노라." 그러고는 다시 물었다. "려주에서 지내기에 불편함은 없느냐?"

노준의가 다시 절하며 아뢰었다. "폐하의 하늘 같은 큰 복 덕분에 그곳의 군사와 백성들 모두 평안합니다."

황제가 몇 마디 안부를 더 물은 뒤 정오쯤 되자, 상선 주관(尙膳廚官)이 나아와 아뢰었다. "하사하실 음식이 여기 도착하였으나, 감히 마음대로 올릴 수 없사오니 성지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때 고구와 양전이 이미 음식 속에 몰래 수은을 넣어 두었는데, 그것이 어안(御案, 임금의 책상) 위에 올려졌다. 천자는 노준의 앞에서 직접 음식을 하사했다. 노준의는 절하며 받아 먹었다.

황제가 다정하게 타이르며 말했다. "그대가 려주로 돌아가거든 반드시 마음을 다해 군사들을 잘 돌보고, 딴마음을 품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준의는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에 감사하고 조정을 물러나 려주로 돌아갔다. 그는 네 명의 역신이 자신을 해치려 계략을 꾸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고구와 양전이 서로 마주 보며 말했다. "이제 큰일이 다 결정되었구나!"

한편 노준의는 그날 밤 곧장 려주로 돌아왔으나, 허리와 신장이 쑤시고 아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말을 탈 수도 없었기에 배를 타고 돌아가게 되었다. 사주를 지나 회하에 이르렀을 때, 하늘의 운수가 다했으니 자연히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그날 밤 노준의는 술에 취해 배 머리에 서서 풍류를 즐기려 했는데, 뜻밖에도 수은이 허리와 골반을 타고 뼛속까지 스며들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데다 술기운에 발을 헛디뎌 회하 깊은 곳에 빠져 죽고 말았다. 가련하게도 하북의 '옥기린'이 물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되고 말았으니, 사람들이 시신을 건져 올려 관에 넣고 사주의 높은 지대에 장사 지냈다. 본주의 관리들이 문서를 작성하여 조정에 보고한 일은 말할 것도 없다.

한편 채경, 동관, 고구, 양전 네 명의 역신은 이미 계책을 다 세워두고, 사주에서 올린 보고 문서를 지참하여 조참 때 천자께 아뢰었다. "사주의 보고에 따르면 려주 안무 노준의가 회하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를 보고받고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노준의가 죽었으니, 혹여 송강이 의심을 품고 딴마음을 먹을까 두렵사옵니다. 폐하께오서 굽어살피시어, 천사를 보내 초주에 술을 하사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달래게 하소서."

황제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허락하자니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 않았고, 허락하지 않자니 어찌 될지 알 수 없었

다. 허락하려니 참으로 폐단이 생길까 두려웠다. 그러나 황제는 어찌할 도리 없이 결국 간신들의 감언이설과 교묘한 궤변에 휘둘리고 말았다. 간신들이 교묘하게 말을 늘어놓으며 은근슬쩍 일을 꾸며내니, 황제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마침내 황제는 술 두 항아리를 내리고, 천사 한 명을 보내 초주로 가져가 하사하되 즉시 다녀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 사명 또한 고구와 양전 두 역신의 심복이었다. 송강의 천수가 다한 것은 하늘의 운명이었으나, 뜻밖에도 이 간신들이 하사하는 술 속에 독약을 넣어 두었고, 사명이 그것을 받들어 그대로 초주로 향하게 된 것이다.

한편 송강은 초주 안무로 부임하여 병마를 총괄하게 되었다. 부임한 후에는 군사를 아끼고 백성을 사랑하니, 백성들은 그를 부모처럼 공경했고 군관들은 그를 신령처럼 받들었다. 송사(訟事)가 다투는 법정은 엄숙하고 질서가 잡혔으며, 행정의 여섯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인심이 화합하고 군민이 모두 그를 흠모하였다. 송강은 공무를 마친 틈을 타 종종 성 밖으로 나가 유람하곤 했다.

본래 초주 남문 밖에 료아와라 불리는 곳이 있었다. 그곳은 사방이 물길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에는 높은 산이 하나 솟아 있었다. 산세가 수려하고 소나무와 잣나무가 울창하여 풍수지리적으로도 매우 좋은 곳이었다. 비록 작은 곳이었으나 산봉우리가 겹겹이 둘러싸고 용과 호랑이가 웅크린 듯한 형세였으며, 굽이치는 봉우리와 계단식 언덕, 축대 등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사방의 물길과 앞뒤의 호수가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양산박의 수호채와도 같았다. 송강은 그곳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며 생각했다.

'만약 내가 이곳에서 죽는다면 참으로 좋은 묘자리가 되겠구나.'

그는 한가할 때면 자주 그곳에 가서 풍류를 즐기며 소일했다. 이야기는 이쯤 해두자. 송강이 부임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때는 초여름 첫째 달 초순이었다. 갑자기 조정에서 하사한 술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맞이했다. 관청으로 돌아와 성지를 다 읽고 나니, 사명이 술 항아리를 받쳐 들고 와 송 안무에게 마시게 했다. 송강이 술을 마신 뒤 사명에게 답례로 권했으나, 사명은 자신은 원래 술을 마실 줄 모른다며 사양했다. 술자리가 끝나자 사명은 경(京)으로 돌아갔다. 송강은 예물을 준비하여 사명을 배웅했으나, 사명은 받지 않고 떠나갔다.

송강은 하사받은 술을 마신 뒤 배가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의구심이 들어, 술에 약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했다. 송강이 급히 부하를 시켜 사명이 오던 길의 역참에서 술을 마셨는지 알아보게 했다. 확인해 보니 사명은 역참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다.

송강은 간신들의 계략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필시 역신들이 술에 약을 탔음이 분명했다. 그는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유학을 공부하고 자라서 관리직에 올랐으나, 불행히 죄인의 몸이 되었을 뿐, 단 한 번도 딴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천자께서 간신들의 말을 가볍게 믿고 내게 약주를 내리시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나는 죽어도 다투지 않겠으나, 지금 윤주에 도통제로 있는 이규가 만약 조정이 이런 간사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분명 다시 산림으로 들어가 무리를 모으고 우리 평생의 청렴하고 의로운 명성을 망쳐놓을 것이다. 오직 이 방법뿐이다."

송강은 그날 밤 즉시 사람을 윤주로 보내 이규를 불러오게 했다. 이규는 밤을 도와 초주로 달려와 송강과 따로 상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규는 윤주에 도통제로 부임한 뒤로 마음이 답답하고 무료하여, 종일같이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술잔을 기울이는 데만 빠져 있었다. 그러던 중 송강이 사람을 보내 자신을 부른다는 말을 듣고 이규가 말했다.

"형님께서 나를 부르신 걸 보니, 필시 드릴 말씀이 있으신 게다."

이규는 즉시 부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초주에 도착했다. 그는 곧장 주 관청으로 들어가 송강을 알현했다. 송강이 말했다.

"아우와 헤어진 뒤로 밤낮으로 동료들 생각뿐이었네. 오용 군사는 무승군에 있어 너무 멀고, 화영은 응천부에 있어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구먼. 그나마 윤주 진강에 있는 자네가 가까이 있어, 큰일을 상의하고자 특별히 청한 것이네."

이규가 물었다.

"형님, 무슨 큰일입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우선 술부터 마시세!"

송강은 이규를 후청으로 안내하여 차려져 있는 잔과 그릇에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한참 동안 함께 먹고 마셨다. 술기운이 반쯤 올랐을 때 송강이 입을 열었다.

"아우는 모르겠지만, 조정에서 사명을 보내 약주를 가져와 내게 마시게 했네.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규가 크게 소리쳤다.

"형님, 차라리 반란을 일으킵시다!"

송강이 말했다.

"아우야, 군사들은 모두 흩어졌고 형제들도 제각기 흩어져 있는데 어찌 반란을 일으킨단 말인가?"

이규가 말했다.

"내가 있는 진강에는 삼천 군사가 있습니다. 형님이 계신 이곳 초주의 군사들과 백성들까지 모조리 일으켜 세워, 힘을 모아 군사를 모집하고 말을 사서 다 쓸어버립시다! 차라리 다시 양산박으로 돌아가 즐겁게 지내는 게 낫지, 이 간신들 밑에서 수모를 당하느니 훨씬 낫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아우야, 잠시만 참게. 다른 방도가 있네."

알고 보니 그 환영 잔치 술에는 이미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약이 들어 있었다. 그날 밤 이규가 술을 마셨으니, 다음 날 배를 띄워 그를 배웅하게 되었다. 이규가 말했다.

"형님, 언제 의병을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때 맞춰 저도 군사를 일으켜 마중 나가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아우야, 나를 원망하지 말게! 며칠 전 조정에서 보낸 사명이 내게 약주를 내려 마시게 했으니, 나는 머지않아 죽을 운명이라네. 나는 평생 '충의'라는 두 글자를 지켜왔고, 단 한 점의 거짓도 품지 않았네. 오늘 조정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하니, 조정이 나를 저버릴지언정 나의 충심은 조정에 어긋나지 않으리라. 내가 죽고 나면 자네가 반란을 일으켜 양산박의 '대천행도(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함)'라는 충의의 이름을 망칠까 두렵네. 그래서 자네를 불러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이라네. 어제 마신 술에는 이미 서서히 퍼지는 약이 들어있어, 윤주로 돌아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네. 자네는 죽은 뒤에 이곳으로 오게나. 초주 남문 밖에 료아와라는 곳이 있는데, 풍경이 양산박과 다를 바 없다네. 그곳에서 자네의 영혼과 내가 만나세. 내가 죽으면 시신은 반드시 이곳에 묻을 것이니, 이미 내가 정해두었네!"

말을 마친 송강은 눈물을 비 오듯 흘렸다. 이규 역시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만하십시오, 그만! 살아생전 형님을 모셨으니, 죽어서도 형님의 부하인 한 명의 졸개로 남겠습니다!"

이규는 말을 마치고 눈물을 쏟아내다가 문득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송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배에서 내렸다. 윤주로 돌아가자마자 과연 약기운이 퍼져 이규는 숨을 거두었다. 이규는 죽기 직전 부하에게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거든 내 관을 꼭 초주 남문 밖 료아와로 가져가서 형님과 함께 묻어다오."

유언을 남기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부하들은 관을 준비하여 정성껏 담은 뒤, 그 유언을 저버리지 않고 관을 메고 길을 떠났다.

한편 송강은 이규와 헤어진 뒤 슬픔과 상실감에 젖어, 오용과 화영을 그리워했으나 끝내 만나지 못했다. 그날 밤 약기운이 퍼지며 죽음이 임박하자, 그는 곁을 지키던 부하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내 말대로 하게나. 내 관을 이곳 남문 밖 료아와 고원 깊은 곳에 묻어다오. 그리하면 반드시 자네들의 은덕을 잊지 않으리라. ……부디 내 유언을 지켜주게."

말을 마친 송강은 숨을 거두었다. 송강의 부하들은 관을 준비하여 예법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초주의 관리들도 그의 유언을 따라 그 뜻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친솔(親隨, 곁에서 모시는 사람)들과 함께 본주의 관리와 아전, 노인과 아이들까지 모두 나서서 송공명의 관을 료아와로 운구하여 장사 지냈다. 며칠 뒤, 이규의 관 또한 윤주에서 도착하여 송강의 묘 곁에 나란히 묻혔으니, 이 또한 말할 것도 없다.

한편, 고향에서 병을 앓고 있던 송청은 가족들이 돌아와 형 송강이 초주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송청은 자신이 운성에서 병중이라 직접 가서 장송(전송)하지 못했다. 그러다 형의 묘가 본주 남문 밖 료아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족들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고 무덤을 살펴 정성껏 보수하도록 한 뒤, 가족들이 송청에게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하였으니, 이 또한 말할 것도 없다.

한편 무승군 승선사 군사 오용은 부임한 뒤로 줄곧 마음이 즐겁지 않았고, 송강과 나누었던 두터운 정을 늘 그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허망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밤이 되었다. 꿈속에서 송강과 이규 두 사람이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군사님, 우리는 충의를 근본으로 삼아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였으니, 마음속으로 천자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네. 그런데 이제 조정에서 약주를 내려주어 죄 없이 죽게 되었네. 우리가 죽은 뒤에는 초주 남문 밖 료아와 깊은 곳에 묻혀 있을 것이니, 군사께서 예전의 정을 생각하신다면 부디 무덤을 찾아와 한 번 살펴봐 주시게."

오용이 자세한 사정을 물으려는데, 문득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저 덧없는 꿈일 뿐이었다. 오용은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앉은 채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이 꿈을 꾼 뒤로 그는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다음 날, 오용은 곧장 짐을 챙겨 초주로 향했다. 부하들도 데려가지 않고 홀로 서둘러 달려갔다. 초주에 도착하니 과연 송강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그곳 사람들은 모두 송강의 죽음을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

었다. 오용은 제사 절차를 마련하여 남문 밖 료아와까지 갔고, 마침내 무덤을 찾아내 송강과 이규를 위해 제물을 차렸다. 이어 무덤 앞에서 손으로 봉분을 어루만지며 통곡하며 말했다.

"인형, 영혼이시여, 부디 굽어살펴 주소서. 저 오용은 시골 마을의 글 공부하는 선비로서 처음에는 조개를 따랐고, 나중에 인형을 만나 목숨을 구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형님의 덕분입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 죽으면서 꿈에 나타나 저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형제로서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이 좋은 꿈을 품고 저 또한 구천에서 형님과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을 마친 오용은 서럽게 울었다.

오용이 막 스스로 목을 매려는데, 화영이 배 위에서 무덤 앞으로 급히 달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오용이 물었다.

"현제는 응천부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송 형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았는가?"

화영이 대답했다.

"각자 임지로 흩어진 뒤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늘 형님들의 정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다 밤에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송강 형님과 이규가 나타나 이 아우의 옷자락을 붙잡고는, 조정에서 내려준 약주를 마시고 독살당해 지금 초주 남문 밖 료아와 높은 곳에 묻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님들께서 예전의 정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부디

무덤 앞으로 와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일을 다 뒤로한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나 또한 기이한 꿈을 꾸었으니 현제와 다를 바가 없네. 그래서 이곳에 왔네. 이제 현제가 여기까지 왔으니 참으로 다행이구만. 나 오용은 송강의 은혜와 의리를 차마 잊지 못하고 그 정을 갚을 길이 없어, 차라리 이곳에서 목을 매 죽어 내 혼백이 인형과 함께 모이게 하려던 참이었네. 사후의 일은 현제에게 맡기겠네."

화영이 말했다.

"군사님께서 이미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면, 이 아우도 마땅히 뒤를 따르겠습니다. 저 또한 인형과 함께 한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생사를 같이할 만큼 깊은 우애를 나눈 사이였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붉은 마디풀 웅덩이에서 꿈이 길게 이어지니,
화영과 오용은 각자 슬픔에 잠겼네.
한 가슴에 뜨거운 의리가 가득한 이들이,
어찌 전횡의 죽음을 홀로 차마 보겠는가?

오용이 말했다.

"나는 현제가 내가 죽은 뒤에 나를 이곳에 묻어주기를 바랐네. 그런데 자네는 어찌하여 자네까지 이런 일(자결)을 하려 하는가?"

화영이 대답했다.

"송 형님의 인의를 차마 잊을 수 없고, 그 은혜 또한 잊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양산박에 있을 때 이미 큰 죄인이었으나 다행히 죽지 않았습니다. 천자께서 죄를 사면하시고 초안(招安)해 주신 덕분에 북으로 치고 남으로 정벌하며 공을 세웠고, 이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이미 의심을 품었으니 반드시 우리의 허물을 찾아내려 할 것입니다. 만약 간신들의 계략에 빠져 억울하게 처형당한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인형을 따라 황천에서 함께 죽는다면, 세상에 맑은 이름만 남길 수 있고 시신 또한 반드시 무덤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용이 말했다.

"현제, 내 말을 듣게. 나는 이미 홀몸이고 처자식도 없으니 죽는 것이 무엇이 대수겠나? 자네는 지금 어린 자식과 아내가 있는데, 그들을 무엇에 의지하게 하려는가?"

화영이 대답했다.

"그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먹고살 만큼의 재산은 충분히 남겨두겠습니다. 아내의 집안도 알아서 돌볼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바탕 크게 통곡하더니, 나란히 나무에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배 위에서 기다리던 부하들이 관리가 나오지 않자 무덤 앞으로 가보니, 오용과 화영이 나무에 매달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하들은 황급히 이 사실을 고을 관리들에게 보고했고, 관리들은 관을 준비하여 료아와의 송강 무덤 곁에 묻어주었다. 마치 동서로 나란히 놓인 네 개의 봉분 같았다. 초주의 백성들은 송강의 어진 덕과 충의를 기리며 사당을 세웠고, 사계절 내내 제사를 지내며 기도하니 그 정성에 응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송강이 료아와에서 신령스럽게 나타나 구하는 것마다 응답한다는 이야기는 차치하고, 한편으로는 동경 내원에서 황제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황제는 송강에게 약주를 내린 뒤로 마음속에 계속 의심이 생겼고, 송강의 소식도 알 길이 없어 늘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가득했다. 게다가 매일 고구와 양전이 사치스럽게 생활하며 공을 세운 이들을 시기하고, 충직한 이들의 길을 막아 해치려 한다는 말로 현혹하니 더욱 그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가 내궁에서 한가로이 놀다가 문득 이사사가 생각났다. 황제는 두 명의 소황문(小黃門, 내관)을 데리고 지하 통로를 통해 이사사의 후원으로 직행하여 방울을 흔들었다. 이사사는 황급히 황제를 맞이하여 침실 안으로 모시고 앉았다. 황제는 앞뒤 문을 모두 닫게 한 뒤 말했다.

"과인이 근래 몸이 조금 좋지 않아 '신의' 안도전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수십 일 동안이나 애경(愛卿)을 만나지 못해 그리움이 컸소. 오늘 이렇게 그대를 만나니 짐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구려!"

이사사가 아뢰었다.

"폐하의 각별한 사랑을 입으니, 천한 몸으로서 감격스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방 안에 술과 안주를 차려놓고 황제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움을 나누었다. 술을 몇 잔 마셨을까, 황제가 점차 나른해지며 졸음이 밀려왔다. 촛불이 환하게 빛나던 그때, 갑자기 방 안에 찬바람이 한 차례 몰아치더니 황제 눈앞에 황색 옷을 입은 한 사내가 나타났다. 깜짝 놀란 황제가 일어나 물었다.

"그대는 누구길래 감히 여기까지 들어왔는가?"

황색 옷을 입은 사내가 아뢰었다.

"신은 양산박 송강의 부하인 '신행태보' 대종이옵니다."

황제가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곳에 왔는가?"

대종이 대답했다.

"저의 형님 송강께서 바로 곁에 계시니, 폐하께 수레를 준비하시어 함께 가시기를 청하옵니다."

황제가 말했다.

"과인의 수레를 가볍게 부리며 어디로 가겠다는 말이냐?"

대종이 말했다.

"아주 맑고 아름다운 곳이 있으니, 부디 폐하께서 유람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황제는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대종을 따라 후원을 나섰다. 마차와 말 등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대종은 황제에게 말을 타고 가시라고 청했다.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귀에는 바람과 비 소리가 들려오더니, 마침내 어느 곳에 다다르니 다음과 같았다.

아득히 펼쳐진 물안개와 흐릿한 구름 낀 산.
해와 달의 밝은 빛은 보이지 않고, 오직 물과 하늘이 한 빛깔이라.
붉게 물든 여뀌꽃이 눈에 가득하고, 푸릇푸릇한 갈대 잎은 섬 하나를 덮었네.
기러기 떼는 짝을 지어 모래톱 끝에서 슬피 울고,
짝지은 할미새들은 지친 듯 시든 연잎 곁에서 잠드네.
옹기종기 모인 서리 맞은 단풍은 떠난 이의 눈물방울 같고,
성긴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는 원망 섞인 여인의 미간처럼 일그러지네.
희미한 달과 차가운 별이 비치는 긴 밤의 풍경, 서늘한 바람과 찬 이슬 내리는 깊은 가을날.

황제는 말 위에서 아무리 보아도 그 광경을 다 헤아릴 수 없어 대종에게 물었다.

"이곳이 대체 어디냐? 어찌하여 과인을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대종이 산 위의 험한 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폐하, 저 길을 따라 올라가시면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황제는 말을 몰아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세 번의 험한 고개를 지나 세 번째 고개 앞에 이르렀을 때, 백여 명의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도포를 걸치고 갑옷을 갖추었으며, 가죽 띠를 두르고 금빛 투구와 갑옷을 입은 장수들이었다. 황제는 크게 놀라 연신 물었다.

"그대들은 모두 누구인가?"

그러자 맨 앞에 선 이가 봉황 날개 모양의 금빛 투구에 비단 도포와 금빛 갑옷을 입고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신은 양산박 송강이옵니다."

황제가 말했다.

"과인이 이미 그대를 초주의 안무사로 임명하였거늘, 어찌하여 이곳에 있는가?"

송강이 아뢰었다.

"신 등은 폐하를 충의당으로 모시어, 신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정을 상세히 고하고자 하옵니다."

황제는 충의당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당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당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욱한 안개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엎드려 절하고 있었다. 황제는 망설이며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때 우두머리인 송강이 계단을 올라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황제가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는가?"

송강이 대답했다.

"신 등은 비록 일찍이 천군에 맞서 싸웠으나, 본래 충의를 지켜왔으며 조금도 딴 마음을 품은 적이 없나이다. 폐하의 초안 명령을 받든 후에는 먼저 요나라 군사를 물리치고 다음으로 삼적을 평정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형제와 동료 열 명 중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나이다. 신은 폐하의 명을 받들어 초주를 지키게 되었고, 부임한 이래 군사와 백성들에게서 물 한 모금 쌀 한 톨조차 사사로이 받은 일이 없으니, 이는 천지가 다 아는 사실이옵니다. 이제 폐하께서 신에게 약주를 내려 마시게 하셨으니, 신은 죽어도 한이 없나이다. 다만 이규가 원한을 품고 딴 마음을 품을까 염려되어, 특별히 사람을 윤주로 보내 이규를 불러온 뒤 직접 약주를 마시게 하여 죽게 하였나이다. 오용과 화영 또한 충의를 위해 이곳에 왔으며, 신의 무덤 곁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나이다. 우리 네 사람은 모두 초주 남문 밖 료아와에 함께 묻혔나이다. 마을 사람들이 가엾게 여겨 무덤 앞에 사당을 세웠나이다. 이제 신 등의 혼령이 흩어지지 않고 이곳에 모여 폐하께 고하나니, 평생의 사정을 말씀드려 처

음과 끝이 다름없음을 밝히고자 하옵니다. 부디 폐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황제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말했다.

"과인이 친히 천사를 파견하고 황금 봉인된 어주(御酒)를 직접 내렸거늘, 대체 누가 약주를 바꿔치기하여 그대에게 준 것이란 말이냐?"

송강이 말했다.

"폐하께서 그 사신에게 물어보시면 간신들의 죄악이 어디서 나왔는지 곧 알게 되실 것이옵니다."

황제는 삼관의 진영이 웅장한 것을 보고 참담한 심정으로 물었다.

"이곳은 어디이며, 그대들은 어찌하여 이곳에 모여 있는가?"

송강이 대답했다.

"이곳은 신 등이 예전에 의기를 모았던 양산박이옵니다."

황제가 다시 물었다.

"그대들은 이미 죽었으니 마땅히 저세상으로 가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이곳에 모여 있는가?"

송강이 말했다.

"대제(大帝)께서 신 등의 충의를 가엽게 여기시어, 옥제의 명을 내려 신들을 양산박의 도토지(都土地, 지역 신령)로 봉하셨나이다. 장수들이 이미 이곳에 모였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특별히 대종을 보내 만승의 주인인 폐하를 모셔와 이곳 양산박으로 오시게 하여 평소의 사정을 간곡히 고하게 한 것이옵니다."

황제가 말했다.

"그대들이 어찌하여 궁궐로 찾아와 과인에게 직접 고하지 않았는가?"

송강이 말했다.

"신은 어두운 곳에 있는 혼백이라 어찌 감히 봉황이 머무는 궁궐에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이제 폐하께서 궁궐을 벗어나 이곳까지 친히 모셔주셨나이다."

황제가 말했다.

"과인이 이곳을 구경해도 되겠는가?"

송강 등이 다시 절하며 은혜에 감사했다. 황제가 당에서 내려오다 문득 당 위의 편액을 보니 '충의당'이라는 세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황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송강의 뒤에서 이규가 나타났다. 이규는 양손에 도끼를 들고 매서운 목소리로 외쳤다.

"황제, 황제! 어찌하여 네 명의 역적 말을 믿고 우리 목숨을 해치려 했느냐!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 바로 원수를 갚아주마!"

흑선풍 이규가 말을 마치자마자 쌍도끼를 휘두르며 황제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황제는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저 꿈이었을 뿐이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눈을 뜨니 촛불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사사 또한 아직 잠들지 않은 상태였다. 황제가 물었다.

"과인이 방금 어디에 있었느냐?"

이사사가 아뢰었다.

"폐하께서 잠시 베개를 빌려 잠드셨나이다."

황제는 꿈속에서 겪은 신비로운 일들을 이사사에게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이사사가 다시 아뢰었다.

"범인 중에서도 곧은 사람은 반드시 신령이 되는 법입니다. 혹 송강이 정말로 죽었기에, 그가 신령이 되어 나타나 폐하께 꿈으로 전한 것이 아니겠나이까?"

황제가 말했다.

"과인이 내일 반드시 이 일을 물어보겠다. 만약 그가 정말 죽었다면, 반드시 사당을 세워주고 열후(烈侯)로 봉하리라."

이사사가 아뢰었다.

"만약 폐하께서 정말로 봉하신다면, 폐하께서 공신들의 덕을 저버리지 않으심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옵니다."

황제는 그날 밤 탄식을 금치 못했다.

다음 날 황제가 조정에 나아가 편전에서 신하들을 모으도록 성지를 내렸다. 채경, 동관, 고구, 양전 등은 황제가 송강의 일을 물을까 두려워하여 이미 궁궐을 빠져나간 뒤였다. 그곳에는 숙태위 등 몇몇 대신만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황제가 숙태위에게 물었다.

"그대는 초주의 안무사 송강에 관한 소식을 알고 있는가?"

숙태위가 아뢰었다.

"신은 평소 송 안무사의 소식을 알지 못하였으나, 어젯밤 매우 기이한 꿈을 꾸었나이다."

황제가 말했다.

"그대가 기이한 꿈을 꾸었다면 과인에게 고하라."

숙태위가 아뢰었다.

"신이 꿈을 꾸니, 송강이 갑옷을 갖춰 입고 직접 신의 사저로 찾아왔나이다. 그는 투구와 갑옷을 정제한 모습이었으며, 폐하께서 내려주신 약주를 마시고 죽게 된 사정을 신에게 호소하였나이다. 초주 사람들이 그의 충의를 가엾게 여겨 초주 남문 밖 료아와에 묻어주고 사당을 세워 사계절 내내 제사를 지내고 있었나이다."

황제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과인이 꾼 꿈과 똑같구나."

이어 숙태위에게 다시 분부했다.

"그대는 심복을 보내 초주로 가서 이 일을 자세히 조사하게 하고, 사실 여부를 즉시 보고하도록 하라."

숙태위가 대답했다.

"예, 명을 받들겠나이다."

숙태위는 성지를 받들고 궁궐을 나섰다. 사저로 돌아온 그는 즉시 심복을 초주로 보내 송강의 소식을 알아보게 하였으니, 그 뒤의 일은 말할 것도 없다.

다음 날 황제가 문덕전에 앉아 있으니, 고구와 양전이 곁에 있었다. 황제가 성지를 내려 물었다.

"너희들이 조정의 일을 살피고 있으니, 최근 초주의 송강에 관한 소식을 알고 있느냐?"

두 사람은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각자 모르는 일이라 답했다. 황제는 마음속에 의구심이 가시지 않아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다.

한편, 숙태위가 보낸 심복이 이미 초주에 가서 소식을 알아보고 돌아왔다. 그는 송강이 황제가 하사한 약주를 마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상세히 보고했다. 송강이 죽은 뒤 초주 사람들이 그의 충의를 가엾게 여

겨, 지금은 초주 료아와의 높은 언덕 위에 그를 묻어주었다고 했다. 또한 오용, 화영, 이규 세 사람도 한곳에 나란히 묻혔다. 백성들이 이를 슬프게 여겨 무덤 앞에 사당을 짓고 봄과 가을마다 제사를 지내며 정성껏 모시고 있는데, 선비나 백성 할 것 없이 기도를 올리면 그 영험함이 매우 지극하다고 전했다. 숙태위는 이 말을 듣고 황급히 심복을 안으로 들여보낸 뒤, 이 일을 천자에게 보고했다. 황제는 그 말을 듣고 슬픔을 금치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조회에서 황제는 크게 노하여 백관들 앞에서 고구와 양전을 꾸짖었다.

"나라를 망치는 간신들아, 과인의 천하를 어지럽히는구나!"

두 사람은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빌었다. 그러자 채경과 동관도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사람의 생사는 모두 하늘이 정한 법입니다. 조정에서 아직 공식적인 문서를 받지 못했기에 감히 함부로 아뢸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에야 초주에서 조정으로 보고 문건이 도착하여, 저희가 막 아뢰려던 참이었습니다……."

결국 황제는 네 명의 간신이 교묘하게 말을 돌려 가로막는 바람에 그들에게 죄를 묻지 못했다. 황제는 즉시 고구와 양전을 물러가게 한 뒤, 약주를 가져온 사신을 추격하여 잡아 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천사는 초주를 떠나 돌아오던 길에 이미 죽고 말았다.

숙태위는 다음 날 편전에서 황제를 뵙고, 송강이 충의를 지켜 신령스럽게 나타난 일을 다시 한번 아뢰었다. 황제는 송강의 충의를 기려 그의 친동생인 송청을 불러 송강의 작위를 이어받게 하려 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송청은 이미 풍질(風疾, 풍병)을 앓고 있어 관직을 맡을 수 없었다. 그는 상소를 올려 사양하며, 그저 운성에서 농부로 살기를 원한다고 청했다. 황제는 그의 효심을 가엾게 여겨 돈 십만 관과 땅 삼천 무를 내려 그의 가족을 돌보게 하고, 훗날 자식이 생기면 조정에서 등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훗날 송청은 아들 송안평을 낳았는데,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비서학사까지 올랐으니 이는 뒷이야기이다.

한편, 황제는 숙태위가 아뢸 내용을 바탕으로 친히 성지를 내려, 송강을 '충렬의제영응후'로 봉하고 양산박에 돈을 내려 사당을 세우게 하였다. 또한 큰 사당을 짓고 송강을 비롯하여 나라를 위해 죽은 여러 장수의 신상을 정성껏 만들게 하였다. 더불어 전각의 현판에 '정충지묘'라는 글자를 황제가 직접 써서 내려주었다. 제주(濟州)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양산박에 사당을 세웠는데, 그 모습은 이러하다.

금못을 박은 붉은 문과 옥기둥을 세운 은빛 문, 화려하게 조각된 대들보와 들보, 붉은 처마와 푸른 기와가 어우러져 있다. 초록빛 난간은 처마와 창문을 낮게 감싸 돌고, 수놓은 휘장과 천막은 보석 같은 창살 위로 높이 걸려 있다. 다섯 칸 규모의 대전 중앙에는 황제가 내린 금색 글씨의 현판이 걸려 있고, 양옆의 긴 복도에는 화려한 그림들이 아침과 저녁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푸른 회화나무 그림자 사이로 층층이 쌓인 문은 높은 구름에 닿을 듯하고, 푸른 버드나무 그늘 속 정충지묘는 하늘 끝까지 솟아 있다. 황금빛 전각 위에는 송강을 비롯한 천강성 서

열 36명의 정장(正將) 신상이 모셔져 있고, 양옆의 복도 안에는 주무를 우두머리로 하는 지살성 72명의 장군 신상이 줄지어 서 있다. 문 앞을 지키는 시종 신상들은 용맹하고 사나운 기세이며, 부하 신병들은 용맹무쌍하다. 솜씨 좋은 장인이 종이 화로를 정교하게 만들어 누각을 쌓으니, 사계절 내내 종이와 비단을 태우며 제사를 지낸다. 높이 솟은 깃대에는 긴 깃발이 휘날리고, 마을 사람들은 모여들어 제사를 올린다. 백성들은 정성스레 신령들에게 예를 갖추고, 제사 의례를 통해 충렬한 영웅들을 기린다. 만년 동안 끊이지 않는 향불은 끝이 없고, 천 년의 공훈은 역사에 길이 남으리라.

또한 절구 한 수가 더 있으니, 시로 이르되,

하늘의 별들은 모두 하늘나라로 돌아갔고
땅의 기운들은 다시 땅속으로 스며드네
천 년 동안 신이 되어 사당에서 제를 받으니
만 년 동안 역사 속에 영웅으로 남으리라

그 후로 송강의 영험함이 널리 드러나, 백성들이 사계절 내내 끊임없이 제사를 올렸다. 양산박에서는 바람을 빌면 바람이 불고, 비를 빌면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초주의 료아와 또한 신령함이 나타나, 그곳 사람들은 대전을 다시 세우고 양옆에 긴 복도를 덧붙인 뒤 황제에게 현판을 내려달라고 청하였다. 대전에는 서른여섯 명의 신상을 모시고, 양옆의 복도에는 일흔두 명의 장군 신상을 세웠다. 해마다 정성스레 제사를 지내며 만백성이 머리를 조아려 예를 갖추니, 지금까지

도 그 자취가 남아 있다. 사관이 송강과 장수들을 애도하며 지은 두 수의 애가(哀歌)가 있으니, 시로 이르되,

숨고 나아가는 처신을 하늘만 원망하지 마라,
한신과 팽월도 멸족당해 이미 가련하였거늘.
한마음으로 나라에 보답하려 적의 선봉을 꺾던 날이여,
백 번 싸워 요나라를 사로잡고 방랍을 깨뜨리던 해로다.
살요(煞曜)와 천강(罡星)의 별들도 이제는 다 스러졌건만,
참소하는 신하와 역적의 무리는 여전히 그대로구나!
짐독(鴆毒)이 황천에 묻힐 줄 진작 알았더라면,
범려가 치이(鴟夷)로 이름 바꿔 배 타고 떠난 일을 본받았으련만.

살아서는 솥을 늘어놓고 먹는 부귀를 누리고 죽어서는 제후에 봉해지니,
사내로서 평생의 뜻을 이미 다 이루었구나.
밤이면 철갑 말이 울고 산에 뜬 달이 밝아오며,
가을이면 검은 원숭이 울부짖고 저녁 구름이 짙어지네.
그가 나아갔는지 물러났는지 참된 자취를 굳이 찾을 것 없으니,
도리어 충량(忠良)한 이들이 이야깃거리로 남은 것이 기쁘구나.
천고의 료아와(蓼兒洼), 옥 같은 인재를 묻은 땅이여,
지는 꽃과 우는 새가 모두 시름에 얽혀 있구나.